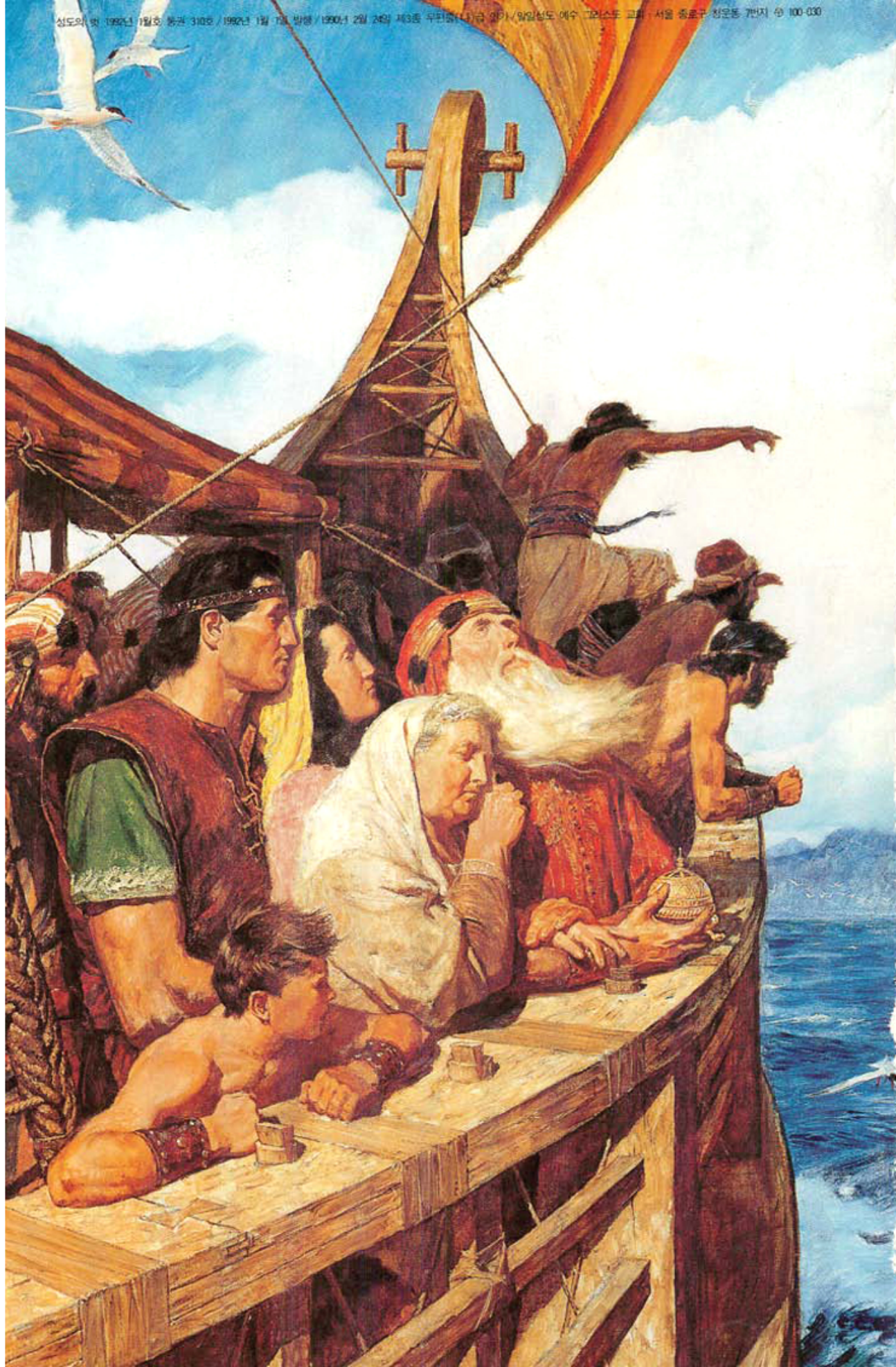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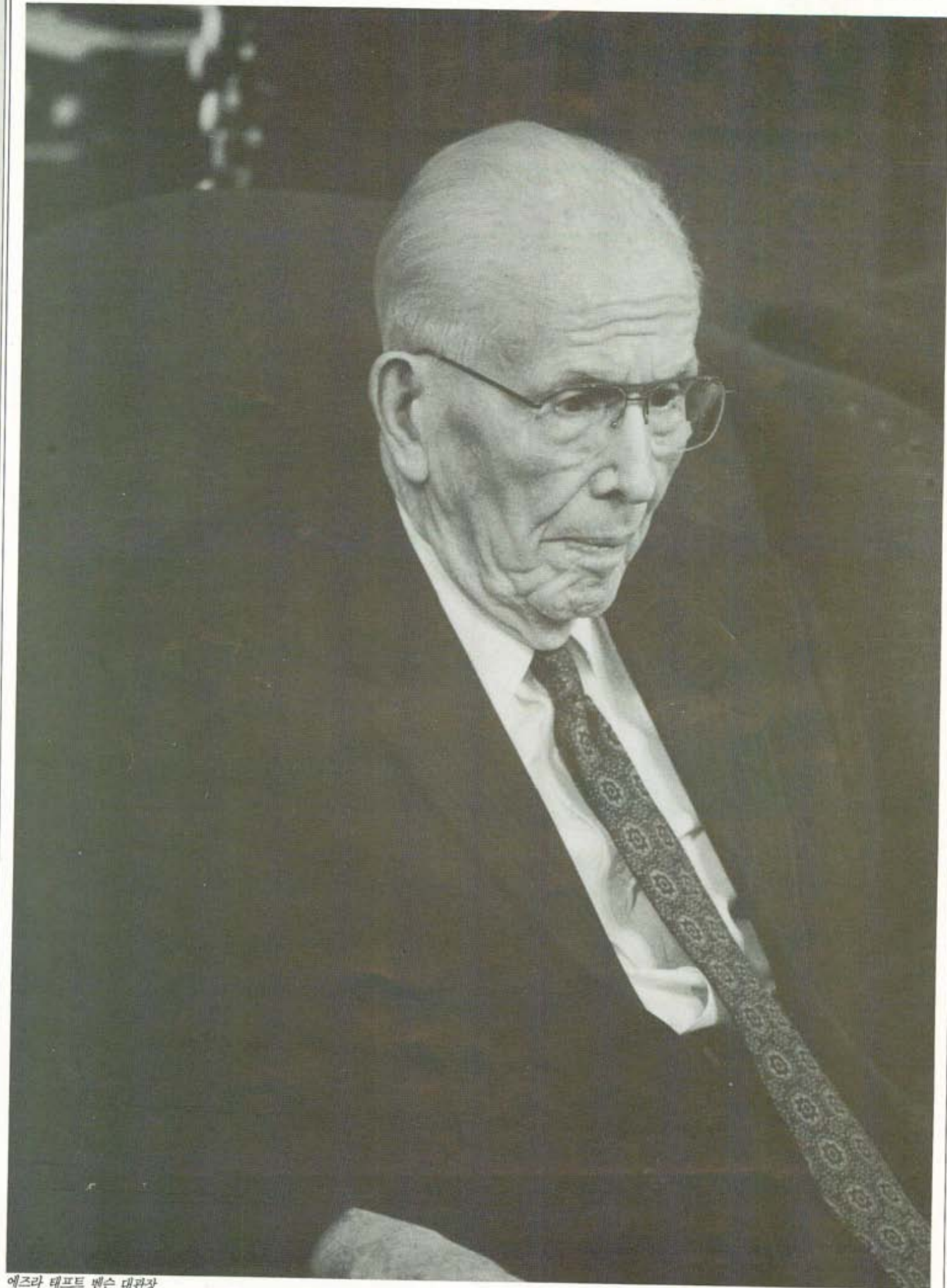


성도의 빛 < 97일성도 >

말씀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에즈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제161차 반연차 대회 보고

1991년 10월 5~6일,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 템플 스퀘어의 태버네클에서
행해진 말씀과 대회 진행 절차

교회 회원들은 교회의 1991년 10월 반연차 대회의 토요일 오전 모임과 일요일 오전 모임에 참석한 에스라 테프트 벤슨 대관장님을 보고 기쁨을 감추지 못하였다.

대관장단 제1보좌인 고든 비 힝클리 부대관장과 제2보좌인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이 모임을 사회했으며 대관장단을 대신하여 여러 분야에 대하여 권고의 말씀을 하였다.

힝클리 부대관장은 일요일 오전 모임에서 이렇게 말씀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추종자로서 우리 삶의 사명은 다른 사람들을 구해 주는 사명이어야 합니다. 우리 주위에는 집 없이 헤매는 사람들과 배고프고 빈곤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도움을 주었지만 매일 매일 연명하는 그들을 더욱 더 도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춘화와 부도덕과 마약에 빠진 사람들에게도 영향력을 미쳐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너무 중독된 나머지 자신의 운명을 통제하는 힘을 상실했습니다. 그들은 불쌍하고 패망한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아 구제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학대받고 슬피 우는 부인과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마음을 상하게 하고



파멸을 가져다 주는 파괴적인 행동으로부터 구제될 수 있는 아버지들도 있습니다.”

“이 모임에서 몬슨 부대관장은 염려하고 있는 한 지방 관사의 말을 인용하며 이와 관련된 주제에 대해 강조하였다. “어린이들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성적 학대의 건수가 놀랄 만큼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법원은 이 불쾌한 행동에 대한 보고로 가득 차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같이 가증스럽고 비열한 행동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어린이들에 대한 그러한 취급을 가장 혹독한 말로 비난합니다. 어린이가 구조되고 양육되며 사랑받으며 고침을 받도록 하십시오. 학대자를 재판에 회부하여 그의 행동에 대해 처벌을 받게 하며 그로 하여금 그것은 사악하고 악마 같은 행동을 그만두도록 전문적인 치료를 받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이러한 행동을 알고도 그것을 조절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심각한 문제에 놓이게 되며 죄에 동참하는 것이 되며 형벌의 일부를 받게 될 것입니다.

대회의 몇 가지 행정적인 조치가 토요일 오후 모임에서 취해졌다. 지난 4월 연차 대회 이후에 칠십인 제이 정원회의 회원으로 부름받은 한국의 한 인상 장로와 유타주의 스티븐 디 네이들드 장로, 하와이의 샘 케이 시마부꾸로 장로가 지지받았다. 5년 반 동안의 봉사를 “훌륭하고, 충실하게, 이기심이 없이 헌신적으로 끝마친 에이치 벌란 앤더슨 장로, 조지 아이 캐넌 장로, 프랜시스 엠 기번즈 장로, 가드너 에이치 러셀 장로가 칠십인 제이 정원회에서 해임되었다.

또한 이 해임으로 인해 본부 청남 회장단과 주일학교 회장단의 보좌로 봉사하게 될 두 명의 형제가 지지받았다.

병석에 있는 본 제이 패더스토운 장로와 헬베시오 마틴스 장로를 제외한 모든 총관리 역원들이 대회에 참석하였다.

대회의 진행 과정은 북반구의 전지역에 영어와 기타 15개 언어로 방송되었으며, 생중계 및 녹화 중계가 불가능한 지역의 단위 조직에 대회 비디오 테이프가 배부되었다. * -편집인-

성도의 빛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공식적인 한국어판 출판물임. 본 잡지는 한국어 외에 다음 언어로 출판됨.

월간-네덜란드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독일어, 사모아어, 스웨덴어, 스페인어, 영어, 이탈리아어, 일본어, 중국어, 통가어, 포르투갈어, 프랑스어, 및 핀란드어. 격월간-인도네시아어, 타이어, 타히티어. 제간-아이슬란드어.

대관장단: 에즈라 테프트 벤슨, 고든 비 힐클리, 토마스 에스 몬슨

십이사도 평의회: 하워드 더블류 헌터, 보이드 케이 패커, 마빈 제이 애쉬튼, 엘 톨 페리, 데이비드 비 헤이트, 제임스 이 파우스트, 닐 에이 맥스웰, 러셀 엠 넬슨, 앨런 에이치 옥스, 엠 러셀 벨라드, 조셉 비 위스린, 리차드 지 스코트

고문: 렉스 디 피네가, 찰스 디디에이, 존 알 래스터, 로버트 이 웰즈

봉 권: 제31권, 제29권, 제1호

등 록: 1967년 10월 5일, 라-3166

발행일: 1992년 1월 1일(월간지)

발행인: 한 인 상

편집인: 홍 무 광

발행소: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7번지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616호

·우체국 온라인 010041-0024704-11

·은행 지로 번호 3001543

인쇄인: 영 인쇄 주식회사 이 세 용

© 1992년 재단법인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관련 소유

성도의 빛 1년 구독료는 5,000원 입니다. 권당

500원이며, 성도의 빛 해외 구독일 경우 항공

우편료는 1지역(일본 등) 12,000원,

2지역(필리핀, 중국 등) 16,200원, 3지역(중동 등)

23,200원, 4지역(중남미 등) 26,000원이며

우송료는 독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주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소속

와드/지부와 카드 번호를

출판부(☎ 738-6832, 청운동)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The SONGDO-UI POT(ISSN 1044-3444) is published monthly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ast North Temple, Salt Lake City, Utah 84150.

Second-class postage paid at Salt Lake City, Utah.

Subscription price \$9.00 a year. \$1.00 per

single copy. Thir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When ordering a change,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changes cannot be made unless both the old

address and the new ar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and queries to

Church Magazines,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ah 84150, United

States of America Subscription information

telephone number 801-240-2947.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SONGDO-UI POT at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ah 84150, United

States of America

© 1991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International Magazine 91993 320

Printed in Korea 1/92

색인

아래의 주제는 다음 연사의 말씀에 언급되어 있다.

학대-힝클리(신권 모임), 몬슨(일요일 오전)

역경-코포드, 헤이트, 디디에이, 애쉬튼, 기번즈, 벨라드

순결-위스린, 헤이트

성악-로하스

근면-벤슨

모범-피네가, 몬슨(신권 모임),

힝클리(신권 모임), 넬슨, 라이트, 벨라드

신앙-브루어튼, 캐넌, 위스린, 헌터,

독시, 맥스웰, 파우스트, 피네가,

뉴엔슈안더, 로하스, 넬슨, 애쉬튼,

앤더슨, 러셀, 스코트, 오까자끼, 맬런,

벨라드

가족-위스린, 몬슨(일요일 오전),

앤더슨, 러셀, 몬슨(일요일 오후),

벨라드

신회-위스린

경건-넬슨

성장, 교회-힝클리(신권 모임)

행복-캐넌, 옥스, 오까자끼

성신-위스린, 패커, 독시

희망-브루어튼, 클라이드

겸손-뉴엔슈안더, 넬슨

고결-캐넌, 헤이트

예수 그리스도-힝클리(토요일 오전),

백맨, 브루어튼, 위스린, 독시, 코포드,

피네가

요셉 스미스-벨라드

심판-코포드

친절-넬슨

지식-뮤튼, 넬슨, 디디에이

지도력-몬슨(신권 모임)

그리스도의 빛-브루어튼

사랑-헌터, 피네가, 힝클리(신권 모임),

힝클리(일요일 오전), 넬슨, 애쉬튼,

클라이드, 기번즈, 오까자끼, 라이트

결혼-힝클리(신권 모임)

자비-옥스

선교 사업-백맨, 위스린, 헌터, 다빌라,

뮤튼, 뉴엔슈안더, 몬슨(신권 모임),

러셀

음악-패커, 독시

순종-브루어튼, 위스린, 독시, 코포드,

피네가, 뉴엔슈안더, 로하스, 넬슨,

페리, 스코트, 몬슨(일요일 오후)

의식-로하스

인내-넬슨

개척자-힝클리(일요일 오전)

기도-패커, 디디에이, 기번즈, 스코트,

힝클리(여성 대회)

준비-헤이트, 넬슨, 페리

신권-헤이트, 피네가, 로하스, 몬슨(신권

모임)

예언자-힝클리(토요일 오전), 벨라드,

몬슨(일요일 오후)

회개-캐넌, 다빌라, 맥스웰,

힝클리(신권 모임), 옥스

부활-백맨, 위스린, 옥스

게시-패커, 독시, 기번즈

경건함-패커

의로움-독시, 넬슨, 디디에이, 앤더슨,

스코트, 맬런

안식일-파우스트, 애쉬튼

성찬식-패커, 독시

경전-독시, 뉴엔슈안더, 페리,

클라이드

자존심-캐넌, 맬런

자립-위스린, 페리

봉사-캐넌, 피네가, 몬슨(신권 모임),

클라이드, 러셀

태버나클 합창단-넬슨

가르침-몬슨(일요일 오전), 앤더슨

유혹-헤이트

간증-힝클리(토요일 오전), 벨라드,

브루어튼, 패커, 다빌라, 뮤튼, 디디에이,

러셀, 라이트, 맬런

단합-헌터, 클라이드, 오까자끼

미덕-넬슨

복지-위스린, 페리

여성-벨라드, 힝클리(여성 대회)

지혜의 말씀-위스린, 넬슨

일-캐넌, 페리

예배-독시

청소년-몬슨(일요일 오전)

목차

- 1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제161차 반연차 대회 보고

토요일 오전 모임

- 4 그리스도는 온 인류의 빛입니다
고든 비 힝클리 부대관장
- 5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족
엠 러셀 벨라드 장로
- 8 예수 그리스도
로버트 엘 백맨 장로
- 11 빛
테드 이 브루어튼 장로
- 14 영원 속의 오늘
조지 아이 캐넌 장로
- 17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의 열매
조셉 비 워스런 장로
- 20 복음-온 세상의 신앙
하워드 더블류 헌터 회장

토요일 오후 모임

- 22 교회 역원 지지
고든 비 힝클리 부대관장
- 24 계시는 경전을 통해서 옴
보이드 케이 팩커 장로
- 27 개종의 과정
출리오 이 다빌라 장로
- 29 작고 고요한 음성
그레이엄 더블류 독시 장로
- 31 최후의 유산... 비유
크리 엘 코포드 장로
- 33 "이제 너희가 알게 되리라"
조셉 시 뮤른 장로
- 35 회개
닐 에이 맥스웰 장로
- 38 주님의 날
제임즈 이 파우스트 장로

토요일 신권 모임

- 42 준비를 위한 시간
데이비드 비 헤이트 장로
- 45 예수 그리스도를 최우선으로 두고
생각하고 행동합시다
렉스 디 피네가 장로
- 48 선교사로 나가는 아들에게
데니스 비 뉴엔슈안더 장로
- 50 성약과 의식
호르헤 에이 로하스 장로

- 52 "봉사하도록 부름받음"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 56 청지기 직분에 대한 보고
고든 비 힝클리 부대관장

일요일 오전 모임

- 60 다른 사람들을 구해 줘야 할 우리의
시명
고든 비 힝클리 부대관장
- 64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러셀 엠 넬슨 장로
- 72 간증
찰스 디디에이 장로
- 75 자립하게 됨
엘 톰 페리 장로
- 78 매우 소중한 어린이... 하나님의 은사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일요일 오후 모임

- 83 "힘없는 무릎을 강건케 하라"
마빈 제이 애쉬튼 장로
- 86 기쁨과 자비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
- 89 "사랑은 오래 참으"
에일린 에이치 클라이드 자매
- 91 기도의 양면성
프랜시스 엠 기번즈 장로
- 93 "너희 자녀를 빛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라"
에이치 벌란 앤더슨 장로
- 96 부름-영원한 기적
가드너 에이치 러셀 장로
- 98 주님으로부터 도움을 얻음
리차드 지 스코트 장로
- 101 "여호와께는 네게 복을 주시고"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여성 대회

- 103 "모든 선한 일에 기뻐하시다"
지예고 앤 오가자기 자매
- 105 지금이 여러분의 날입니다
제인 비 델런 자매
- 109 믿는 자에게 분이 되어
루스 비 라이트 자매
- 112 믿는 자에게 분이 되어
엠 러셀 벨라드 장로
- 116 하나님의 딸
고든 비 힝클리 부대관장
- 120 어린이에 관한 총관리 역원의 말씀

- 122 교회 교과 과정에 관련된 대회 말씀
126 교회 소식
129 북아시아 지역 회장단 메시지
130 교회 및 지역 소식

대회 연사들(가나다 순)

가드너 에이치 러셀	엘 톰 페리
고든 비 힝클리	엠 러셀 벨라드
그레이엄 더블류 독시	제임즈 이 파우스트
닐 에이 맥스웰	제인 비 델런
델린 에이치 옥스	조셉 비 워스런
데니스 비 뉴엔슈안더	조셉 시 뮤른
데이비드 비 헤이트	조지 아이 캐넌
러셀 엠 넬슨	지예고 앤 오가자기
렉스 디 피네가	찰스 디디에이
로버트 엘 백맨	크리 엘 코포드
루스 비 라이트	테드 이 브루어튼
리차드 지 스코트	토마스 에스 몬슨
마빈 제이 애쉬튼	프랜시스 엠 기번즈
보이드 케이 팩커	하워드 더블류 헌터
에이치 벌란 앤더슨	호르헤 에이 로하스
에일린 에이치 클라이드	출리오 이 다빌라

대회 사진을 촬영한 사람들 : 제드 에이 클라크, 웰던 앤더슨, 필 서블리프, 크레이그 다이어몬드, 페기 켈링하우젠.

대회 음악을 위해 참여한 합창단 : 물론 청소년 합창단, 지휘자 로버트 시 보우든 오르간 반주자 클레이 크리스찬슨 (토요일 오전 모임)
선교사 훈련원 선교사들의 혼성 합창단, 지휘자 더글러스 브렌츨리, 오르간 반주자 리차드 엘리웃(토요일 오후 모임) : 물론 태버나클 합창단의 남성 단원과 물론 청소년 합창단의 남성 단원으로 구성된 연합 남성 합창단 지휘자 도널드 리플링거와 로버트 시 보우든, 오르간 반주자 클레이 크리스찬슨(신권 모임) : 물론 태버나클 합창단, 지휘자 제럴드 오틀리, 오르간 반주자 로버트 칸딕과 존 롱허스트(일요일 오전 모임), 지휘자 도널드 리플링거, 오르간 반주자 리차드 엘리웃(일요일 오후 모임), 여성 대회를 위해 노래한 합창단은 유타주 밀크릭 지역 청녀 및 상호부조회 합창단이었음. 메리 벵거 마쉬 자매가 지휘하고 린다 마그렛 자매가 오르간 반주를 했음. *

표지: 약속의 땅에 도착한 리하이와 그의 일행.
아놀드 프리버그 그림.

그리스도는 온 인류의 빛입니다

고든 비 힝클리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1보좌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거절하는 사람들에게조차 어둠을 비추시는 빛이 되십니다.”



말씀드립니다.

대관장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못하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대관장님을 대신하여 제가 세상의 모든 성도들에게 대관장님의 사랑과 축복을 전해 드리며, 아울러 대관장님이 이전에 저희에게 하신 간증을 대신 전해 드리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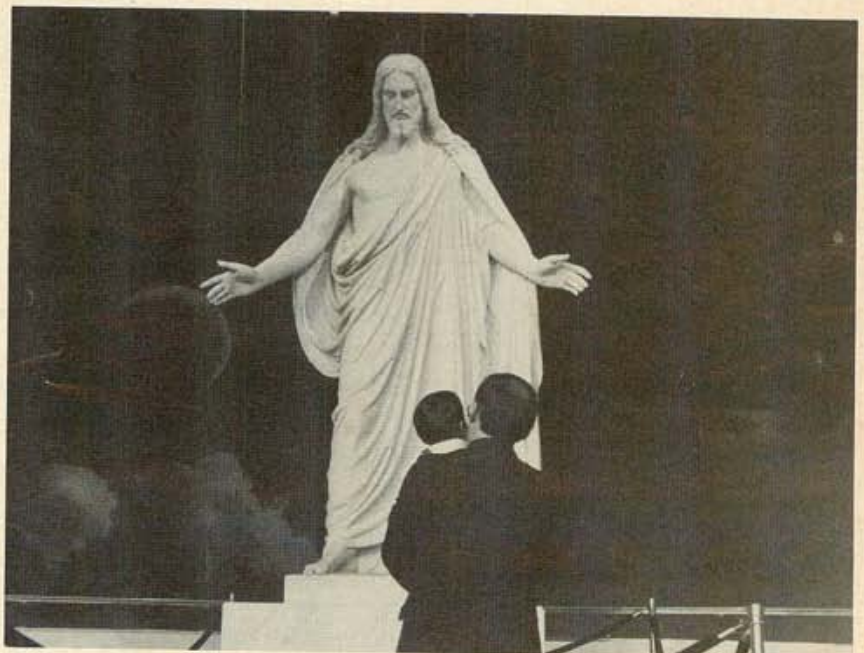
“이 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만큼 큰 영향을 준 일은 결코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없었다면

우리의 삶이 어떠했을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았다면 인류는 두려움과 무지에서 극히 인간적인 생각과 물질주의적인 이유로 흔들리는 믿음과 예배의 신기루 속에서 헤매고 있을 것입니다. 구세주께서 세우신 목표에 이르려면 아직은 요원한 곳에 있으나 그렇다고 목표를 포기하거나 또는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생애와 죽음 및 부활이 없는 빛과 완전을 향해 오르는 우리의 대등성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대회 보고, 1971년 4월)

“저는 그리스도가 온 인류의 빛이라는 사실을 간증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길을 가르쳐 주시고 그 길에 표시를 해주셨으며 빛을 밝혀 주셨습니다. 슬프게도 수많은 사람들과 나라들이 스스로 그 불을 끄고 그리스도의 복음 대신 압제와 칼을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거절하는 사람들에게조차 어둠을 비추시는 빛이 되십니다.”(“크리스마스의 빛”, 템플스퀘어 크리스마스 불빛 예배, 솔트레이크시티, 유타, 1982년 11월 26일)

우리의 사랑하는 예언자께 감사드리며, 그분이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믿고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속해서 대관장님을 축복하시고 지켜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

전 세계 성도들의 모임인 이 대회를 개최하는 자리에 벨슨 대관장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매우 기쁩니다. 대관장님께서 미소를 띄우시고 우리에게 손을 흔들어 주시는 모습을 대할 때 가슴이 뭉클해짐을 느낍니다. 우리는 국내의 이디를 가도 '대관장님께 저희의 사랑을 전해 주십시오.'라는 부탁을 받습니다. 대관장님, 저는 오늘 이 대회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대신해서 대관장님을 우리 시대의 주님의 예언자로 받아들이고 존경하며 사랑한다는 것을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족

엠 러셀 벨라드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저는 요셉 스미스 일세와 루시 맥 스미스의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음을 회복시키는 데 크게 기여한 점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난 8월 4일 일리노이주
나부에서 소박하지만 매우
뜻깊은 행사가 열렸습니다.

요셉 스미스 일세와 루시 맥 스미스의
후손들이 수개월 동안 면밀히 계획하여
복원한 스미스가의 요지를 헌납하고
일반인들에게 공개했습니다.

헌납식에 참석해 있는 동안 저는 요셉
스미스 일세와 루시 맥 스미스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음을
회복시키는 데 크게 기여한 점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며, 특히 예언자와 그분의
형 하이람과 그분들의 부모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스미스가의 가족 묘지가 교회의
모든 회원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곳에 묻혀 있는 사람들이
아름다운 정원과 같은 곳에서 부활의

날에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언자는 어느 장례식에서 행한 설교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만약 내일 죽어서 저 무덤에 놓게
된다면 부활하는 날 아침에 무덤이
갈라지고 나서 우리가 무덤에서 나오기
전에 저는 부친의 손을 잡고
'아버지'라고 외치겠습니다. 그러면
부친께서는 '내 아들아, 내 아들아'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한 음성이 발하여 죽은
자들에게 일어나라고 외칠 때, 제가 부친
곁에 누워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제
마음에 가장 먼저 전해지는 기쁨이
어떠하겠습니까? 부모님들과 형제 자매를
만나게 되며, 그들은 바로 제 곁에 있을
것이며 우리는 서로 포옹을 하게 될
것입니다.”(교회 정사, 5: 361~362)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간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요셉 스미스를
사랑하고 그분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의 예언자요, 선견자인
[그는]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다만
예수를 제외하고 이 세상에 살았던 그
어느 사람보다 더욱 많은 일을”(교리와
성약 135: 3) 수행하였기 때문입니다.

고대의 예언자 니파이는 “훌륭하신
부모님에게서”(니파이일서 1: 1)
태어났다고 기록했습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도 그러했습니다. 요셉 스미스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토록
훌륭하신 부모님을 저에게 주신
하나님에게 느끼는 감사를 표현하기에는

말과 언어가 적합하지 않습니다.”(교회
정사, 5: 126)

주님은 요셉의 충실한 부친, 곧 거룩한
경전에 언급되어 있는 요셉 스미스
일세가 지상에서 예언자의 부모가 되도록
예임하셨습니다. 애굽으로 끌려갔던
요셉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업을
행하시기 위해 세우실 말일의 예언자가
“요셉이라 불릴”(요셉 스미스역 창세기
50: 35) 것이며 그의 이름은 “저의
부친의 이름과 같을”(니파이일서 3: 15)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하늘의 사자인
모로니이는 소년 요셉에게 거룩한
가르침을 준 영광스러운 밤이 지난
다음날 그의 부친에게로 가라고
권고했습니다. 요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은... 제가 받은 시현과 명령을
부친께 전하여 말씀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대로 순종하여 들에 계신
부친에게 돌아가 자초지종을
말씀드렸으며, 부친께서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행하는 일이라고 대답하신 후
집으로 돌아가 천사가 명한 대로
행하라고 하셨습니다.”(요셉 스미스서 2:
49~50)

요셉 스미스 일세는 주님의 영의
속삭임을 듣고 자신의 어린 아들이
진실을 말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분은
아들의 말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아들에게 행하도록 부름받은 일을 하라고
격려했습니다.

요셉의 부친은 예언자인 아들의 경험과
아들이 발표한 주장 때문에 조롱과
박해를 받았으나 이에 동요하지 않고
애정을 다해 아들을 지지하고 옹호하면서
자신에게 닥치는 모든 박해를 견디어
냈습니다.

요셉 스미스 일세는 물문경 원판인
금판을 보고 먼저 보았으며, 평생 동안 그
성스러운 책의 참됨을 간증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물문경의 다른 증인들의
이름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두번째
증인으로서 책의 앞 쪽에 단단히 찍혀
있습니다. 한 번은 그분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만일 물문경을 부인하면 석방될
 것이라는 제안을 받았으나, 요셉 스미스
일세는 물문경을 부인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감옥에 갇혀 있는 30일 동안 두



대회 방문자

사람을 개심시키기까지 하였습니다.

로렌조 스노우 대관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성도들 중에서 요셉의 부친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은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몹시 아픈 사람이 생길 경우에는 밤이든 낮이든 가리지 않고 요셉의 부친에게 와 달라고 부탁드립니다. 그분은 제가 아는 한 가장 고귀하고 관대한 분이셨습니다.”(리로이 시 스노우, “로렌조 스노우가 하나님을 발견한 방법”, *임프르브먼트 이카*, 1937년 2월호, 84쪽)

요셉 스미스 일세의 임종시에 그분에 대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교회에 충실했던 분이 부르심을 받고 세상을 떠났다”(교회 정사, 4:192)고 기록되었습니다.

요셉의 부친이 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몇 개월 후 주님은 요셉의 부친이 하나님의 면전에 있으며 “저는 나의 것이며 축복받으며 거룩한 자가 되리니”(교리와 성약 124:19)라고 계시하셨습니다. 진실로 요셉의 부친은

지상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아마 요셉의 부친만큼 눈에 띄지는 않았지만 예언자의 생애를 형성하고 영향을 미치는 데 똑같이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은 예언자의 모친이신 루시 맥 스미스였습니다. 비록 이 강한 여인이 때때로 가족을 인도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분의 주된 역할은 가족을 돌보는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루시는 열한명의 자녀를 낳았으며, 그중 네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어머니보다 먼저 사망한 것을 보더라도 참으로 충실히 어려움을 견뎌 냈습니다. 생애 동안 루시는 자신의 직계 가족 중 여섯 명과 손자 한 명이 무자비한 폭도의 폭행과 박해 때문에 사망하는 것을 지켜 보았습니다.

루시는 결혼 초기에 예언자의 어머니가 되도록 자신을 준비시키는 경험을 했습니다. 한번은 루시가 중태에 빠진 적이 있었는데, 의사들은 루시가 사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루시는 “만일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려 주신다면 자신의 모든 능력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엄숙히 약속”을 맺었다고 기록했습니다. 루시는 자기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확신시켜 주는 한 음성을 듣고 나서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제가 주님과 맺은 약속을 충실히 지킨다면 주님은 제가 어머니와 남편과 자녀들에게 위안이 되도록 저를 살려 주실 것입니다.”(루시 맥 스미스, *역사*, 34쪽)

루시는 계속해서 아들인 예언자 요셉을 격려하고 도움을 주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요셉의 모친은 요셉이 성스러운 숲에서 겪은 중요한 경험의 일부를 최초로 전해준 사람이었습니다. 몇 년이 지난 후 요셉이 주님께서 다른 사람들도 성스러운 금판을 볼 수 있도록 허락했을 때 느꼈던 기쁨과 안도감을 전해준 사람도 역시 어머니 루시 맥 스미스였습니다. 루시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요셉은 내 옆에 몸을 내던지듯 주저 않으며 ‘어머님은 제가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십니다. 주님이 이제 저 외에 세 사람이 더 금판을 볼 수 있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들은 천사를 보았으며, ...또한 제가 말한 진리에 대해 틀림없이 증거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들이 제가 사람들을 속이려 하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 알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는 마치 감당하기 너무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홀가분해진 것 같이 느껴집니다.”라고 말했습니다.”(루시 맥 스미스, *역사*, 152쪽)

예언자의 모친은 아들의 슬픔과 괴로움과 박해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한번은 폭도들이 요셉과 그의 형 하이람을 잡아가면서 그들을 사살하겠다고 위협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의 용감한 어머니는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적의에 가득찬 폭도들을 억지로 밀치고 들어가서 두 아들을 위로했습니다. 요셉과 하이람은 모친을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을 뒤덮고 있는 덮개 밑으로 한 손을 내밀 수만 있었습니다. 루시의 손이 두 아들의 손에 닿자마자 마차는 애통하는 어머니와 아들들을 세차게 떼어놓으며 떠나가버렸습니다.

루시는 복음이 회복된 것을 간증하겠다는 결심을 굳게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저서인 *요셉 스미스의 역사를* 쓸 수 있었습니다. 그 일은 루시의 생애에서 커다란 노력을 필요로 하는 일이었으며, 오늘날 교회에서 이 책의 중요성은 측정할 수조차 없습니다. 이 책에는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생애에 관한 자세한 사항이 많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책이 없었다면 그러한 사항은 결코 알려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책은 루시 맥 스미스와 그 가족의 헌신에 대한 기념비로 남아 있습니다.

각 시대의 위대한 부모들처럼 루시 역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하나님의 도움을 얻으려고 기도했습니다. 오하이오주에서 시은 진영으로 알려진 미주리까지 행군하는 동안 요셉과 하이람이 콜레라에 걸려 매우 위독한 때가 있었는데, 어느 시점에선가,

“하이람이 벌떡 일어나서 ‘요셉, 우리는 가족에게 돌아가게 될거야. 내가 한 시현을 보았는데, 거기에서 나는

어머니가 사과 나무 밑에서 무릎을 꿇고 계시는 것을 보았어. 어머니는 지금까지도 눈물을 흘리시며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을 구해 달라고 기도하고 계셔... 어머니의 기도가... 응답될 것이라고 성령이 증거해 주셔.'라고 소리쳤습니다."(루시 맥 스미스, 역사 229쪽)

자유지를 행사한 결과로,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에 따라 루시의 두 아들 요셉과 하이람은 마침내 그들의 간증을 피로써 인봉했습니다. 비탄에 젖은 어머니는 생명이 끊어진 두 아들의 시신을 바라보며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이 가족을 버리셨나이까!"라고 절규하였습니다. 루시의 영혼에 한 음성이 임하여 "그들이 안식을 누리도록 내가 그들을 내게로 데려왔느니라."(루시 맥 스미스, 역사, 324쪽)라고 위로하심으로써 주님은 이 충실한 어머니의 슬픔을 덜어 주시고 하나님만이 부여하실 수 있는 화평을 주셔서 루시를 축복하셨습니다.

예언자의 형이요 친구이며 현명하고 성실한 조연자였던 하이람 스미스는 그의 동생 요셉에게 절대적이며 변치 않는 사랑과 충성과 충절을 보여 주었습니다. 아마 다른 어떠한 형제들도 이 두 사람의 관계보다 더 가까운 관계를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 경전에는 "두 사람은 생전에 떨어져 있지 아니하였고 죽을 때에도 갈라져 있지 아니하였도다."(교리와 성약 135 : 5)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하이람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모든 형제들이 양같이 온순하고 욕의 고결함을 지녔으며, 요컨대 그리스도와 같은 온유함과 겸손한 마음을 지니고 있는 사랑하는 저의 형 하이람처럼 되도록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죽음보다도 더 강한 사랑으로 하이람 형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형을 비난할 이유를 결코 갖고 있지 않으며 형도 저를 그렇게 대하기 때문입니다."(교회 정사, 2 : 338)

하이람은 평생 동안 예언자가 마치 자신의 아들인 것처럼 다정하게 대하며 보호해 주었습니다. 요셉은 나중에



몸이 쇠약하신데도 불구하고 에스라 테프트 벤슨 대관장이 연차 대회의 두 모임에 잠시 참석하셨다. 토요일 오전 모임에서 항클리 부대관장(대관장단 제1보좌, 왼쪽)과 몬슨 부대관장(대관장단 제2보좌, 오른쪽)의 도움을 받아 자리에 앉으시는 벤슨 대관장.

부정직한 사람으로 판명된 사람들도 많이 신뢰한 것으로 보아 참되고 충실한 친구의 가치를 알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하이람에 대한 요셉의 칭찬에 더하여, 주님은 하이람에 대한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나의 종 하이람 스미스는 복이 있나니, 이는 저의 마음이 고결하여 내 앞에서 올바른 것을 사랑하므로 저를 사랑하는 연고니라.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교리와 성약 124 : 15)

하이람은 죽음 앞에서조차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심한 약탈과 박해를 겪은 어느 시기가 지난 후 그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물문경으로 번역된 금판들] 제 눈으로 직접 보고 제 손으로 만져 본 것을 부인하느니 차라리 죽기로 결심한 것을 저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어디에서든지 이 금판에 대해 간증했으며, 또한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일찌기 제 생애에서 제가 행한 것처럼 제가 살해될 것이 확실하다고 생각되는

상황에서도 강한 간증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을 확신시킬 수 있습니다."(타임즈 앤드 시즌스, 1839년 12월 제1권, 2번, 23쪽)

예언자 요셉과 하이람으로부터 우리는 값진 교훈을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가운데 다음 두 가지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이람은 자신이 순교하기 불과 2, 3개월 전인 1844년 3월 15일자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기이한 일들을 가르치는 것을 그만 두고 잠시 신비에 대해 걱정하지 마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회개, 죄 사유함을 위한 침례 및 성신의 은사를 받기 위한 인수례에 대해 가르치십시오. 이러한 원리들을 엄격히 지키는 것의 필요성을 가르치고, 경전을 가지고 강론하며, 사람들에게 경전을 입증해 주십시오. 분쟁과 분열과 다툼을 멈추고 겸손하십시오."(타임즈 앤드 시즌스, 1844년 3월 15일, 제5권, 6번, 474쪽)

예언자 요셉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라 자칭하면서 스스로 조언을 구할 때조차도 그들의 생각과 일치하지 않는 충고를 받으면 쉽게 불평하고 결점을 찾으려 하며, 더욱이 자신이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견해와 상반된 조언이 주어질 경우에는 더욱 쉽게 불평하고 결점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이 이보다 더 훌륭하게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때때로 조언을 바라며, 또한 합당한 근원으로부터 조언을 받을 때는 언제나 밝은 마음으로 그 조언에 따를 것이라고 믿습니다.”(교회 정사, 제4권, 45)

당시 하이람과 요셉이 교회 회원들에게 준 이 영감받은 말씀은 분명히 오늘날 교회 회원들에게도 적용될 것입니다. 나부에서 이 고귀한 분들의 비석 곁에 서 있는 동안 저는 그분들이 저로 하여금 교회의 모든 회원들에게 복음의 단순하고 기본적인 원리들을 굳게 지키도록 권고하라고 지시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전을 공부하십시오. 이 혼란의 시대에 인도를 받기 위해 교회 지도자들을 바라보십시오.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가운데 있는 분쟁과 분열과 다툼을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이 진리와 지식을 추구할 때 성신이 함께 하시도록 계명을 지키십시오.

저는 요셉 스미스가 이 지상에 온 위대하고 고귀한 분들 중에 한 사람임을 겸손히 간증드립니다. 요셉과 그의 형 하이람은 충만한 복음이 회복되도록 도움을 준 예언자 요셉의 다른 가족들과 같이 우리의 경의와 존경과 감사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저는 에스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님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예언자이시며, 이 단상에 앉아 계시는 사도들은 하나님에 의해 교회를 관리하도록 성임받았음을 간증드립니다. 우리의 주님이요 구세주이신 예수님은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살아 계시며 그분의 자녀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지켜 보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겸손히 간증드립니다. 아멘 *

예수 그리스도

로버트 엘 백맨 장로
칠십인 회장단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에게 자발적으로 드리는 신뢰와 신앙과 사랑의 선물인 순종입니다.”



부활과 교회를 이끄시는 인도하심에 감사해야 합니다.

로이드 더글러스의 저서 *성의*는 당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리스도를 상상하고 쓴 책입니다. 그 사건과 주인공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른 채 몹시 열광하고 있는 군중들 속에서 두 회랍인 노예가 다음과 같은 대화를 나눕니다.

“그분을 가까이서 보았나요?” 거칠게 생긴 아테네 사람이 물었습니다.

데메트리우스는 얼굴을 돌리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친 사람인가요?” 다른 노예가 다그치듯 물었습니다.

“아니오.”

“왕인가요?”

“아뇨, 왕은 아닙니다.”

데메트리우스는 투덜거리며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지요?”

“모르겠소. 하지만 왕보다 더 중요한 분입니다.” 데메트리우스가 우물우물 말했다. (*성의*, 보스턴: 호튼 미플린사, 1947년, 74쪽)

예수님은 진실로 왕보다 높으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세주요 구속주이시며, 우리에게 신앙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완성시켜주시는 분이시며,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며,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지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시며 평강의 왕이십니다. (히브리서 12:2, 요한 계시록 17:14, 이사야 9:6 참조)

물 문은 니파이인들의 기록을 요약하면서 “보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 이 백성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여 저들로 영생을 얻게 할 뜻으로 주께 부름을 받은 자라.”(니파이삼서 5:13) 겸손하면서도 솔직한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대업을 위해 봉사하도록 부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인 모든 말일성도의 심정을 표현하는 말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 왕보다 중요한 분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지상의 어느 백성들보다도 우리 말일성도는 나사렛 예수님의 중요한 사명, 즉 구원의 계획에서의 그분의 역할과 처녀 수태에 의한 탄생과 완전하신 생애 및 감동을 주는 가르침과 만인을 위하신 죽음 그리고 영광스런

이것이 복음의 전부입니다. 주님이 안게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증재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아담의 범법 때문에 무력한 존재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에베소서 2:8 참조) 자비로 인하여 구원받게 되거나, 또는 니파이가 기록한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다한 후에 다만 자비로 인하여 구원받게”(니파이이서 25:23 참조)됩니다.

“우리 종교에서 갖고 있는 다른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돌아가심과 매장, 부활 및 승천에 대한 간증에 부속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121쪽)

한 어린 소녀가 시편 23편을 인용했는데, 문자 그대로 인용하지는 못하였지만 그 뜻만은 제대로 전달해 주었습니다. 소녀는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그것이 내가 원하는 전부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보다 더 많은 것을 원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생각을 하든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보다 더 바람직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교리와 성약 6:36 참조)

구세주와 우리와의 관계를 깊이 생각해 볼 때에, 저는 제가 구세주를 잘 아는 데 도움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제 인생을 평가하는 데에도 사용해 온 표준이 되는 구세주에 대한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죽을 권세를 갖고 계셨으며,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다시 살아날 권세는 물론, 완전한 생애를 보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충만함을 받지 아니하셨으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가시더니, 마침내 충만함을”(교리와 성약 93:13) 받으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소년 시절에 주님은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져”(누가복음 2:52) 가셨으며, 이렇게 성장하는 동안 “시험을 받으며 육신의 고통과 주림과 갈증을 겪으며, 이러한으로 기력이 [진하셔서]

인간이 감당치 못할 온갖 고난을”(모사이사서 3:7) 겪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은 인간의 연약함을 취하시어 자비로 가득차게[하시어], 육신을 입은 인간들의 연약함을 육신을 가지고 구해 내는 길을 아시려”(엘마서 7:12) 이러한 모든 일을 경험하셨습니다. 주님이 경험하지 않으신 심한 번민이나 큰 기쁨을 경험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에 대한 주님의 반응은 완전했습니다. 주님은 이처럼 우리가 따라야 할 삶의 본보기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상에 계시는 동안 인간에게 복음을 주시고 교회를 조직하셨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더욱 더 풍성하게 생활하는 방법을 가르치셨으며, 현세와 영원한 내세에서 행복에 이르는 길을 보여 주셨습니다.

기적

.....

예수님은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러한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 가운데 중요한 요소가 되고 기록한 일이었을 뿐만 아니라 성스러운 가르침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유대인들에게 증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병고침에 관한 기적은 또한 사랑의 율법이 실생활에 어떻게 관련되는가를 보여 줍니다.

기적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신앙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결과이며, 신앙이 강한 사람에게 주는 가장 좋은 격려입니다.”(“기적”, 성경 사전, 732쪽)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가장 큰 기적 중의 하나인 친구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리신 일에 나타나 있는 연민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민의정이 깊으신 구세주께서는 친구들의 간증을 들어 주셨으나, 또한 가르침을 주실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그곳에 늦게 도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요한복음 11:15)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슬픔에 잠긴 마르다는 어린 아이와 같이 순수한 신앙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요한복음 11:21~25)

마리아도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요한복음 11:32) 그러자 예수님은 마리아와 다른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요한복음 11:33, 35 참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주님의 돌보심과 연민의 깊이는 끝이 없으시며 모든 사람들의 가슴에 따뜻이 와 닿습니다. 예수님이 신앙과 권세를 가지고 “나사로야 나오라”(요한복음 11:43)라고 말씀하시자 나사로가 살아 나왔으며, 생명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반박할 수 없는 증거가 신앙의 기초로서 확증되었습니다.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제자

.....

저는 바울과 같이 “사망이 너의 모든 것이 어디 있느냐 무덤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고린도전서 15:55)라고 크게 기뻐하며 말합니다. 사망이 정복되고 생명, 곧 영원한 생명이 승리한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비록 그 시신이 무덤에 놓여 있었으나 그리스도께서는 제 삼일에 부활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부활의 날에 제자들과 다른 믿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여러분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자비하신 나사렛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박히시는 무서운 장면을 본 후 몇 시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은 큰 슬픔과 절망에 빠진 채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방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십이사도 정원회의 회원들: 엘 톰 페리 장로, 데이비드 비 헤이트 장로, 제임즈 이 파우스트 장로, 빌 에이 맥스웰 장로, 리셀 엠 벨슨 장로.

절망의 안개로 덮여 있습니다. 그때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주님과 대화하였다고 말하는 두 제자가 여러분을 만납니다. 여러분은 그 제자들이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누가복음 24 : 34)라고 하는 말을 믿으시겠습니까?

누가는 이 놀라운 사건에 대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며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이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누가복음 24 : 36~40)

그 장면은 온 인류의 불사불멸을 알려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제 마음속에 생생하게 그려짐은 물론, 제게 육신의 고통과 슬픔에서 해방되는 죽음 후에도 생이 계속된다는 것을 확신시켜 줍니다.

주님의 대속

.....
예수님은 갓세마네 동산과 십자가에서

몸소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도록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중에 죄로 인한 고통을 맛보지 않은 사람이 있었으며, 상처받은 영혼을 치료하기 위해 하나님의 용서를 절실히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리하이이는 그의 아들 아곱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므로 구속은 성스러우신 메시아의 뜻안에 성스러운 메시아로 말미암아 오시나니, 그는 자비와 진리로 충만하심이라.

“보라, 주는 죄 값으로 자신의 몸을 희생하시어 애통하는 마음과 상한 심령을 지닌 모든 자를 위하여 율법의 뜻을 이루시나니, 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누구에게도 율법의 뜻이 이루어질 수 없느니라.”(니파이이서 2 : 6~7)

예수님이 치르신 희생은 “최대 최후의 희생”이고 “끝이 없고 영원한 희생”으로서 하나님의 죄없는 아들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할 수 없는 희생이었습니다.(엘미서 34 : 10 참조)

영생에 이르는 길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요한복음 14 : 6)이신 예수님에 의해 평탄하게 닦여졌습니다. 베드로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려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베드로전서 5 : 7)라고 말한 구원을 위한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있었습니까?

주님의 명령

“그러하매, 이러한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게 함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느냐?”(니파이이서 2 : 8)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복음의 축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선교 사업에 대해 강한 열의를 보이셨습니다. 각 복음서마다 마지막 장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권고하시는 말씀이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흥미 있는 일입니다.

솔트레이크시티의 교회 본부 건물 1층 벽에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한 사도들 가운데 서 계시는 모습을 그린 커다란 벽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온 세상에 전도하는 선교사가 되라고 격려하며 권고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마태복음 28 : 19~20)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그곳에 있던 사도들은 신앙과 담대함과 권세를 가지고 이 부름을 받아들였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그들은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사도행전 4 : 31) 전했다고 합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으며 주님과 함께 음식을 먹고 주님의 손과 발을 만져 보고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았으며, 그 지식을 갖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사도행전 4 : 20)라고 간증했습니다.

그러한 사명이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에게도 있습니까?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보지는 못하였으나, 주님께서 선택하신 증인들의 간증이 성령에 의해 우리 마음속에 깊이 심어졌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고 그 지식을 갖고 있으므로, 그에 대해 간증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교회 회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주요 책임의 하나라는

사실에 의문을 갖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백성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여 저들로 영생을 얻게
할 뜻으로 주께 부름을 받은
자라”(니파이삼서 5:13)라고 한 물문의
말씀을 인용해 드렸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부름이기도
합니다.

자신을 그리스도에게 바침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에게 자발적으로 드리는
신뢰와 신앙과 사랑의 선물인
순종입니다. 시 에스 루이스는 이같이
순종하는 마음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나에게 모든 것을
바치라. 너의 시간과 돈과 일의 일부를
원하는 것이 아니니, 내가 원하는 것은 너
자신이니라. 나는 육으로 난 너에게
고통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육으로 난
너를 죽이러 왔노라. 육으로 난 너의
일부만 주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니,
나는 가지만 여기 저기 처내는 것을 원치
않고 나무를 송두리째 베어 버리기를
원하노라. 육으로 난 너를 모두 내게
바치라. 네 모든 악한 욕망은 물론 네가
순수하다 생각하는 욕망도 모두 바치라.
너에게 새로운 너를 주겠노니, 곧 나
자신이라. 그러면 나의 것이 너의 것이
될찌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순전한
신앙, 뉴욕: 콜리어 출판사, 1960년,
167쪽)

구세주께서 살아 계심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구세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제 자신을 가까이
바치겠습니다. 왜냐하면 구세주를
신뢰하고 믿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욕이
말한 것같이 저도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 계시니 후일에 그가
명위에 서실 것이라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보리라”(욥기 19:
25~26)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빛

테드 이 브루어튼 장로
철십인 정원회

“빛은 우리에게 선을 행하게 하고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합니다.”



형 제 자매 여러분, 이 쾌청하고
아름다운 날에 저는 ‘빛’이라는
주제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전에는 ‘빛을 ‘시각을
일으키게 하는 것’ 또는 ‘깨우쳐 주거나
정보를 주는 것’이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빛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물리적인 빛과 영적인 빛입니다.

물리적인 빛, 특히 자연의 빛은 사람의
기분에 영향을 미칩니다. 여름 햇살이
약해지면서 낮이 점점 짧아지고 동절기가
검은 모습을 여러푼이 드러내면 빛은
매우 귀중한 필수품이 되는데, 특히 북극
지방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연중 한겨울에는 3개월 동안
어둠이 계속되고 여름에는 3개월 동안
낮이 계속되는 그 지방에서는 계절에
따라 기분이 좌우됩니다.

빛은 인간의 기분과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조사에 의하면 마음이
우울하여 기분 전환이 필요한 사람은
밖에 나가 햇빛을 쬐게 되면 상쾌한
기분이 들게 된다고 합니다. 햇빛을
받으며 산책을 하는 것이 천연 기분
촉진제 노릇을 하기 때문에, 낮시간에 약
30분 가량 가볍게 산책을 하는 사람들은
상당한 도움을 받습니다.(*걸어다니는 잡지*,
1989년 1~2월호, 28~30쪽 참조)

과학자들은 빛의 일정한 파장이 기분을
촉진시키는 효과를 낸다는 것을 전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연구원들은
이러한 효과가 피부를 통해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눈을 통해 들어온 빛으로
인하여 생긴다고 믿고 있습니다.

빛이 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두 번째
용도는 암을 치료하는 광선 요법입니다.
빛을 특정 화학 약품과 혼합하면
암세포를 죽일 수 있습니다. 현재 빛에서
암치료를 가장 효과가 있는 요소를
찾아내서 이것을 인체의 부위에 쬐이는
방법을 알아내기 위한 연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타임*, 캐나다인 출판, 1989년
11월호 참조)

이제 물리적인 빛에 관해 짚막하게
드린 이 화제를 바꾸어, 무한한 위력과
효력을 지닌 어떤 빛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빛
으로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복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교리와 성약 88편에는
물리적인 빛인 햇빛과 영적인 빛의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철심인 정원회의 딸린 케이 켈슨 장로와 더블류 유진 켈슨 장로. 켈슨 장로는 북 유타 지역 회장이며, 켈슨 장로는 북아시아 지역 회장임.

“진리의 빛이 되셨느니라.

“이 진리는 빛을 발하나니, 이는 그리스도의 빛이라. 저는 또한 태양 안에 계시나니, 태양의 빛이시요, 그 태양을 만드신 힘이시니라.

“빛을 발하여 너희에게 광명을 주는 빛은 너희 눈을 뜨게 하시는 이를 통하여 오나니, 너희 이해력을 일으키는 그 빛이시니라.

“그 빛은 하나님 면전에서 나아와 광활한 우주를 채우느니라.

“그 빛은 만물 안에 있어 만물에게 생명을 주며 또 만물을 다스리는 율법이니.”(교리와 성약 88 : 6~7, 11~13)

이 지구는 유리와 불의 바다와 같은 해의 왕국의 상태가 될 것입니다. 브리감 영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때 지구는 지금과 같은 불투명체가 아니라 빛과 영광이 가득찬 궁창의 별들과 같을 것입니다. 진실로 빛 그 자체가 될 것입니다. 요한은 해의 왕국의 상태에 놓인 지구를 유리 바다에 비유했습니다.”(설교집, 7 : 163쪽)

교리와 성약 88편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거듭 이르노라. 땅은 해의 왕국의 율법을 따르나니, 이는 그 창조의 목적을 다하며 율법을 여기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땅은 성별되리니, 참으로 죽을지라도 다시 살아날 것이요, 살리신 이의 능력이 함께 하리니, 의인은 땅을 상속받으리라.”(교리와 성약 88 : 25~26) 84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진리인 연고니, 무엇이든지 진리이면 곧 빛이요, 무엇이든지 빛이면 영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영은 세상에 오는 각 사람에게 빛을 주시나니, 영은 세상을 통하여 영의 음성 듣는 모든 사람을 깨우치느니라.”(교리와 성약 84 : 45~46)

이 빛이라는 단어가 경전에는 535번 나옵니다.

빛은 하나님의 아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나의 영광만을 전념하여 구하면 너희 온 몸은 빛으로 충만하게 되어 너희 속에 어두움이 없으리니, 빛으로 충만하게 된 몸은 모든 것을 깨닫게 되느니라.”(교리와 성약 88 : 67)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이십니다. 모로나이는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그러니 나의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빛, 곧 그리스도의 빛을 가졌으며 그릇 판단하지 않도록 하라. 너희가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너희가 판단을 받을 것임이니라.”(모로나이서 7 : 18)

요한은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요한복음 8 : 12)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주님은 적어도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면에서 세상의 빛이 되십니다. 브르스 알 맥쿱키 장로는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1. 주님은 그리스도의 빛을 통해서 우주를 다스리고 통제하시며, 그 안에 있는 만물에게 생명을 부여하십니다.

“2. 주님은 우주를 가득 채우고 있는 바로 이 빛에 의해,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성신의 권세에 의해 마음을 밝게 해주시며 이해력을 되살려 주십니다.

“3. 주님은 전세와 현세와 부활하신 영광의 상태에서 솔직하고 죄없는 완전한 행동으로 완전한 모범을 보이시며, 만민에게 ‘너희는 나를 따르라’(니파이서 31 : 10)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약속된 메시지, 솔트레이크시티 : 데저렛 출판사, 1978년, 208쪽)

첫번째 시헌에서 소년 요셉을 억누르는 침울한 어둠에서 요셉을 해방시킨 것은 빛이었습시다.

빛은 어떻게 우리에게 들어오며, 우리는 어떻게 빛을 받아들입니까?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마태복음 6 : 23)

브르스 알 맥쿱키 장로는 이 성구에 대해 다음과 같은 주석을 달았습니다. “그리스도는 빛이며, 복음 또한 빛입니다. 구원의 계획도 빛이며, 무엇이든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은 빛입니다. 빛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계속 발전하고 더 많은 빛을 받아들여, 그 빛이

점점 밝아져서 마침내 대낮처럼 됩니다. 마치 태양빛이 우리의 육안을 통해 몸에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밝게 해주는 하늘의 빛인 영의 빛은 우리의 영안을 통해 들어옵니다.”(복천년의 메시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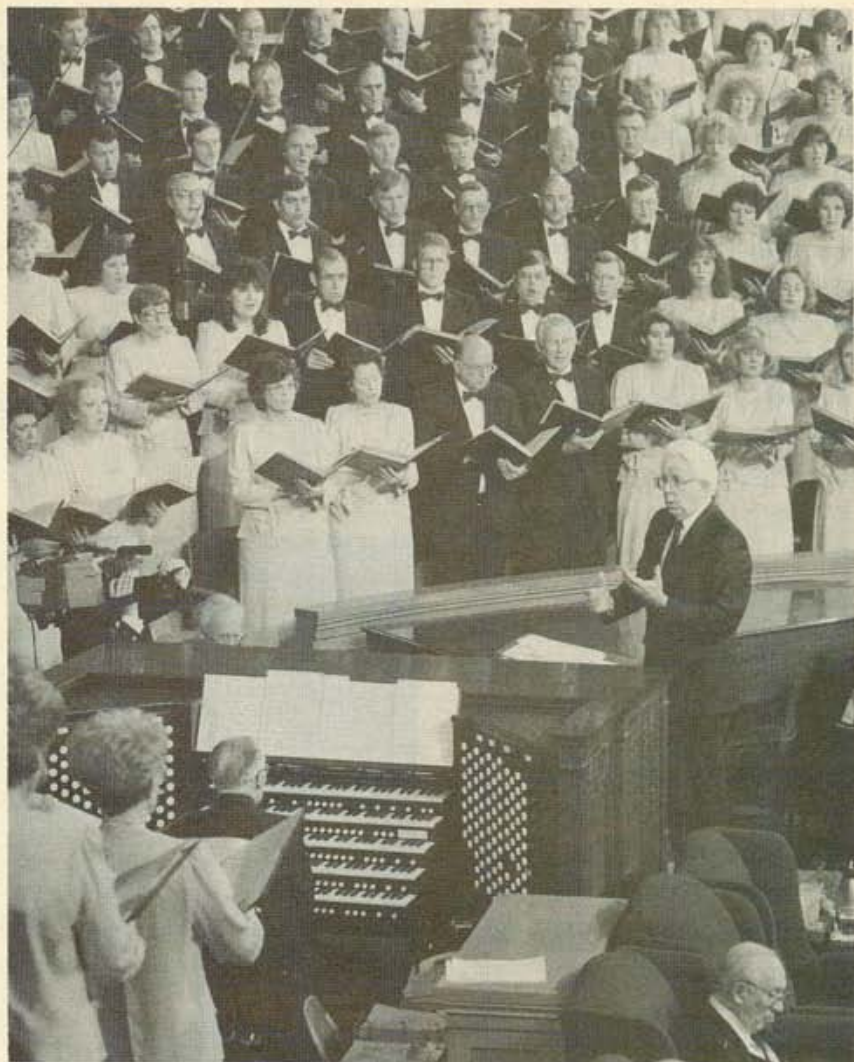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노소를 막론하고 성도들이 피해야 하는 한 가지 결점은 자신의 빛은 등경 아래 감추고 빌어 온 빛으로 살려는 경향, 지식의 소금 맛을 잃게 버려 두는 경향과 원래의 빛이 아니라 자기 내부에 있는 빛을 반사하여 내보내려는 경향입니다...”

“사람은 진리에 정착하여야 하며, 빌어 온 빛이든지 반사된 빛이든지 간에 어떠한 사람에게도 의존하지 말고 오직 성령에게만 의존하여 복음 지식의 기초를 두어야 합니다. 성령은 인제나 불변하며, 모든 사람과 신권 소유자, 곧 복음의 율법과 아버지의 뜻과 영광에 일치하는 생활을 하는 자들에게 증거하고 영원히 빛을 발합니다. 그렇게 할 때, 그들은 결코 어두워지지 않는 영원한 빛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생활에서 그 빛을 발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선행으로써 어리석은 자의 무지를 잠잠케 하고, 흑암으로부터 놀라운 빛 가운데로 불러내신 이를 찬양할 것입니다.”(복음 교리, 80쪽)

“빛은 우리에게 선을 행하게 하고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합니다. 빛은 여러분의 가족을 인도했던 것처럼 제 가족도 인도하였으며, 또한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할 수 있으며 또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아치볼드 스튜워트는 저의 고조 할아버지이며, 저의 고조 할머니의 상함은 에스더 라일입니다. 스튜워트 가족은 고난을 극복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분들의 조상은 스코틀랜드에서 강제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북부 아일랜드로 피난하였지만, 그곳에서 평화를 찾기는 커녕 다시 아일랜드 군인들에 의해 박해를 받는 희생자가 되었습니다.



태버나클 합창단과 지휘자인 제롬드 디 오를리 형제.

그분들이 가지고 있던 유산 중에는 독립심과 강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스튜워트 가족의 특성인 사랑과 헌신과 깊은 신앙심으로 인해 그분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물론 선교사들이 스튜워트 집에 왔을 때, 장녀인 엘리자벳은 그들의 메시지가 참되다는 것을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마음속에 느낀 확신을 더 확고하게 갖기 위해 복음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자벳이 가지고 있는 느낌과 복음을 공부하는 것으로 인해 그 가족의 여가장이었던 할머니도 곧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엘리자벳은 많은 시간을 내서 할머니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예언자인 요셉 스미스에 대해 이야기해 주며, 요셉이 이 지상에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며 인간에게 나타나셨다는 단순한

메시지를 회복했다는 사실을 들려주었습니다. 마음속에 뜨거운 간증을 느낀 엘리자벳은 침례반도록 허락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부모님들은 물론에 대한 좋지 못한 평판 때문에 반대했으나, 할머니가 엘리자벳을 구해 주셨습니다. 할머니는 “그 애가 하는 대로 뒤라. 난 개가 가진 책을 모두 읽어 보았단다. 나도 엘리자벳의 생각이 옳다고 믿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자벳이 침례를 받으러 집을 나갈 때, 할머니도 함께 가셨습니다. 3월인데도 한겨울처럼 추운 날이었지만 두 사람은 강으로 갔습니다. 장로들이 풍풍 얼어붙은 얼음을 깨서 구멍을 내놓고 두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장로들이 침례를 주기 위해 엘리자벳에게 다가오자 할머니가 일어서시면서 “애야, 예의를

지켜야지. 노인네보다 먼저 나서면 쓰겠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장로들은 할머니를 평상복에 하얀 작은 모자를 쓴 채로 침례를 주었습니다.

할머니는 따로 옷을 준비해 가지 않으셨기 때문에 물에 젖어 차가운 옷을 입은 채 걸어서 집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식구들이 잠이 들 때까지 옷을 갈아입지 않으셨지만 감기에 걸리지 않으셨습니다. 다음날 아침 아치볼드는 잠자리에서 일어나 줄에 걸쳐 있는 옷을 보고, 그의 어머니가 엘리자벳과 함께 강물에 잠겼다 나온 것에 대해 다른 식구들과 농담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식구들이 자신에 대해 농담을 하는 것을 들으신 할머니는 “아치볼드야, 다른 사람이 듣지 않기를 원한다면 큰소리로 떠들지는 말아라. 이젠 이 에미 흉을 볼 수 없단다. 왜냐하면 이 에미가 너희 중 누구보다도 잘 들을 수 있기 때문이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는 약 20년 동안 귀가 거의 들리지 않으셨는데, 침례를 받으면서 기적이 일어나 청력이 회복되었으며, 그 때부터 돌아가시는 날까지 모든 소리를 똑똑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치볼드는 큰 소리로 웃으면서 어머니가 너무 자세한 것까지 들으신다고 말했습니다.

그후 얼마 뒤인 1841년에 거의 대부분의 가족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복음의 빛은 그 빛이 없었다면 너무 어두워서 방향을 잃게 될 영원에 이르는 생명의 길을 밝게 비춰 줍니다.

우리는 거울처럼 되어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출 수 있습니다. 또한 빛의 근원은 아니지만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빛이 반사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필멸의 현세를 떠나 하늘로 돌아가면, 저의 청지기 직분인 제 말에 대해 보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저는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다는 사실을 간증드립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시며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구원을 얻습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이며 그분의 왕국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영원 속의 오늘

조지 아이 캐년 장로
칠십인 정원회

“항상 구세주를 생각하고 그분을 생활의 중심으로 둔다면 매일 매일을 훌륭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나이에 비해 무척 현명하다.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는 날은 오늘 뿐이다. 어제는 이미 우리의 뒤에 있다. 아무리 좋은 시간이었다 해도 다시는 되돌아 가서 살 수 없으며, 단지 기억할 수만 있을 뿐이다. 내일은 우리 앞에 놓여 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일이 기대되더라도 그 희망을 실제로 실현하려면 어쩔 수 없이 인내를 발휘해야 하는 시간이 흘러야 한다. 우리는 한 번에 하루 씩만 살 수 있을 뿐이다.”(생활의 좌우명, 로이 피어슨 박사)라고 자신의 견해를 덧붙였습니다.

리처드 엘 이반스 장로님은 “구두로 전하신 말씀”에서 그와 비슷한 견해를 밝히셨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인생이 막 시작되었을 때처럼 마음을 안주하지 못하며 생활하는 듯합니다. 무엇을 기다리는지 명확하게 알지 못하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지나치게 오랫동안 고집스럽게 기다리다 인생을 다 보내고 나서 여전히 늘 그래왔던 것처럼 무엇인가를 기다리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상 생활은 이 생의 과업을 완수해야만 하는 곳입니다. 오늘은 천년 전의 어느 날이나 천년 후의 어느 날과도 마찬가지로 영원 중의 하루입니다... 우리가 기뻐하던 실망하든, 바쁘든 지루하든 바로 이것이 인생이며 삶은 그렇게 지나가는 것입니다.”(리처드 엘 이반스,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는가?”, 임프르브먼트 이라, 1967년 1월호, 65쪽)

오늘은 영원 중의 어느 하루입니다.

“보라 지금이 바로 너희의 구원의 날이라... 이 생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준비하는 시간이요, 이 생의 나날은 사람이 저들의 일을 수행할 날들이라.”(엘마서 34 : 31~32)

이 말씀은 엠올레크가 이 말을 했던 수세기 전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적용됩니다.

저는 수년 전에 신문에서 한 기사를 오려낸 적이 있는데, 그것은 어느날 아침 즐겁게 휘파람을 불면서 일하는 엘리베이터 소년에 관한 기사였습니다. 한 심각한 표정을 한 사람이 얼굴을 찡그리며 “왜 그렇게 행복한가?”하고 묻자, 소년은 “전에는 결코 살아보지 못한 오늘을 맞이했으니까요.”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기사를 쓴 사람은 “이 소년은



저는 사람들이 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음이 지상에 회복된 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또한 하루 하루를 훌륭한 날로 만들겠다는 소망과 결심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어떻게 실행할지에 대하여 몇 가지 제언을 드리면서, 아울러 여러분도 스스로 새로운 항목을 추가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살찌우고, 주님의 살아계신 예언자이신 에즈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께서 “매일 물몬경을 읽으시고, 이 책을 일생 동안 연구하십시오.”라고 하신 영감받은 메시지를 따릅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드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가족이 매일 함께 무릎을 꿇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안식일에 모임에 참석하여 합당하게 성찬을 취함으로써 아버지의 영이 매일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매일 위대한 구원의 원리인 회개의

원리에 따라 생활하면, 더욱 겸손하고 온유하게 될 것입니다.

항상 구세주를 생각하고 그분을 생활의 중심에 둔다면 매일 매일을 훌륭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세주께서는 “빛이요, 생명이요, 세상의 진리”(이디서 4:12)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구세주를 따르므로써 정직하게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구세주를 따르는 12세의 필리핀 소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줄리어스는 아침을 굶고 학교에 갔는데, 수업중에 배에서 우스운 소리가 났습니다. 쉬는 시간이 되자 줄리어스는 근처에 있는 바베큐 스텐드로 뛰어가서 고기 두 개를 사 먹고 교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교실로 돌아와서 음식 값을 지불하지 않았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되돌아 가서 음식 값을 지불하고 돌아와 보니, 선생님이 몹시 화가 나 계셨습니다. 선생님께 허락을 받는 일을 잊었던 것입니다. 선생님은 줄리어스가 무엇을 하고 왔는지 알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줄리어스는 사실대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선생님은 한쪽 팔을 줄리어스의 어깨에 감싸듯이 올려 놓으시고 학생들을 바라 보시면서, “여러분도 모두 줄리어스 같이 정직하기를 바랍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돈을 그냥 가질 수도 있었는데 왜 다시 가서 지불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줄리어스는 “정직해야 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네 종교가 무엇이니?”라고 선생님이 물으셨습니다.

줄리어스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저는 물몬입니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선생님은 “아, 그랬었구나.”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줄리어스는 늘 정직하게 행동함으로써 매일 매일을 훌륭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구세주를 따르게 되면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육체를 존중하고 마약이나 알코올이나 외설 문학 혹은 다른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이라는 위대한 기적을 파괴시키지 않게 될 것입니다. 최근에 저는 한 건강한 청소년에게서 일부 학생들이 어떻게 해서 교회 표준을 지키지 않고 우리가 경고해 온 파괴적인 물질을 사용하게 되는가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청소년이 물론이라고 알고 있는 친구들이 그에게 왜 그러한 해로운 물질을 취하지 않는냐고 물을 때마다 그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나는 주님을 실망시켜 드리지 않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신권을 불명예스럽게 하지 않는 것을 기쁘게 생각해. 네가 네 자신을 속이고 다른 사람을 속일 수는 있겠지만 주님만은 결코 속일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 주님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셔... 살아가면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훌륭한 인도가 되는 한 가지 방법은 예수님이 항상 네 바로 곁에 계시다고 생각하는 것이야. 네 스스로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이러한 상황에 가담하실까?’ 하고 물어 보아라.”(브렌든 윌리엄스, 콜로라도 알라모사 스테이크 대회에서 행한 말씀, 1991년 8월 25일)

구세주께서 우리 삶의 중심이 되실 때, 우리는 더욱 더 사랑하고 배울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진실로 자신을 찾으려면 먼저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고 남을 돕는 가운데 자신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교훈과 모범을 통해 가르치셨습니다.

저는 하루 하루를 가장 훌륭한 날로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 중의 하나는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도록 돕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각자 의로운 일을 하는 지도자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스펜서 더블류 김블 대관장님은 “교회 회원이 되는 것은 곧 지도자로 부름받는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가정 안에서(이 경우 자녀와 부모 모두를 뜻합니다.), 이웃 가운데서, 학교에서, 지역 사회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지도자가 됩시다.

자기 자신에 대해 만족할 수 있다면 하루 하루가 더욱 풍부해지고 더 큰 의미를 갖게 될 수 있습니다. 가장

바람직하지 못한 감정으로는 질투, 욕심, 어떤 사람이 되고자 하는 욕망 등이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의 자신 및 자신에게 부여된 재능에 대해 감사해야 하며,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내재하고 있는 신성을 찾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다른 사람들의 재능을 지지하고 그에 대해 감사할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또 자신을 좋아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별은 독수리는 될 수 없으나, 꿀은 만들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제언을 드리겠습니다. 변경시킬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마십시오.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일이라면 하시고,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일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마십시오. 몇 년 전에 저는 리그랜드 리처즈 장로님에 관한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장로님의 연세가 막 90에 이르셨을 때인데, 어떤 사람이 그처럼 장수하시며 행복하고 훌륭한 삶을 사시는 비결이 무엇이냐고 묻자 장로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제가 평생 동안 삶의 철학으로 삼았던 구절이 있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양 아래 모든 근심 걱정에는 한 가지 해결책이 있거나 하나도 없나니 해결책이 있으면 서둘러 찾아내고 하나도 없다면 두 번 다시 그 일을 걱정하지 말라”(매저렛 뉴스, 처치 뉴스, 1979년 3월 31일)

에즈라 테프트 벤슨 대관장님의 다음 말씀을 전해 드리면서 한 가지를 더 제언해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을 해야 합니다. 하루의 일과를 끝내고 나서 최선을 다했다는 사실을 아는 것보다 더 기쁘고 만족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우리의 복음은 목적이 있고 비이기적이며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에 의지하는 일하는 복음입니다.”(에즈라 테프트 벤슨의 가르침, 483, 484쪽)

우리가 살고 있는 나날은 영원의 일부입니다. 신앙을 살찌우고 회개를 통해 성장하고 구세주를 따르며

왕국에서 봉사하고 자기에게 만족하고 근심하지 않고 성실하게 일함으로써 하루 하루를 훌륭하게 보냅니다.

저는 엘마와 같이 우리가 매일 “주 앞에[우리를] 낮추어 겸손하게 하고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따르며, 깨어 쉬지 않고 기도하여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우리를] 뒤덮지 않게 하고, 성신의 인도로 겸손하고 온유하며 고난을 오래 견디어[내며],

“주를 믿는 신앙을 가지며 영생을 믿는다는 소망을 가지며,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품어 끝남에 주의 손에 들려 주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엘마서 13 : 28~29)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칠십인으로서 봉사하는 기간이 끝남에 따라 감사하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제 곁에서 무한한 사랑을 품고 자신을 돌보지 않고 봉사해 왔으며 저에게 하루 하루를 훌륭하게 보내는 방법을 모범으로 보여 준 착한 아내 이사벨에게 감사하며, 제 자녀들과 사위, 며느리 및 손자 손녀들에게도 우리를 지지해 주고 충실하고 의롭게 생활하는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합니다.

저는 내관장단과 십이사도 평의회 여러분의 모범을 보면서 구세주의 제자가 된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 배웠습니다.

또한 칠십인 정원회 회원 여러분과 관리 감독단과 함께 형제로서의 우정을 나누어 왔습니다.

제가 함께 봉사할 수 있는 특권을 누렸던 아시아, 필리핀, 마이크로네시아, 괌, 영국 및 미국 남서부 지역 성도들 및 선교사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은 매일 매일 훌륭한 하루를 보내는 데 모범을 보이고 계십니다.

무엇보다도 저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사랑을 전해 드립니다. 그리스도는 세상의 생명이요 빛이요 진리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이고 구속주이시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의 열매

조셉 비 워스린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복음의 뿌리를 갖지 않고서는 그 열매를 거둘 수 없습니다. 주님은 계시를 통해서
충만한 복음의 독특한 원리인 이 뿌리를 세우셨습니다.”



형 제 자매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교회의 대관장이요 예언자이신 에스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님이 참석하신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확신합니다. 저는 이제까지 벤슨 대관장님을 사랑하고 존경해 왔으며, 지금도 여전히 그분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주님은 어느 시대에나 주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백성들을 구별하여 “소유된 백성”(출애굽기 19:5), “성민”(신명기 7:6),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베드로전서 2:9)라는 명칭을 사용하셨습니다. 경전에는 이와 같은 백성들이 성도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구세주께서 가르치신

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마태복음 7:20)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원리대로 생활하는 이러한 사람과는 극히 대조적으로 복음의 원리를 무시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복음의 표준에 따라 생활하지 않으며, 또 어떤 사람들은 죄와 악과 부정직과 범죄 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많은 불행과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이 따르게 됩니다.

구세주께서 말씀하신 다음 구절이 생각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치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치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리라”(마태복음 7:24~27)

이 비유에는 중요한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복음의 뿌리를 갖지 않고서는 그 열매를 거둘 수 없습니다. 주님은 계시를 통해서 충만한 복음의 독특한 원리인 이 뿌리를 세우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주님은

인생의 유혹과 폭풍우에도 견딜 수 있는 반석과 같은 기초 위에 우리의 인생을 건설해야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의 중요한 원리 중에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회

한 가지 독특한 원리는 신회의 성격에 대해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신을 믿는다.”(신앙개조 제1조)라고 하는 참된 개념입니다. 신회는 그 목적에 있어서는 하나인 세 분의 서로 다른 개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버지와 아들은 살과 뼈로 된 만질 수 있는 육신을 갖고 계시는 반면 성신은 영체입니다.

하나님은 진실로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온 인류의 영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문자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며 아버지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신성한 특성을 상속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를 알면 우리에게 잠재되어 있는 신성한 성질과 잠재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라는 교리를 통해 우리는 자존심에 관한 확고한 기초를 쌓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찬송가 187장)라는 찬송가는 이 교리를 단순한 말로 전해 줍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하나님임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자존심을 갖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진리에 대한 깊고도 변치않는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이 진리를 단지 피상적으로나 지적으로만 이해하는 사람들을 모두 알고 있는데, 이들간의 태도의 차이점과 이러한 태도가 그들의 생활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의 차이점이 현저하게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의 장자이며, 육신으로는 독생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리스도가 단지 위대한 스승이나 철학자라고 여기는 것보다 그리스도가 훨씬 더 고귀하고 위대하시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며, 온 인류의 구속주요 우리와 아버지 사이의

중보자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세상의 죄를 속죄하셨으며, 충실한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면전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지상에 태어난 가장 위대한 분이시며, 완전한 모범을 보여 주신 분입니다. 그리스도는 만주의 주이시고 만왕의 왕이시며, 창조주, 구속주이시며 온 땅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름은 하늘 아래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입니다. 그리스도는 말일에 권세와 영광을 지니고 다시 오시어 온 인류의 심판자로 서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우리는 영원토록 그리스도에게 감사드리며, 온 마음을 다해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의 모범을 따라야 합니다.

신화의 세번째 구성원인 성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는 계시자(교회 정사, 6:58)이십니다. 성신은 인간에게 복음이 참되다는 것을 증거해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간증을 갖게 해주고,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거나 진리를 추구할 때,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부활

다음으로 저는 문자 그대로의 부활, 즉 육신의 죽음이 있은 후 영이 살과 뼈로 된 육체와 다시 결합하는 것에 관한 우리의 확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상에서 첫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이 온 인류를 위한 것임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이 부활의 실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갖게 되는 소망의 중심입니다.(고린도전서 15:19~22 참조)

저는 부활을 믿는 영적인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사후의 상태에 대해 확신이 없는 사람들 사이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것을 보아 왔습니다. 저는 두 살짜리 딸을 불시에 잃게 되는 큰 슬픔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침착하게 대처하는 한 어머니를 보고 감명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자비로우신

하나님과 영생을 믿는 신앙으로 말미암아 그같은 불행 중에서도 화평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매님은 이 예쁜 아이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의 팔에 안겨 있으며, 언젠가는 그 딸과 다시 만날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자녀 양육

주님의 계획 안에서, 부모는 자녀들이 감수성이 강한 형성기에 일생 동안 계속될 태도와 습관을 기르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브리감 영 대관장님은 “청소년기 및 청년기”가 육체의 욕망과 욕정을 제어하기 “알맞은 때”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욕정이 자신을 이끌도록 내버려 두는 사람은 그러한 욕정의 노예가 되며, 일단 욕정의 노예가 된 후에는 그곳으로부터 자유로이 빠져 나오는 일이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아들에게 보내는 브리감 영의 편지, 던 시 제시 편집, 솔트레이크시티: 데저렛 출판사, 1974년, 130쪽)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복음의 원리가 부모의 가르침에 영적인 힘을 증강해 주고 또한 젊은이들이 사춘기와 청년기의 길을 따라 사탄이 뿌려 놓은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는 것에 대해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지혜의 말씀

지혜의 말씀은 1833년에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통하여 계시된 이래, 주의 깊게 검토되기도 하고, 무시당하기도 하고, 비난받거나 옹호받고, 조롱을 받기도 칭찬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한편으로 충실한 성도들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표시로서 이를 지켜 왔습니다. 그들은 오랜 세월 동안 아담이 희생 제물을 바쳤던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신앙만을 갖고 지혜의 말씀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한 천사가 아담에게 “어찌하여 너는 주께 희생을 바치느냐?”라고 물으시자, “아담이 저에게 이르되, 나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것 외에는 알지 못하노라”(모세서 5:6)라고 대답했습니다. 교회의 초기 회원들은 지혜의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얻는 신체적인 이득이 입증된 오늘날의 의학적 지식도 갖지 못한 채 주님의 권고에 순종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158년 동안 성도들이 계시에 의해 알고 있던 것을 과학적인 지식에 의해서도 알게 되었습니다.

만일 모든 사람이 이 건강의 율법에 따라 생활하고 술과 담배 및 기타 해로운 물질로 자신의 신체를 학대하지 않는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상상해 보십시오. 자동차 사고, 질병 및 조산아 사망율, 태아 결함, 범죄, 돈의 낭비, 결혼 가정, 술과 기타 중독성 약물로 인한 지친 생활 등이 엄청나게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이 밖에도 흡연으로 인해 생기는 폐암, 심장병 및 그밖의 질병이 얼마나 감소되겠습니까? 이 계명을 지킴으로써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축복을 얻게 됩니다.

교회 회원들은 이 계명에 순종함으로써 건강과 영성에 대해 큰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복지 원리

참된 종교의 확실한 지표는 가난한 사람에게 쏟는 관심입니다. 이 관심은 우리로 하여금 사랑의 행위로써 가난한 사람의 필요 사항을 채워주도록 이끕니다. 야고보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중에 돌아보고 또...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야고보서 1:27)라고 기록하였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 사랑이란 구세주께서 우리 모두를 위해 행하신 것처럼 우리 자신의 관심사와 필요 사항을 뒤로 미루고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고린도전서 13:13)이라고 기록했으며, 모로니이는 “너희에게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요”(모로니아서 10:21)라고 기록했습니다. 저는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봉사가 복음의 특별한 일부라고 믿습니다.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님은 복지 사업은 “하나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것은 곧 복음의 실천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주요 원리입니다.”(대회 보고, 1977년 10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세계 각처에서 남에게 알려지지 않은 채 실질적인 인도주의적 사업을 행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뻗치는 능력은 자신이 자립할 때에만 가능합니다. 스스로 자립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은 물질을 사용하여 자신과 가족을 돌보며 또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됩니다.

자립의 원리에 대한 말씀은 단순히 편한 말을 되풀이하는 것 같지만, 이 원리는 현대 사회의 추세인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과 상반되는 원리입니다. 많은 성도들도 이 추세에 따라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고통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자립의 기초는 근면입니다.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가치 있는 일을 성취하고 성공하는 데에 노동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야 하며, 법적인 책임 능력이 있는 연령에 이른 자녀들은 생산적인 직업을 얻어 부모에게 의존하는 테두리에서 벗어나기 시작해야 합니다. 자기 스스로 마련할 수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이 해주도록 의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선교 사업

선교 사업은 구세주께서 지상에서 성역을 베푸신 일 중 특별한 부분입니다. 오늘날에도 그 중요성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구세주께서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마가복음 16:15)고 명하셨습니다. 주님의 제자들, 그중에서도 특히 바울은 구세주께서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신 후 수년 동안 복음의 메시지를 널리 전파하였습니다. 1831년에 주님은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통하여 “주의 음성은 만민에게 미치며 한 사람이라도 피할 자가 없으니, 보지 아니할 눈도 없으며 듣지 아니할 귀도 없으며 깨닫지 못하지 아니할 마음도

없느니라.”(교리와 성약 1:2)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44,000명이 넘는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파하라는 주님의 명을 완수하기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에게 회복된 충만한 복음을 알게 함으로써 그들에게 축복을 주며, 또한 선교사 기간 동안 얻게 되는 놀라운 성장과 성숙을 통하여 그 자신 또한 축복을 받습니다. 합당한 모든 청년은 선교사로 나가야 하며, 합당한 젊은 독신 여성과 부부들도 선교 지역에서 매우 값진 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들 선교사들은 모두 주님의 대사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선교사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순결

복음의 또 다른 독특한 특성은 주님께서 정하신 순결의 법을 굳게 지키는 것입니다. 주님은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백성들에게 이 율법을 지키라고 명하셨습니다. 오늘날에는 이와 같이 엄격한 도덕은 별난 것처럼 보이며 또한 외설적이고 부도덕한 일들이 대중 매체를 통해 정상적이고 완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는 현실에는 시대 착오적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으나, 여러분은 주님이 순결의 법을 결코 취소하지 않으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전 결혼 서약은 남편과 아내 사이의 충실함의 깊이를 더해 줍니다.

순결의 법을 지키면 낙태의 필요성이 줄어들 것이며, 불륜의 성관계를 통하여 전염되는 질병을 억제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결혼 생활을 하면서 정절을 지키므로써 특히 죄없는 자녀들에게 고통과 슬픔을 가져다 주는 이혼의 주요한 원인이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물론 교회 회원들도 결점과 약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실천하는 것이 성도들이 더욱 훌륭하게 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입증해 주는 증거가 많이 있습니다. 더욱 더 많은 사람들이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복음에 따라

생활함에 따라 그만큼 더 많은 가족과 친구들에게 모범이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고 영원한 복음의 진리를 이해하고 그러한 원리에 따라 생활하는 축복을 받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 원리들은 참되며 우리를 “우리의 존재의 목적”(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인 행복에 이르는 단 하나의 안전한 길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결론과 약속

결론으로 다음 권고와 약속을 드립니다.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성찬을 합당하게 취하십시오. 항상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마십시오. 성신권과 복음 의식의 성스러움을 하찮게 보지 마십시오. 이 권고의 말씀을 정중히 받아들여시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배반의 영이 결코 들어오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엘마가 준 다음의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내가 맞본 무한한 기쁨을 저들이 또한 맛보게 하라... 쉬지 않고 일해 왔느니라.

“...주님께서는 나의 수고의 결실로 무한히 큰 기쁨을 내게 주셨으니,

“이는 주님께서 내게 내려 주신 말씀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태어나 내가 맞본 것을 맛본지라...”(엘마서 36:24-26)

이 밖에도 주님의 기쁨 부은 자들을 지지하면, 그들에 대한 신임이 두터워질 것이며, 여러분의 가족과 후손이 축복을 받고 강화될 것은 물론, 여러분의 삶이 복음의 풍성한 열매로 풍요로워질 것이며, 여러분의 마음과 가정에 화평과 단합이 가득 찰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교회 지도자들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으며 그들이 맞본 복음의 열매를 여러분도 맛볼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가져다 주려고 힘써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통해 크나큰 기쁨을 얻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 아멘. *

복음 - 온 세상의 신앙

하워드 더블류 헌터 회장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

“우리의 신앙의 힘과 효력은 역사와 국적 및 문화에 얽매이지 않으며, 어느 한 백성이나 연령층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의식은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모든 인류를 위한 신앙입니다. 복음은 제한적이지도 편향적이지도 않으며 역사나 유행에 영향을 받지 않고, 어느 곳이나 어떠한 상황이나 어떤 시기에도 존재하는 진리입니다. 이 복음의 메시지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한 메시지이며, 지상의 모든 나라와 족속과 언어와 백성들의 근본적인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회복되었습니다. 즉 태초부터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형제애를 돈독히 하고 진리를 보존하며 영혼을 구하기 위해 회복된 것입니다.

브리감 영 대관장님은 종교의 이와 같은 포괄성과 함축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의 계획은 반드시 세상의 모든 지식을 포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구원의 계획은 종교, 도덕, 철학 및 세상적인 모든 지식이 빠짐없이 포함된 세상의 모든 진실한 교리를 담고 있으며, 아담의 때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만들어진 모든 훌륭한 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세상 모든 국가의 법보다 그 지식과 순결함에서 앞서기 때문에 그 모두를 담고 있으며, 한 시대의 가르침과 신조의 경계를 정하고 세상의 모든 진리를 취하여 하나의 체계를 세우고 꺾어대는 여기 저기로 날려 보냅니다.”(설교집, 7 : 148)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으로서 우리는 모든 진리를 함께 모으려고 노력하며,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사랑과 이해의 테두리를 넓히려고 힘써으로써 그리스도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평화와 행복이 깃들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복음은 세상의 모든 민족이 한 하나님의 후손인 한 가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혈연적으로 인류의 조상인 아담의 후손이 되는 것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형제요 자매입니다.

하나님이 온 인류의 아버지이시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받아 들이면 온 인류와 그들 상호 간의 관계가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큰 관심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메시지는 인종과 언어와 경제, 정치, 교육 또는 문화적인 배경 등의 차이를 근거로 한 모든 편향적인 전통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삶과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영의 자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신성한 혈통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로서 모두 하나님 아버지의 영의 자녀들입니다.

복음의 관점에서 볼 때, 제한적이고 편향적인 선입관은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성품 중의 하나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열망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증거해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자기 가족만의 축복에 만족하지 않고 그 폭을 넓혀 온 인류가 축복받기를 갈망합니다.”(교회 정사, 4 : 227)

1907년 연차 대회에서 이와 관련하여 대관장단은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우리의 동기는 이기적인 것이 아니며, 그 목적 또한 이 세상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과거에 살았으며, 현재 살고 있고 또한 앞으로 살게 될 모든 인류를 불멸의 존재로 생각합니다. 이들을 구원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며, 이 사업은 영원을 두고 계속될 것이며, 하나님의 사랑만큼 널리 퍼져갈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와 영원을 위해 헌신합니다.”(대회 보고, 1907년 4월, 16쪽)

복음의 관점에서 볼 때 이방인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떠한 사람이라도 거부당해서는 안됩니다. 독선과 교만과 거만한 행위는 어떠한 말로도 변명될 수 없습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어느 사실에서 교회를 비난하는 종교 단체의 비열하고 편협한 생각을

다음과 같이 경고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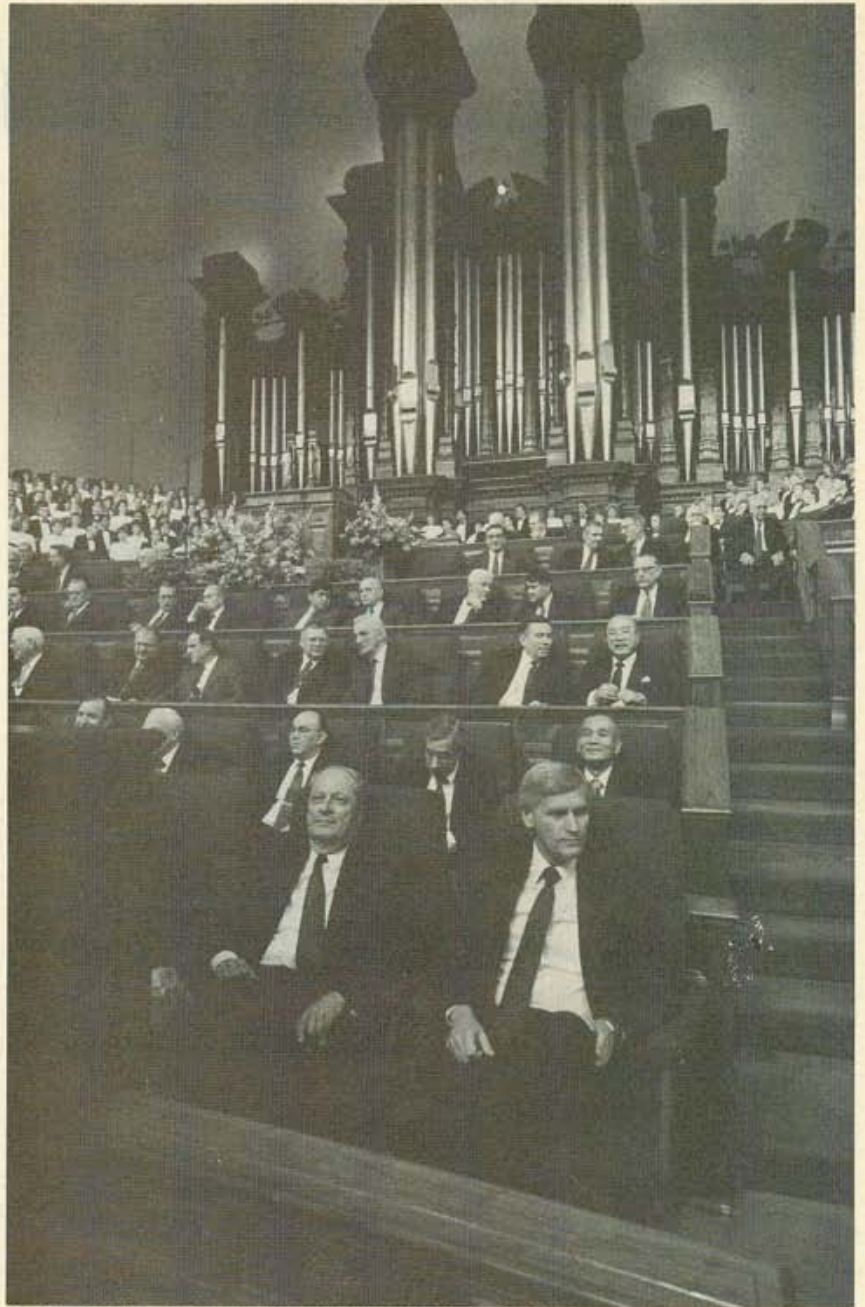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을 심판하고 무자비하게 저주하는 동안에도 우주의 위대하신 아버지께서는 아버지로서의 염려와 부모로서의 관심을 가지고 인간을 내려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사람을 자녀로 보시며, 악인이든 선인이든 편견 없이 끌고루 해를 비취 주시며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모두에게 비를 내려 주십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권능을 쥐고 계시며, 현명하신 입법자이시고, 또한 인류를 심판하시되 인간의 좁고 편협한 변덕에 따라 심판하지 않으시고 육체를 입고 지상에 있는 동안 그들이 영국, 미국, 터키, 인도 등 어디에 있더라도 관계없이 선을 행했는지 악을 행했는지에 따라 심판하실 것입니다.”(교회 정사, 4 : 595~596)

소위 말하는 물문이즘은 온 세상 방방곡곡에 회원이 있다고 해서가 아니라 모든 진리를 받아들이고 있는 포괄적이고 포용적인 메시지 및 모든 인류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회복되었다는 데 의의가 있는 세계적인 종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면전에서 발하여 우주 공간을 채워 주는 영적인 영향력이 있다고 믿습니다.(교회와 성약 88 : 12 참조) 모든 사람은 성스러운 빛의 유산을 갖고 있으며, 하나님은 그분을 찾는 모든 자녀들에게 인종과 국적과 문화적인 배경에 관계없이 더 밝은 빛과 지식을 허락해 주십니다.

울슨 에프 휘트니 장로님은 어느 대회 말씀을 통해 많은 훌륭한 종교 지도자들이 영감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을 정도로 적은 수의 성도들만으로 성취하기에는 너무 거대하고 막대하며 너무 힘이 드는 일을 성취하시기 위해 성약의 백성들은 물론 다른 사람들도 활용하십니다...”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거룩한 신권의 권능이 있어 왔으며, 축복사와 예언자 및 사도 등은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주어진 일들을 수행하며, 이들의 활동 영역 밖에서는 하나님께서 신권은 소유하지 않았으나 깊은 사고력과 풍부한 지혜를 갖고 있으며 다른 사람들을



세 분을 제외하고 모든 총판리 역원이 대회에 참석하였음. 본 제이 패더스토운 장로와 헬레시오 마틴스 장로는 병환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으며 한인상 장로는 모친의 별세로 참석하지 못하였음.

고무시키기를 간절히 원하는 선하고 훌륭한 사람들을 각 나라로 보내서서 충분한 복음은 아니지만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고 현명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진리의 일부를 전하게 하십니다.”(대회 보고, 1921년, 32~33쪽)

회복된 복음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에 바탕을 둔 만인을 위한 성스러운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이 중요한 메시지가 1978년 2월 15일에 대관장단이 발표한 성명에

다음과 같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고대와 현대의 계시에 근거하여 모든 사람은 육신의 조상을 통해 연결된 관계로서 뿐만 아니라 영원하신 아버지의 영의 자녀로서 서로 형제요 자매라는 기독교 교리를 기쁘게 가르치고 전파합니다.”(제이 스펜서 팔머, 팡창해 가는 교회, “소개” 중에서, 솔트레이크시티 : 데저렛 출판사, 1978년, 5쪽)

교회 역원 지지

고든 비 힝클리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1보좌

말일성도는 우리와 신앙이 같지 않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이고 포용적인 자세를 취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문자 그대로 우리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과 딸인 우리의 형제와 자매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의 계보를 거슬러 올라가면 끝에 가서는 모두 하나님에게 연결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나아가서 그것이 어디에 있든지 관계 없이 아름답고 진실한 것들을 추구합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께서 빛과 선하심으로 자녀들을 축복하시되, 그들의 형편에 맞게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형제애를 키우고 계시된 진리를 가르치고자 하는 겸손한 노력으로, 우리는 온 세상의 백성들에게 조지 앨버트 스미스 대관장님이 아름답게 표현하신 다음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진리와 미덕을 빼앗고 여러분의 결점을 찾아 비판하며 여러분이 행하지 않은 것을 질책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형제로서 이곳에 온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갖고 계신 모든 좋은 것들을 잘 간직하시고, 좀더 행복해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면전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시도록 우리가 여러분에게 더 좋은 것을 가져다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당부드립니다.”(다른 사람과 복음을 나눔, 프레스턴 니블리 편찬, 솔트레이크시티: 데저레트 뉴스사, 1948년, 12~13쪽)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의 신앙의 힘과 효력은 역사와 국적 및 문화에 얽매이지 않으며, 어느 한 백성이나 연령층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 스미스가 말씀한 대로 “세상의 왕국보다 더 위대한”(교회 정사, 5:526) 것입니다.

우리의 종교는 구원의 진리를 포함하고 있는 영원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우리 종교의 메시지는 주께서 경건과 살아 계신 예언자를 통해 계시하신 사랑과 형제애의 메시지입니다. 여기에는 모든 진리가 포함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계시해 주셨고 앞으로 계시해 주실 모든 지혜를 포용하고 있습니다. 그 영원한 계시의 참됨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마음을 감동시켜 주는 음악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이제 교회의 총관리 역원과 본부 역원의 명단을 발표하여 여러분의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에즈라 테프트 벤슨 대관장을 예언자, 선견자, 계시자로 또한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대관장으로, 고든 비 힝클리 형제를 대관장단 제1보좌로, 토마스 에스 몬슨 형제를 대관장단 제2보좌로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지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워드 더블류 헌터 형제를 십이사도 평의회 회장으로, 십이사도 평의회 회원으로 하워드 더블류 헌터, 보이드 케이 패커, 마빈 제이 애쉬튼, 엘

톰 페리, 데이비드 비 헤이트, 제임스 이 파우스트, 닐 에이 맥스웰, 러셀 엠 넬슨, 델린 에이치 옥스, 엠 러셀 벨라드, 조셉 비 워스런, 리차드 지 스코트 형제를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지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대관장단 보좌와 십이사도를 예언자, 선견자, 계시자로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지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4월 연차 대회 이래, 한 인상 장로와 스티븐 디 베이들드 장로와 샘 케이 시마부꾸로 장로가 칠십인 제이 정원회의 회원으로 봉사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부름을 받은 이 형제들을 지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년 반 동안 총관리 역원으로서 봉사하신 분들의 노고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지니고, 우리는 칠십인 제이 정원회의 회원인 에이치 벌란 앤더슨 장로, 조지 아이 케넌 장로, 프랜시스 엠 기번즈 장로, 그리고 가드너 에이치 러셀 장로를 해임합니다. 이 형제들은 충실하게 헌신적으로 이기심을 갖지 않고 평강히 많이 봉사했습니다.



이분들의 노고에 대해 감사하시는 분은 모두 손을 들어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본부 청남 회상단 제1보좌인 리그랜드 알 커티스 장로와 제2보좌인 로버트 케이 델린바흐 장로를 해임하며, 본부 주일학교 회장단 제1보좌인 에이치 벌란 앤더슨 장로와 룰런 지 크레이븐 장로를 해임합니다.

이분들의 노고에 대해 감사하시는 분은 모두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로버트 케이 델린바흐 장로를 본부 청남 회장단 제1보좌로, 스티븐 디 데이돌드 장로를 본부 청남 회장단 제2보좌로, 또한 하트만 렉터 이세 장로를 본부 주일학교 회장단 제1보좌로, 클린튼 엘 커틀러 장로를 본부 주일학교 회장단 제2보좌로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지지하시는 분은 모두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현재 구성되어 있는 다른 총관리 직원들과 본부 직원들을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지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장일치로 모두 지지하셨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사랑과 신뢰로써 계속 성원해 주시는 여러분의 지지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

계시는 경전을 통하여 음

보이드 케이 패커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우리는 성찬식 및 그 밖의 모임들을 진정한 예배 모임으로 만들기 위하여, 새롭게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및
몰몬경이 참되다는 간증은
섬세하고 순화된 영적인 교통을
통해서 옵니다. 경전에서 이것은 빛(교성
88 : 11, 67)으로서, 가슴의 뜨거움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느낌(니파이일서 17 :
45)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적당한 표현일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간증은 우리가 참 마음과
참 뜻(모로나이서 10:4)을 가지고 구할
때 옵니다. “너희가 구하면 계시 위에
계시를, 지식 위에 지식을 받아 기쁨을
얻을 것이요, 영생을 가져다 주는 비밀과
평화로운 것을 알 수 있게 되리라.”(교성
42 : 61)

경전에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마태복음 21 : 22, 야고보서 4 :

3, 요한일서 3 : 52, 니파이일서 15 : 11,
이노스서 1 : 25, 모로나이서 4 : 21,
모세서 6 : 52 참조)라는 구절보다 더
많이, 여러 방법으로 나타난 메시지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교통을 간구할
수는 있어도 결코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를 강요한다면 우리는
미혹당하게 될 것입니다.

“마음으로 울부짖”었던 이노스는 “보라
주의 음성이 내 마음에 다시
임하시어”라고 말했습니다.(이노스서 1 :
10) 이 영적인 교통이 마음으로 오게 될
때, 이것은 단순한 생각이라기 보다는
치리리 느낌으로서, 인상으로서 더욱
많이 오게 됩니다. 만일 우리가 이러한
것을 경험해보지 못했다면 이 섬세한
과정을 묘사하기란 참으로 어렵습니다.

지성이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간증은 지성만으로는 전달되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니라”
(고린도전서 2 : 13~14)

최근에 대관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는
교리와 의식에 심취하여 지성만으로
이들을 가능하려는 단체에 참여하는 것의
위험성에 대하여 교회 회원들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만일 교리와 행위가 지성만으로

가능되어진다면, 필수적인 영적인
요소들이 사라지게 되어, 우리는 잘못
인도될 것입니다.

처음에 우리는 개인적인 간증을 통해
확인을 받게 되며, 그 이후에는 지성과
영의 조화로운 결합을 통하여 거듭
확인을 받게 되고 이해력이 커지게
됩니다. 간증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어서, 개인적인 기도와 간구에 대한
응답으로서 주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마태복음 18 : 20, 교리와 성약
6 : 32)

합당한 권능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모임에서 교리를 배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일부 회원들, 심지어는
성전에서 성약을 맺은 회원들까지도
와드나 스테이크 지도자들 혹은 교회의
총관리 역원들보다도 더 높은 영감의
근원을 가지고 있는 듯 주장하며
비밀스런 요소가 있는 단체와 서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다음 사실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경고받은 것처럼 “성약에 따라 택하신 자
바로 그 참된 택하신 자도 미혹케
하리라”한 거짓 계시가 존재합니다.(요셉
스미스서 1 : 22)

주님께서는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함께 모여서 너희 자신과 주변을
정리하며...기도와 금식을 계속
할지이다...왕국의 교리를 서로
가르치라...그리하면 나의 은혜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가 이해하면
유익한 이론과 원리와 교리와 복음의
율법과 하나님의 왕국에 관계되는 모든
일을 더욱 온전히 배우게 되리라.”(교성
88 : 74~80)

우리가 복음의 교리를 배우기 위해
모일 때, 거기에 경건의 영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건
과 이것이 계시와 맺고 있는 관계에
대해서입니다.

영감은 화평스러운 분위기에서 더욱 잘
옵니다. *고요한, 가만히, 평화로운, 보혜사*
등과 같은 말들이 경전에 많이 나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찌어다”(시편 46 : 10) 이러한 약속도 있습니다. “너는 나의 영, 성신 곧 보혜사를 받을 것이요, 성신께서 내게 왕국의 평화로운 것을 가르쳐 주시리라.”(교리와 성약 36 : 2) 엘리야는 바람과 지진, 불을 느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것 중 어디에도 계시지 않았으며 “세미한 소리”로 오셨습니다.(열왕기 상 19 : 12)

힐라멘은 계시의 소리에 대해 “이 음성은 뇌성도 아니요 큰 소리도 아니었고, 보라 다만 심히 부드럽고 잔잔한 소리요 작은 속삭임 같았으나, 듣는 자의 심령을 꿰뚫었고”라고 말했습니다.(힐라멘서 5 : 30)

천사가 “너희에게 작고 조용한 소리로 말하였으나 너희 마음이 무디어 듣지 못하는지라”(니파이일서 17 : 45)라고 말하며 형들을 일깨워 준 사람은 니파이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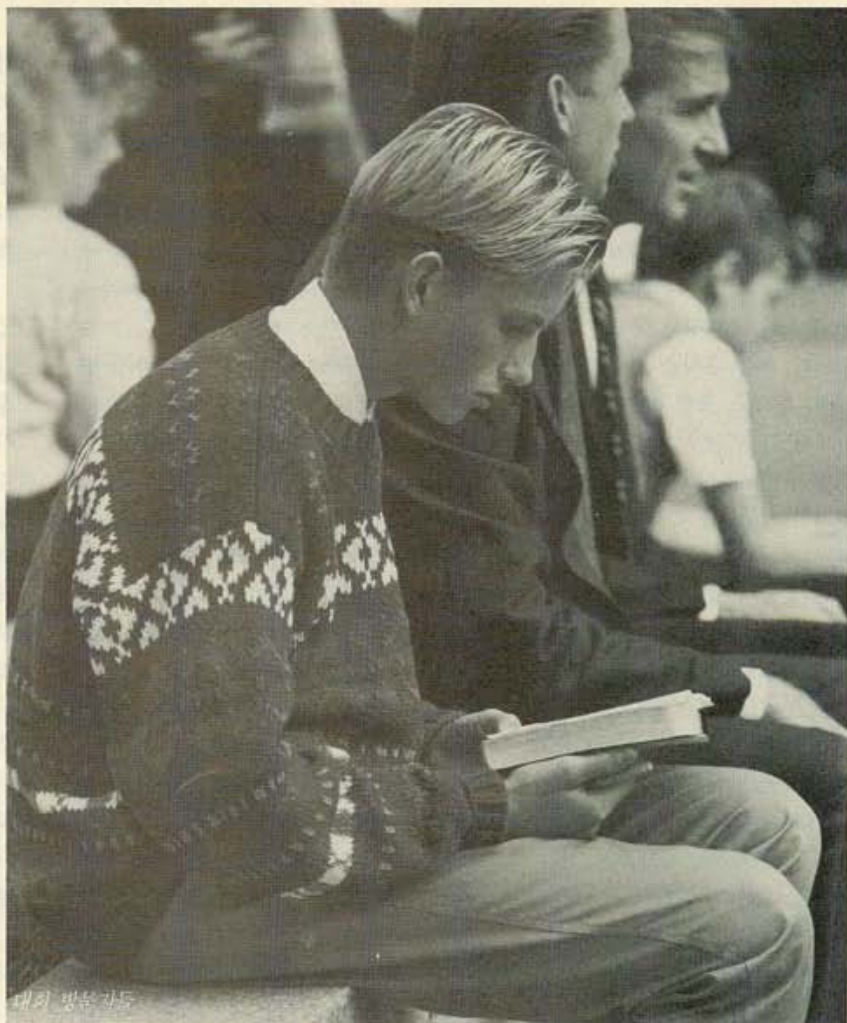
지난 몇 년 동안 우리는 교회 내에서 여러 가지 유형의 경건과 불경건을 보아 왔습니다. 높이 칭찬할만한 것들도 많았지만, 아직도 우리는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깊이 우려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은 갈수록 시끄러워지고 있습니다. 복잡 상태와 행동들이 점점 더 흐트러져가고, 단정치 못하며, 난잡해져가고 있습니다. 현란한 색의 조명이 번쩍거리는 가운데, 확성기를 통하여 터져나오는 외설스러운 가사를 담고 있는 귀에 거슬리는 음악은 약물 문화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것들이 우리의 청소년들에게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의사들조차도 우리의 육체적인 창각이 이런 소음을 들음으로써 영원히 손상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욱 요란하고, 분노하며, 다툼을 일으키며, 자제력이 없고, 위엄과 예의가 없어지는 이러한 경향이 우연한 것은 아니며, 순수한 것도 아니고, 해악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군사적 침략을 개시하는 지휘관이 내리는 첫번째 명령은 바로 정복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통신 수단을 교란하는



것입니다.

불경건은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모두 미세한 계시의 통로를 막음으로써 악마의 목적을 채워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찬식 및 그 밖의 모임들을 회원들이 영적으로 영양분을 받고 충분한 간증을 얻으며, 구도자들이 영적인 개종에 필요한 영감을 얻을 수 있는 진정한 예배 모임으로 만들기 위하여, 새롭게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집회소는 사교 모임과 춤, 연극 및 운동까지도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보조 조직 활동들은 세상에서 행해지고 있는 것과 비교해 볼 때, 절제되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음악과 복장, 행동들은 안식일에 공과반이나 예배당에서의 합당한 것들과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우리가 안식일 모임에 갈 때는, 음악과

복장, 그리고 행동이 예배에 합당하도록 해야 합니다. 예배당 입구에 마련된 공간은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으레 할 수 있는 인사와 담소를 나눌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단 예배당으로 들어서면, 미세한 영적인 교통을 느끼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을 방해하지 않도록 우리 행동을 조심해야 합니다.

지도자들은 때때로 많은 활동적인 회원들이 살아가는 가운데 자신을 스스로 곤경에 빠뜨리는 이유를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갖는 모임들이 충분히 영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느낄 필요가 있는 것들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예배당에서의 경건하지 못한 행동에 대해서 꾸짖는 것은 아닐지라도 주의를 줄 필요는 있습니다. 지도자들은 경건을 통하여 계시가 온다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제가 말하고 있는 경건은 절대적 침묵과 같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어린 아이들, 특히 화평을 깨지 않기 위해 아기를 데리고 나가는 과정에서 생기는 아기의 울음 소리 정도에는 관대해져야 합니다. 아버지가 연단에 있지 않는 한, 아버지가 데리고 나가야 합니다.

음악은 예배 모임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는 음악을 선정하고, 지휘하며, 부르고, 또한 반주하는 분들이 연사들보다 더 모임에서 경건의 영에 영향력을 줄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음악은 간증의 영, 즉 계시의 영을 불러와 예배의 분위기를 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침서에서 다음과 같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음악 및 가사는 성스럽고 품위가 있어야 하며 말일성도 모임에 합당한 것이어야 한다."(교회 지침서, 1989년판, 2~5쪽) "성찬식에서 사용하는 표준 악기는 울려편과 피아노이다. 오케스트라에서 사용되는 현악기도 때에 따라서는 사용될 수도 있으나 연주되는 음악은 모임의 경건성이나 영적인 분위기를 고조시켜 주는 것이어야 한다. 관악기나 타악기는 일반적으로 적합하지 않다."(교회 음악 지침서, 1975년판, 16쪽)

찬송가에 있는 음악을 조용하게 전주로 연주할만큼 감성을 지닌 울려편 연주자는 우리의 느낌을 부드럽게 해주며 왕국의 평화스러움을 가르치는 가사들이 우리의 마음에 와닿도록 하여 줍니다. 회복의 시대의 찬송가는 사실상 교회의 복음 중 일부이므로 우리가 귀 기울여 듣기만 한다면, 그것들은 복음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회중 찬송을 부르지 않는 지도자와 회원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그분들은 노래를 모르거나 혹은 충분한 찬송가 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시온의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그것들은 예배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찬송가나 송고한 정신이 깃든 회복의 성가를 경시해서는 안됩니다. 찬송가 책에 있는 대관장단

머리글을 읽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서 우리나라는 노래는 나를 즐겁게 하나니, 의인의 노래는 내게 바치는 기도나라. 저희 머리 위에 축복을 주어 응답하라."(교리와 성약 25:12) 성스러운 음악이 우리에게서 멀어져 가고, 이 자리를 세속적인 음악이 차지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다른 경우에는 적합하지만, 안식일에는 맞지 않는 음악이 주어질 때는 많은 것을 잃게 됩니다. 공보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대중 스타일의 종교성을 띤 음악은 회원에게 좋은 영향과 동기를 부여할 수는 있으나 예배 의식에는 품위와 적합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또한 음악 연주회에 적합한 음악은 예배 의식에 적합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공보, 31호: 1986년 9월, 1쪽)

안식일에 성스런 음악보다 세속적인 음악을 좋아하는 합창단은 대중적인 합창단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그들은 인간의 방법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며, 또한 이렇게 함으로써 영감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며,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지닐 수도 있었을 능력을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은 영적으로 부족한 음악을 옳다고 입증하지도,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이제 어떤 분이 제가 음악가로 훈련받지 않았음을 제게 상기시켜 주기 위해, 그리고 세상의 위대한 음악을 들었을 때 오는 감동을 알려주기 위해 저에게 편지를 쓸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위대한 음악이나 대중적인 종교 음악도 신성한 예배 음악과 안식일의 음악 및 계시의 음악이 지닌 특별한 것들을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 밖에 또 다른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경건한 말을 사용하지 않고 갈광질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상 생활에서나 쓰이는 경박한 용어들이 기도드릴 때 쓰이는 경건한 말을 대치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가르치고, 새로운 회원들에게 우리들은 기도로 하나님께 말씀드릴 적에 경건한 용어를 사용한다는 것을 부드럽게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갈수록 어려워져만 가는 오늘날의 세상에서 개인적인 계시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우리들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경건의 영이 교회의 모든 조직에서 그리고 모든 회원들의 생활에 나타날 수 있으며, 또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부모와 스테이크 부장단, 감독단, 보조 조직 지도자들과 교사 여러분, 모임에서 경건의 영을 유지하며, 회중 찬송에 참여할 것과 기도드릴 때 경건한 용어를 사용하도록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즉시 나타나는 기적적인 변화를 볼 수는 없더라도, 주님께서 살아 계시며 확실한 것처럼, 조용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모든 회원들의 생활과 교회에서 영적인 권세가 증가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의 영을 우리들에게 더욱 더 부여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과 혼란이 줄어들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인간적인 조언이 필요해 보이는 개인적인 문제와 가족들이 지닌 문제들에 대한 확실한 응답을 찾게 될 것입니다.

니파이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천사는 성신의 권세로 말하는 것이므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쁘게 지키라. 보라, 그리스도의 말씀은 너희가 행하여야 할 바를 모두 전하여 주심이다.

"그러므로, 내가 이렇게 이야기한 뒤에도 너희가 이를 깨닫지 못한다고 하면, 이는 너희가 구하지 않고 두드러지 아니한 것이다. 너희는 빛 가운데로 인도되지 못하고 흑암에 이끌려가 멸망당하리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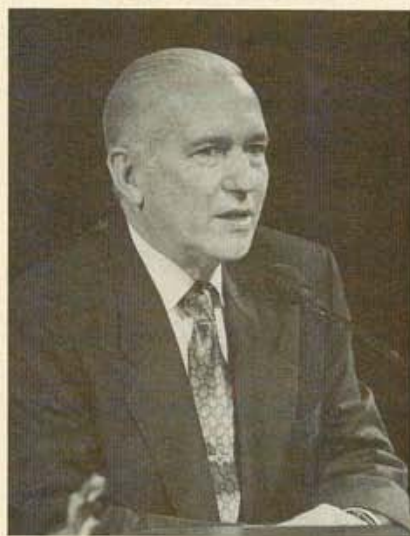
"보라 내가 너희에게 거듭 말하거니와, 너희가 주의 길에 임하여 성신을 받으면 성신은 너희가 행하여야 할 모두를 너희에게 보여 주시리니"(니파이서 32: 3~5)

경건의 영 안에서,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우리가 경건의 영을 유지하지만 한다면 우리의 보혜사이시며 교사이신 성신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것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개종의 과정

줄리오 이 다빌라 장로
칠십인 정원회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과 그분의 교회가 저에게 필요한 해답과 해결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오후에 보이드 케이 패커 장로님의 뒤를 이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저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23년전에 당시 콜롬비아에서 선교사로 봉사하고 있던 그분의 아들 아란이 동반자와 함께 보고타에 있는 우리 집을 방문한 것이 바로 저희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와 처음 만나게 된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그 선교사들과 그들의 부모와 그들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또한 저와 아내 메리가 이 교회에 들어올 수 있게 사랑과 인내로 보살펴 주시고 그 후에도 개종 과정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지원해 주신 교회의 지도자들과 회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그 선교사들이 우리를 가르치러 왔을 당시 저는 큰 어려움에 처해서 슬픔과 걱정에 차 있을 때였으며, 또한 제 인생에 당면되어 있는 몇 가지 중요한 결정을 해야만 했을 때였습니다. 그렇지만 처음에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과 그분의 교회가 저에게 필요한 해답과 해결책이 된다는 그들의 메시지를 깨닫지 못했으며, 하나님께서 그 젊은 선교사들을 제게 보내셨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 저는 주님의 자비로우심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예수께서 속죄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목숨을 바치시고 죽음의 띠를 끊어 사망을 이기셨으며, 또한 우리에게 자신을 따르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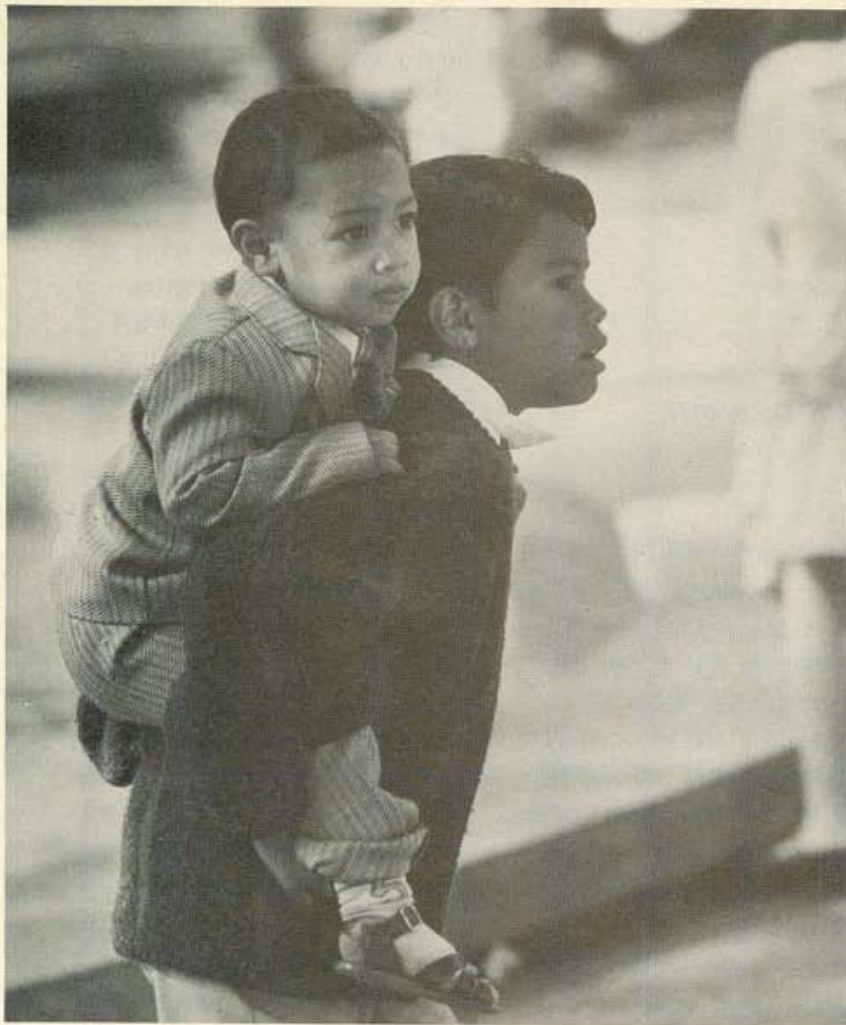
선교사들이 처음 우리들을 가르치는데에는 어려움이 많았지만 여러 번 방문하고 토론한 끝에 저는 영에 의해 감명을 받았으며, 수개월 후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침례를 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몇 가지 해서는 안되는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즉 저를 “형제”라고 부르지 말 것이며 또한 저는 모든 모임에 다 참석하지는 않을 것이며, 모임중에 기도나 말씀도 하지 않고 교회의 부름에도 일체 응하지 않겠다는 것과, 제 친척이나 친구에게 교회에 대해 이야기하라는 부탁을 하지도 말라는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개종이 하나의 과정임을

간증드립니다. 저는 그 선교사들이 제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해 기도하고 금식을 했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내와 함께 교회 모임에 나가기 시작하자마자 저도 모르게 벽에 걸린 사진이 빼들어졌다는 등 집회소 내에 있는 여러 가지 일에 관심을 갖고 비판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지부장은 훌륭하고 현명한 분이셨기 때문에 저를 “그림 관리 책임자”로 임명하셨습니다. 이것이 교회에서 저의 첫번째 부름이었습니다. 교회 지침서에서도 그런 직분을 찾아 보지는 못했지만 제가 주님께 봉사하는 일에 참여하는 좋은 시작이었습니다.

새 회원을 확보하고 기존 회원이 활성화하기를 바라는 교회 지도자와 회원 및 새로운 개종자들에게 다음 권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세상이 구세주의 재림을 위해 준비하는 일에 모든 사람이 참여하도록 하며, 영감을 받은 지도자를 통해 주님으로부터 오는 부름과 해명의 기쁨을 맛보며, 모세서 1장 39절의 말씀처럼 “인간에게 불사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 일”에 하나님과 함께 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새로운 개종자를 위해 주어진 특별한 지침을 따라야 하며 다른 사람들이 진리를 찾는 데 도움이 되도록 시간과 재능과 기술과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제가 맨 처음 복음을 전도하게 되었던 경우도 상당히 흥미가 있습니다. 보고타에 있는 저의 사무실 근처 공원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고 시간이 좀 있어서 무슨 일인가 하고 내려가 보니, 선교사들이 교회에 대한 전시물과 물문경을 들고 전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저는 매우 놀랐습니다. 그들은 저를 알아보고 저에게 “행복하세요. 물문이 되세요.”라고 쓰여진 플래 카드를 들고 공원 한 복판에서 있도록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저는 물문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별로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선교사로서의 저의 능력에 대해 더욱 큰 자부심을 갖기 시작했으며, 교회에 관해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데 대한 두려움이



가시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 스스로 정한 제한 사항들과 “하지 않기로 한 많은 것”들을 버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사랑과 봉사과 희생과 축복, 행복과 영생의 교회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들과 이 시간에도 교회를 찾는 모든 사람들과 회원들에게 저는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이 놀라운 사업에 있어 최대의 결과를 계속해서 기대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부부가 침례를 받은 후 부모님을 포함한 많은 친척들과 몇몇 형제 자매들과 그들의 가족이 우리의 모범을 보고 교회에 들어와 신권 지도자와 보조 조직 지도자로 봉사하거나 복음 선교사로 봉사하고 있으며 죽은 우리 조상과 우리 자신들을 위해 송영과 구원의 의식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18년 전에 아내와 저는 솔트레이크 성전에서 영원한 인봉을 받았으며, 그

다음 해에 로스엔젤레스 성전에서 딸 리아나와 마릿츠와 함께 영원한 가족으로 인봉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일에 대해 저는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과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큰 감사를 드립니다.

해럴드 비 리 대관장님의 말씀을 인용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어떤 사람이 꼭 봐야 할 것을 직접 목격하고 꼭 들어야 할 것을 귀로 듣고 꼭 이해해야 할 것을 마음으로 깨달았을 때 그 사람이 개종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보고, 듣고 깨달아야 하는 것은 진리, 즉 영원한 진리이며 그것을 실천하면 그것이 바로 개종인 것입니다.”(성스러운 곳에 설지이다, 솔트레이크시티 : 데저렛 출판사, 1974년, 92쪽)

에즈라 테프트 벤슨 대관장님께서 1974년 스투홀름 지역 대회에서 “인간이 가장 크게 성장하는 것은 가장 큰 성공과

안락한 생활을 누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강인한 기질을 갖게되는 것은 종종 애통과 실망과 역경의 골짜기에 빠졌을 때입니다.”(대회 보고, 스투홀름 지역 대회, 1974년, 70쪽)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통해서 회개와 용서가 개종의 일부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모로나이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기록된 축복을 맛 본적이 있습니다.

“이제 나는 침례에 관하여 말하리다. 보라, 장로와 제사와 교사들이 침례를 받았으며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은 채 침례받지 아니하였으며,

“상한 마음과 애통하는 심령으로 나아와 교회 회원 앞에서 저들이 지은 모든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였음을 증거하지 않고서 침례받지 아니하였으며,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저를 끝까지 섬기기로 결심하지 않고서 침례받지 아니 하였느니라.

“그리고 저들이 침례를 받은 뒤에는 성신의 능력으로 정결하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백성으로 해아림을 받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으로 양육되어 이를 바르게 지키며 깨어서 항상 기도하며 저들의 신앙을 이루어 주시며 온전케 하시는 이이신 그리스도의 공덕만을 의지하도록 저들의 이름이 기억되나니”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어 아들이신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으며 요셉 스미스는 만물의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예언자로 예임되고 세우심을 받았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에즈라 테프트 벤슨 대관장님은 주님께서 선택하신 살아계신 우리의 예언자로서 참된 교회인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물몬경과 성경은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의 성서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보고 듣고 깨달아서 실천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겸손하게 간구합니다. 아멘. *

작고 고요한 음성

그레이엄 더블류 독서 장로
철십인 정원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오늘날의 급변하는 생활과 주위의 소란으로 인하여 우리는 흔히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형 제 자매 여러분, 이 새로운 임무를 맡으면서 제 마음이 겸손해 지는 것을 느끼며, 또한 제 주위에 앉아 계시는 총관리 직원들로부터 따뜻하고 강한 형제애를 느끼면서 용기를 얻습니다.

니파이와 마찬가지로 저도 “훌륭하신 부모님에게서 태어나... 학문을... 배웠고”(니파이일서 1:1) 그 다음 회원인 아름다운 여왕과 같은 부인과 결혼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저는 지금 이차적인 교육을 받고 있는 셈입니다. 저는 자녀를 갖는 축복과 함께 인턴 생활을 시작했는데, 지금은 자랑스런 손자 손녀들이 저희 부부의 대학원 과정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이 세상에서 얻은 예지는 어떠한 것이든 다 부활할 때에 우리와 함께 부활”(교리와 성약 130:18)할 것을 믿으며 또한 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의 각급 지도부에서 남다른 경험을

쌓으신 스펜서 더블류 킴블 대관장님은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하라는 지명을 받은 이후 마음에 담고 있던 주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불타는 가시나무, 연기에 휩싸인 산, 구모라 언덕과 커틀랜드 성전은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예외적이었습니다. 많은 계시들이 모세와 요셉에게 주어졌으며 오늘날에도 예언자에게 눈에 띄지 않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즉 장관을 이루거나 극적 사건들이 아니고 깊은 영감을 통해 오는 것입니다. 항상 특별한 기적을 기대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끊임없는 계시의 흐름을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독일,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이탈리아, 스위스, 프랑스, 벨기에, 스페인 지역 대회, 1973년, 77쪽)

기도에 대한 응답이 극적이고 기적으로 올 수도 있으나 그것들은 예외적인 것입니다. 이 지상에 세워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왕국에서 가장 높은 임무를 갖고 있는 분들에게까지도 계시는 작고 고요한 음성으로 옵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백성에게 거부받고 실망을 한, 한 초기 예언자에 관한 이야기를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자녀들이 그들의 성약을 버리고 제단을 부수며 예언자들을 학살할 때 주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왔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너는 나가서 여호와와 앞에서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열왕기상 19:11~12)

저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오늘날의 급변하는 생활과 주위의 소란으로 인하여 우리는 흔히 주님 말씀을 듣지 못한다는 것을 간증으로 갖고 있습니다. 저는 젊은 시절에 한 나이든 분의 회사에 근무한 적이 있는데 그분은 청각 능력을 약간 상실한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보청기가 없었기 때문에 말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 크게 말하라고 계속해서 부탁했었습니다. “더 크게 말하시오. 목소리를 높여요. 당신의 말을 알아 들을 수가 없소.”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이것은 TV와 콤팩트 디스크등 음을 높일 수 있는 장치가 있기 이전에 있던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텔레비전과 라디오, 테이프의 홍수 속에서 젊은이들이 이성적인 것에 귀를 기울일 시간이 있었습니까?”라고 한 말을 듣고 저도 공감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듣는 것이 큰 과제입니다.

들을 시간과 능력과 열의를 갖추어야 합니다. 종교적인 문제에 대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뭣이라고 말했오. 크게 말하시오. 들을 수가 없소.”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큰 소리로 답하지 않으시거나 숲이 타게 하지 않으시거나 그분의 손가락으로 우리를 위해 돌에 메시지를 쓰지 않으시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우리에게 무관심하시다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예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엘리자벳 베렛 브라우닝은 “모든 숲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불붙고 있는데 그것을 보는 이만이 신을 벗는다.”(엘리자벳 베렛 브라우닝 전집, 1900년, 372쪽)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신가? 나를 사랑하시는가? 내게 말씀하고



계신가?"라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여러분은 그분께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신을 벗었습니까? 이것은 엘리야를 위한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또한 현대의 예언자들에 있어서도 그 작고 고요한 음성은 아직도 작고 고요합니다.

우리는 "청각 보조 기구"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큰 어둠의 소리를 어떻게 가려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세 가지 분명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여러분이 매 주 드리는 예배에 더 활발히 참여하십시오. 예를 들면 찬송가를 부를 때 가사의 뜻을 음미하고 음악의 영감을 느끼십시오. 음질은 상관하지 말고 열의를 갖고 노래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기분이 좋아질 것입니다. 또한 성도들과 함께 마음속으로 노래를 부르면 여러분의 심령은 활기를 띠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 머리 위에 축복을 주어 응답하리라고 약속 하셨습니다.(교리와 성약 25:12 참조)

그 후에 성찬을 취하십시오. 성찬을 형식적으로 들어서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다시 다짐하는 성약들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진심으로 보이십시오. 그분을 항상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지킬 것을 다짐하십시오. 주님께 순종하면 주님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만일 이 성스러운 의식이 여러분의 신앙에서 그저 평범한 것이 되고, 영적으로 거둔다기 위해 매 주 실시하는 성찬식 때 마음을 딴 곳에

두거나 성찬이 전달될 때 생활에 새로운 다짐이 없이 단지 빵과 물을 취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청각을 위한 중요한 보조 기구를 버리는 것이 됩니다.

둘째로, 우리가 바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이기적인 욕망 때문에 하나님께 서둘러서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한 다음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열거하는 데 기도의 시간을 써버립니다. 우리는 삶의 "안전을 보장하는 담요"가 돼버린 죽음의 물체를 꼭 쥐고 있는 손을 풀어야 합니다. 만일 가정에서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과 떨어져 살지 않으려고 꼭 쥐고 있는 손을 풀다면, 그로 인해서 탄생될 수 있는 선교사가 얼마나 많을 것인가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렇게 되면 주님은 기적을 행하셔서 18개월간 헤어져 있을 동안에도 여러분과 자녀 손자녀들이 문제 없이 살 수 있고 더욱 더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는 "제 뜻대로 마음시키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옵나이다."라고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주님의 속삭임이 크고 분명하게 들릴 것입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리버티 감옥에서 5개월간의 극심한 고난 후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온유하게 될 때 '나의 아들이, 평안할지이다.'(교리와 성약 121:7)라고 하시는 영감의 소리가 조용히 속삭일 것입니다."(교회 정사, 3:293쪽)

세번째의 청각 보조기는 경전과 관련이 있습니다. 교리와 성약에서 주님은 경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 메시지에

마음을 쏟지 않고 읽는 것은 듣는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교리와 성약 18편에서 우리는 다음 말씀을 읽습니다.

"나 예수 그리스도, 너희 주, 너희 하나님이 이르노라.

"이 말씀은 인간의 것이 아니요, 나의 것이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 말씀이 나의 것이요, 인간의 것이 아님을 증거하라.

"나의 음성으로 너희에게 이 말을 하노니, 이 말이 나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주어짐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음성을 들었고 나의 말을 알고 있음을 증거할 수 있느니라."(교리와 성약 18:33~36)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에게 일방적인 기도로 보여지는 것이 우리가 경전에 심취했을 때 사실은 하나님과의 대화가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 시대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지진에 계시지 않고 바람 속에도 전쟁의 불꽃 속에도 계시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작은 소리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김볼 대관장님과 같이 저도 우리의 예언자 에스라 테프트 벤슨 대관장님을 통해서 그리고 그분의 보좌들과 십이사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흐르는 계시가 이 교회를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계시는 칠십인과 관리 감독단을 통해서도 오며, 스테이크 부장단, 감독 그리고 세계의 모든 정위원회와 교회 지도자 및 선교사와 집안의 가장에게도 주어집니다. 저는 아직도 이 작고 고요한 음성이 여러분 개인에게도 전해진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조용히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시편 작가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찌어다"(시편 46:10)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며 그분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무엇을 파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을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고 여러분 가까이 계시며 우리는 이 말일에 살아계신 예언자에 의해 인도되고 있다는 것을 엄숙히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성스러운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최후의 유산... 비유

크리 엘 코포드 장로
철십인 정원희

“여러분이 아무리 오래 살고 아무리 많은 실수를 해왔을지라도 여러분은 아직도 자신의 생의 이야기를 변경시킬 수 있습니다.”



이 역사적인 연단에 서니, 앞서 이 자리에 섰던 형제 자매님들이 생각나며 또한 주님께서 모세에게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출 3:5)라고 하신 말씀이 떠오릅니다.

이 성스러운 곳에 서면서 저 또한 신을 벗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영원의 중요성에 대해 가르치고 싶습니다. 이것을 상징적인 뜻을 갖고 있는 한 이야기를 통하여 비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징적인 뜻으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오늘 이곳에 여러분의 선임 변호사에 의해 소집된 변호인단의 일원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피고인의 입장이 된 여러분 각자의 법적 절차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와 다른 변호인단은 변론을 조심스럽게 검토하고 있으며 반대편 변호인들이 여러분이 최후의 유산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다고 증명하려하는 의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반대편 변호인단은 여러분이 패배하도록 필요한 모든 증거를 모으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행해졌고, 결정되었던 행위에 따라 우리는 여러분 각자의 사업이나 개인적인 거래에 대한 모든 기록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는 여러분의 이웃, 친구 및 사업상 아는 사람들에 관한 것들이 포함됩니다. 게다가 여러분의 배우자, 자녀, 부모 및 친척들이 말한 완전한 비밀까지도 포함됩니다.

여러분은 반대편 변호인들이 여러분의 유산을 빼앗기 위해 필요한 많은 시간과 노력과 돈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이미 여러분 각자에 대한 소송을 준비하는 데 막대한 돈을 투자했으며, 또한 재능있고 능력있으며 그런 일을 수행하는 데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을 고용하고 틀림없이 이길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여러분에게는 제가 보았던 사람들 중 가장 재주있고, 유능하고, 부지런한 변호인이 변론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대법관 앞에서 여러분을 위해 변론하는 모습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예를 들어 반대편 변호인은 여러분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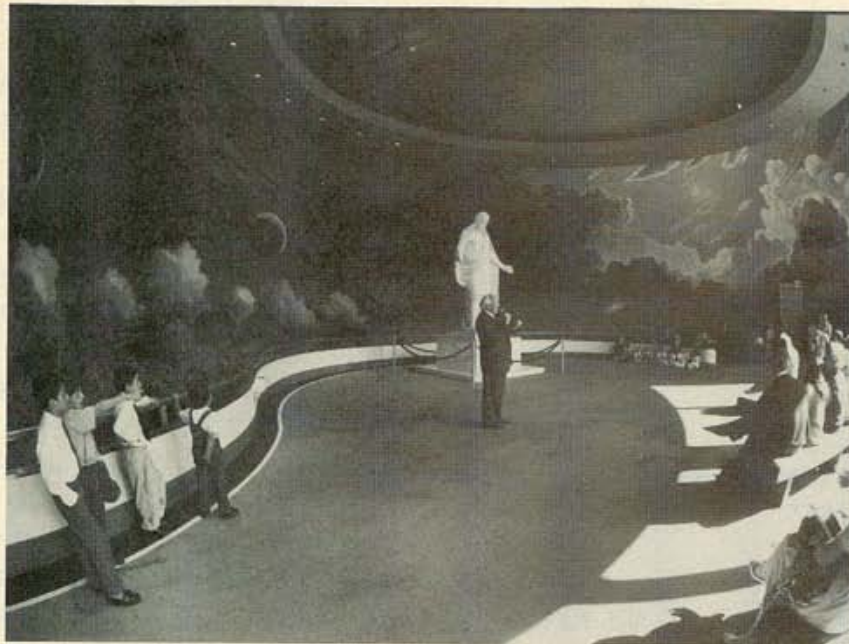
몇몇 사람들이 최후의 유산을 이미 포기하였다고 할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약식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저는 그의 기소 내용이 아주 훌륭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얼마 동안 우세하게 사건을 전개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법정의 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끄덕이며 그의 말에 동의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의 말에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는 여러분 중 몇몇 사람의 이름을 들먹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피고인들이 이렇게 긴 세월을 지내면서도 최후의 유산을 얻기에 합당한 절차를 아직도 받지 않았는데 우리가 왜 더 이상 법정에서 시간을 허비해야 합니까? 자, 이제 간단히 그들에 대한 재판을 유죄로 인정하고 끝내기로 합시다.” 그의 말씀은 너무 힘이 있어 그가 말씀을 끝냈을 때 관람석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여러분의 선임 변호사가 일어났을 때 주위는 아주 조용해졌습니다. 법정 안에는 긴장이 감돌았습니다. 방금 발표한 내용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그곳에 있었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대편 변호인이 허풍을 떨며 냉소적으로 변론하던 것과는 반대로 여러분의 변호인은 마치 조금씩 흐르는 물이 큰 강을 이루는 힘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을 변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겸손하고, 나직하기는 했지만 의미심장하고 강력한 변론이었습니다. 그는 여러분을 변호하였습니다. 저는 법정에서 있는 많은 사람들의 볼 아래로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보면서 그가 준 영향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가 변호한 내용을 모두 기억할 수는 없지만 인간이 천사보다 조금 못하다는 것(시편 8:5 참조)과 인간의 가치가 심히 크다(교리와 성약 18:10 참조)고 말한 말씀만을 기억합니다.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그의 눈이 연민으로 가득차고 음성이 분노로 떨리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요 8:7)라고 훈계하던 때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이 생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준비하는 시간이라고(앨마 34 : 32 참조) 말씀했으며 어떤 사람이 그의 생을 다 마칠 때까지는 아무도 그 인생의 전체를 심판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지 않다는 놀라운 말씀으로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가 변론을 끝내자 법정에는 침묵이 흘렀으며, 판결을 내리는 대법원 판사의 음성만이 들렸습니다. “원고의 소송을 기각합니다. 이곳에서 약식 재판을 하도록 결정했던 이 사건은 사건의 시시비비가 가려질 때까지 유보하는 것이 낫겠습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법정에서 증인대에 서게 되면 법률 용어로 “예비 질문”이라는 것을 받게 되는데, 이것은 증인 심문을 시작하기 위한 간단한 질문들입니다. 그리고 이 법정에서 여러분이 받게 될 예비 질문은 “당신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 하는가?”(마태복음 22 : 37 참조)라는 말씀일 것입니다. 만일 ‘아니오’라고 대답하면 여러분을 상대로 소송이 제기될 것이며 그 소송이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반면에 ‘예’라고 대답하면 반대편 변호인들이 즉시 ‘당신은 주님의 계명을 지키니까?’(요한복음 14 : 15 참조)라는 질문을 함으로써 여러분의 응답에 대한 타당성을 시험하게 됩니다. 이 질문에 부정적인 응답을 하게 되면 여러분이

거짓말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여러분은 그 거짓 증언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됩니다. 만일 여러분이 ‘예’라고 응답하면 이어서 수시간이나 수일에 걸쳐 여러분이 계명을 지키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입증하기 위해 고안된 다음과 같은 질문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런 질문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게 됩니다. :

1. 이웃을 당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가?(마태복음 22 : 39 참조)
2.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보다 세상적인 목표나 개인적인 기쁨을 더 위에 두고 있는가?(출애굽기 20 : 3 참조)
3.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가?(출애굽기 20 : 7 참조)
4.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가?(출애굽기 20 : 8 참조)
5. 부모를 공경하는가?(출애굽기 20 : 12 참조)
6. 간음이나 사통을 범하는가?(출애굽기 20 : 14 참조)
7. 도둑질하는가?(출애굽기 20 : 5 참조)
8. 거짓 증거하는가?(출애굽기 20 : 16 참조)
9. 남의 것을 탐내는가?(출애굽기 20 : 17 참조)

반대편 변호인과 소송팀들은 여러분의 행동과 행위를 매우 소상히 알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죄를 증거하기 위해 증인들을 소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웃들이 여러분의 행위에 대해 그들에게 증언하게 됩니다. 안식일 활동을 준수해온 사람들도 증인석에 서도록 부름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의 약점이 있는 곳에서는 증인들이 여러분이 맹세한 증언에 상반된 증언을 할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의 변호인도 마찬가지로 잘 준비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선임 변호인은 여러분에게 유리한 모든 증거를 준비할 것이며 여러분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증거를 이끌어 낼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소송의 최종 결과는 여러분이 준비하는 자료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변호사들 사이에 쓰이는 격언 중에는 “우리는 자료를 만들지 않으며 다만 그것을 제출할 뿐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을 나타내는 자료가 여러분의 소송을 승리하거나 패배하도록 결정하는 궁극적인 자료가 됩니다.

그것이 오늘 제가 이곳에 온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저는 이 문제에 관해 여러분이 정확히 아는가를 확인하고 대법관이 여러분의 유익이 되는 증거를 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자료를 만드는 데 필요한 것들을 전하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여러분의 인생 자료는 아직 새롭게 만들어질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오래 살고 아무리 많은 실수를 해왔을지라도 여러분은 아직 자신의 생의 이야기를 변경시킬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다시 기록될 수 있으며, 지금도 너무 늦은 것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이 최후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주님을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끝내기 전에 저는 가장 사랑하는 연인인 아내에게 깊은 사랑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아내가 보여주는 훌륭한 여성상을 존경합니다. 또한 저의 가장 훌륭한 친구들인 다섯 자녀와, 제게 무한한 사랑의 기쁨을 가르쳐 주는 열 두 손자들을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해 드립니다. 아멘. *

“이제 너희가 알게 되리라”

조셉 시 뮤른 장로
칠십인 정원회

“저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간증과 은사를 받은 것이었으며 저는 그것에 양분을 주고 소중히 간직할 때 그것이 저의 일상 생활에 지속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약 37년 전에 복음을 듣고 개심하여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서 침례를 받았습니니다. 아이다호 쇼슨에서 온 헨리 에딩턴 장로와 유타주 오렘에서 온 엘리저 아세이 장로가 제게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했을 당시 저는 대학에 다니는 1학년 학생이었습니다.

저는 토론에 흥미를 갖게 되었으며, 뒤늦게 나이들이 선교사로 부름받은 이 두 명의 교회 대표가 전하는 새로운 지식에 지적인 호기심이 발동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제가 대학교로 돌아가기 전 마지막

저녁 토론은 에딩턴 장로가 인도하였습니다. 그는 왜 회복이 필요했는지에 관해 복습한 다음 잠시 멈추고 그들의 말씀이 참되다는 것을 엄숙하게 간증하였습니다. 그런 후 그는 한쪽 뿐인 손을 저의 무릎에 올려 놓고 “이제 형제님은 이 말씀이 참되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저의 마음에 불처럼 다가와 마치 저를 태워버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육체적으로는 탈진 상태가 되었지만 교회가 참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스스로 깨달았습니다.

거의 30년이 지난 후 어느 날 아이다호주에 일이 있어 들렀을 때 한 자매가 제게 다가와 “뮤른 형제님, 토요일인 내일 저희 집에 오셔서 점심을 같이 하지 않으시겠어요?”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곤 저의 대답도 기다리지 않은 채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캘리포니아에서 형제님께 복음을 가르쳤던 장로들 중 한 사람인 헨리 에딩턴의 딸, 벨마 홀싱어입니다. 저는 부친의 선교사 일지를 갖고 있는데, 형제님의 개종에 관련된 부분에 표시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서둘러 그 집으로 가서 흥분된 마음으로 표시된 부분을 읽었습니다. 제가 가장 흥미를 가졌던

곳은 내게 복음이 진실함을 알도록 해준 경험을 다룬 구절들이었습니다.

에딩턴 장로는 일지에 그와 아세이 장로가 그날 함께 특별 금식을 하고 “젊은 조 뮤른이 스스로 알 수 있도록” 기도했다고 기록했습니다.

1954년 저녁에 제게 일어났던 일은 물론경에서 주님의 종들이 “권위와 큰 권능으로 가르쳐 전하였”(니파이삼서 7: 17~18 참조)던 내용과도 흡사하였습니다.

여러 해가 지나면서 저는 그것이 단순히 일시적인 영적 체험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간증과 은사를 받은 것이었으며 제가 그것에 양분을 주고 소중히 간직할 때 그것이 저의 일상 생활에 지속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비회원들로부터 종종 왜 교회에서 아세이 장로와 에딩턴 장로같은 수만 명의 선교사들을 매년 계속해서 보내느냐는 질문을 받습니다. 그들은 “왜 여러분은 이미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나라에까지 선교사들을 보냅니까?”라고 질문합니다. 왜 나이가 60세나 된 아세이 장로는 여러 해 동안 그의 아내를 떠나서 캘리포니아에서 선교 사업을 했을까요? 왜 교장직을 정년 퇴직한 에딩턴 장로는 인생의 “황금기”에 그의 가족과 함께 아이다호주에 남아 여생을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경전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후 부활을 증거하고 사도들에게 성스러운 책임을 부여하기 위해 지상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마태복음 28: 19)라고 명하셨습니다.

오늘날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구세주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열방에 가서 가르치는 일을 계속해서 성스러운 책임으로 믿고 수행하고 있습니다.(마태복음 28: 20 참조) 예언자에 의해 부름받은 이 수많은



전세계의 여러 나라에서 온 교회 지도자들과 회원들이 태버나클 지하층에 마련된 통역실에서 수고하는 통역자들을 통해서 자기 나라의 모국어로 대회 진행 상황과 말씀을 경청할 수 있었다. 통역자들은 캄보디아어, 몽어, 러시아어 그리고 나바호어를 포함해서 33개의 언어로 대화·말씀을 통역했다.

선교사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들을 잊지 않고 계시다는 가시적인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며 우리 각자를 개인적으로 알고 계시다는 것을 온 세상에 간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과 저를 그분의 면전에 데리고 갈 수 있는 성스러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구세주는 현대의 예언자들을 통해 이 생에서의 행복과 앞으로 올 세상에서의 영원한 기쁨을 가져다 주시고, 이 생의 모든 목표를 알려 주고 성스러운 계획을 밝혀 주는 모든 가르침과 의식 및 하나님의 신성한 신권을 지상에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다시 한 번 왜 우리 교회에는 4만명 이상의 복음 선교사들이 있는가에 관한 질문을 해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며, 이들 선교사들은 그분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선교사들은 주님의 대표자들입니다! 그들은 진실로 세상이 필요로 하며

원하는 말씀을 갖고 세상에 나아갑니다.

여러분도 역시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또한 스스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복음의 참됨에 대한 증거를 받았기 때문에 그 간증을 소중히 간직하기를 권고합니다. 그것은 아주 조심스러운 것이며 부서지기 쉬운 것입니다! 그것은 기도와 경전 읽기, 그리고 합당한 때에 합당한 장소에 있음으로써 영양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간증이 성장할 것이며 여러분은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강한 영향력을 줄 수 있을 것임을 약속하며 간증드립니다.

오늘 이곳에는 비회원인 저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를 찾는 것이 필요하며 우리는 여러분에게 어떻게 교회가 이 말일에 지상에 회복되었는지 가르칠 수 있도록 교회에서 파견한 에딩턴 장로와 아셰이 장로같은 분들이 말씀을 전하도록 허락해 주시길

당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분의 종들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새로운 삶을 마련해 주시고자 하십니다. 경전은 그것을 거듭남이라고 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에게 "가서... 가르칠 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 : 19 참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령하심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좇는 것이 아니라고 한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간증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는 1820년에 지상으로 돌아오셔서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하나님의 신권과 구원의 계획을 회복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느끼고 보았던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회개

닐 에이 맥스웰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회개는 구제하기 위해 있는 것이지 벌주기 위한 교리가 아니며, 큰 죄를 진 죄인에게 뿐만 아니라 이미 선한 행동을 하는 사람일지라도 점차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적용되는 교리입니다.”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저도 새로 부름받은 총관리 역원들의 재능과 그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간증으로 인하여 기쁨을 느낍니다.

수개월 전부터 저는 하나님 왕국에서 가장 중요하고 자비로운 교리 중의 하나인 회개에 대해 강조해 왔으나, 우리들 가운데는 이것을 마치 자동차 범퍼에 붙은 스티커 표어처럼 쉽게 지나쳐 버리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나와 같은 자라야”(니파이삼서 27:27 참조)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각자 규칙적인 회개를 통해서 발전하여 주님과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만 하겠습니까. 개인적으로 회개하는 일은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일(누가복음 9:23 참조)중 중요한 일부가 됩니다. 회개가

없다면 “성도가 온전케”(에베소서 4:12)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이 밖에도 더욱 성스러운 사람은 더욱 큰 특성을 지니게 됩니다.

반면에 죄는 그것에 얽매인 사람들이 한결같이 습관에 빠지고 충동적인 일을 자제하지 못하게 되도록 만듭니다. 이기적인 생각이 파도처럼 밀어닥치는 짧은 한 순간에는 죄가 개인을 위한 환상을 창조해 낼지 모르지만 그것은 결국 풀쭉거리며 치달리는 가다라의 돼지일 뿐입니다! (마태복음 8:28~32 참조)

회개는 구제하기 위해 있는 것이지 벌주기 위한 교리가 아니며, 큰 죄를 진 죄인에게 뿐만 아니라 이미 선한 행동을 하는 사람일지라도 점차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적용되는 교리입니다. 회개하기 위해서는 악에서 떠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할 필요가 있습니다.(신명기 4:30 참조) ‘어떤 큰 변화’가 요구될 경우, 완전히 회개하기 위해서는 결코 뒤를 돌아보지 않고 180도로 완전히 돌아서는 것이 포함됩니다! (엘마서 5:12~13 참조) 회개의 과정은 처음에는 별의 왕국에 어울리는 품행에서 달의 왕국에 요구되는 품행을 갖추도록 계속 진보하는 것입니다. 달의 왕국에 해당하는 죄가 남아 있을 경우 우리는 점차적으로 태만이라는 죄에 빠져 종종 주님께 자신을 완전히 헌신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기계적인 확인 사항이

아니라 자신을 잘 제어하는 것입니다. 종종 회개의 한 과정은 다른 과정과 중첩되거나 보충을 해주기도 하지만 각각의 회개 과정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결국 자기 자신의 결정에 의해 좌우됩니다.

잘못을 인식하지 않는 회개란 있을 수 없습니다. 자극에 의해서진 내적인 갈등이나 악습에 의해서진 자신의 잘못을 부정하는것은 그만두어야 합니다. 마침내 스스로 돌이킨 탕자처럼(누가복음 15:17 참조) 번듯 잘못을 깨우치는 깨달음은 티와 들보를 포함해서 우리가 만물을 사실대로 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야곱서 4:13 참조) 이때가 종종 우리의 얼굴이 부끄러움으로 붉어지는 성스러운 순간입니다.

죄를 인식하게 되면 진정으로 후회하는 마음이 마치 홍수처럼 영혼을 덮쳐 옵니다. 이것은 단순한 “세상 근심”이거나 죄로 인하여 행복이 되지 않는 “저주받은 자들”의 슬픔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고린도후서 7:10; 몰몬서 2:13 참조)입니다. 실패에 연연하는 것은 잘못된 양심의 가책입니다. 형식적으로 후회할 때에는 그것을 고치려고 하지는 않고 실수만을 슬퍼합니다.

죄를 깨끗이 씻고 죄로부터 돌아서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과 고통을 겪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것은 양심의 가책이 사라질 때까지 단순히 기다리는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역경과 마찬가지로 불행 또한 유용한 면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온전한 관심이 이루어질 때까지 가끔 징계가 필요한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교리와 성약 1:17; 힐라맨서 12:3 참조) 진정한 가책은 곧 긍정적인 신호, 즉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가져 오게 됩니다. (마태복음 3:8; 사도행전 26:20; 엘마서 5:54 참조) 시간이 흐름에 따라 짝이 나고 꽃이 피며 열매가 익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에는 고백이 포함됩니다. 주님은 “이제 너희 열조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에스라 10:11)하라고



아니하리라”(에스겔 18 : 30)라고 하셨습니다. 코리호이는 고통중에 “사실 나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았으나”(엘마서 30 : 52 참조)라고 고백했지만 아직도 죄에서 완전히 돌아서지 못하였기 때문에 엘마는 “그에게 말하기를, 이 저주를 면하게 되면 네가 다시 이 백성들의 마음을 미혹하게 할 것을”(엘마서 30 : 55 참조)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이 자기의 죄를 회개할 때... 회개하는 자는 자기 죄를 고백하며 그 죄를 버리”(교리와 성약 58 : 43 참조)게 됩니다.

고통스런 죄를 버리고 돌아서기 위해서는 사람을 회피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도움과 참된 사랑이 더 필요합니다.

보상 또한 요구됩니다. “이는 죄를 범하였고... 그 빼앗은 것이나 능성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유실물을 돌려 보낼 것이”(레위기 6 : 4 참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신앙이나 순결을 빼앗은 경우와 같이 완전한 보상이 불가능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의로운 모범을 보이는 것이 보상의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과정에서 가장 많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온유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교만은 회개를 시작하거나 계속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을 지니기 보다는 세상적인 명성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짐으로써 실패를 자초하기도 합니다.(엘마서 5 : 14 참조) 교만한 사람은 알팍한 슬픔으로 값싼 회개를 치르려고 합니다. 값싼 회개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보상을 치르는 대신 초자연적인 용서를 기대하는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개는 단순히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는 이상의 것이어야 합니다.

회개의 고통스런 과정에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는 버리셨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으나, 사실은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갈라놓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악으로부터는

돌아섰지만 아직 하나님께로 완전히 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특히 유혹받기 쉬운 상태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포기해서는 안됩니다. “매일같이” 펼쳐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을 잡아야 합니다.(야곱서 5 : 47 ; 니파이서 28 : 32 ; 물몬서 5 : 11 참조) 우리와 달리 하나님은 업무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신앙의 길 중에서 회개의 여정보다 어려운 길은 없으나, 우리는 회개에 이르는 신앙을 통해 길 앞에 놓여진 장애물을 헤치며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자비를 구할 수 있습니다.(엘마서 34 : 16 참조) 진정한 회개는 자신을 완전히 바치는 데 있습니다. 단순히 자신을 버리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염두에 두며 “하나님이시여... 당신을 알게 하여 주시옵고, 당신을 알기 위해 저의 모든 죄를 버리겠나이다”(엘 22 : 18 참조)라고 해야 합니다. 모든 죄를 버리는 것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반대로 죄의 일부를 뒤로 숨기는 자들은 발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이 부르신 사람들과 함께 겸손하고 정직하게 일하기를 거절하게 됩니다. 부름받은 지도자에게 부분적으로 고백한 죄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당사자가 지게 됩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그 어떤 것도 감추지 말아야 한다”(요셉 스미스의 말씀, 앤드류 에프, 이트와 린든 더블류 쿡 편, 프로보, 유타 : 종교 연구 센터, 브리감 영 대학교, 1980년, 7쪽)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총체적인 발전을 반영하는 회개는 단지 죄를 버리는 것만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모세는 의롭고 주목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변영 뿐만 아니라 민족의 변영을 위해 지도력의 방법을 바꾸어야만 했습니다.(출애굽기 18 : 17~19 참조)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민수기 12 : 3 참조) 했기에 성공했습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는 것은 그들이 다른 사람들의 말에 쉽게 성내거나

하셨습니다. 상한 심령을 가진 사람은 고백하는 일을 어렵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백을 통해 인간을 병들게 하는 죄를 모두 비우게 되면 떠나갔던 영이 다시 돌아와 우리를 새롭게 채우게 됩니다.

이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할 것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서로 돕는 공동체로서 “저진 팔을 높이 들며 힘없는 무릎을 강건케 할”(교리와 성약 81 : 5 참조) 것이 요구됩니다. 그 누구와도 견줄 수 없는 예능 성의 백성들도 서로 도우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모세서 7 : 21, 68~69 참조) 발전하지 않았습니까?

회개하기 위해 우리는 모든 죄를 주님께 고백해야 하며, 어떤 죄는 교회 역원에게, 어떤 죄는 다른 사람에게, 그리고 어떤 죄는 이 모든 분들에게 고백해야 합니다. 몇 가지는 공개적인 고백을 하도록 요구될 수도 있습니다. 고백하는 것은 죄를 버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공공연하고 광범위하게 죄를 짓고 난 후 “단지 몇 차례 매”(교리와 성약 42 : 88~93 참조)를 맞음으로써 은밀하고 재빨리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진정한 회개에는 죄를 실제로 버리는 것이 포함됩니다. 주님은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 즉 죄악이 너희를 패망케

충고를 듣고 쉽사리 화를 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좀더 온유할 수 있다면 회개는
규칙적이고 일상적인 일이 될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남의 말을 잘 듣지 않는
사람이 사랑이나 겸손한 태도가 부족한
것을 드러내 보이는 것처럼 합당치 못한
행동을 보이는 것은 기독교인으로서
미숙한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품행에 관한 문제에서
있어서만은 자신을 너무 쉽게
용서합니다.

따라서 교의로 중요한 범법을 범하고도
자신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 대신에
자기 도취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어느 날
뒤늦게 잘못을 깨닫게 된 앰블레크의
경우와 같습니다.“... 나는 여러 차례
부름을 받았으나 들으려 하지 않았으니,
그런 연유로 내가 이러한 일들을 알고
있으면서도 알려 하지 않았었노라.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억하여
왔노라.”(엘마서 10: 4~6)

회개는 모든 사람의 발전에 필요한
원리로 주어졌기 때문에 주님이 그분의
종들에게 “가장 값진 일은 이 백성에게
회개를 선포하는 일이라!”(교성 69:
14: 8; 15: 6 참조)라고 하신 말씀은
전혀 지나침이 없습니다.

아직도 회개를 방해하는 요인 중에는
좀더 겸손하여져서 변화의 필요성을 보다
많이 느끼게 되었을 때에 일찌기 자신을
채찍질하지 못하는 것(교리와 성약 121:
43 참조) 등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진실로 “아무도 나의 영혼을 돌보지
않”(시편 142: 4)는 경우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동정심이 너무
지나쳐 죄가 쉽게 뿌리를 내리거나
지나치게 자신의 행위에 몰입해 죄로부터
돌아사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또는 기쁨과 세상적인 욕망에 몰두하여
최근에 나 자신을 위해 무엇을 했는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엘마서 30: 53 참조) 또한 너무 미움이
강해 다른 사람의 변화를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자기 형제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 앞에서 정죄받음이니
큰 죄가 저에게 있음이라”(교성 64: 9)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회개할 수는 없으나, 주님이
자유롭게 해주려 하는 사람들을 죄에
속박당하지 않도록 용서해 줄 수는
있습니다!

우습게도 어떤 사람들은 주님께서
자기를 용서하신다는 사실은 믿고
있으면서 그들 스스로는 남을 용서하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왜
어떻게 회개해야 하는지에 관해 진지하게
가르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때로
어려움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할 때는 다음과
같은 특별한 약속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사야 1: 18)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에스겔 18: 22)

“나 주가 저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교리와 성약 58: 42)

개인적인 회개에 관해 앞서 말씀드린
것들 이외에 교회 회원들이 성취해야 할
한 가지 특별한 예언이 있는데 니파이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미래의 어느 날
예수를 따르는 성약의 백성들이 “지면에
흩어져... 크신 영광 중에 의와 하나님의
권세로 무장하였느니라.”(니파이일서 14:
14)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성취되겠지만 단지 더 많은 회원들이
성결하게 되고 하나님께 더 많은 헌납을
한 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중 즐겨 부르는
찬송가의 가사를 암송해 보겠습니다.

예수께 오라 죄에 시달려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예수가 우릴 편히 쉴 곳에
인도하여 주시리로다

예수께 오라 어둠속에서
헤맬지라도 살피시네
그의 사랑이 어둔 밤에서
밝은 낮으로 인도하리
(찬송가, 77장)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어둔 밤을
뒤덮을 실수의 주름은 결코 필요치
않습니다. 세상의 구름은 결코 필요치
않습니다. 세상을 비추는 속죄의 빛이
그것을 처리하였습니다. 주목할 만한
사실은 예수께서 완전히 헌신하신 것이
우리를 위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뜻을 완전히
“아버지의 뜻과 일치되게” 하셨습니다.
만일 여러분과 제가 예수께 나아가려
한다면 우리는 망설이지 말고 하나님께
순종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희망찬 약속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언자 몰몬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우리들을] 팔을 벌려”
맞이하시겠지만(몰몬서 6: 17), 회개하지
아니하고 헌신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그가
말한 대로 “예수의 팔에 안기는”(몰몬서
5: 11) 무한한 기쁨을 결코 맛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순간이 저와 우리
모두의 것이 될 수 있게 생활해 나갈 수
있도록 위대한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

주님의 날

제임즈 이 파우스트 장로
십이사도 정원화

“시대의 재앙으로부터 자신과 자녀를 보호할 수 있는 확실한 대책이 있습니다. 그 확실한 보호의 열쇠는 놀랍게도 안식일을 잘 지키는 데서 찾을 수 있습니다.”



형 제 자매 여러분, 한 동안 저는 오늘 무슨 말을 해야 할까 하고 심사숙고해왔습니다. 결국 저는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날을 영화롭게 하지 않음으로써 큰 축복을 잃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려 저는 어렸을 때, 일요일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아무런 활동도 하지 못하게 하셨으며, 탈 것도 이용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동차를 탈 수도 없었으며 심지어는 자동차에 시동을 걸 수도 없었고, 말이나 소등 탈 것이라고는 양조차도 탈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안식일이었으며 계명에 따라 동물들 또한 안식을 취하여야 했습니다. 우리는 걸어서 교회에 갔으며 가기를 원하는 곳은 어디에나 걸어서 갔습니다. 저는 영적으로 율법에서 요구하는 그대로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오늘날의 표준에 따르면 아마 안식일 활동에 대한 저의 할아버지의 해석은 조금 지나친 것 같아 보이지만 오늘날 우리는 많은 훌륭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지나온 제 과거를 가능한 모두 떠올려 보기 위해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중 한 가지는 제가 항상 주님의 편에 굳게 서왔다는 것이며, 또 한 가지는 사탄의 영향력이 제게서 멀리 떠나 있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영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성장하였던 때문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주님이 교리와 성약 59편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영적인 “땅의 충만함”(교리와 성약 59:16)이 우리의 것이었다는 느낌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아담의 시대 이후 수세기 동안 성스러운 안식일의 율법은 어떤 다른 계명보다 되풀이해서 강조되어 왔습니다. 이처럼 계속해서 강조되어 왔다는 것은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창세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구를 창조하실 때 안식일에 대한 모범을 보여 주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하므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 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창세기 2:1~3)

구약의 시대에는 안식과 예배의 계명이

너무 엄해 그 법을 어길 때에는 목숨을 잃는 벌을 받았으며(출애굽기 31:15 참조), 심지어는 땅 자체도 안식을 취했습니다. “제 칠년에는 땅으로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다스리지 말며.”(레위기 25:4)

구약 시대에서 안식일은 축복받고 거룩하게 된 날(출애굽기 20:11 참조)로서, 영원한 언약의 상징(출애굽기 31:16 참조)이며, 성회(레위기 23:3 참조)이고 영적인 축제의 날(레위기 23:32 참조)로서 불리었습니다.

예수님도 안식일을 경건하게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셨지만 여기에 새로운 정신을 소개하셨습니다.(마태복음 24:20 참조) 주님의 날에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해서는 안된다는 구체적인 절차와 규칙을 지키기보다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권고하셨습니다.(마태 12:12 참조) 예수님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마태복음 12:8)라고 가르치셨으며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마가복음 2:27)라는 원리를 소개하셨습니다. 그리고 몸소 안식일에 손이 마비된 환자는 물론(마태복음 12:10~13 참조) 중풍 환자도 고치는 좋은 모범을 보이셨습니다.(마가복음 2:1~12 참조) 그래서 오늘날 안식일을 잘 지키라는 계명은 단순히 율법적인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 이상의 개인적인 헌신과 책임을 나타내 보여 주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데 있어 현대에 주어진 위대한 계시는 교리와 성약 59편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러하여 더욱 온전히 세상의 더러움에 물들지 않도록 자신을 흠없게 지키고 기도의 집에 가서 나의 거룩한 날에 네 성찬을 바칠지어다.

“진실로 이 날은 네 일을 쉬고 가장 높으신 이에게 예배드리는 날로 정해져 있느니라.

“그러나 날마다 어느 때든지 네 서약을 의롭게 바쳐야 하느니라.

“그러나 이 날, 곧 주의 날에 너는 네

형제와 주 앞에 자기 죄를 고백하며 네 헌물과 네 성찬을 가장 높으신 이에게 바치는 것을 잊지 말라.

“또 이 날에는 다른 일은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요, 다만 정성을 다하여 식사 준비만 하여 네 금식이 온전한 금식이 되도록, 바꿔 말하면 네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할지어다.”

(교리와 성약 59 : 9~13)

이 위대한 계명은 다음의 약속으로 절정에 다다르게 됩니다.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너희가 이를 행하면 땅에 충만한 것이 다 너희 것이 될 것이요, 들의 짐승과 공중의 새와 나무를 기어오르는 것과 땅위를 걸어다니는 것이 다 너희 것이리라.”(교리와 성약 59 : 16)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얻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약속입니다.

안식일을 성스럽게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으로 휴식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영적인 재충전과 경건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스펜서 더블류 킴블 대관장님은 안식일을 지키는 데에 대해 다음과 같은 훌륭한 권고를 하셨습니다.

“안식일은 우리가 합당하고 성스러운 일을 하는 거룩한 날이다. 일과 오락을 삼가하는 것이 중요하나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 안식일에는 건설적인 생각과 행동을 해야 하며, 안식일에 할 일 없이 어슬렁거리는 것도 율법을 어기는 것이다. 안식일을 준수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공과를 준비하며, 복음을 공부하고, 명상하고, 병자를 방문하고, 수면을 취하며, 건전한 책을 읽고 그날 갖는 모든 교회 집회에 참석해야 한다. 이러한 합당한 일을 하지 못할 때 태만죄를 범하게 된다.”

(용서가 낚는 기적, 94쪽)

평생을 통해 살펴볼 때 안식일을 준수하는 농부가 일주일 내내 일할 경우보다 자신의 농장에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으리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기술자는 7일보다는 6일 동안에 더 많고 좋은 상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의사, 변호사, 치과 의사 및 과학자는 일주일 내내 일하는 것보다는 안식일에 휴식을 취함으로써 더 많은 것을 성취합니다.



대관장단 : 에즈라 테프트 벤슨 대관장(중앙), 고든 비 헝클리 부대관장, 제1보좌(좌),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제2보좌(우).

저는 모든 학생들이 가능하다면 안식일에 공부하지 않는 학업 계획을 수립하도록 권고합니다. 만일 학생들과 그 밖의 구도자들이 이렇게 행한다면 그들의 마음이 맑아지며, 무한한 영이 그들이 배우고자 하는 지식을 얻도록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분의 날을 기뻐하시고 충만한 영원의 성약(출애굽기 31 : 16)으로 축복하시기 때문입니다.

1980년 2월 1일 대관장단은 일요일 모임을 통합하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다음과 같은 권고를 하였습니다.

“각 가정이나 개인에게는 안식일을 합당하게 지킬 수 있도록 보다 큰 책임이 부여될 것입니다. 개인 경전 공부와 가족 중심의 복음 공부에 더 많은 시간을 활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밖의 안식일에 합당한 다른 활동들, 즉 가족의 유대를 강화하거나, 병자를 방문하고, 봉사하며, 개인과 가족 역사를 기록하고, 계보 사업 및 선교 사업과 같은 일들을 잘 계획하고 실행하여야 합니다.

“이런 새 모임과 활동 계획을 이해할 때 성도들은 영적으로 더 큰 성장을 갖게 될 것입니다.”(처치 뉴스, 1980년 2월 2일, 3쪽) 신권 지도자와 교회 회원들이

일요일에 가족이 함께 지내는 것을 중요시하는 마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자녀들은 기적적으로 광야에서 40년 이상을 견디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하늘로부터 만나를 받았습니다. 그 만나는 내리는 날 모아서 사용하지 않으면 벌레가 끼고 상했습니다.(출애굽기 16 : 20, 30 참조) 그러나 안식일 전 제6일째 되는 날에는 다른 날의 두 배가 쏟아졌습니다.(출애굽기 16 : 5 참조) 안식일에는 만나가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자녀들은 이를 동안 필요한 만나를 모으도록 주님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하자 세번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전날 모았던 만나는 안식일날 상하지도 않았고 벌레도 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안식일을 위해 보존되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6 : 24 참조)

수세기에 걸쳐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관련되어 일어났던 기적적인 이야기들이 전해 오고 있습니다. 그 한 가지는 영국, 스톤헨지 인근의 에버리에 있는 고대의 돌무덤 밑에서 일하던 구두 수선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한 사운더는 자신의 1712년 8월

13일자 일기에 '어느 일요일 한 구두 수선공이 큰 돌무덤 아래에서 구두를 수선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자리에서 일어난 순간 돌이 떨어져 내려 그가 앉았던 바로 그곳이 산산조각으로 부서졌는데 이 일로 그는 자신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되었으며 안식일을 더 이상 어기지 않게 되었습니다.'라고 기록하였습니다."(미첼 핏츠, *에버리의 발자국*, 도체스터, 영국; 프라이어리 출판사, 1985년, 31~32쪽)

좀더 최근 일로는 수년 전 웰 스테이크 복지 가족 공장에서 짐승의 생가죽이 인조 가죽으로 생산되는 곳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정규적인 작업으로는 생가죽을 통에서 꺼내고 깨끗한 석회를 통에 푼 다음 다시 생가죽을 석회 용액에 집어 넣습니다. 휴일에 생가죽을 넣지 않으면 가죽이 상하게 됩니다. 그러나 일요일에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월요일까지 상하지 않았습니다. 그 공장의 공장장인 제이 로우웰 폭스씨는 그 당시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정말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정한 휴일과 평상시에는 매 12시간마다 생가죽을 특별 처리해야 하는데 주님이 안식일로 제정된 일요일에는 우리가 그분의 계명대로 안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생가죽은 일요일에는 절대로 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현대의 기적이며 매주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소년단 지도자들을 위한 지도서, 솔트레이크시티: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1964년, 37쪽)

왜 하나님은 안식일을 영화롭게 지키라고 하십니까? 거기에는 최소한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번째는 우리의 육신을 쉬게 하고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한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와 정신적인 힘의 한계를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제 생각으로 두번째 이유는 더욱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성을 좀더 강화하고 거듭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인 욕구를 정규적으로 새롭게 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바에 따라 내버려 둔다면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인 욕망이나 탐욕을 충족시키기 위해 높은 도덕적 가치관과 생각을 잃게 될 것임을 아셨습니다. 육체적, 정신적, 그리고 영적인 거듭남을 위한 이런 요구는 안식일을 충실히 지키으로써 대부분 충족됩니다.

세번째 이유는 세 가지 이유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으로써 계명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단지 구세주를 사랑한다는 이유로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자들은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 희생을 바치는 이유를 물었던 천사에게 말한 아담의 대답은 우리 모두에게 모범이 됩니다. 아담은 "나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것 외에는 알지 못하노라."(모세서 5:6)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언자 사무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사무엘상 15:22)라고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물질주의가 만연하고 욕구가 증대되는 오늘날 시대의 재앙으로부터 자신과 자녀를 보호할 수 있는 확실한 대책이 있습니다. 그 확실한 보호의 열쇠는 놀랍게도 안식일을 잘 지키는 데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하여 더욱 온전히 세상의 더러움에 물들지 않도록 자신을 흠없이 지키고 기도의 집에 가서 나의 거룩한 날에 네 성찬을 바칠지어다."(교성 59:9)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경우 세상적인 죄로부터 깨끗하게 될 수 있다는 것에 누가 반문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계명은 하나님과 그분이 택하신 사람들 사이에 맺어진 지속적인 성약입니다. 주님은 모세와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니라"(출애굽기 31:13, 16,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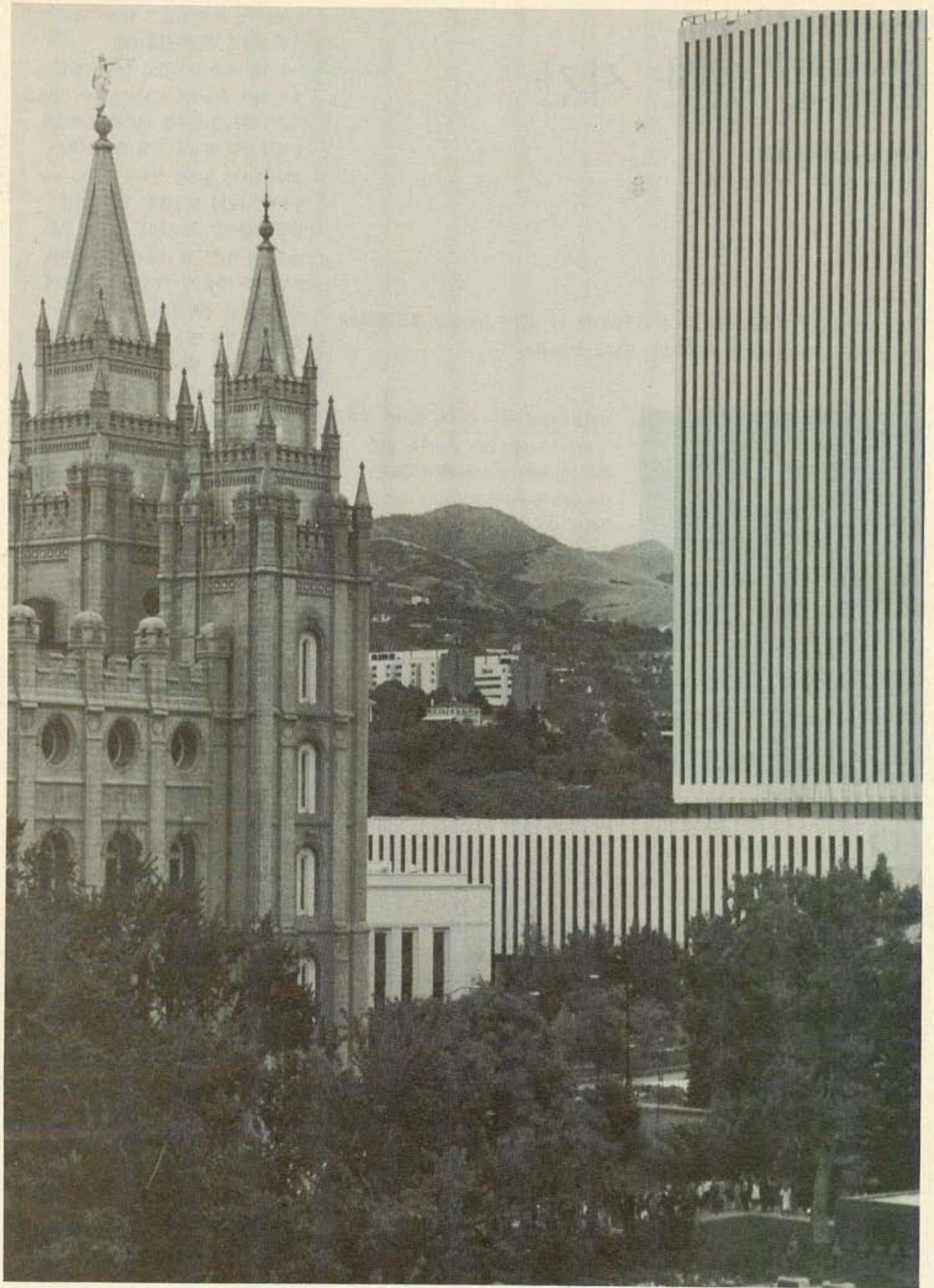
안식일에 대한 모세의 율법은 해야 할 것과 해서는 안될 것들을 상세하게 수록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포로가 된

상황에서 오랫동안 개인의 자유 의지가 부인되어왔던 사람들에게 순종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필요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모세의 율법은 구세주께서 선포하신 대로 엄격하게 지켜져야 했습니다. 그 당시엔 안식일에 대한 규정들이 신앙이나 사랑 및 영의 은사와 같은 "율법의 더 중한 바"(마태복음 23:23)보다 더 중시되었습니다.

우리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수많은 제약을 요구하지 않으며 우리의 예지를 인정해주고 계십니다. 아마 이것은 안식일에 대한 문자 그대로의 의미보다 영을 통해 안식의 경건함을 더 많이 얻을 수 있기를 바라는 뜻에서 그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안식일에 대한 뜻을 모독하거나 오용해 왔습니다. 우리는 약속된 위대한 축복을 놓칠 기로에 서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의 노력이 최선을 다한 것인지 알기 위해서는 "모든 일에 [우리들] 시험"(교리와 성약 98:14)한 주님께 의해 결정되게 됩니다.

안식일에 합당한 일인지 아닌지 어디에 선을 그을 수 있겠습니까? 지침 안에서 우리 각자는 스스로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합니다. 이런 지침들은 경전과 현대 예언자들의 말씀 안에 들어 있기는 하지만 그것들을 우리 마음 속에 확고히 받아들여 양심에 따라 통제하여야 합니다. 브리감 영 대관장님은 신앙에 대해서 "신앙의 영은 그것을 지닌 마음에서 나옵니다."(설교집 15:83)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면 안식일의 계명을 결코 어기지 않게 될 것입니다.(마태복음 22:37 참조)

안식일에 합당한 것인가 아닌가를 결정하는 기준은 우리 각자가 주님께 솔직하게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안식일에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하며 경건한 자세로 행해야 하고 그 밖의 활동은 억제해야 합니다. 안식일을 잘 지키므로써 받는 축복에 관해 전해드린 제 말씀이 여러분에게 잘 전달되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



준비를 위한 시간

데이비드 비 헤이트 장로
십이사도 정원희

“아른 신권 시절은 준비를 하는 중요한 시절입니다. 이 시절은 의미있고 결코 잊을 수 없는 영적인 경험들로 가득한 시절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오늘 저녁 이곳에서 신권을 소유한 여러 형제들과 자리를 같이 할 수 있는 훌륭한 기회를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저의 말씀을 올바르게 명확하게 듣고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저녁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는 이제 막 열두 살이 되어 새로 집사가 된 형제님들도 있으며, 많은 분들이 열세 살, 혹은 열네 살, 열다섯 살이거나 그 이상입니다. 저는 특별히 아른 신권을 지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지만, 원하신다면 다른 분들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제 막 생일을 보낸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 또한 얼마 전에 여든 다섯번째 생일을 보냈습니다. 여러분은 즐거운 생일 파티를

가지셨을테고, 저도 집에서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은 주위에는 젊은 친구들이 많이 있으며, 제 주위에는 나이많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보다 배우고 경험에 있어 70년 이상의 경력이 더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도전과 흥미가 가득한 생산적인 삶, 즉 격동하는 세상을 지켜보며 생활하면서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실망과 아픔도 많이 있었으나 항상 기회와 새로운 세계, 그리고 셀 수 없는 축복이 있었습니다. 또한 저는 몇 가지 중요한 교훈과 진리를 배웠습니다. 그중 하나가 스카우트의 표어인 준비하라입니다.

저는 아이다호주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성장했습니다. 다른 곳보다 뒤늦게 미식 축구가 우리 학교에 소개되었습니다. 그때가 1923년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장비도, 감독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교장 선생님이 값싼 미식 축구 운동복과 장비 열두 벌을 사오셨습니다. 그러나 못이 박힌 미식 축구 운동화를 살 여력이 없어 농구화를 사용했습니다. 화학 선생님이 전에 딱 한 번 진짜 미식 축구 시험을 본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감독으로 부임하셨습니다.

그분은 몇 가지 단순한 경기 기술과 태클하는 방법을 가르쳤으며, 이렇게 하여 우리는 시험 준비를 하였습니다. 아니 우리는 준비가 다되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전년도 아이다호주

선수권자인 트윈스 폴스 팀이 우리의 첫 시험 상대로 결정되었습니다.

우리는 옷을 갈아입고 준비 운동을 하기 위해 운동장으로 나갔습니다. 상대편 학교의 밴드가 연주를 시작하자(밴드의 숫자가 우리 학교의 전체 학생보다도 많았습니다) 상대편 선수들이 문을 통하여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안전한 장비를 갖추고, 못이 박힌 신발을 신은 선수들이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그들은 모두 서른 아홉 명이었습니다. 한 팀에 필요한 열한 명과 교체 선수 한 명을 포함하여 겨우 열두 명인 우리는 그저 놀라움 속에서 쳐다보고만 있었습니다.

대단히 흥미로운 시험이었습니다! 시험이 아니라 차라리 배우는 기회였다고 말하는 편이 맞는 말이었습니다. 두 번의 공격이 끝난 후 우리는 공을 가지고 있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 공을 차버리면 이내 상대편은 득점을 올렸습니다. 그들은 공을 가지고 있을 때마다 변화무쌍한 수단을 동원하여 점수를 얻곤 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그저 공을 놓아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편이 이득이었습니다.

시험이 거의 끝나갈 무렵 상대편이 조금 방심한 순간, 그들이 거칠게 패스한 공이 저와 함께 뒤에서 수비를 보던 클리포드 리의 팔에 떨어졌습니다. 그는 놀라서 어떻게 해야할지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상대편 선수들이 자기에게 해야 할 바를 알고는 쓴살같이 달렸습니다. 그는 점수를 얻기 위해 던 것이 아니라 생명을 건지기 위해 뛰었습니다. 클리포드가 득점을 하여 점수판에 여섯 점이 올라갔습니다. 최종 점수는 10대 6이었습니다. 우리가 6점씩이나 올릴 수 있는 실력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우리의 피문은 운동복과 양말, 그리고 찢겨진 상처로 그 점수를 얻었습니다.

무엇인가를 배운 시험이었나요? 물론입니다. 개인적으로 또는 팀 전체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공이나 성취는 준비를 얼마만큼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아른 신권 시절은 준비를 하는 중요한

시절입니다. 주님께서는 젊은이들이 인생을 준비하기 위해 의미있고, 결코 잊을 수 없는 영적인 경험들도 가득찬 소중한 시절, 즉 값진 심대 시절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중대한 결정에 직면할 것이지만, 다행스럽게도 여러분에게는 사랑하는 부모와 여러분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는 신권 지도자들로부터 적절한 경험과 권고를 받을 수 있다는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신약전서의 디모테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복음을 가르쳤다는 이유로 어둡고 음침한 지하 감옥에 갇혀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어린 친구인 디모테에게 보낸 편지에서 고통스러운 심령과 굳건한 확신을 쏟아내며 그가 배운 진리에 충실하고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딤후 1:6)를 기억하도록 호소하였습니다. 바울은 개인적으로 디모테에게 축복을 주었으며 그를 성임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어떠한 일이 닥쳐와도 강건할 것과 주님에 대한 간증을 부끄러워 하지 말도록 권고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간증으로 인해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또한 그 간증이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지닌 신앙과 결의는 그를 장막을 만드는 이에서 교사와 선교사, 그리고 지도자이며 교회 지부의 설립자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는 비겁하지도 약하지도 않았습니다. 큰 신앙을 지닌 사람들은 옳은 것을 알고 이를 실천하며, 결심과 결의를 굽히지도 않고 압력과 고난을 참아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무엇이 옳은지를 알고 있었으며, 여러분들도 무엇이 옳은지를 알고 있습니다. 바울과 같은 용기를 지니고 사신이 옳다고 알고 있는 것을 행할 때에는 자기 자신을 제외하고 그 무엇도 여러분의 발전을 제지할 수 없습니다.

결심은 약속한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담대히 하는 말은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의도를 나타냅니다. 여러분이 하는 말보다 더욱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행동입니다. 이런 일은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지나면서 성취되는 것이며, 그러한 과정을 통해 성격이 형성됩니다.

이 세상은 결의와 결심, 또한 용기를 지닌, 즉 의로운 확신을 가지고 세상의 상처를 싸매주며, 신앙과 소망과, 진리를 가르쳐 줄 젊은이들을 수없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젊은이들이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이들은 교회의 청남 청년들의 대열에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너희는 어떠한 성직에 임명되었더냐?"하고 물으시고는 "진리를 가르치려고 보내심을 받은 보혜사로 말미암아 나의 복음을 전하는 직책"(교성 50:13~14)에 우리가 부름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판장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에게서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며, 천사의 길을 지나 승영에 이르러 하나님이 될 가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보통으로는 상상을 초월한 가능성 같아 보이지만 이는 신성한 약속입니다."(스펜서 더블류 킴볼의 가르침, 에드워드 엘 킴볼 편집, 솔트레이크시티:북크래프트사, 1982년, 496쪽)

16퍼트 너비의 기초석을 가지고 솔트레이크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브리감 영 대판장께서는 직업하는 사람들이 무른 돌을 사용하는 것을 아셨습니다. 공사를 중단시켜 무른 돌들을 빼내고 커다란 화강암을 대신 넣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복천년 내내 서있게 될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리그랜드 리차즈, 연차 대회, 1971년 10월)

주님께서는 이렇게 권고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함에 지치지 말라. 너희는 위대한 사업의 기초를 닦고 있음이라."(교성 64:33)

이론 신권 소유자인 여러분은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초, 즉 화강암처럼 단단하면서도 영원히 지속될 성품의 돌을 제자리에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초석에는 구세주께서 가르치신 신앙과 기도, 순종, 정직, 진리 및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 등에 대한 원리들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물론 여러분의 기초의 종석은 신권이 될 것입니다. 이 신권은 의무와 축복이 함께 있으며, 구원에 관계된 일을 하도록 여러분에게 위임된 하나님의 권세이며 권능입니다.

여러분은 동료들이 역원으로 있는 신권 정원회의 회원이며 의무와 권세 및 책임을 지니고, 교회 회원들이 어떻게 구원의 손길을 뻗쳐 방황하고 또는 슬픔을 지니고 있거나 상처받은 사람들을 돕고 있는지를 배우며, 사람의 영혼에 기쁨을 가져다 주는, 타인에 대한 그리스도와 같은 봉사하는 데 필요한 감성을 발전시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14세 소년인 요셉 스미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회복하는 위대한 일을 수행하는 도구가 되기에 충분하다고 결정하셨다는 사실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살아 계신 하나님과 살아 계신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요셉에게 하늘의 사업이 맡겨졌으며, 그는 이것을 완수하였습니다. 여러분의 나이 또한 더욱 큰 일을 맡기에 충분합니다.

이론 신권을 소유한 여러분들도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고 사탄과 그의 사악한 영향력을 알기에 충분한 나이입니다. 사탄은 악마를 지칭하는 히브리 말로, 진리와 진리에 따르는 원리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전쟁을 선포한 악마를 의미합니다. 사탄은 태초부터 악의 길을 선택해 왔으며, 그의 가장 큰 목적은, 모세와 에녹이 가르친 것처럼, 사람들이 자기를 경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모세서 1:12, 6:49 참조) 그는 커다란 성공을 거두어 왔습니다. 자칭 이 세상의 하나님으로서 사탄은 세상의 방법에 따라 사는 사람들로부터 칭송과 경배를 받고 있습니다. 모든 형태의 악과 사악함과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에 위배되는 모반은 악마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험과 도전을 받으며, 악이 존재하는 가운데서 구원을 성취해야 합니다. 니파이의 "범사에 서로 상대가 되는 것이 있어야 함이 마땅"(나이 2:11)하다고 가르쳤습니다. 우리에게는 옳고 그른 것, 즉 선과 악을



선택할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악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참여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잘못을 행하고 올바른 것을 느낄 수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 회원들은 담배와 맥주, 그리고 모든 형태의 알코올을 인간이 사용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에게서 뿐만 아니라 의학적, 과학적 연구를 통해서도 해롭다고 판명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민법이 지닌 통제 능력은 대체로 약하며 적용에 어려움이 따릅니다. 이러한 해로운 물질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조절 능력은 영감받은 이해력과 함께 우리 자신에게서 나옵니다.

샌프란시스코 포터 나이너스 팀의 쿼터 백인 스티브 영은 비록 커네티컷주와 자신의 고등학교에서 유일한 물몬이었지만, 급우들로부터의 엄청난 압력에도 불구하고 친구들과 술을 마신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맥주에서 시작하여 독한 음료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과정, 즉 정신적 조절 능력을 상실하여 종종 자동차 사고를 내거나 예의를 잃어 버리고 성적 부도덕에까지 이르는 과정과 그 심각한 결과를 인식하기에 충분한 나이입니다.

일부 젊은 여성들은 젊은 남성들과 성적인 관계를 갖도록 압력을 가하고, 심지어는 협조를 하지 않을 때에는 대중적 인기를 불모로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언론 매체를 통해 그 사실을 밝힌 사람도 있습니다. 확실히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는 결코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젊은이들은 여러분의 자매들과 여러분과 관계된 젊은 여성들의 보호자입니다. 그들과 여러분 자신에 대한 여러분의 의무는 주님 앞에서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성적으로 순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화나 텔레비전에 나오는 장면들은 때때로 도덕적인 순결이 구시대의 유물이며 오늘날과 같은 현대적인 세계와는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암시하기도 하지만, 주님께서 그 손가락으로 친히 들뜬에 쓰신 계명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간음하지 말라”고 선포하셨으며 그 뒤에 “이와 비슷한 어떠한 일도 하지 말라”(교성 59 : 6)고 덧붙이셨습니다. 이 계명은 명확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며, 다른 것과 타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루시퍼는 영리하고, 교활하여 약한 곳들을 알고 있어 파괴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감정과 열정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긴 하나 조절되어야 합니다.

저의 아버지께서는 제가 겨우 아홉 살때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성장하는 동안, “아버지께서는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실까?” 또는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실망시키지 않을 수 있을까?” 하고 종종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저를 가르치셨으며 저를 믿으셨습니다. 저는 더 이상 어린 소년이 아닌 어른이 되었으며, 따라서 어른답게 행동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한 사람들은 여러분을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믿으며, 여러분의 부모님들과 형제 자매들도 여러분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최상의 것을 기대하십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믿어야 합니다.

상황이 나쁘더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위대한 사업의 기초를 놓고 있습니다. 그 위대한 사업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이며, 여러분이 지닌 꿈의 성취입니다. 여러분이 성취할 수 있는

것과 여러분의 재능이 궁극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방법을 결코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저는 어린 시절에 새로운 신발을 사서 길들여 신으면서 발이 아파보았던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헌신만을 신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일부 젊은이들이 학교다닐 때 신는 신발 뿐만 아니라 운동용 신발과 교회용 신발 등을 필요로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무 운동화라도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특별한 디자이너의 상표가 있거나 특별히 광고가 된 상표가 있어야 합니다. 청바지도 유명 회사의 제품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무리에 함께 섞이기 위해, 부모님들이 그런 요구를 감당할 능력이 있고 없고 간에 특정한 모습을 요구하는 동료들의 압력이라는 함정에 빠져 본 적이 없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옷을 입어야 하고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에 관한 표준을 다른 사람들이 정해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그 반대입니까? 표준을 지니고 있고 복음을 믿고 있는 젊은이들은 이러한 결정을 스스로 내려야 하며, 다른 사람들이 이를 따르도록 해야 합니다. 높은 이상을 지닌 우리 말인성도들이 어떤 이유로 다른 사람들이 따라야 할 표준과 규범을 정하는 지도자와 본보기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과 신발, 그리고 아마도 부모님들이 감당할 수 없는 물건들의 상표는 여러분이 장래에 되고자 하는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의 행동과 개인적인 행위와 태도는 우리의 성격과 미래를 결정합니다.

세상은 여러분과 같이 누군가 우리를 보아야 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어느 국가 지도자는 “우리가 입장을 분명히 할 때, 즉 우리가 땅 위에 선을 긋고 ‘우리는 이 선을 넘어가지 않습니다’라고 말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생을 살아가는 동안 구세주가 누구이며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분께서 여러분을 위해 속죄 희생을 치를 정도로 여러분을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아는 일, 즉 복음의

진리를 통해 개종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렵게 들립니까? 저는 여러분이 이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을 약속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겸손히 기도하고 경전을 연구함으로써 이것을 원할 때만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에 대하여 증거하는 경전을 상고하고 그분께서 말씀하신 것을 깊이 생각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요 5:39, 니삼 17:3)

여러분은 자신을 깨끗하고, 명예롭게 지키며, 모든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사악한 유혹을 건디어 낼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간구하면서 벨기세택 신권을 받기에 합당하도록 계속적으로 준비를 해야 합니다. 만일 실수를 범한다면 그 즉시 감독님과 상의하십시오. 실수를 간직한 채로 생활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나쁜 행동을 선하게 바꾸고 이를 즉시 행하십시오. 바로 이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자기 자신과 하나님 아버지께 복을 선교사로 봉사하겠다는 결심을 이미 하셨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봉사를 필요로 하시며, 여러분은 셀 수 없을 정도의 축복을 필요로 합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이 놀라운 조직에 대하여 묻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올바른 원리를 가르쳐, 그들이 자신을 다스리도록 합니다." 저는 어린 신권 소유자인 여러분에게 만일 여러분이 그러한 권고를 따라 가정에서 경전과 현대의 예언자 및 성신을 통해 배운 원리들로 자신을 다스린다면, 손쉽게 자신있게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약속드립니다. 비록 매서운 바람이 나무를 새까맣게 때려도 여러분의 뿌리는 대지에 깊이 자리를 잡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자비에 대한 살아 있는 증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의 구세주께서 살아 계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살아 계십니다.

이 사업이 그분의 거룩한 사업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예수 그리스도를 최우선으로 두고 생각하고 행동합시다

렉스 디 피네가 장로
칠십인 정원회



“안녕하십니까? 형제 여러분, 오늘밤 함께 하게 되어 기쁩니다. 몇주전 총관리 직원들과 같이 가졌던 간중 모임에서 고든 비 힝클리 부대관장님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이 되고, 그 신학을 이해하기는 쉬운 일이지만,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 말과 행동으로써 그리스도를 따르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힝클리 부대관장님의 이 뜻깊은 말씀은 그 이후, 마이클 에이치 하트가 쓴 *세계사에 영향을 미친 100인의 영웅들*이라는 책을 읽는 가운데 제 마음에 새롭게 와 닿았습니다. 놀라운 한편 실망스러운 것은 하트씨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사람 중에 세번째로 두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작가 자신은 예수님을 세번째로 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습니다.

“예수가 인류 역사에 미친 영향은 너무도 크고 분명하여, 그를 첫번째 위치에 두어야 한다는 것에 의문을 품을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실제로 가장

많이 내게 제기된 질문 또한 왜 예수가 ... 첫번째가 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이었다.”

작가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가치를 이렇게 시인하였습니다. “참으로 이제까지 주어진 가르침 중에서 가장 괄목할 만하고 독특한 도덕 정신 중의 하나로서, 그것을 따르는 사람이 많았다면, 나 역시 예수를 이 책에서 첫번째에 두는데 아무런 주저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시코쿠스, 뉴저지: 시타달 출판사, 1987년, 47, 50쪽)

이 얼마나 정곡을 찌르는 뼈아픈 지적입니까?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이 많았다면, 하트씨 역시 예수를 첫번째로 두는데 아무 주저도 하지 않았을 거라니!

이러한 생각들을 마음속에 떠올리면서, 저는 우리가 다음과 같이 자문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위치에 두고 있는가? 마땅히 그분이 서야 할 위치에 서 계신가?” 아마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좇는 이로서 자신의 위치에는 몇 점 정도를 줄 수 있는가?”라는 물음일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말과 행동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생활을 행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특별히 우리에게 더더욱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신권 소유자인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공적으로 행할 수 있는 권능과 권세를 부여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위엄을 갖추어 주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성스러운 의무와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우리는 주님의 영향력을 삶의 최우선으로 두어야 하며,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에 항상 일체감을 보여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완전한 개종을 이루게 될 것이며, 서로를 강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이 삶을 통해 보여주었던 모든 것은 인간 세상에 올바른 영향력과 영광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몇년 전, 저는 가족들을 데리고 아침에 플로리다주에 있는 디즈니월드로 떠난 적이 있습니다. 어린 네 딸은 공원으로 향하는 길로 차가 들어서자 더욱 흥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세를 내어 타고 가던 스테이션 웨곤에서 퍽퍽거리면서 이상한 소리가 나더니 진입로에서부터 멈춰버렸고, 따라서 차 안을 가득 채웠던 웃음 소리와 수다 소리도 갑자기 끊어져 버렸습니다. 다시 시동을 걸려고 했으나 헛수고였고, 그 바쁜 아침 시간에 차량 행렬은 수없이 우리 차를 지나갔습니다. 아무리 해도 별 소용이 없음을 깨닫고, 우리는 꼼짝달짝 않는 차에서 내려 함께 모여 길가에서 기도를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고개를 드니, 차량 행렬 속에 있던 새빨간 스포츠 차가 빠져 나와 우리 뒤로 다가서더니, 한 멋진 남자가 아들과 함께 내려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아침과 오후 내내 그들은 우리를 보살펴 주었고, 많은 친절과 유익한 도움으로 우리의 필요 사항을 충족시켜 주었습니다. 그들은, 우리 가족은 물론 우리가 가져갔던 짐도 공원 입구에까지 실어다 주었습니다. 그들의 작은 차로는 몇 번이나 왕복해야만 되는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저에게 그 말썽장이 차를 위한 견인차 회사를 찾도록 해주었고, 렌트카 회사에까지 태워주어 제가 새 차를 빌릴 수 있게끔 해주었습니다. 그런 뒤에도 그들은 제가 차를 빌리는 데 드는 시간이 다소 길어질 것 같으니까, 다시 제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는 공원 입구까지 돌아가서 그들에게 제가 어디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들은 제 가족을 위하여 먹을 것까지 사다 주었고, 수시간 뒤 제가 도착할 때까지 함께 있어 주었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그들이 우리의 기도

대한 응답이라고 느꼈고, 그들과 헤어지면서 고맙다는 인사를 할 때 그러한 느낌을 그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그 아버지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저는 선하신 하나님께 ‘오늘 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면 제가 도울 수 있게 해주십시오’하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오늘날 참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의 표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준 영향력은 지금까지도 우리의 마음에 살아 있습니다. 그날 이후로 많은 세월이 흘렀고,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그 아버지와 아들의 매일같은 그리스도적 선행으로 인해 고양되고 영향을 받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봉사하는 것을 생활화 해야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는 예수께서,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을 행하는 방법,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방법,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 고동받는 자와 외로운 자를 돌보는 방법을 가르쳐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그의 교회 역시 이와 똑같은 일 즉, 여러 사명을 통해 다른 사람의 필요 사항을 돌보는 일을 하도록 조직하신 것을 보면 참으로 놀랄만합니다.

교회 프로그램을 통해서 계획적으로 이러한 봉사 활동을 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며, 또한 칭찬할 만한 일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표징인 것입니다. 교회는 봉사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개인으로서는 제공할 수 없는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께서 보여 주셨던 것과 같은 친절을 베풀어야 하는 일은 하나의 조직인 교회가 수행할 수 없는 순전히 개인적인 책임입니다. 이러한 행위야말로 우리의 명혼을 고양시키고, 우리와 하나님 아버지와 또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새롭게 해주는 것입니다.

스펜서 더블류 킴블 대관장님은 “교회 전체가 한걸음 내딛기에 앞서... 각 개인의 일보전진이 이행되어야 합니다.”(연차 대회, 1979년 4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행하는 가장 훌륭한 행동은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러한 봉사는 조용히 자발적으로 은밀하게 이루어지며 인정이나 보상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다운 행동은 우리 마음속에 깃드는 그리스도인다운 생각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를 중심을 보”(사무엘상 16:7)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그분의 특성들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행동에 반영되게 됩니다. 곧 더욱 친근한 미소와 더 친절한 대화, 그리고 더욱 공손한 태도를 갖게 될 것입니다. 보기에는 작고 하찮은 행위같지만 그러한 것들은 우리 생활에 크나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브리감 영 대학교의 렉스 디 총장은 “그리스도인의 선행은...[그리스도의] 가르침의 모퉁이돌”이라고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브리감 영 대학교 영적인 모임, 1991년 9월 10일)

한 중학생이 어느날 평소보다 빠르고 경쾌한 걸음으로 집으로 서둘러 뛰어들어오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오늘 저한테 인사를 건넸어요!”

미소나 인사, 또는 간단한 친절이 사람들의 삶에 행복과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은 상냥함”으로 이 세상을 밝게 할 수 있는 참으로 큰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제이슨이라는 제사 신권을 소유하고 있는 한 소년을 알고 있는데, 그 소년은 참으로 충실하고도 남들이 알지 못하게 연로하신 할머니의 필요 사항을 돌봐드리고 있습니다. 소년은 정구적으로 할머니의 집을 찾아가, 정원을 손질하고, 유리창을 닦으며, 잔심부름도 해드립니다. 어떤 날에 할머니가 음식을 많이 붓드셨다 싶으면 드실 음식도 준비해 드립니다. 어느 토요일엔가 할머니가 무척 쓸쓸해하시던 날에는, 친구와 함께 할머니 댁을 방문하여 같이 게임을 하며 놀아 드림으로써 할머니가 외롭지 않도록 해드린 적도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특히 청년 여러분, 여성을 존중하는 것 또한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부가 됩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보여주었던 그리스도의 이해심과 모친께 바쳤던 영예와 배려와 공경심은 그리스도인 모두가 여인들에게 사려깊고 정직해야 하며, 겸손하고 돌보는 자세를 갖추어야 함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신사”라는 명칭은 나이가 들었든 그렇지 않든간에 신권을 소유한 형제라면 누구나 소망해야 할 명칭입니다.

다른 사람을 상냥하고 친절하게 대하는 태도는 그리스도와 같은 봉사를 하는 것에 속합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또 다른 방법들이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가 주고 싶거나 줄 수 있다고 느끼는 것 이상으로 줄 것을 요청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기대감과 그에 대한 의무감으로 인해 부담을 느끼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야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는 희생과 헌신, 용기도 또한 필요하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아직 어린 자녀를 둔 아버지가 선교부장으로 봉사하라는 부름을 받게 되었을 때, 그는 그의 자녀들을 한 자리에 불러 모았습니다. 그는 자녀들에게, 이 부름이 일찌기 예언자가 전가족에게 주는 부름이라고 강조하셨음을 설명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자녀들 각자에게 전혀 생소한 선교 지역으로 삼년 동안 가서 생활하기 위해 집과 친구와 학교를 떠나있을 수 있겠는가를 물었습니다. 그 미묘한 순간에 모든 자녀들은 이 봉사하라는 부름을 기꺼이 지지하겠다고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면서 아버지는 그의 열 네살 짜리 아들이 평소와는 달리 굳어져 묵묵히 있음을 눈치채고는 옆에 다가가 무엇때문에 그러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알고 보니 그 아들은 그와 같은 어린 나이에 복음 선교사로 봉사하기 위해 학교를 그만두어야 한다는 것을 내심 걱정하고 있었음을 숨겨왔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과연 매일 양복과 넥타이를 매고 지낼 수 있는가가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직은 소년으로 남아있고 싶어요.” 물론 그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오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 선교사의 의무는 그러한 나이의 청소년에게겐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은 주님이 요구하신 것이라면 기꺼이 하겠다는 각오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를 알고, 또한 그를 따르겠다는 소망을 가졌다고 해서 모든 것이 늘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결정이나 시련에 직면할 때 제 가장 사랑하는 친구가 자문하던 다음의 질문을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주님은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시나?” “나는 이 일을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

제가 아는 한 청년은 친구들이 사용한 불친절하고도 거짓된 말로 인해 매우 상심하여 절망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더욱 그녀를 실망시킨 것은 그러한 거짓된 비난을 들은 사람들이 그것을 그대로 믿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이 진실을 알기 원하였고, 그 말을 한 친구가 자신이 한 말로 인해 그녀를 얼마나 아프게 했는가를 깨달아 주기 원했습니다. 그녀는 그 친구를 만나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여러 방법들에 대해 생각해보았습니다. 그 자체가 그녀에게는 큰 짐이 되었고, 그러던 중에 마침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하는 생각이 이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친구에게 사랑을 보였을 것이라고 결론지은 후, 곧 그대로 행할 수 있었습니다.

한 번,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자신의 결정에 영향을 주어 행동의 지침으로 삼을 수 있게 된 이상, 그때까지 그녀를 괴롭혔던 일들이 이제는 문제가 안되었습니다. 이 청년은 더이상 그러한 것에 대해 염려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큰 짐을 벗은 듯한 느낌이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참기 어려웠던 것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용서하는 태도를 지니게 되자, 문제가 한결 쉬워졌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우리 삶의 최우선으로 놓을 때, 주님은 우리의 결정을 도와주시며, 또한 유혹을 벗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하루는 곧 짐사가 될 연령에 있는 손자 요엘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요엘은 무척 어려운 결정을 해야만 하는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학교로부터 캘리포니아의 샌디에고에서 개최되는 바다 캠프에 다른 학생들과 함께 참가하도록 초대받았기 때문입니다. 어린 소년에게 있어서 그것은 굉장한 것이었습니다. 씨-월드에 가면 동물 조련사도 보고, 바다 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등, 평소에는 할 수 없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요엘이 맞게된 난관은 이 캠프가 주말에 시작되어 스쿠버 다이빙이나 해안 탐사가 안식일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제 아들 내외는 요엘이 가지 않기를 바랐지만, 제 손자가 스스로 올바른 쪽을 선택하리라는 믿음으로 스스로 결정하도록 맡겼습니다. 요엘은 부모님께 자신이 비록 안식일에 교회에는 갈 수 없어도 수영은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해변에 앉아 하나님의 창조물 속에 들어앉아 있을 수는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그것은 나쁘게 생각할 수 없으실 거예요. 그렇죠?”

요엘은 이 할아버지가 그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다음과 같이 되물었습니다. “요엘, 예수님께서서는 네가 어떻게 하길 원하신다고 생각하니?” 그의 목소리가 좀 메인 듯 하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 안식일을 제가 그렇게 보낸다면 예수님은 행복해하지 않으시겠지요. 그렇죠?”

쉬운 결정은 아니었지만, 그것은 올바른 결정이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매일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세상에는 유혹이 많고, 자칫 잘못하면 그로 인해 그리스도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소망이 크면 클 수록, 우리는 보고 듣는 영화, 비디오, 오락, 음악은 물론 나아가서 사용하는 언어까지도 순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에는 아무 문제도 안되는 것을 배제하거나 포기하기란 너무도 힘이 든다고 느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 그 언행에 있어서까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면, 우리는 올바른 결정을 한데서 오는 평화와 확신을 갖게 될 것입니다. 홀로 서야만 할 때라도 주님은 그에 필요한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물론경에서 엘마는 니파이 군의 최고 사령관이었던 모로나이에 대해 힘있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홀로 서서 선을 이루어낸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갑옷과 투구와 가슴판으로 무장하고 방패를 갖추고서, 장대 위에 자유의 깃발을 매단 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땅에 엎드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땅을 소유하고 있을 동안 하나님의 자유의 축복이 그의 모든 동포에게 임하여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곡히 기도하였다...”

엘마는 계속해서 “이같이 교회에 속하지 않았던 자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속하여 진실하게 믿는 자들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 하였느니라.”

“교회에 속한 자들은 모두 성실하였고,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는 자들은 모두 기쁘게 그리스도의 이름을 짊어지려 하였으며 기쁘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 일컬음을 받기를 원하였으니, 저들이 강림하실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었음이라.

“그러하여 모로나이가 기도할 때에 그리스도인의 대업을 위해 특별한 은총을 간구한 것이다”(엘마서 46 : 13~16)라고 기록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짊어지고, 그분의 위대한 신권의 권능과 권세를 소유한 우리들 또한 기꺼이 그리스도를 최우선으로 두고 생각하고, 행동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간구드립니다. 그렇게 할때 우리는 “주의 영이 우리 곧 우리 마음 가운데 큰 변화를 갖게 하시어 다시는 악을 좇으려 하지 않게 하시며 계속하여 선행을 하게 하심”(모사이사서 5 : 2)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를 진정한 예수의 추종자, 곧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줍니다. 이 모든 것을 행하여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 아멘. *

선교사로 나가는 아들에게

데니스 비 뉴엔슈안더 장로
칠십인 정원회

“참으로 성공적인 선교 사업은... 여러분의 기쁨과 여러분으로 인해 영원히 변화를
맞게 된 사람들의 기쁨 속에 기록되게 됩니다.”



사 랑하는 형제 여러분, 오늘 밤 이처럼 많은 신권 소유자들과 함께 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지금 이곳에는 많은 청소년들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데, 그 중에는 아직 열 아홉 살이 되지 않은 청소년도 있지만 이미 복음 선교사의 부름을 받고 있는 형제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밤, 저는 바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지난 5월 15일, 저희 집에서도 드디어 전세계적으로 말일성도 가정에서 매주 수백번씩 벌어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끝에, 제 아들 브래들리에게 선교사 부름에 관한 내용이 들어 있는 예언자의 편지가 온 것입니다. 저희 집에는 세 번째로 오는 편지였지만, 매번마다 그 편지를 처음으로 받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번 편지는 제가

오스트리아 비엔나 선교부장으로 있으면서 선교부 일로 인하여 멀리 외출을 하고 돌아온 까닭에 봉투도 뜯지 않은 채로 브래들리의 책상위에 밤 늦게까지 놓여 있었습니다. 드디어 엄마, 아빠, 동생 스티븐과 물론 브래들리까지 가족이 모두 모였습니다. 다른 가족들도 그렇겠지만 우리 가족에게도 선교사 부름장을 개봉할 때에 치르는 일종의 의식 절차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족 각자가 봉투를 받아서 이리저리 돌려 보기도 하고 불빛에 비추어 보기도 하며 속 내용에 대해 각자 추측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다음 우리 가족은 각자에게 주어진 종이에 일본, 뉴질랜드, 프랑스 등 브래들리가 부름받았다고 생각되는 선교부를 각자 적었습니다. 이어서 봉투를 개봉하는 긴장되는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온 가족들의 흥분된 마음 만큼이나 봉투를 여는 브래들리의 손도 떨렸습니다. 마침내 브래들리는 편지를 펼쳐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뉴엔슈안더 장로님, 장로님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습니. 장로님의 임지는 폴란드 바르샤바 선교부입니다.”

바로 그 순간, 서로 이유야 다르겠지만,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내는 어머니로서 보금자리를 떠나 세상에 나서게 될 아들을 생각하면서 눈시울을 적셨으며, 아버지는 오래 전이기는 하지만 자신이 핀란드에서 봉사하도록 부름받았을 때가 눈에 선하게

떠올랐습니다. 스티븐은 이제 형이 떠나면 자기가 집에 남게 될 가장 큰 아들이 되리라는 것을 이해하면서 한편으로는 또한 자신도 곧 부름장을 받고야 말겠다는 무언의 다짐을 하는 듯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국 내에 여기저기서 사는 귀환 선교사 형들로부터 전화가 오고, 기쁘긴 하지만 브래들리가 자신들이 봉사했던 뉴멕시코나 뮌헨으로 가지 않아 실망했다고 짐짓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할아버지 내외분은 주님께 봉사할 가치가 있는 손자가 하나 더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몹시 기뻐하셨습니다.

선교사로 떠나기 위해 준비하는 바쁜 나날들이 시작되었습니다. 브래들리가 떠나야 하는 7월 10일은 너무도 빨리 돌아왔습니다. 선교사 훈련원에 가서 선교사가 된 아들에게 작별을 고하는 일이 몇 번째이지만 여전히 쉽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브래들리와 잠시 따로 조용한 시간을 내어, 선교 사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브래들리는 4년 동안이나 선교부장 사택에 살면서 오고 가는 선교사들을 지켜 보아 왔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폴란드로 떠났던 선교사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직접 경험하게 될 이 위대한 선교 사업에 관하여 이야기한 내용을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교 사업을 성공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선교 사업은 여러분이 노력하는 만큼의 결실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훌륭한 선교부장과 좋은 동반자들이 있어 여러분을 도와 줄 것이지만, 선교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결정적인 요소는 바로 여러분 자신임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은 젊고도 강한 두 어깨로 자신이 기꺼이 즐겨 택했던 부름에 대한 책임을 짊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양한 생활 환경과 여러 다른 나라에 살다운 선교사들을 보아 왔습니다. 비슷한 상황 속에서 어떤 선교사는 성공하고 어떤 선교사는 실패합니다. 그 차이는 선교사 자신의 태도와 의욕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선교 사업 기간 중에 역경을

겪는 일이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그것을 영적인 성장의 밑거름으로 삼으십시오. 그 어느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선교 사업을 영화롭게 하는 데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생활을 단순화시키십시오.

여러분은 대부분, 풍부한 기회와 활동으로 가득 찬 학교 생활 중에 선교 사업을 나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선교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느냐에 관한 한 가지 열쇠는 여러분의 삶을 얼마나 단순화시켜, 자신의 부름의 목적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가 하는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자기 중심의 삶에서 타인 중심의 삶으로 생활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선교사 중에는 과거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여 선교사로서 해야 할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고 갈등을 겪는 이들도 있습니다. 세상적인 일과 선교 사업을 동시에 추구하면서 선교사로서의 성공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성공적인 선교사는 변화를 이루어낸 사람입니다. 이러한 선교사는 자신의 주된 목적에서 벗어나는 모든 것들을 멀리합니다. 선교부로 떠나는 여러분의 마음과 여행 가방에 필요 이상의 짐은 가져 가지 마십시오.

배우겠다는 태도를 지니십시오.

교회내에서 어떠한 직책에 부름받든지 여러분은 항상 그 직책의 감리자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고 격려해 줄 것입니다. 언제라도 그들에게서 배우겠다는 겸손함과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십시오. 1987년에 패커 장로님은 신임 선교부장들을 모아 놓고 말씀하시기를, 침묵할 줄 알게 되며,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훌륭한 조언이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저는 교회에서는 물론 선교 사업을 하면서까지도 배우겠다는 자세를 갖고 있는 사람이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순종하십시오.**

선교사 규칙은 계명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입니다. 선교사 규칙이



우리에게 힘을 주며, 가야 할 방향과 해야 할 한계를 정해 준다는 사실을 이해한다면, 그것을 왜 지켜야 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현명한 선교사라면 그 규칙들이 주어진 이유를 알아 그것을 자신의 생활에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선교 사업 기간은 수련의 시간이요, 목표에 전념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그 기간 중에, 이제까지 여러분의 삶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음악, TV, 비디오, 소설, 나아가 여자 친구들도 멀리 해야 합니다. 그것들이 나쁜 것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은 음식을 취하는 것이 아무런 잘못이 아니라 해도 만일 여러분이 금식을 하고 있는 중이라면 한 모금의 물도 함당하지 않은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경전을 가까이 하십시오.

때때로 선교사들은 복음에 대한 이해력을 키우기 위해, 고리 주해서 등을 갈구하곤 합니다. 하지만 선교 사업 중에 복음 공부를 하기 위해서 그러한 책들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선교 사업 기간 중에 경전을 복음 공부를 위한 주 교재로 삼으십시오. 주님은 장로들에게, "...나의 영의 권능으로 너희 손에 맡긴 것을 인간의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다만 너희는 하늘에서 가르침을 받을 뿐이니, 너희 몸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능력을

성약과 의식

호르헤 에이 로하스 장로
칠십인 제이 정원회

받아 내가 이야기한 것같이 가르칠 수 있으리라.”(교리와 성약 43:15, 16)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선교사인 여러분에게 하신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지닌 직분을 존중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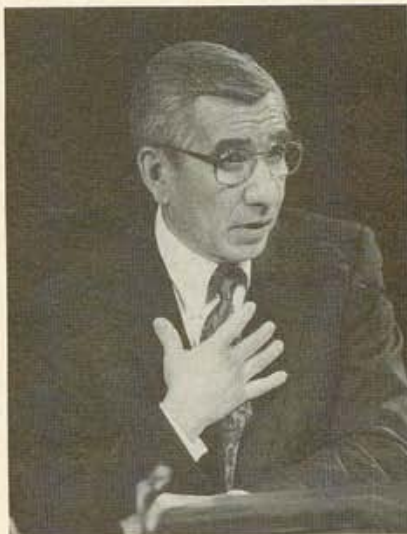
교회내에서 “장로”라고 불리우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만, 복음 선교사가 그중에 속합니다. 그 직분을 존중하십시오. 경외심을 갖고 사용하십시오. 여러분의 형제들을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 이름에 영예를 더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올바른 인목을 가지십시오.

참으로 성공적인 선교 사업은 도표 상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슴과 여러분으로 인해 영원히 변화를 맞게 된 사람들의 가슴 속에 기록되게 됩니다. 즐겨 여러분의 간증을 나누십시오. 선교사가 전하는 순수하고 간결한 간증보다 더 힘있고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간증은 여러분이 가르치는 사람을 개심시키는 첫 단계가 됩니다.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켜 복음의 원리와 의식에 순종함으로써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올 수 있도록 권유하는 용기를 지니십시오. 주님은 니파이인들에게, “...이는 계명이라, 회개하라, 너희 온 땅에 거하는 자들아. 회개하여 내 앞에 이르러 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성신을 받아 정결케 되어 마지막 날에 내 앞에 흠없이 서도록 하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는 복음이요...”(니파이삼서 27:20, 21)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신권이 다른 사람들의 삶에 축복이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은 참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을 가르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메시지를 전해 듣고 받아 들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간증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 *

“성약을 맺고 의식을 받은 후에는 네가 맺은 성약에 따라 생활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다.”



부자가 함께 참석하신 분이 많이 계십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가 가정에서 흔히 경험하는 한 상황을 소개해드리고 싶는데, 괜찮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여보세요? 응, 아빠다. 별 일 없니? 오늘 수업은 어땠니? 잘했구나. 전화 온 데는 없었니? 감독님이? 너하고 접견하시겠다고? 그거 아주 잘된 일이구나. 감독님은 항상 청소년들과 접견을 하신단다. 우리끼리 하는 것처럼 말이다.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시로에게 배우게 되지 않았니? 참 좋은 시간이었다. 그렇지? 아니야. 똑같은 것이라. 걱정하지 말아라. 다 잘 될 것이다.

어디 보자... 그러고 보니, 다음 달이면 네가 만 열 두 살이 되는구나. 그래서 감독님이 너와 접견을 갖고 싶어하시나 보다. 나라면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 그럼, 감독님은 학교와 친구, 지혜의 말씀 등에 대해서 물어 보실 거다. 매일 아침 침구를 정리하니? 샤워도 매일 하고? 정말이다. 농담이 아니라니까. 감독님은 물어 보실거야. 정말이야. 게다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매일 기도합니까? 경전을 읽고 있습니까? 주님을 사랑합니까?” 하는 질문도 하실 거야. 너 다하니? 잘 하고 있지? 좋아.

감독님은 성약과 의식에 관해서도 말씀하실 거다. 아니... 아니... 성-약-성약과 의식. 그것 참 좋은 질문이다. 네가 물어 볼 줄 알았다. 음, 비슷하지... 너도 알지... 성약하고 의식. 이리 와 보려므나.

너는 방금 내게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말했다. 나 역시 마찬가지란다. 아들아.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셔. 그분은 너와 네 형제들을 다 아시지. 우리 모두의 이름까지도 알고 계신단다. 너무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에 대한 신앙을 가져야 한단다.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나는 길ियो 권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한복음 14:6)라는 매우 중요한 말씀을 주셨단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말씀이란다.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에게로 돌아갈 수가 없단다. 정말 중요하지.

그런데 주님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대번대늘에 참석하고 있는 회중들의 모습.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요한복음 14 : 15)라는 말씀도 주셨지.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사랑할 때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란다. 그것이 주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약속이야. 매우 성스러운 약속이지. 바로 이 주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성스러운 계약을 성약이라 부르는 것이란다.

네가 침례받던 때를 기억하느냐? 먼저 너는 주를 믿는 신앙을 가질 것과, 죄를 회개하고, 나아가서는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 것을 약속하였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가 아버지께 돌아가는 길을 도와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지. 그것이 바로 주님과 너 사이에 맺은 성약이야.

그런 다음 너는 마치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 그것을 공문화하고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하여 문서에 상호간에 서명을 하는 것처럼 이 약속을 공식화해야만 한다. 만일 주님과 나의 계약을 공식화하고 싶다면, 기록에 서명할 필요는 없지만, 너는 의식을 행해야만 하지. 의식 역시 매우 성스러운 것이란다.

성약이 맺어지고, 의식이 행해졌다고 해도, 거기엔 아직 세번째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그것은 성약에 따라 생활해야

한다는 것이야. 이 세번째 원리 역시 무척 성스러운 것이다. 왜냐하면 앞에서 한 두 가지는 전적으로 너의 행위에 달려 있기 때문이야. 성약(무엇인가를 하겠다고 동의하는 것)을 맺고, 의식(계약서에 서명을 함)을 행했다 하여도, 만일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니? 이해하겠지?

주님이 요구하시는 첫번째 성약과 의식은 침례란다. 침례는 우리가 주님의 면전에 이르는 길을 떠나는 데 있어서 출발선이 되는 것이다. 이 길을 따라 걸을 때, 우리에게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또 다른 많은 성약과 의식들이 주어지게 되지. 하지만 세번째 것을 절대로 잊지 말거라. 우리가 맺은 모든 새로운 성약에 따라 생활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거라.

아마 내 생각에 감독님은 앞으로 네가 주님과 맺게 될 또 다른 성약과 의식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자 하실 거다. 신권이라고 하는 것이지. 야아, 그 신권이 너의 삶에 축복을 가져다 줄 것이다. 감독님이 너에게 그 의미를 이해시켜 주실 거야. 그렇게 되면 너도 주님과 신권

성약을 맺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또 성약을 맺게 되면, 당연히 의식이 집행되어야 하겠지. 그 의식이 네게 집행되고 네가 집사가 된다면, 내겐 정말이지 큰 행복이 아닐 수 없다.

그것은 네가 주님의 면전으로 돌아가기 위한 여행을 계속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너는 계속해서 그 길로 나아가며 성장해야만 한다. 그렇게 2년이 지나게 되면, 너는 또 다른 도움을 필요로 하게 될 것이다. 너만 합당하면, 너는 또 한 단계를 올라서서 아론 신권의 교사직에 성임될 준비를 갖추게 된다. 또 2년이 더 흐르고, 그동안 별 일이 없이 잘 되어왔다면, 너는 또 한 단계를 올라가게 되고, 나는 너를 제사로 성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뒤, 곧바로 너는 더 높은 신권인 멜기세덱 신권을 받아 장로로 성임될 준비를 갖추게 된다. 나의 아들이, 네가 대신권을 소유하게 되는 날, 너는 신권이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갖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너는 내가 그토록 늘 소망해 왔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선교사로서 나갈 준비를 마치게 되는 것이다.

그때가 되면 너는 지금보다 훨씬 많은 것을 이해하게 될 것이고, 이제까지 네가 밟아 온 모든 단계, 네가 이론 모든 준비에 대해서 주님께 감사함은 물론 지속적인 도움으로써 마침내 너를 주님의 집인 성전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게 될 것이다. 나의 아들이, 거기서 너는 가장 높은 성약을 맺고, 또한 가장 성스러운 의식을 받게 될 것이다. 여기서도 역시 너는 세번째 요소를 기억해야만 한다. 기억하지? 성약을 맺고, 의식을 받은 후에는, 그 맺은 성약에 따라 생활해야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다. 계명을 지켜야 하는 것이다.

자, 감동님과 접견할 준비가 되었겠지? 좋아.

이제 오늘 이야기한 것들을 검토해 보자꾸나. 그리고 하나님께 이 모든 시간을 주심을 감사드리도록 하자. 네가 검토하겠니? 아니면 기도하겠니?

좋아. 네가 검토해라. 내가 기도하마.

그래. 우리는 주님을 사랑해야 한다. 만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계명을 지킨다. 아주 잘했다.

주님의 계명은, 첫째 성약을 맺고, 둘째 의식을 받아들이며, 셋째 주님과 약속한 대로 생활하는 것이다. 정말 훌륭하구나. 아들이, 사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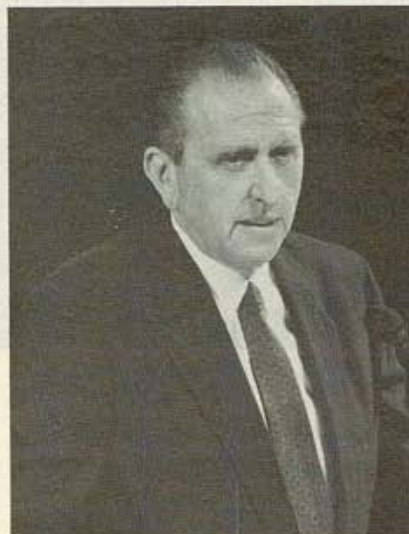
자, 손을 모아, 머리 숙이고, 눈을 감아라, 기도하자꾸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복음을 회복해 주시고, 물문경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성신권과 우리를 인도하는 살아 계신 예언자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말미암아 불사 불멸과 영생의 가능성을 열어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부디 저희를 도와 주셔서 성스러운 성약과 의식을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주님의 손길이 늘 우리와 함께 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하여 늘 주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봉사하도록 부름받음”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2보좌

“주님의 사업을 행하고 있음을 깨달을 때 가슴 깊이 저려드는 느낌보다 우리를 더 사로잡는 느낌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여러분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힘, 신앙, 영적인 능력, 곧 신권의 권세를 인식하지 못한 채 이 역사적인 태버나클에 앉아 계시거나, 세계 도처에 모여 이 자리를 지켜 보고 계신 여러분을 마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다음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 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마태복음 4 : 18~22)

형제 여러분, 우리들 역시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또 포도원의 일꾼으로서 주님을

따르도록 부름받았고, 젊은이들을 발전시키고 성인들을 변화시킴으로써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잘 알려진 다음과 같은 노랫말을 되뇌일 때면,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더욱 더 고양시킬 수 있습니다.

주 섬기라. 영광 가득한 왕,
그 이름을 증거하여라.
은 세상에 말씀 전파하고
예수 사랑 외치세.

(찬송가, 1989, 145장)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도록 부름을 주는 일은 작은 일이 아니며, 그러한 부름을 받아들이는 일 또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스펜서 더블류 킴블 대관장님은 종종 “사려없이 부름주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러한 봉사의 부름은 진지한 기도와 심사숙고를 통해서 주어져야 합니다. 주님은 “인간의 가치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큼을 기억하라.”(교성 18 : 10)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아론 신권을 소유한 청소년들을 위하여 봉사하도록 부름받은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 고귀한 청소년들은 모습이 다 다를 뿐더러 성격과 배경 또한 실로 다양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들을 개별적으로 알 수 있는 특권을 가졌으며, 각각의 청소년들에게 동기를 부여해 주고 이끌어 갈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멜기세덱 신권을 받기에 합당하도록 준비시키고, 선교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치게 하며, 성전 결혼을 하도록 도와, 나아가서는 봉사의 삶과 진리에 대한

간증을 갖게 만듭니다.

우리에게도 모두 한때 소년 시절이 있었음을 잊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소년의 가치는

아무도 모르네 ;

알기 위해선

기다려야 한다네.

하지만, 만민에게는 다

제 갈 귀한 자리 있으니,

소년에게도

그 자리가 있다네.

젊은이들에 대한 올바른 시각은 그들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부분입니다. 그들은 젊고, 유순하고, 열정적이며, 지칠 줄 모르는 에너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때론 실수도 합니다. 언젠가 한 선교사가 저지른 젊은이 특유의 잘못에 대해서 대관장단과 심이사도가 한데 모여 심의 모임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분위기는 심각하였고 그에 대해 거의 부정적인 결론이 나올 때였습니다. 그때 리그랜드 리차드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잠깐만요, 형제 여러분, 만일 우리의 선하신 주님께서 열 아홉 살짜리 청년의 몸에 마흔 살짜리 머리를 없고자 하셨다면, 그분은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지요. 주님은 열 아홉 살짜리 몸에는 열 아홉 살짜리 머리를 두셨습니다. 우리 좀더 깊이 이 문제를 생각해 봅시다.”

그때, 모임의 분위기는 바뀌었고, 문제는 해결되었으며 우리는 다음 의제로 넘어갔습니다.

아론 신권을 소유하고 있는 시기는 참으로 성장의 시기입니다. 좀더 성숙되고, 배우며, 발전하는 시기입니다. 정서적 변동이 심한 시기이기에, 영감받은 지도자가 주는 현명한 조언과 올바른 모범이 큰 변화를 일으켜 그 삶을 고양시켜 줄 수 있는 기간이 되기도 합니다.

아론 신권 정월회 모임은 청소년의 고문과 감독단들이 복음 원리와 헌신적인 봉사를 통해 청소년을 가르치고 훈련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여 줍니다. 그들이 따를 수 있을 만한 합당한 모범이

되십시오. 젊은 시절은 비평보다는 따라야 할 귀감이 더 아쉬운 때입니다.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리하면 나의 은혜가 너희에게 미치지니”(교성 88:78)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론 신권을 소유한 청소년들은, 오늘 저녁 이 자리에도 많이 나와 있지만, 각종 운동에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러한 사정을 잘 알기에, 활동과 체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참여와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유익을 전제로 교회가 막대한 재원을 투자하여 지은 체육 시설들은 경기력 향상은 물론 우정과 형제애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줍니다. 하지만 이러한 목표는, 경기에 참여보다 승부에 집착하게 될 경우 이루어질 수 없게 됩니다. 벤치에 앉아 있으려고 경기장을 찾은 청소년은 없습니다. 그들은 모두 운동하기 위해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특권은 그들에게 이러한 기회를 제공하여 주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파이오니어 스테이크 제25와드의 농구 팀에는 열 명의 선수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당시 그 팀에는 현명한 지도자가 한 분 계셔서 잘 하는 다섯 명만으로 시합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능력과 나이를 고려하여 엇비슷하게 두 팀을 만들어서 1진이 첫째, 셋째 피리어드에 뛰면, 2진은 둘째, 넷째 피리어드에 출전하게 하셨습니다. 거기에 후보 선수와 주전간의 알력은 없었습니다. 모두가 열기에 가득 찼으며, 각자에게 주어진 경기 시간도 같았으므로 시합은 늘 좋은 분위기에서 끝이 났습니다. 교회가 후원하는 체육 활동에 참여하는 선수로서 시합 내내 후보로 남아 벤치를 지키는 선수는 없어야만 합니다.

청소년들의 관심을 자극하는 또 다른 분야로는 스카웃 활동을 들 수가 있습니다. 최근 신문·방송 매체를 통해 스카웃 활동에 관련된 내용이 많이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거니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스카웃 운동에 대한 지원을 결코 아낀 적이 없습니다. 스펜서 더블류 김볼 대관장님은, “교회는 스카웃 활동을

지지하며, 청소년들이 스카웃 활동에서 표방하는 시민 정신의 함양과 인격 도야에 매진함으로써 가족과 교회와 계속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도력을 제공하는 일에 힘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위대한 운동에 대한 지원을 확고히 하고 있으며, 그 정신적 지주가 되는 선서와 규약을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연차 대회, 1977년 4월)

에즈라 테프트 벤슨 대관장님은 스카웃 운동을 “숭고한 프로그램”이라 칭하시며, “스카웃은 소년들에게뿐 아니라 지도력을 제공하는 성인들에게도 인격 수양의 기회를 마련해 준다”고 하셨습니다. (...그대로 거두리라, 솔트레이크시티 : 데저렛 출판사, 1960년, 138쪽)

형제 여러분, 역사상 스카웃 운동의 원리가 절실하게 요구되는 때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지금입니다. 역사상 건강한 심신과 도덕적 깨끗함으로 유익을 얻을 세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현대입니다.

불과 몇 년 전에 스카웃 활동을 통해 연마한 기술이 제 가족 중의 한 생명을 구한 일이 있습니다. 제 조카의 아들인 열한살짜리 크레이그 디어튼은 스카웃에서 주는 수영 기장을 따는 데 필요한 조건들을 훌륭히 마쳤습니다. 조카는 아들의 성취가 자랑스러워 얼굴에 희색이 만연하였고, 조카 며느리는 사랑스러운 입맞춤을 해주었습니다. 기장 수여식에 참석한 사람들 중에 그 상이 삶의 기로로 뒤바꿀 수 있는 영향력을 지니고 있는 것임을 알고 있던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바로 그날 오후, 수영장 물속 깊숙이 가라앉아 있는 시꺼먼 물체를 분간해 낸 사람이 있었으니 다름아닌 크레이그였습니다. 크레이그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수영장에 뛰어들어 물속을 뒤져서 자기의 동생을 끌어 내었습니다. 물 밖으로 끌어올려진 어린 스코트는 시퍼렇게 되어 늘어진 채 마치 죽어 있는 듯이 보였습니다. 크레이그는 배워 익혔던 인명 구조 방법을 상기하면서 사람들과 함께 진정한 스카웃의 전통을 재현해 내었습니다. 갑작스레 울음 소리, 숨소리가 들렸고,



움직임과 함께 생명이 돌아왔습니다. 스카웃 활동은 할 만한 것입니까? 스카웃 기술로 아들이나 형제를 살린 부모와 가족에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중의 많은 분들은 감독단이나 고등 평의원, 또는 신권 정원회의 역원으로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여러분의 일이 힘이 부치게 느껴질지도 모르겠고, 살아가면서 절망감에 빠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영감을 주어 여러분을 부르게 하셨고, 여러분이 성공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의 사랑하는 독생자, 우리 구세주께서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의 사업에 종사하는 자들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흠없이 설 수 있도록 너희 온 마음과 정성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려 원할진대 그 일에 부름을 만나니.”

(교리와 성약 4:2~3)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주신 한 계시에서 주님은 또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선을 행함에 지치지 말라. 너희는 위대한 사업의 기초를 닦고 있음이다. 작은 일에서 큰 일이 생겨나느니라.”

“보라 주는 진심을 구하시며 기꺼이 하고자 하는 마음을 요구하시니라”(교리와 성약 64:33~34)라고 하셨습니다.

겸손한 기도와 근면한 준비, 그리고 성실한 봉사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성스러운 부름을 성공리에 마칠 수 있습니다. 신권 소유자들 중에는 활동이 저조한 이들을 찾아가 그들의 신앙을 새로이 하고, 다시금 교회로 돌아오게 하는 소망을 일깨워 주는 은사를 지닌 분들이 계십니다. 이러한 특별한 은사를 지닌 분들에게 그 재능을 사용할 수 있는 임무를 주십시오. 또 어떤 분들 중에는 청소년들과 함께 일하는 능력을 지닌 분들이 계십니다. 이러한 분들은 청소년의 존경을 받기에, 유혹을 극복하고자 하는 그들의 결심을 공고히 해주고, 영생으로 인도하는 길을 함께 걸으며 이 선택된 어린 영들을 사랑으로 이끌어 주고 계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 주실 것이며, 여러분이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바로 주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즐겨 “우리가 주님의 사업을 행하고 있으며, 주님도 그분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를 돕겠다고 하셨음을 알았을 때 가슴 깊이 저려드는 느낌보다 우리를 더 사로잡는 느낌은 없다.”고 말씀드려 왔습니다.

감독님이라면 누구나 교회 안에서 봉사하도록 부르시는 이끌림에 대해 간증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한 부름은 자주, 가르침이나 이끌림을 받는 사람에게 보다는 오히려 가르침을 주고 이끌어 주는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 감독이었을 때, 봉사는 커녕 교회에도 나오지 않는 비활동 회원들을

많이 걱정하였습니다. 언젠가 벤과 에밀리가 사는 동네 거리를 지나던 날에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나이를 많이 먹었고, 이제는 어느덧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분들이었습니다. 노년기에 오는 육체적인 고통은 그들을 여러 활동으로부터 격리시켰으며, 결국은 일상 생활로부터 고립되고 단절된 그들의 집안으로 그들을 이끌어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날은 모임에 가던 길이었는데, 자꾸 차를 세우고 벤과 에밀리를 방문하라는 거부할 수 없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화창한 평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집으로다가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에밀리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감독인 저를 알아보고 나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온종일 전화 오기만 기다렸었다우. 그런데 아무 소리도 안났어요. 혹 편지라도 배달되는가 하고 바랐지만, 배달된 것은 고지서뿐이었다우. 감독님, 어떻게 오늘이 내 생일이라는 것을 아셨우?”

“하나님께서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에밀리, 그분은 당신을 사랑하시거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조용하기만 한 그들의 거실에서, 저는 “제가 오늘 왜 이곳으로 인도되어 왔는지 저도 잘 모릅니다. 하지만 저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함께 무릎을 꿇고 주님께 그 이유를 여쭙어 보면 어떻겠습니까?”하고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기도하였고, 응답이 왔습니다.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지고 있었던 에밀리에게 저는 합창단에 들어오시도록 부탁하였고, 돌아오는 와드 대회에서는 독창을 해주십시오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벤에게는 아론 신권을 소유한 청소년들에게 말씀을 해주도록 부탁드렸는데, 특별히 인생 전반에 걸쳐, 영의 인도를 따랐을 때 그가 느낄 수 있었던 주님의 보호에 대해 간증해 주도록 부탁하였습니다. 두 분 다 그대로 행하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그들의 재활동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 날 이후부터 그들이 살아 있는 동안 그들은 거의 한 번도 성찬식에 빠지지 않았었습니다. 바로 영의 음성이 들렸던 때문이며, 그것이 또한

받아들여진 까닭입니다. 그로 인하여 마음이 감동되었으며 삶은 다시금 제 의미를 찾았습니다.

신권 지도자로서 우리는 곧, 기록으로 남는 일은 아니라 해도 그중에 지극히 중요한 일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정원회 회원들의 집을 방문하고, 병자를 축복하며, 어려운 회원을 지속적으로 돕고, 또한 사랑하는 이를 잃고 슬퍼하는 유가족을 위로하는 일 등은 모두 신권의 봉사로서 갖는 성스러운 특권입니다. 정말 이러한 것들이 기록으로 남는 일은 아니라 할지라도, 더욱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일이야말로 영혼에 안식처를 찾게 해주고 마음에 기쁨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또한 이 모든 일들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짐이 무겁게 느껴지거나, 노력을 하였지만 그 결과에 낙담하게 될 경우가 있다면 저는 노년기에 이르러서도 굽히지 않는 헌신을 보여 주셨던 김볼 대관장님의 다음 말씀을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나의 인생은 마치 나의 신발과 같습니다... 봉사를 통해 닳아 헤어지는..."

(엘사인, 1985년 12월호 41쪽)

저는 오늘밤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청소년들이 현재 주님을 위한 복음 선교 사업을 준비하고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엘레이 엘 크리스찬슨 장로님은 종종, "우리의 선교 사업은 우리의 인생이 던져져 연마되는 곳"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목적만을 전념하여 구하면서 합당하게 봉사하도록 자신을 준비시키십시오. 여러분의 간증과 여러분의 봉사가 주는 그 모든 영향력을 스스로 측정하기는 어렵겠지만, 여러분은 주님을 위한 성스러운 부름에 응할 수 있는 특권을 갖게 되었다는 기쁨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진리의 빛을 전해 준 사람으로부터 끊임없는 사랑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의 가르침은 그들의 봉사를 통해서도 보여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범은 따라가기 위한 안내가 되어줄 것이며, 여러분의 신앙은 생의 역경에 대처할 수 있는 용기를 복돋아 줄 것입니다.



한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한스 비 링거 장로와 같이 체코슬로바키아를 방문한 것은 그곳에 자유가 선포되기 훨씬 전이었는데, 그때 저는 그 암흑 기간 동안 그곳에서 지도자로 봉사하던 지리 스네드플러 형제와 그의 아내 올가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집은 프라하에 있었고, 지부 모임도 그의 집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들어간 방은 벽이 온통 솔트레이크 성전 그림으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네드플러 자매에게, "남편께서 참으로 성전을 사랑하시는군요."라고 하였더니, 그녀는, "저도 그래요. 저도 좋아해요." 하고 말하였습니다.

스네드플러 자매가 준비한 스프를 들고 난 후, 그녀는 참으로 귀한 것을 가져다 주었는데, 그것은 정부 시행령으로 선교부가 문을 닫아야만 하였던 1950년도에 체코에서 봉사하던 선교사들의 사진이 담긴 앨범이었습니다. 앨범을 천천히 넘겨 주면서 다른 선교사의 사진이 나올 때면, 그녀는, "좋은 청년이었어요. 좋은 청년이었고말고요." 하며 되뇌이곤 했습니다.

스네드플러 형제는 용기있는 체코 교회 지도자였으며, 복음을 위해서라면 항상 무슨 일이든지 하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체코 국내에서의 교회 활동이 승인될 수 있도록 노력한 끝에 기회를 얻게 되었으나, 승인 신청을 원할 당시, 공산주의자였던 담당 정부 관료들은,

"미국인을 보내서도 안되고, 독일인을 보내서도 안되며 스위스인도 안된다. 체코슬로바키아 시민을 보내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에는 다분히 위협적인 요소가 내포되어 있었으니, 종교 활동이 금지되어 있던 당시에 자신이 교회 지도자임을 자인한다는 것은 곧 투옥될 수도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름이 스네드플러 형제에게 왔으니, 그는 체코 정부에 나가도록 지목되었고, 온 체코슬로바키아에 그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지도자임을 천명하며, 그의 교회가 승인되도록 노력해야만 했습니다. 후에 그는 제게 말할길 그 당시 다소 당황했으며, 프라하 지부의 형제 자매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아내 올가에게 갔었고, 그녀에게, "여보, 당신을 사랑하오. 언제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복음 또한 사랑한다오. 나는 나의 구세주를 따라가야 하겠오."라고 말했습니다.

그 신앙과 헌신의 영을 지니고, 스네드플러 형제는 정부 관료들 앞에 섰으며, 자신이 교회 지도자임을 밝히고, 오래 전 이곳에서 교회가 누렸었던 권리를 다시 얻기 위해 찾아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스네드플러 형제는 다음과 같은 낭보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귀 교회가 체코슬로바키아에서 다시 공인되었습니다." 아내와 충실한 교회 회원들에게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느라

들땀을 스네드플러 형제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다시 선교사들이 체코슬로바키아에 올 수 있게 되었고, 교회는 그 나라에서 자유로이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날은 체코슬로바키아에는 참으로 복된 날이었습니다.

오늘날 스네드플러 형제 내외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바로 지난 달, 그들은 독일 프라이베르그 성전의 성전장과 메이트론으로서 봉사하라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성전에는 독일, 체코슬로바키아와 그 주변 국가의 충실한 성도들이 참석하게 됩니다. 이제 이 두 순결한 영혼은 그들이 그토록 사랑하던 주님의 집에서 매일의 삶을 지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체코의 초기 선교사들 중의 한 사람이자, 율가 스네드플러 자매가 "좋은 청년이었어요, 좋은 청년이었어요."라고 칭찬하였던 리차드 윈더 형제는 지금 무엇을 할까요? 그는 체코 국내에서의 교회 활동이 재개됨에 따라 그의 아내 바바라와 함께 체코슬로바키아 프라하 선교부장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스네드플러 내외, 윈더 형제 내외를 비롯하여 성스러운 부름에 기꺼이 응하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은 다음과 같이 칭찬하십니다. "나 주는 나를 두려워하는 사에게 자비로우며 은혜를 베푸나니 끝까지 의와 진리로 나를 섬기는 자를 존귀하게 하기를 기뻐하노라. 저희 상은 클 것이요, 저희 영광은 영원하리니라."(교리와 성약 76 : 5, 6)

주 섬기라. 풍성한 주 축복 넘치도록 응답받으리—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기쁨으로 찬양해.

모두 전진하세, 주의 이름 빛내며,
모두 전진하세, 주의 이름 빛내며,
모두 전진하세, 승리 개가 부르며
면류관 향해 마지막까지
주님 섬기며—
(찬송가, 145장)

항상 충실히 봉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빌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겸손히 전해 드립니다. 아멘. *

청지기 직분에 대한 보고

고든 비 힝클리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1보좌

"아내에게 거드를 피우며, 아내를 무시하고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남편이 있다면, 이는 아내에게 상처를 입히는 것임은 물론 자기 자신의 품위마저도 깎아내리는 행위입니다."



형제 여러분, 참으로 훌륭하고도 우리의 생활 속에서 기억되고 적용될만한 많은 말씀들이 주어진 모임이었습니다. 저 역시 그 말씀들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여러분에게 총관리 역원들이 하신 말씀을 따를 것을 권고드립니다. 저는 모든 형제들이 어느 곳에 살고 있든지 관계없이 오늘밤 이 모임을 마치고 돌아가면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성스러운 신권에 합당하게 살겠다는 더 큰 소망과 결의를 굳건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사랑이 아닌 간증과 감사의 뜻으로서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전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대회는 저에게 있어서 두 가지 기념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삼십년 전

10월 대회에서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으로 지지받았으며, 십년 전 10월 대회에서는 대관장단의 보좌로 지지받았습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이 보여 주신 지지와 기도와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저는 이러한 위대한 부름을 받기에 합당하다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어떤 직책이나 부름이든지 봉사하도록 요청받았을 때, 이와 같은 느낌을 갖지 않을 사람은 아마도 이 교회 안에는 없을 것입니다.

며칠 전 저는 폴란드에서 선교 사업을 하고 있는 손자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가 봉사하고 있는 지역은 데니스 비 뉴엔수윈더 장로를 선교부장으로 하여 새롭게 시작된 곳으로 아직은 어려운 곳입니다. 손자는 편지에 "저는 네 명의 회원을 둔 지부의 지부장으로 있습니다만, 정말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라고 적어 보냈습니다.

성신권을 소유하고 크든 작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도와 모든 사람들에게 불사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 일을 맡아야 할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것이 매우 경이로운 일이라는 사실은 집사 신권 소유자라 할지라도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실 것입니다. 그러한 책임의 막중함과 그 본연의 의미를 완전히 다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없겠으나, 제한된 지식으로나마, 주어진 의무를 충실하고 부지런히 수행해야 함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놀랍고도 기적적인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지난 세월 동안 여러분이 치른 노력을 통해 얻어진 값진 결실들을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통계 수치를 굳이 언급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것을 통해 여러분의 봉사와 이를 통한 주님의 크신 축복의 결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십이사도로 성임된 후, 지난 삼십년 동안, 교회 회원수는 180만명에서 804만명으로 441퍼센트의 증가를 보였습니다.

스테이크는 345곳에서 1,817곳으로 불어나서 527퍼센트의 증가를 보였는데, 행정상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보다 소규모의 스테이크를 만들어 많아진 것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이 짧은 기간 동안 우리는 하나의 기적을 창출해 낸 것입니다.

제가 십이사도로 부름받은 이후로 67개의 선교부가 267개로 증가하여 398퍼센트의 증가율을 보였고, 선교사수는 만명에서 사만 오천명 정도로 증가하여 425퍼센트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통계는 단지 기록상으로 주목할만한 것이라기 보다는 지상에 교회가 세워져 있는 135개 국가 전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수백만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 각별한 의미를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생각하면, 일어서서 할렐루야 하고 외치고 싶은 심정입니다. 하지만 좀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무릎 꿇고 겸손히 고개 숙여 하나님과 사랑하는 아들이신, 우리의 독생자에게 이 하나님의 사업을 성공으로 이끌어 주신 데 대한 감사를 드리고 싶고, 또 자신의 의무에 충실하고 부지런하였던 모든 세대의 형제, 자매들에게 이러한 일들을 가능케 해주신 데 대한 감사를 전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러나 지난 십년 동안 대관장단으로 봉사하면서 또한 적지않은 슬픔도 경험하였습니다. 그러한 경험에 대해서 좀더 이야기해 드리고자 합니다. 벌써 십년 가까이, 저는 교회에서

파문되었다가 다시 돌아오길 청원하는 사람들의 합당성을 판단하는 일에 관여해왔습니다. 백이면 백 그들은 교회 표준에 저촉되는 심각한 범법을 했었습니다. 가장 많은 범법은 간음이었지만, 대부분의 경우가 남편들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에 대한 선조치가 취해지고 한 두달의 시간이 흘러가게 되면, 그들은 전에 자신이 누렸던 것들을 다시금 갈망하게 됩니다. 그들의 마음에 회개의 영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들 중의 한 사람은 제게 "성신의 은사가 거두어지고 나서야 비로소 그 은사의 고마움을 알고 또 이해하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십년간 저는 교회의 자매들에게 서너번 말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는데, 그때마다 많은 분들이 제 말씀에 대한 느낌을 편지로 적어 보내주었습니다. 그중의 일부를 저는 "불행한 여인들"이라는 제목으로 화일을 만들어서 그 속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전세계 여러 지역으로부터 온 편지들이지만 모두 같은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바로 지난 주에 받은 편지의 일부를 이 자리를 통해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편지의 발송인에게서는 이미 허락을 받아두었습니다. 다만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 자매님은 다음과 같이 적어 보셨습니다. "우리는 남편이 대학교 1학년이었을 때, 만났습니다. 남편은 수년 동안 교회에서 봉사해 온 아주 활동적인 회원 가족의 일원이었으며, 또한 선교사로 봉사할 수 있기를 열렬히 원하는 청년이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제가 이 세상에서 복음을 가장 귀중한 것으로 간직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들은 함께 음악회나 명송지를 찾았고, 지식을 얻는 것에 높은 우선 순위를 두었습니다. 몇달 동안 데이트를 하면서 곧 사랑을 나누게 되었고 남편이 영예로운 선교 사업을 하는 동안 저희는 계속해서 편지를 주고 받았습니다. 귀환하자 남편은 학교에 복학하게 되었고, 저희들은 슐트레이크 성전에서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지도자들의 권고에 따라 저희는 독립된 살림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당시(대학) 수석 입학생으로서 장학금을 받으며 다니고 있었으나, 임신한 뒤로 몸이 아파 결국은 학교를 그만두고, 온 시간과 노력을 남편과 아기에 쏟게끔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18년 동안, 저는 남편을 도왔으며, 남편은 학업을 마치고 일자리를 얻고, 마침내는 자기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 둘은 모두 교회와 지역 사회에서 지도적인 위치에서 봉사하였습니다. 또한 다섯 명의 아름다운 자녀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자녀들에게 복음을 가르쳤고, 봉사하는 방법과 대화하는 요령, 그리고 피아노도 가르쳤습니다. 저는 빵을 만들었고, 복숭아, 사과, 토마토 병조림을 만들었으며, 바느질과 뜨개질, 집안 청소와 꽃, 채소 가꾸기에도 분주하였습니다. 여러 면에 있어서 저희는 이상적인 가족이었습니다. 물론 저희들의 관계는 때로 달콤하기도, 때로는 힘이 들기도 하였습니니다. 저나 남편 또한 완전한 사람이 아니기에 모든 것이 완벽하지는 못했지만, 대부분의 것은 그래도 다 좋았습니다. 저는 완전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니다. 그저 노력했을 따름입니다.

"그러던 결혼 생활에 파탄이 찾아왔습니다. 약 1년 전인가, 남편은 저를 한 번도 사랑한 적이 없었으며, 저희의 결혼은 시작부터 잘못되었다고 단정지으면서, 그에게 있어서 저희 들의 관계는 아무 의미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이혼 수속을 하더니 그만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기다려요.' '아, 안돼요. 제발 그만두세요! 이리시면 안돼요. 왜 떠나야만 하는 거죠? 무슨 일이라도 잘못했나요? 제발 말 좀 해봐요. 애들을 보세요. 우리들의 꿈은 어떻게 하고요? 성약을 잊으셨나요? 안돼요? 그럴 수 없어요! 이혼이 답은 아니잖아요.'라고 외쳤으나, 그는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니다. 저는 정말로 죽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자녀들을 데리고 혼자 살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제 아픔과

고통과 외로움은 말로 표현할 수조차 없습니다. 이로 인해 저의 어린 아들들은 가슴속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받고 심한 분노를 느끼게 되었고, 어린 딸들은 참으로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또한 저에게는 슬한 밤들을 잠 못 이루고 뒤척여야만 하는 고통을 가져다 주었으며, 가족에게 필요한 것들 또한 점점 늘어만 갑니다. 제가 왜 이런 혼란 속에 있어야 합니까? 제가 뭘 잘못 택했습니까? 제 학교 공부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제 남편은 어디 있나요? 제 아이들의 아빠를 찾아 주세요! 저 역시 남편에게 버림받은 지친 여인이 되고 만 것입니다. 돈도 없고 일자리도 없습니다. 돌보아야 할 자녀는 많고, 지불해야 할 돈은 쌓여만 가,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이 자매님의 전 남편이 지금 이 모임을 지켜보고 있을지 알 수는 없지만, 만일 제 말씀을 듣고 있다면, 자신의 행위에 대한 변명의 편지라도 한 번 제게 보내달라고 하고 싶습니다. 모든 것에 양면성이 있다는 것쯤은 저도 알고 있지만, 성신권을 소유한 형제로서 주님 앞에서 성스러운 성약을 맺고 십팔년이나 함께 살아온 아내에 대한 책임과 그로 인해 세상에 나와 함께 살과 피와 유산을 나눈 다섯 자녀들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저버린 저의를 과연 정당화 할 수 있을지 저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아마도 인류 역사 만큼이나 오래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니파이 백성 사이에서도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니파이의 아들 야곱은 그의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예언하여 외쳤습니다. “보라, 이는 나 주가 예루살렘과 모든 내 백성의 땅에서 남편들의 간악함과 가증함으로 인하여 내 백성들의 딸들이 슬퍼하며 통곡함을 들었음이니,

“너희의 착한 아내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였고, 자녀들 앞에 못된 본을 보여 신망을 잃었으며, 저들의 흐느낌이 하나님께 우러러 너희를 고발하니, 너희를 치실 하나님의 말씀의 존엄하심으로 많은 처자들이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고 죽었도다.”(야곱서 2 : 31, 35)

또 다른 편지 하나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거기에는 다음과 같이 적여있었습니다. “제 남편은 많은 뛰어난 성품과 능력을 겸비한 좋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온통 권위주의 일색이지요...그의 그러한 변덕스러운 기질이 폭발할 때면, 제 마음은 종종 그의 내부에 내재되어 있는 모든 악의 요소에 대한 생각들로 가득차곤 합니다.

“힉클리 부대관장님, ...모조록 형제들에게 여성에 대한 육체적, 언어적 학대는 변명의 여지도 없고, 용납할 수도 없는 것이며, 서로의 차이를 이용하는 비열한 방법이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십시오. 특히 신권 소유자가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면, 그것은 더욱이 그 품위를 의심할 만한 일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결혼은 행복하며, 아내와 남편 모두 다, 안정과 사랑, 상호 의존과 짐을 서로 나눠지겠다는 마음으로서 진행되고 있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정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은 평화와 평안을 누리는 속에서, 그들 생각에 서로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찬 부모로부터 사랑과 인정을 받고 있음을 알려 자라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형제 여러분,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는 정반대되는 상황도 엄연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화가 나서 내뱉은 거칠고 불친절한 말로 인하여 생긴 상처의 깊이와 고통을 그 누가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 면에서 훌륭한 사람이 대체로 별 의미도 없는 미미한 일들로 인해 평정을 잃어버리고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게 될 때 그 모습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결혼 생활에서도, 물론 각자 저마다의 차이는 있겠지만, 저는 아주 사소한 일로 인해 분노를 발하는 성향에 대한 합당한 변명을 이제껏 찾아보지 못하였습니다.

잠언에는 “분노는 잔인하고, 화는 창수같다”(잠언 27 : 4)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폭력적인 기질은 것처럼 두렵고 인간의 정신을 쪼먹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향이 주는 비극은, 그것이 선을 이루기는 커녕, 오로지 적의와 반항심과 고통만을

수반하는 악을 조장한다는 데 있습니다. 제 말씀을 듣고 계신 형제들로서 자신의 혀를 다스리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하나님께 자신의 약함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간구할 것과 고통을 주어진 사람에게 사죄할 것, 그리고 나아가서 자신의 혀를 제어할 힘을 스스로 갖추게 되기를 제언드리는 바입니다.

청소년 여러분, 헤이트 형제님이 잘 지적해 주셨듯이, 이 젊은 시절에 자신의 성품을 잘 가꾸어 가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스스로를 다스리는 능력과 힘을 키울 때입니다. 여러분은 어쩌면 분노를 격발하고, 욕설을 내뱉으며, 주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행위를 사나이다운 행동이라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나이다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자신이 약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화를 내는 것이 자신이 강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행위는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이 스스로의 생각과 말과 감정을 억제하지 못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물론 화를 내기는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분노라는 약점이 득세하게 되면, 이성이라는 강점은 슬그머니 떠나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내면에 들어있는 강한 자제력을 연마시키십시오.

이제 저는 수많은 결혼 생활에 악영향을 미쳐 결혼을 쪼먹는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까 합니다. 심계명 중에서 두 가지의 계명이 이와 관련되어 있음은 참으로 흥미로운 일입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너희는 간음하지 말라”, “너희는 탐내지 말라”(출애굽기 20 : 14, 17) 미국 ABC 방송국의 ‘나이트라인’ 뉴스 사회자인 테드 코벨은 듀크 대학생들과의 만남의 자리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고 합니다. “우리는 표이나 표제 따위가 우리를 구제해 줄 것이라고만 생각해왔습니다...하지만 그 대답은 아니옵니다! 그것이 참신하거나 재치가 있지 않아서도 아니요, 여러분이 감옥에서 생을 마감해야 하거나 아니면 에이즈 치료 병동에서 죽어가는 신세이기 때문도 더우기 아닙니다. 단지

그러한 생각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이성을 가진 인간으로서 우리는 절대적인 진리와 도의를 찾아냄으로써 우리 자신을 원시적 진흙탕 속으로부터 깎아서 내외자 이미 오천여년 동안 힘써 노력해왔기 때문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진리는 어깨를 그저 살짝 치는 정도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울부짖는 포효와 같은 심한 질책인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가지고 내려온 것은 결코 열 가지의 제언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말을 잠시 생각해보십시오. 모세가 가지고 내려왔던 것은 열 가지 계명, 즉 십계명이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자손들은 물론 나아가 앞으로 올 모든 세대의 행복과 안녕, 구원과 안전을 위하여 여호와께서 손으로 직접 돌판에 새겨 주신 것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아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아침에 아내를 두고 집을 나서서 직장으로 가는데, 그들은 거기에서 잘 차려입고 화장을 한 매력적인 여성들과 어울리게 되고, 자연스레 스스로 역시 젊고 미남이어서 남들의 피할 수 없는 주목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들의 아내는 이제 이십년 전 결혼할 때의 모습과는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십년간이나 함께 살고서도 똑같은 수 있는 아내가 어디 있었습니까?

스스로의 어리석음과 약점으로 인해 함정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데 비극이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전에 들어가 성신권의 권위로써 인봉한 가장 성스럽고도 엄중한 성약을 바람결에 날려버린 사람들입니다. 신앙이 깊고, 그들을 사랑하고 돌보며 어려운 때에 함께 분투했던 아내를, 마치 부유해졌을 때에 버리고 버려진 여자라도 하였던 것처럼 내어던집니다. 자신의 자녀들을 아버지가 자식으로 만들고, 법정에서 선고받은 자녀 보조비 및 부양금을 무슨 수를 써서건 회피하려고만 합니다.

제가 너무 심하게 부정적으로 말했습니까? 예, 저도 그렇게 느낍니다만, 십년이라는 세월 동안 계속해서 그런 일을 다루다보니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디모데전서 5:8) 같은 서신에서 그는 디모데에게 “너희 자신을 정결케 하라”(디모데전서 5:22)라고 하였습니다.

물론 저도 경우에 따라서는 도저히 참고 지속시킬 수 없는 결혼 생활이 있다는 것을 시인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설사 그러한 경우가 할지라도 일단 결혼이 이루어져 자녀를 갖게 되면 가장으로서 가족을 부양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니게 되는 것이며, 그것으로 하나님의 면전에서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십 팔년 동안의 결혼 생활 동안 다섯 자녀를 둔 남편으로서 아내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한 그의 불평은 저의 생각에는 하나님 앞에서 맺은 성약을 파기하고, 우리가 속한 사회의 원동력이 되는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치졸한 변명으로 밖에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혼이라는 결과를 빚게 된 잘못을 살펴보면, 대개 오랜 기간에 걸쳐 사소한 잘못들에 대한 불만이 계속 쌓여가고 서로간의 작은 차이가 커다란 갈등의 심연으로 깊어져 왔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아내에게 불친절하게 대하면 대할수록, 그녀가 더더욱 매력을 잃어가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아내는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입게 되고, 결국은 스스로가 무가치한 존재라고까지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그 모든 것은 의모를 통해서도 나타나게 됩니다.

아내에게 거드름피우며 아내를 무시하고 수치심을 느끼게 하고 권위적인 태도로 요구를 일삼는 남편이 있다면, 이는 아내에게 상처를 입히는 것임은 물론 자기 자신의 쫄위마저도 꺾어내리는 행위입니다. 또한 많은 경우에 있어서 아들들에게 앞으로 유사한 행동을 범할 수 있는 소지마저 물려주게 됩니다.

하나님의 신권을 이미 부여받은 형제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좋은 아내 없이는 끝없는 행복도, 마음의 지속적인 평화도, 가정 내의 평온함도



없습니다. 아내들은 우리보다 열등한 존재가 아닙니다.

생활을 선하게 하지 못하는 이유 때문에 존경을 받지 못하는 일부 사람들 중에, 자신들의 행동을 태초에 이미 이브가 아담으로부터 지배당하게끔 되어있었다는 식으로 정당화시키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세기 동안 경전을 악용하여 자신들의 잔악한 행동을 정당화시켜 온 연약한 인간들에 의해 얼마나 많은 슬픔과 비극이 얼마나 많은 비통함이 자행되어왔습니까. 그들은 같은 구절에 이브가 아담의 배우자로서 주어진 사실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실제로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도 함께 있었고, 동산에서 쫓겨날 때에도 같이 쫓겨났으며, 함께 이마에 땀을 흘려 열심히 일함으로써 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형제 여러분, 제가 너무 소수에 국한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소수 중에서도 희생자들이 겪는 고통의 깊이가 저로 하여금 이러한 말씀을 하지 않으면 안되게끔 만들었습니다. “신발이 맞으면, 신이라.”라는 속담이 생각납니다.

제가 이제까지 드린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또한 정계만을 만한 사람들에게 더 큰 사랑을 가지고 꾸짖고자 하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의 계단에 함께 무릎을 꿇고, 서로에 대한 영원한 사랑과 충성을 맹세하며 시작되는 선남 선녀의 결혼은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그러한 가정에 자녀가 생기면, 그 자녀들은 그들의 아버지가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쌓여 축복받으며,
사랑받고, 양육되는 가운데 돌보아지게
됩니다. 그러한 환경 속에서 그들은
평화와 강건함과 위안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를 지켜 보면서, 그들은
여성에 대한 존경심을 키우게 됩니다.
자기를 통제하고 다스리는 법을 배우게
되고, 그것은 후에 닥칠지도 모를 비극을
피할 수 있는 힘을 가져다 주게 됩니다.

세월이 흐르고, 아이들이 하나 둘
독립하여 떠나면, 집에는 단지 부모만이
외로이 남게 됩니다. 하지만 이 부부는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의지하고, 서로
복돋아 주고, 격려하며,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인생의 뒤편길에 서게
되더라도 만족과 기쁨만이 떠오를
뿐입니다. 온 생애 동안에 걸쳐 서로에
대한 헌신이 있었습니다. 존경과 예의가
있었으며, 텅 빈 관계를 채워주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어떤 부드러움과
달콤함이 있었습니다. 죽음이 곧 닥칠
것이라는 것도, 나아가 길건 짧건간에
시간의 차이를 두고 둘 중에 한 사람이
먼저 가리라는 것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영원한 신권
권능으로 인해 그들의 동반자 관계가
인봉되었기 때문에, 또 그러한 축복을
누릴 만큼 합당하게 살아 왔기에,
분명하고도 달콤한 재회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도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갖고 계신
계획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분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며, 주님의 예언자들 또한 그렇게
말씀해 왔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기 통제도 요구되며,
비이기적인 마음도 가져야 합니다.
서기에는 진정한 사랑의 근원인 동반자의
안녕과 행복에 대한 깊은 관심도
수반되어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 중에 이보다 더 큰 소망은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저의 소망이
여러분 개개인에게 축복이 되기를 빌며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 *

일요일 오전 모임

다른 사람들을 구해 줘야 할 우리의 사명

고든 비 힝클리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1보좌

*"어느 곳에서나 인생의 세찬 폭풍우 속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안락하고 행복한
분위기 속에서 평화롭게 서로
만날 수 있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저는 이 10월 연차 대회와,
우리가 경청했으며 앞으로도 경청할
영감에 찬 말씀을 생각해 볼 때, 135년전
이곳 템플 스퀘어에서 이와 같은 모임이
개최되었던 10월 첫 주일의 사진들을
돌이켜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그 당시 이와 같이 큰
태버내클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
회원들은 현재의 태버내클 남쪽에 서있는
옛 태버내클에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 때는 1856년 10월 5일
일요일이었습니다. 그 전날인 토요일에
영국으로부터 돌아오는 소수의
선교사들이 이 계곡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강건했으며 짐마차도 가벼워서
·비교적 빠르게 여행할 수 있었습니다.
프랭클린 디 리처드 형제님이 그들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들은 즉시 브리감 영
대관장님을 찾아 뵈었습니다. 그들은
대관장님에게 수백 명의 남녀와
어린이들이 미주리강으로부터 솔트레이크
계곡까지 오는 길에 뿔뿔이 흩어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손수레를 끌었는데, 두 그룹으로 구성된
이 손수레 그룹 뒤에는 황소가 이끄는
팀과 포장 마차들이 따라오는 작은 두
그룹이 있었습니다. 첫번째 그룹은 아마도
그들의 목적지로부터 약 650Km 이상
떨어진 스코츠블러프 지역에 있었을
것이며 다른 사람들은 그들보다 뒤쳐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 때는 10월이었으며
그들에게 구조대를 보내지 않으면 눈에
간혀 죽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브리감 영 대관장님은 이것에 대해
아무 것도 몰랐습니다. 그 당시에는 물론
라디오나 전보, 속달 우편 등 신속한 통신
수단이 없었습니다. 그분은 그 당시
55세이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안식일에
그분은 태버내클의 회중 앞에 나오셔서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한 과제를 드리고 말씀하게 될 장로들에게 구체적인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1856년 10월 5일 현재, 많은 형제 자매들이 손수레를 끌고 광야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곳으로부터 1,10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그들은 반드시 이곳으로 인도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구조대를 보내야 합니다. 말씀하실 제목은 ‘그들을 이곳으로 인도하자’입니다.

“그것이 제 종교이며 제게 임한 성신의 지시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을 구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감독님들에게 요구하겠습니다. 저는 60마리의 좋은 노새나 열 두 개나 열 다섯 개의 포장 마차를 내일이나 모래까지 기다릴 수 없습니다. 황소를 보내고 싶지는 않습니다. 좋은 말과 노새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들은 우리 영역 안에 있으며, 우리는 그들을 반드시 구해야 합니다. 또한 말과 노새를 부릴 사람 이외에도 밀가루 12톤과 40명의 팀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이와 같은 원리를 여러분이 수행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신앙과 종교와 신앙 고백으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계시는 해의 왕국에서 구원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광야에 있는 그들을 지금 당장 가서 구하십시오.” (시온을 향한 손수레, 글랜테일, 캘리포니아 : 아더 에이치 클라크 출판사, 1960년, 120~21쪽)

다음 날 아침 대장간에서는 말 발굽을 끼우는 소리와 짐을 실을 수 있도록 포장 마차를 수리하는 망치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인 10월 7일 화요일, “네 마리로 구성된 튼튼한 노새 열 여섯 조와 스물 일곱 명의 근면한 젊은 사람들은 첫번째로 공급 물품을 싣고 동쪽을 향해 여행을 출발했습니다. 사람들은 보내야 할 식량을 더 모아야 한다고 더욱 주장했습니다.” (같은 책, 124쪽)

“10월말쯤, 250명의 팀들이 도움을

주기 위해 출발했습니다.”

(같은 책, 125쪽)

이곳 템플 스퀘어의 연단에서는 수많은 훌륭한 설교가 많이 있었지만 지금부터 135년전 10월에 있었던 말씀보다 더 설득력 있는 설교는 없었다고 봅니다.

잠시 이 이야기를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몇주 전에 저는 엘렌 푸셀 언생크를 기념하기 위한 기념비를 헌납할 특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기념비는 유타주 시디시에 있는 남부 유타 대학교 교정에 서 있습니다. 그것은 아름답고 매력적인 동상입니다. 그것은 아홉 살된 작은 소녀의 동상입니다. 소녀의 머리는 바람에 휘날리는데 소녀는 미소를 띤 채 한 발을 내딛는 자세로 앞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엘렌 푸셀은 그 이름처럼, 부드러운 언덕이 굽이치며 잔디는 늘 푸른 영국의 어느 아름다운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소녀의 부모인 마가렛과 윌리엄 푸셀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로 개종한 사람들입니다. 1837년 침례받은 이후부터 1856년 봄까지 그들은 미국의 록키 산맥 계곡에 있는 시온을 향해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해 돈을 절약하고 저축했습니다. 지금 그들이 광야를 횡단하기 위해 1,600Km 거리의 손수레 끌기를 지원한다면 그 일은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수백 명의 다른 동료 개종자들과 마찬가지로 그 도전을 받아들였습니다.

마가렛과 윌리엄 부부는 열 네 살되는 매기와 아홉 살된 엘렌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들은 다시는 못보게 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5월말 가까이 그들은 다른 개종자 825명과 함께 리버풀에서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제 아내의 할머니이신 당시 13세의 매리 고블은 그 무리에 속해 있었으며 그 배에 탄 다른 어린 소녀들과 함께 놀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6주 동안의 항해가 끝난 후, 그들은 보스턴에 도착해서 증기 기관차를 타고 아이오와시로 갔습니다. 그들은 손수레와 포장마차가 준비되었으리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준비되지 않았으며 심각하고 비참하게도 계속

지연되었습니다. 7월말에야 그들은 먼저 미주리강가의 윈터 쿼터스까지 가고 그곳에서 다시 록키 산맥으로 가는 긴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푸셀 가족은 마틴 손수레 부대에 속하도록 지명받았습니다. 제 아내의 조상인 고블 가족은 필요한 경우 도움을 주기 위해 손수레 뒤를 따르는 클러프 마차 부대에 속했습니다.

큰 기대를 갖고 그들은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한 달 내내 햇볕과 폭풍우, 먼지와 진흙 속에서 플레이트 강을 따라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10월 19일에 그들은 현재의 와이오밍주 캐스퍼 시 서쪽에 있는 플레이트 강 하류를 횡단하게 되었습니다. 그 강은 넓었고 물은 세차게 흘렀으며 어름덩어리들은 물 위로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충분한 음식도 없이 여행을 계속했습니다. 용감하게도 그들은 얼음으로 쌓인 강을 건넜습니다. 무서운 폭풍은 눈과 우박과 날아다니는 모래를 수반하는 사나운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이 강 독을 올라갔을 때에는 젖은 옷이 몸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피로와 추위 속에서 더 이상 갈 힘이 없는 사람은 주저앉아 있다가 죽었습니다.

엘렌의 어머니인 마가렛은 병이 들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손수레 위에 아내를 태웠습니다. 그들은 록키 산맥의 산마루를 향하여 오르막 길을 따라 계속 올라갔습니다. 여러분은 이 가족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상상할 수 있었습니까? 어머니는 병들어 약해 걸을 수 없으며 아버지는 아주 아위고 약해 손수레를 끄는 데 큰 고통을 느껴 뒤에서 작은 두 소녀가 밀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들 주위에는 이와 같이 고생하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얼음같이 찬 시냇물에 이르렀습니다. 아버지는 건너가다가 풀에 미끄러져 넘어졌습니다. 겨우 일어나 시냇가에 이르렀으나 몸은 젖었고 추웠습니다. 얼마 후 그는 앉아서 쉬었습니다. 그는 추위로 감각이 마비된 채 조용히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의 아내인 마가렛은 5일 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들의 얼어붙은 시신을



참십인 정원회 회원들. 멕시코 지역 회장단의 호레이시오 에이 테노리오 장로(좌)와 북아시아 지역 회장단의 샘 케이 시마부꾸로 장로.

황폐한 광야에 어느 곳에 어떻게 매장했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그때 땅은 얼어붙어 있었으며 그 위에 바람에 날리는 눈이 쌓였으며 두 작은 소녀들은 고아가 된 사실만을 알고 있습니다.

마틴 부대에서만도 135명 내지 150명이 고통과 죽음의 여행 길에서 사망했습니다. 이러한 절망적이고도 끔찍한 상황, 즉 굶주림과 과로에 시달리며 옷도 얇고 낡아진 상태에서 구조대들이 이들을 발견했습니다. 눈 사이로 진로를 만들어 오는 구조대가 서쪽 지평선에 나타났을 때 그들은 자비의 천사처럼 보였으며 실제로도 그러했습니다. 고통 속에 있던 이들은 구조대를 보고 기쁨의 환성을 올렸으며 소리칠 기운도 없는 이들은 울음을 터뜨리며 눈물을 계속 흘렸습니다.

이제 먹을 음식과 따뜻한 옷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통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목숨이 붙어 있는 한 고통은 가시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팔과 다리는 얼어 있었고 썩은 살은 뼈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손수레를 버리고 구조대의 포장 마차에 들어가 자리를 확보했습니다. 그들이 출발한 곳부터 이 계곡까지의 500Km에서 800Km의 길고도 험한 그 여행은 폭풍우 때문에 지루할 정도로 천천히 진행되었습니다.

11월 30일,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실은 104개의 포장 마차는 솔트레이크 계곡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이 도착할 것이라는 소식이 먼저 전해졌습니다. 그날은 일요일이었습니다. 다시 성도들이 태버내클에 모였습니다. 브리감 영 대관장님은 회중 옆에 서서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이 모임이 끝나자마자 형제 자매님들은 곧 바로 집으로 가지길 바랍니다...”

“오늘 오후 모임은 생략하겠습니다. 자매님들은 이제 막 도착하신 분들에게 먹을 음식을 준비하고 그분들을 씻어주고 간호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분들의 발이 발목까지 얼어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무릎까지 얼은 분도 있고 손에 동상을 입은 분도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그분들을

친자녀처럼 생각하고 보살피 주시길 바랍니다.”(시온으로 향한 손수레, 139쪽)

고아가 된 두 소녀인 메기와 엘렌도 동상에 걸렸습니다. 엘렌의 경우는 대단히 심각했습니다. 이 계곡의 의사는 최선을 다했으나 그 소녀의 다리를 무릎 바로 밑까지 절단해야 했습니다. 수술 도구들은 잘 발달되지 않아 너무 큰 고통을 주었습니다. 마취 주사도 없었습니다. 절단된 끝 부분도 완전히 치료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 소녀는 숙녀로 성장하여 윌리엄 언생크와 결혼했으며, 여섯 아이를 낳아 길러 훌륭한 가정을 만들었습니다. 절단된 다리 끝으로 거동하면서도 그 자매님은 가정과 이웃과 교회를 위해 신앙과 밝은 표정으로 봉사했으며, 종종 고통을 느낄 때에도 결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매님은 많은 후손을 두었으며 교육받은 유능한 자손도 많았습니다. 그 자매님이 고통 가운데에서도 사랑했던 주님과 복음을 그들도 사랑했습니다.

몇 년 후, 시더 시의 한 그룹은 그렇게 큰 고통을 겪은 부대에 속했던 그 자매와 그 밖의 사람들에게 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 어떤 사람들은 개종자 그룹을 너무 늦은 계절에 출발시킨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을 비판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원고를 인용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구석에 있던 한 노인이 조용히 침묵을 지키며 들을 수 있을 때까지 듣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일어나서 어느 누구도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상기되어 창백했으나 조용하고 신중하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지한 음성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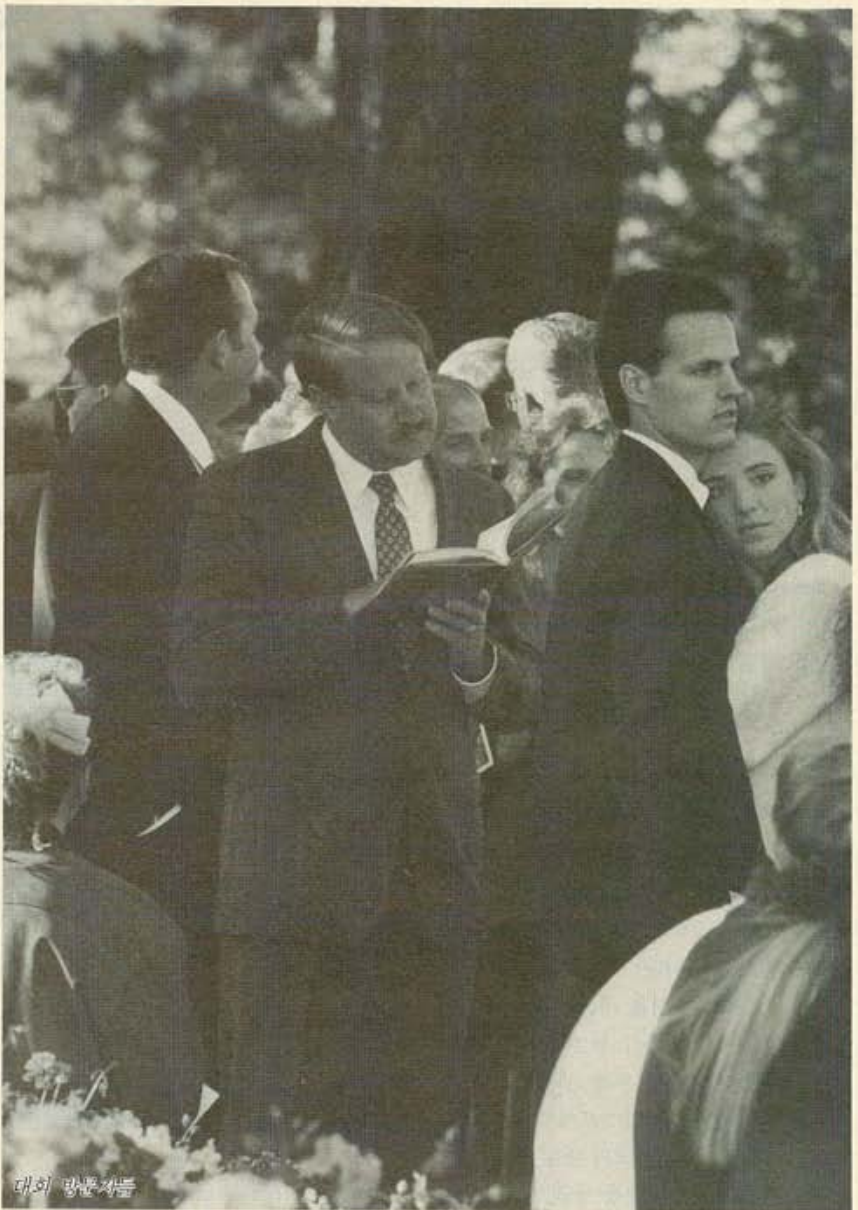
“그는 본질적인 점을 지적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비판을 중시하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아무 것도 모르는 문제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추위와 관련된 역사적인 사실은 야기된 질문에 정확한 해석을 주지 못하므로 여기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너무 늦은 계절에 손수레 부대를 보낸 것이 잘못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와 제 아내는 그 그룹에 있었으며, 여러분이

말했던 넬리 언젠크 자매도 역시 그곳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을 겪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나쁜 날씨와 굶주림을 못 이겨 죽었으나, 여러분은 그 대열에 참여하여 생존했던 사람으로부터 불평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 대열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배도하거나 교회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생명이 위태롭던 시기에 하나님을 알게 되었으므로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는 절대적인 지식을 갖고 왔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노인은 26세의 나이에 아내와 아기와 함께 그러한 경험을 한 프란시스 웹스터 형제님이었습니다. 그분은 교회 지도자가 되었으며 유타주 남부 지역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너무 오랫동안 이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은 1991년 10월이며 135년 전의 이야기는 이미 지난 일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 이야기가 진실한 것이며 오늘 아침이 존재하듯 현실적인 것이므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평안과 평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신앙 및 하나님의 것에 관한 지식은 우리들 이전에 돌아가신 분들의 쓰라린 희생의 대가로 얻게 된 것임을 모든 분들에게 인식시키고 싶습니다. 희생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큰 원리는 우리 모두의 아버지이신 살아계신 하나님과 이 세상의 구속주이신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에 대해 우리가 갖고 있는 확신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존재하는 것은 구속주의 속죄와 희생 덕분입니다. 그분의 희생과 속죄 덕분에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주님의 구원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즉, “야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게” 될 것입니다.(고린도전서 15 : 22) 구세주의 희생과 속죄 덕분에 영원한 복음의 위대한 계획이 우리에게 실현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계획을 통해 주님 안에서 죽은 자는 죽음을 맞보지 않고 영원한 해의 왕국에 갈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대외 강론자들

우리 자신의 무력함 속에서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서 우리를 파멸로부터 구하시며 영생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절망과 고독과 두려움을 느끼는 시기에 그분은 바로 우리 앞에서 도움과 위안과 확신과 신앙을 가져다 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왕이요 구세주이시며 인도자요 우리의 주님이시며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와이오밍의 높고 추운 평원 위에 있었던 그들은 극한 상황에서 주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고통받는 영혼에게,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모든 남녀에게, 또한 어느 곳에서나 인생의

세찬 폭풍우 속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쉬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마태복음 11 : 28~30)

지금 저는 와이오밍의 높은 지대에서 우리 중 아무도 궁지에 빠져있지 않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주위에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고 구조받을만한 사람도 많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추종자로서 우리 삶의 사명은 다른 사람들을 구해 주는 사명이어야 합니다. 우리 주위에는 집없이 헤매는 사람들과 배고프고 빈곤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도움을 주었지만 매일 매일 연명하는 그들을 더욱 더 도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춘화와 부도덕과 마약에 빠진 사람들에게도 영향력을 미쳐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너무 중독된 나머지 자신의 운명을 통제하는 힘을 상실했습니다. 그들은 불쌍하고 패망한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아 구제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학대받고 슬피우는 부인과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마음을 상하게 하고 파멸을 가져다 주는 파괴적인 행동으로부터 구제될 수 있는 아버지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염려해야 할 사람은 와이오밍의 높은 평원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서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 와드와 스테이크에도, 우리의 이웃과 지역 사회에 많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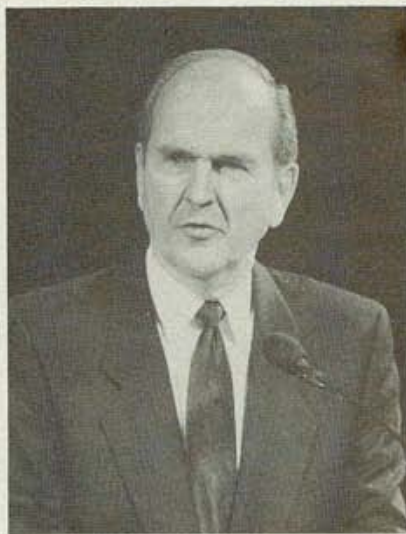
“주께서 자기 백성을 시온이라 칭하셨으니 이는 저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의롭게 생활하여 저들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음이더라”(모세서 7:18)

예언자들이 말씀하셨으며 주님께서 강력하게 약속하신 시온을 우리가 세우려면, 우리들은 파괴적인 이기심을 없애야 합니다. 우리는 안락과 안이를 좋아하는 마음을 극복해야 합니다. 노력과 고통의 과정을 통해 극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잘 알게 될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견디고 사랑하는 복음을 위해 믿을 수 없는 용기를 보여준 훌륭한 용기있는 사람들로 부터 받은 경이로운 유산을 우리가 갖고 있음을 결코 잊지 맙시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일을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겸손히 간구드립니다. 아멘 *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러셀 엠 넬슨 장로
십이시도 정원희

“특별한 부름을 받을 때, 보통 사람에게 힘이 주어집니다.”



금년 6월 넬슨 자매와 함께 저는 역사적인 유럽 연주 여행을 떠나는 물론 태버내클 합창단과 동행하는 큰 특권을 받았습시다. 저희 부부는 이 임무를 주신 대관장단에게 감사드립니다. 합창단의 성공에 관한 기사와 앞으로도 계속될 합창단의 좋은 영향력에 관한 기사가 많이 작성되었습니다. 전세계의 교회 회원 및 친구들과 함께 저는 합창단 임원과 스태프, 지휘자와 반주자, 그리고 모든 단원에게 그들의 훌륭한 봉사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저는 어느 특정한 사람의 이름을 말하지 않고 단지 그분들을 모두 합창단원으로 칭하겠습니다. 저는 음악 평론가처럼 평하지는 않겠습니다. 세계의 음악 전문가들이 합창단의 공연에 초점을

두고 있는 반면, 저는 합창단원이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두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 “나는 빛이라 내가 너희의 본이 되노라”(니파이삼서 18:16; 요한복음 13:15 참조)라고 말씀하신 주님을 본받기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는 여러분 각자의 삶을 향상시키고 영감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훌륭한 모범을 합창단원들 가운데서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의 모범과 주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훌륭한 모범으로부터 열심히 배워야 합니다.

물론 태버내클 합창단원은 슈퍼맨이 아니며 평범한 약점을 지니고 있는 보통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내면에는 모범의 힘이 있습니다. 그들은 “너는 자기의 연약함을 알았으며 내가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교성 135:5)라고 하신 주님의 약속을 믿고 있습니다. 첫번째 리허설에 참석하기 전에 합창단원들은 음악에 대한 교육과 재능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의로움의 자질도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첫번째 청중 앞에서 노래부르기 전에 그들은 구세주의 다음과 같은 또 다른 약속에 의해 축복을 받았습시다.

“내가 가르친 훌륭한 모범을 저들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너희를 내 손의 도구로 삼아 많은 영혼을 구원하라.”(앨마서 17:11)

여러분은 특별한 부름을 받을 때, 보통

사람에게 힘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아십니까? 합창단원은 그 점을 알고 있습니다. 참으로 각 단원은 투철한 사명감을 부여받은 것 같습니다. 그들은 선교사들이 소유하고 실천해야 하는 다음의 열 가지 성품을 지니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앙, 덕행, 지식, 절제, 인내, 형제애, 경건, 사랑, 겸손, 근면을 기억하라.”(교성 4:6)

이러한 것은 주님이 그분의 제자들에게 당연히 기대할만한 성품입니다. 우리가 모두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야”(디모데전서 4:12)하기 때문에 저는 물론 테버내를 합창단원이 여러 가지 잊지 못할 방법으로 “우리의 거울이”(고린도전서 10:6)된 열 가지 성품에 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앙

그들의 위대한 신앙은 우리 지도자들의 신앙에 의해 강화되었습니다. 저는 선견지명을 갖고 계획을 세우신 대관장단과 합창단 지도자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유럽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장벽이 무너지기 수개월 전 또는 수년 전에 그분들이 이 연주 여행 계획을 착상한 것은 참으로 담대하고 영감받은 일이었습니다. 총관리 직원들은 그러한 꿈이 가능한 것같이 보이기 훨씬 이전에 바르샤바, 부다페스트, 프라하 그리고 모스크바 등지의 도시에서 합창단이 노래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후 1991년 1월 페르시아만에서 전쟁이 발발했을 때, 소망했던 연주 여행 계획은 크게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러한 때에도 우리 지도자들은 연구 여행 계획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분들은 그 계획이 잘 되리라는 가능성을 알고 있었으며 무수한 장애를 극복할 수 있다고 믿는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합창단의 연주 여행이 성공적으로 달성되도록 자주 기도했습니다.

이러한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관해 생각해 보십시오. 러시아 국가가 수립된 이래로 친 년 동안

최초로 국민이 참가하는 선거가 1991년 6월에 실시되었습니다. 6일 후 물론 테버내를 합창단이 모스크바에서 공연했습니다. 바로 그날 밤, 성도들이 두려울 것 없다라는 찬송가 선율이 불쇼이 극장으로부터 울려 퍼진 후 러시아 공화국의 부통령이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러시아 공화국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았음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다칠 최고의 위기에 임박하여 러시아 국민들은 신앙과 용기, 희망과 사랑의 노래들을 들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 지도자들의 그러한 신앙은 합창단의 단원과 가족과 친구들의 마음에도 가득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헤어지고, 부모와 자녀가 서로 흩어지는 위험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수많은 부양 가족들이 일시적으로 거의 한 달 동안 어머니나 아버지를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신앙을 갖고 그러한 가족들을 보살피 준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각자 봉사하도록 부름받은 일에서 그와 똑같은 신앙을 나타내 보일 수 있다면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덕행

덕행이 합창단에서 발산되었습니다. 각 단원은 브리감 영 대관장의 다음 권고를 몸소 실천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며 그분의 뜻을 행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유덕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존 에이 윌소 편, 솔트레이크시티 : 데저렛 출판사, 1954년, 194쪽)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앨마서 31:5 참조)을 노래에서 뿐만 아니라 모범을 보여주는 설교에서도 적용했습니다. 한 번은 연주회가 끝난 후, 저는 특별하게 감사를 표시한 사람에게서 인사를 받았습니다. 그는 “합창단의 메시지에 감사드립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어떤 메시지를 받으셨습니까?”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합창단은 저에게 더 훌륭한 삶의 방법을 가르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말은 저에게 깊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무엇이 그에게 그러한 선한 힘을 느끼게 영감을 주었을까요? 복잡한 고전 음악이었을까요 아니면 합창단의 뛰어난 연주였을까요?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주는 자와 받아들이는 자를 모두 교화시켜 주는 영의 교통이었다고 믿습니다.(교성 50:21~22 참조) 아마도 듣는 사람들의 영이 아주 진지한 마음으로 노래한 부드럽고 단순한 선율에 의해 가장 큰 감동을 받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합창단이 주 기도문을 노래했을 때, 청중은 매우 조용하게 경청했습니다. 그들은 그 노래의 사연이나 언어를 조금도 모르면서도 이해하는 것같이 보였습니다.

합창단원의 덕행은 그들 자신의 삶에 축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연주 여행이 다 끝나고 각자 무사히 집에 도착했을 때, 저는 “만일 내가 충실하며 내 앞에서 덕 있는 길을 걸으면 나는 네 생명을 보존할 것이요”(교성 25:2)라는 주님의 약속을 생각했습니다. 이와 같은 약속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적용됩니다.

지식

지식은 선교사가 훌륭히 봉사하는 데 필수적인 것입니다. 지식은 이번에 8개국의 연주 여행을 한 합창단원에게도 필수적인 것이었습니다. 더 효과적으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합창단은 열 가지 언어로 노래했습니다. 또한 정치권이 급변하고 있는 이런 시기에 불러야 할 노래와 불러서는 안될 노래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많은 연구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지식에 대한 그들의 추구는 음악과 함께 시작되거나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봉사하러 온 나라의 백성들의 문화와 역사와 생활 양식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들은 대중 매체나 관심있는 사람들의 질문을 받았을 때 즉석에서 자신의 복음의 지식을 상기해야만 했습니다.

많은 고난과 투쟁이 있는 곳으로 알려진 이러한 나라에서 합창단원은 경전에 나온 소망, 즉 “[다른 사람들에게] 주 하나님을 알게 하며... 주 하나님의 뜻하시는 가운데 기쁨을 갖게



하고 서로 친밀하게 되어, 주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다시는 불화가 일지 않게 되기를 원하였음이라”(모사이야서 28 : 2)라는 소망이 울려 퍼지게 하였습니다.

합창단원들은 “[그] 백성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 한때 깨우침을 받고 의로운 것에 관한 많은 지식을 얻은 후에는”(엘마서 24 : 30 참조) 그들의 삶이 결코 옛날과 똑같지는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목표를 받아들이고 지식을 얻은 후에 합창단이 행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기 위해 그 지식을 사용한다면 여러분이 행할 수 있는 선을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절제

사도 베드로는 “지식에 절제를 공급하라”(베드로후서 1 : 6)고 말씀했습니다. 절제는 중용과 행동에서의 자제를 암시하고 맺은 성약을 상기시켜 줍니다.

합창단원은 항상 절제하며 외모가

아니라 내면이 잘 수련되어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는 그들은 건강과 체력에 대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휴식 시간이 별로 없는 일정에 따르면서도 그들은 의욕적인 자세로 청중을 위해 공연을 하였습니다. 경전은 반복해서 우리에게 “모든 일에 절제하라”(고린도전서 9 : 25 ; 엘마서 7 : 23 ; 38 : 10 ; 교성 12 : 8)고 가르칩니다. 절제는 지나침의 결과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인내

인내는 합창단원이 가장 잘 실천하고 있는 성품입니다. 천여개의 짐을 가진 500여명의 여행자들이 한꺼번에 호텔 도착 수속을 하는 것은 거의 매일 인내심을 연습하는 것이었습니다. 한 자매는 자기의 짐을 영영 받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날마다 똑같은 옷으로도 신선함을 느끼려고 시도했을 때 그녀의 인내심은 창의력의 꽃이 피게 했습니다.

인내심은 거룩한 성품입니다. 물론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한량 없으신 능력과 지혜와 인내와 인간을 대하여 오래 참으심을 알라”(모사이야서 4 : 6)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비록 합창단원이 완전하지 않을지라도 각 합창단원은 “너희가 완전하게 될 때까지 계속하여 참고 견디라”(교리와 성약 67 : 13)는 경전의 권고를 몸소 실천하는 것 같았습니다. 만일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우리도 모두 그러한 귀한 성품인 인내심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형제애

형제애는 이번 연주 여행의 특징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결코 비평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특히 저는 합창단원들 중에 심한 신체 장애를 가진 훌륭한 단원을 지켜 보았습니다. 어떤 단어들은 심한 시각 장애 때문에 손가락으로만 악보를 읽을 수 있으며 또 다른 단원들은 목발인 다른 도구에 의지해야만 걸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훌륭한 용기는 모두가 함께 승리할 수 있도록 많은 것을 희생한 동반자들의 예의와 멋지게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과연 그들은 다음과 같은 경전의 비유의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에베소서 4 : 16)

형제애는 거친 이기심을 극복합니다. 우리는 각자 가정, 학교, 직장 또는 운동 경기에서 형제애를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사랑

물론경은 사랑은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모로니아서 7 : 47 참조) 이 경전은 또한 “주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명하시 사랑, 곧 자비의 사랑을 가지라고”(니파이서 26 : 30 ; 이더서 12 : 34 참조) 하셨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대회 방문자들



마일링에세이 포럼에 소개된 총관리위원

대외관리



장관실 부대리장
박상연



장관실 부대리장
김상연



장관실 부대리장
김상연

심사도정위원회



위원장
김상연



부위원장
박상연



위원
김상연



위원
김상연



위원
김상연



위원
김상연



위원
김상연



위원
김상연



위원
김상연



위원
김상연



위원
김상연



위원
김상연

최심익희위원회



철십인 제일 정위원회



안혜 아브라함



준 케이 카마



이원 시 단



이원 지 현



모시익 가부



이원엽 이



로버트 이



이원엽 안



준 케이 크리슈누



이원엽 안



이원엽 안



이원엽 안



이원엽 안



이원엽 안



이원엽 안



준 케이 크리슈누



이원엽 안



이원엽 안



이원엽 안



이원엽 안



이원엽 안



이원엽 안



준 케이 크리슈누



이원엽 안



이원엽 안



이원엽 안



이원엽 안



이원엽 안



이원엽 안



준 케이 크리슈누



이원엽 안



이원엽 안



이원엽 안



이원엽 안



이원엽 안

철십인 제이 정위원회



이원엽 안



준 케이 크리슈누



이원엽 안



이원엽 안



이원엽 안



이원엽 안



이원엽 안



이원엽 안



준 케이 크리슈누



이원엽 안



이원엽 안



이원엽 안



이원엽 안



이원엽 안



이원엽 안



준 케이 크리슈누



이원엽 안



이원엽 안



이원엽 안



이원엽 안



이원엽 안



이원엽 안



준 케이 크리슈누



이원엽 안



이원엽 안



이원엽 안



이원엽 안



이원엽 안



이원엽 안



준 케이 크리슈누



이원엽 안



이원엽 안



이원엽 안



이원엽 안



이원엽 안



이원엽 안



준 케이 크리슈누



이원엽 안



이원엽 안



이원엽 안



이원엽 안



이원엽 안



이원엽 안



준 케이 크리슈누



이원엽 안



이원엽 안



이원엽 안



이원엽 안



이원엽 안



이원엽 안



준 케이 크리슈누



이원엽 안



이원엽 안



이원엽 안



이원엽 안



이원엽 안



이원엽 안



준 케이 크리슈누



이원엽 안



이원엽 안



이원엽 안



이원엽 안



이원엽 안



이원엽 안



준 케이 크리슈누



이원엽 안



이원엽 안



이원엽 안



이원엽 안



이원엽 안



이원엽 안



준 케이 크리슈누



이원엽 안



이원엽 안



이원엽 안



이원엽 안



이원엽 안



이원엽 안



준 케이 크리슈누



이원엽 안



이원엽 안



이원엽 안



이원엽 안



이원엽 안

관료 김관단



김관단



저는 합창단원들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러한 사랑을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궁핍한 사람들을 위해 회원들은 돈과
음식과 물건을 남모르게 기부합니다.
그들은 개인적인 갈채나 보상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들의 귀한 시간과
재능을 아낌없이 나눕니다. 진실로,
사랑은 우리 중에 누구도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않게”(고린도전서 13 : 8 ;
모로나아서 7 : 46 참조) 해줍니다.

겸손

합창단의 겸손은 연주 여행 동안
증진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의 놀라운
성공으로 그들이 매우 뽐낼 수 있게
되었는데도 합창단원들은 다음 성구에
나오는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자주 금식하고 기도하여
겸손한 중에 더욱 강하게 되며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신앙이 날로
굳건하여져서, 위안과 기쁨으로
가득하여지매 마음이 청결하며 성결하게
되니”(힐라멘서 3 : 35)

합창단원들은 참된 제자들이 행하는
것처럼 “서로 순복하고”(베드로전서 5 :
5)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엘마서 1 : 20)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들은 유순한
성도들이 마땅히 되어야 하는 것같이
겸손했으며 가르침을 잘
받아들였습니다. (모사이아서 3 : 19 ;
교성 105 : 12 참조) 그들이 보인 겸손의
모범으로 우리의 영혼이 높이 올려져야
합니다.

근면

근면은 모든 합창단원이 보여준
것이지만 제가 결코 잊지 못할 한 훌륭한
어머니가 매우 훌륭하게 근면을
보여주었습니다. 합창단이 미국을 떠난 지
5일째 되는 날 저는 그분에게 그분의
아름다운 37세 딸이 오래 앓다가
사망했다는 것을 알리도록
부탁받았습니다.

슬픔에 잠긴 이 어머니의 지도자들은
그분에게 유럽에서 귀국하도록 방안을
제의했습니다. 그분은 그 제의를
사양했습니다. 그분과 그분의 가족은 그
일을 이미 예상했습니다. 그들의 결정은



중앙 아메리카 지역 회장인 테드 이 브루어튼 장로와 브루어튼 자매가 탬플 스퀘어에서 있음.

이미 내려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다른 사람이 따라야 할 본보기로 해석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자매님 자신이
따라야 할 본보기로 해석했습니다.
그분의 자녀들과 손주들은 그분이 자신의
임무를 계속 하도록 간청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단 한 번의 연주회도
빠뜨리지 않고 더욱 근면했습니다.
그분은 다음과 같은 경전의 권고, 즉
“그러므로 어떠한 어려운 처지에
놓일지라도 부지런하라”(교성 6 : 18)라는
권고를 훌륭하게 완수했습니다.
그 자매님의 모범은 자신의 가족과
저에게 축복을 가져다 준 것처럼 여러분
각자에게도 축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경건

경건은 얻기도 어려운 성품인 것처럼
설명하기도 어려운 성품인 것 같습니다.
경전에는 “경건의 비밀”(디모데전서 3 :
16 ; 교성 19 : 10)이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경건이 이같이 특별한
성품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에 관해 맨
마지막에 말하기로 정했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우리에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베드로후서 3 : 11~12)라고
권고했습니다. “경건의 능력”은 신권의

의식에서 나타납니다. (교성 84 : 20 참조)
경건은 완전의 산물이 아니라 집중과
성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경건은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개개인의 특성입니다. 여러분은 늘
구세주의 속죄를 마음에 두고 그분의
조건없는 사랑을 누리며 기뻐합니다. 한편
여러분은 자신의 교만과 헛된 야망을
극복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성취가
지상에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는 경우에만 그 성취가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태버내클 합창단의 노래는 그들이
지닌 보기 드문 경건의 영을 전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합창단은 마음을 다해
너무나 놀랍고 거룩한 사랑을 간증한
노래 한 곡을 불렀습니다. 그들이 개심과
경건에 대한 다짐에 관해서 개인적인
느낌을 표현했을 때 여러 사람의 얼굴이
눈물로 적셔졌습니다. 합창단이 곧
부르게 될 이 노래에는 아이작 위츠가
지은 다음의 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광의 왕자가 돌아가신
기이한 십자가를 바라볼 때
값진 재물은 중요하지 않게 보이며
겸손한 마음이 스며드네
주여, 제가 사랑하지 않게 하소서
저의 하나님이지어,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는 제외하소서

나를 가장 내혹시키는 모든 헛된 것
주님의 피를 위해 그것을 모두
바치리

은 자연계가 내 것이었으나
이제 너무 작은 선물이라
놀랍고도 거룩한 큰 사랑이
내 영혼, 내 생명, 내 모든 걸
요구하네

이러한 것들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를 섬기는"(히브리서 8 : 5
참조) 분들이 가르쳐 준 가르침입니다.
물론 태버내클 합창단원은 모두 하나가
되어 살아계시는 주님과 이 말일에
회복된 주님의 교회에 대해 간증했으며,
저도 그렇게 간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들의 모범을 통해서 우리의
생활을 높이 들어올리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

간증

찰스 디디에이 장로
철십인

"간증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 것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굳게 설 수
있는 확고한 기반과 우리의 삶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 줍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는 국제
정치성으로 여러 중대한
사건들에 따른 결과와 변화들을
세계와 교회 안에서 보아왔습니다. 우리는
또한 눈에 보이지는 않음지라도 진실로
개인과 가족의 발전에 심오한 영향을
주어 특히 하나님과 교회와 종교적인
행위에 큰 결과와 변화를 가져오는
사건들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세상적인 관습에 대한
전통적이거나 종교적인 가치관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했으며, 이것은 다음의 현대
계시에서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주의
의를 세우기 위하여 주를 찾지 아니하고
도리어 모든 사람은 제 마음대로
생활하며 자신이 만든 하나님의 형상을
구하였음이라. 그 형상은 세상의
모습이요,"(교성 1 : 16).

만일 우리가 이런 정치, 경제적
변화에서 오는 개인적인 영적 시험 뿐만

아니라 개인과 가족의 도덕적, 영적
안전을 계속 위협하는 것들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확고하고 참된 행위를
결정해줄 확실한 기초를 우리 안에서
찾음으로써 이러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할 필요성과 필수 요건을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진리에 따라 행동하도록 동기를
부여해줄 참된 반석은 무엇이겠습니까?
히버 시 킴볼 장로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진실로 하나님과 그의 사업에
충실하다는 것을 나타내 보일 충분한
기회와 더불어, 여러분이 견딜 수 있는
모든 고난과 시련과 핍박을 겪게 될
시기가 오게 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사업이 승리의 면류관을
쓰기 전에 통과해야 할 많은 시련들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신앙이나
간증만으로는 견디내기 힘든 때가 올
것입니다. 각자 자신의 등불로
인도받아야 할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에게 그것이 없다면 어떻게 견디낼
수 있겠습니까?"(울슨 에프 휘트니, *히버
시 킴볼의 생애*, 3판, 솔트레이크시티 :
북크래프트사, 1945년, 449~50쪽)

"자신의 등불"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참다운 행위를
결정해야 할 참 바탕인 간증을 말합니다.

해롤드 비 리 대관장님은 "교회의 참된
힘은 교회의 전체 회원들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개개인의 간증을 통해서
축정되어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멕시코 시티 지역 대회 보고, 1972년

8월 25~27일, 117쪽) 이 인용문에 근거하여 우리는 또한 개인의 참된 힘은 그가 지닌 간증과, 그 간증에 따라 생활하는 데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개인의 힘과 안전성, 즉 참된 반석 및 이에 따른 행동이 간증에 달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일 우리가 그 간증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그것의 참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며 그 간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거나, 가르치거나 설명할 수 없다면, 우리는 간증이 주는 깊은 영적인 의미와 함께 개인적인 간증을 얻고 유지하며 나누는 데에서 오는 축복을 깊이 탐구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일찌기 경전에서는 "만물은... 나를 증거하기 위해 창조되고 지음을 받았나니"(모세서 6:63)라고 아담에게 주어진 말씀에 간증이란 말의 성스러움이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에 관한 지식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했으며 그것은 우리 시대에든 바뀐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결코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간증을 얻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한 원리에도 적용됩니다. 그것은 바로 성신의 권세로써 하나님은 살아 계시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며(교성 20:12 참조),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요한복음 17:3)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간증은 단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일뿐만 아니라 요셉 스미스가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을 보았다는 확언이며, 물론경은 성스러운 근원을 가지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성약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그 복음과 성신권과 더불어 실제로 회복되었다는 확신입니다.

조셉 필딩 스미스 대관장님은 간증을 이렇게 정의하셨습니다. "복음의 간증은 진리를 겸손하게 간구하는 자에게 계시로 확신시켜주는 지식입니다."(복음 질문에 대한 대답, 조셉 필딩 스미스 이세 편, 전5권, 솔트레이크시티:데저렛 출판사, 1957~66, 3:31)

간증을 얻기 위한 필수적인 단계는

무엇일까요? 첫째, 겸손히 진리를 간구하며 믿음과 신앙을 행사하여 알고자하는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한 응답이나 확신을 주는 지식 등,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축복을 받을 때에는 그것이 근거한 율법에 순종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입니다.(교성 130:21 참조) 그 율법이 요구하는 표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행사하며, 그의 이름으로 간구하고, 진실한 마음을 가지며, 겸손하게 진리를 구하고, 열린 마음의 자세를 갖고, 이미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관념들을 버리며 세상의 온갖 죄로부터 자신을 깨끗히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모든 규칙을 따르며 올바른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마음 문을 열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성신과 조화를 이루게 되어 모든 진리를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배척하지 않고 받아들여야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영적인 은사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불신앙에 빠지거나 겸손히 진리를 구하려는 마음을 버리지 않는 한, 영구히 얻을 수 있으며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두번째 단계는 영이 영에게 말해주는 계시를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저는 복음이 참되다고 믿습니다, 생각합니다, 바랍니다 등으로 말할 수 있는 것과는 달리, 저는 우리 교회가 참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데에는 개인적인 계시와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엘마는 계시를 통해 받은 확신의 지식에 대한 완벽한 예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네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그의 안에 있는 이 빛에 관해 배웁니다. 첫째, 그것은 그의 간증에 대한 확신입니다. "보라 내가 말한 이 모든 것들이 사실임을 아노라"(엘마서 5:45) 둘째, 그것은 그의 간증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것들이 내게 알려졌느니라"(46절) 셋째는 간증을 얻는 과정입니다. "금식하고 기도하며"(46절) 넷째는 간증의 증거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게 알게 하셨음이라. 이는 바로 내게 임한 계시의 영이었느니라"(46절) 다섯째는 간증의 근본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말씀하신



것이 참되(느니라)"(47절) 여섯째는 그의 간증의 힘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내가 아노라"(48절) 이러한 확신을 주는 지식, 즉 간증은 이것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책임을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완전한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엘마는 이에 덧붙여서 말했습니다.

"...가르치는 일이 내게 맡겨진 임무이니, 참으로 저들에게 부르짖어 저들이 회개하여 거듭나게 해야 하리로다."(49절)

이제 계시의 영의 열쇠들을 검토해 봅시다.

첫째 열쇠는 우리 힘으로 아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마십시오.

둘째 열쇠는 성신의 권세를 통해 아는 것입니다. 이성이나 논리 또는 인간의 철학이나 세상의 이론 등을 보지 마십시오.

셋째 열쇠는 경전을 상고하고 우리 시대의 예언자들과 대관장단 및 십이사도들에게 주어져 출간된 계시들을 탐구하여 아는 것입니다. 배도했거나 억측으로 말하는 자들의 합당치 못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넷째 열쇠는 하나님 아버지께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것입니다. 공개 토론이나 대중 집회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열쇠를 갖는 목적과 용도는 항상 매우 간단합니다. 즉 특정한 열쇠로 올바른 문을 열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열쇠의 목적은 예언자들이 묘사한 바와 같이 명확한 간증을 얻기 위해서 영적인 문을 하나씩 여는 데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처음에 글을 배우기 시작할 때 먼저 글자를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물어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은 글자의 이름을 알게 되어 그것을 나열하여 낱말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들은 낱말을 읽고 그 다음에는 문장, 그 후엔 책을 읽을 수 있게 됩니다. 간증을 얻는 단계도 이와 같은 방식을 따르게 됩니다. 우리는 알고 싶어하며, 우리가 아는 것부터 시작하고, 우리가 알게 되었을 때에는 아는 바를 함께 나누고 활용함으로써 그 지식을 더욱 넓혀나가게 됩니다.

일단 간증이 생긴 후에는 그것을 마치 연소하기 위해 연료와 산소가 필요한 불처럼 가꾸어 주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타 없어져 죽게 될 것입니다.

죽어가는 간증은 우리의 구세주요 구속주이신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데로 연결됩니다. 니파이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으며 부인하지 않음이 바른 길이요, 그리스도를 부인함은 선지자와 율법을 또한 부인하는 것이니라."

(니파이서 25 : 28)

불행하게도, 간증을 얻은 후 그것을 부인하며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째서 그런 일이 생길까요? 간증을 얻기 위해 필요한 단계를 따라야 한다면, 그것과 정반대로 행하면 간증을 부인하거나 잃게 됩니다.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계시의 문이 닫혀질 것입니다. 겸손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복음의 의식에 참여하기 보다는 세상의 관습을 따르십시오. 교회 지도자들을 따르지 말고 비판하십시오. 예언자들의 말씀에 귀기울여 따르지 말고 그 말씀을 자신의 기호에 맞게 마음대로 해석하십시오. 이러한 것은 간증을 잃게 하는 주된 문제 중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타다 남은 재가 꺼져가는 불의 표시인 것처럼 잃어져가는 간증은 영적인 재, 즉 복음에 관한 흥미나 사랑 및 목적의 상실과 더불어 무감각, 원망, 공허감 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영적인 재들은 한때 불타올랐으며 의미있고 사랑에 찬 훌륭한 간증이 식어 남긴 것들입니다.

간증을 유지하며 강하게 하도록 예언자들은 항상 그것을 전하며 함께 나누라고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킴볼 대관장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신의 간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자주 전하며 그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합니다."(연차 대회, 1944년 10월) 알게 된 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십시오. 간증의 힘이 나타나게 하고 간증에 따라 생활하십시오.

간증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 것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설 수 있는 확고한 기반과 우리의 삶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 줍니다.

모세가 성약의 말씀들이 적힌 판들을 받았을 때 그것들은 간증의 판이라고 불렸으며 주님과 그의 자녀 사이의

성약을 상기시켜주기 위해서 성계 속에 놓여져 보존되었습니다. 모세와 그의 백성들은 참으로 확신을 주는 지식을 가졌었습니다.

요셉 스미스가 시현을 받았을 때 그도 역시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간증이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분명히 시현을 보았습니다. 나는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며, 하나님도 알고 계심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간증들은 순종과 선행으로 다져야 할 참된 반석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성약의 간증을 받았을 때와 다른 점이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간증의 중요성과 더불어 간증을 통해서 올 수 있는 힘과 그것이 이 생과 내세에 미치는 결과는 깨닫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확실히 가장 값진 소유물이며 우리의 이 생과 후에 올 영생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영원히 갈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살아 계신 예언자이신 벤슨 대관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간증은 우리가 이 생을 떠날 때 함께 지니고 갈 수 있는 몇 안되는 소유물 중의 하나입니다... 예수에 대한 간증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룩한 사명과 그의 복음을 충분히 받아들여, 주님의 과업을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요셉 스미스와 그의 뒤를 계승한 분들의 예언적인 사명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연차 대회, 1982년 4월, 성도의 벗, 1982년 7월호, 97쪽)

살아 계신 예언자에게서는 지금도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일어서서 우리들의 간증에 충실할 때입니다. 저는 온 마음과 겸손으로 간구하여 성신의 능력을 통해서 얻어진 저의 엄숙한 간증을 여러분의 간증에 보태고 싶습니다. 저는 하나님은 살아 계시며,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며 우리의 구세주요, 구속주이시고, 이 교회는 참되며 살아 계신 예언자이신 에즈라 테프트 벤슨 대관장을 통해서 인도된다는 것을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간증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해 드립니다. 아멘. *

자립하게 됨

엘 톰 페리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자립의 원리는... 세상이 곧 끝날 것이라는 두려움에 기반을 둔 프로그램이 아니며, 우리가 매일 생활하는 가운데 실천해야 할 원리입니다.”



리 하이와 그의 가족은 팡야에서 8년간 여행한 후 과일과 들꿀이 풍성하여 바운티풀이라고 이름 붙인 곳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큰 바다를 보았으며 주님께서 그들을 보호해주신 것을 기쁜 마음으로 감사드렸습니다. 그들이 바운티풀 땅에서 여러 날을 지낸 후, 주님은 니파이에게 “일어나라 일어나 산으로 가라”(니파이일서 17:7)고 말씀하셨습니다.

니파이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산으로 가서 기도드렸으며 주님은 니파이에게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내가 네게 이르는 대로 배를 만들라. 내가 너의 백성들을 물 건너로 인도하리라.”(니파이일서 17:8)

이에 니파이는 다음과 같이 여쭙았습니다. “주님이시여, 어디로 가야 연장을 녹여 만들어 당신께서 지시하신

대로 배를 만들 수 있는 쇠붙이를 구할 수 있겠나이까?”(니파이일서 17:9)

주님은 니파이가 쇠붙이를 구할 수 있는 곳을 알려 주셨으나 그 다음 일은 니파이에게 맡기셨습니다. 니파이일서 17장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나 니파이는 짐승 가죽으로 불을 부칠 풀무를 만들었고, 불을 부칠 풀무를 만든 다음 돌 두 개를 마주쳐 불을 일으켰나니,...

“내가 돌에서 녹여낸 쇠붙이로 연장을 만드니,”

이 구절은 주님께서 꼭 필요한 도움만을 주시고 그 다음 일은 그들이 스스로 해결하도록 하신다는 예가 나와 있는 매우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만일 니파이가 연장을 만들기 위해 쇠붙이를 구할 수 있는 곳을 알려 주시길 주님께 간구하지 않고 직접 연장을 달라고 간구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고 저는 가끔 생각해 봅니다. 주님이 과연 니파이의 요청을 들어 주셨을까 의심이 갑니다. 주님은 니파이가 연장을 만들 수 있음을 알고 계셨으며, 우리가 손수 할 수 있는 일을 주님이 직접 해주시는 일은 드뭅니다.

주님은 우리가 곤경에 처했을 때 그분께 나아가면 도움을 주시며, 특히 우리가 그분의 사업에 헌신하며 그분의 뜻에 순종할 때 도와 주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기꺼이 스스로 돕는 자만을 도와 주십니다. 주님은 그의 자녀들이 최대한 자립하기를 바라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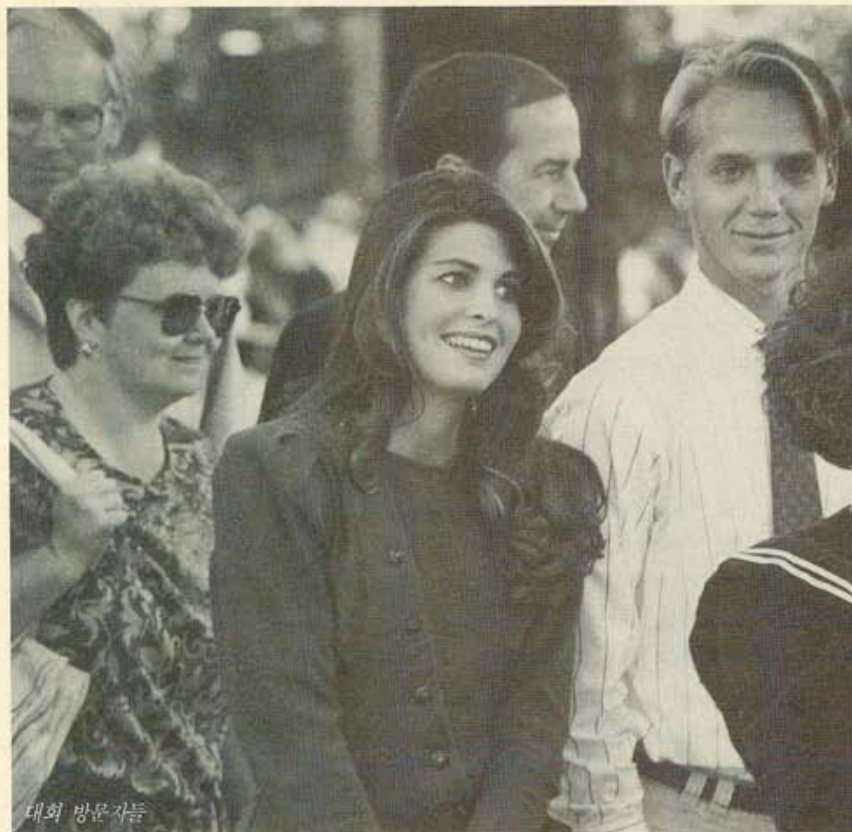
브리감 영 대관장님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실 수 있는 일을 찾는 대신 우리가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자문해 봅시다.”(브리감 영 설교집, 존 에이 윌소 편, 솔트레이크시티: 데저레트 출판사, 1978년, 293쪽)

독립 또는 자립은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세속적인 성장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가 자립하기 힘든 상황에 처할 때 우리의 자유도 위협받게 됩니다. 주님 이외의 다른 사람이나 사물에 의존하게 될수록 우리의 자유도 점점 위축될 것입니다. 이에 관해 히버 제이 그랜트 대관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자립하지 못하는 것처럼 스스로를 파멸시키는 것은 없습니다.”(상호부조회 잡지, 1937년 10월, 627쪽)

저는 전 생애를 통하여 지금까지 이 자립 정신을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권장해야 할 필요를 절실히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급변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의 정부가 세워지는가 하면 몰락하기도 하며, 회사는 흑자를 보는가 하면 적자를 보기도 합니다. 새로운 과학적 발견은 곧 또 다른 발견으로 말미암아 빛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 역시 계속하여 우리의 안목을 넓히지 않는다면 사회에서 별로 쓸모없는 일꾼이 될 것입니다. 어느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오늘날의 노동자들은 적어도 세 번 내지 다섯 번 새로운 직업을 찾아야 할 형편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좀더 자립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저의 부모님은 가정에서 한 가품을 만드셨는데 제가 어릴 때에는 그저 재미있다고만 생각했으나 나이가 들면서 그것이 매우 의미심장한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린 아기의 돌이 되면 식구들은 한 자리에 모여 돌을 맞이한 아기를 방 한쪽에 앉힌 후 방 한 가운데에는 성경, 우유병, 장난감 및 동전이 든 저금통을 놓고 아기가 기어가 어느 것을 잡는가를 보곤 했습니다. 아기가 어느 것을 잡는가에 따라 장차 어떤 직업을 택할 것인지 그 적성을 알 수 있다고도 생각했습니다. 가족들은 아기가 그런 물건쪽으로 기어가서 뭐가



대회 방문자들

집도록 부추키곤 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것은 모두 재미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는 저금통을 집었다고 하는데 정말 은행가가 되었으며, 제 동생인 테드는 경전을 집었는데 그는 결국 경전의 말씀을 토대로 판결을 내리는 법률가가 되었습니다. 또 저의 막내 동생인 봄은 다재다능한 형제인데 그는 기어와서 성경위에 앉아 우유병을 입에 물고 한 손엔 장난감을 들고 또 한 손엔 저금통을 들었습니다.

이 재미있는 가족 활동에서 우리는 자립에 관한 가장 근본적인 원리를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경전은 우리가 영적인 양식을 필요로 함을 나타내줍니다. 경전을 통해서 주님은 그의 자녀들에게 그의 뜻을 밝혀 주십니다. 태초부터 주님은 예언자들에게 계시하신 말씀을 그의 자녀들의 유익을 위해 기록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성스런 경전에는 영원한 가치가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이 세상에서 성공적인 삶을 사는 데 필요한 굳건한 반석입니다. 우리는 경전을 상고할 때 더욱 자립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경전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데 필요한 원리를 가르쳐 주는 성스런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쓰여진 책 중에서, 또한 앞으로 쓰여질 책을 감안하더라도 가장 훌륭한 책을 우리의 지침서로 갖고 있다는 사실에 위안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열왕기하 5장에서 순종에 관해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욥의 생애를 살펴보고 성실함을 배울 수 있습니다.

모사아시아에서 벤자민왕은 근면에 관해 가르칩니다. 창세기 39장에서 요셉의 생애를 살펴보면 우리의 도덕 표준이 시험받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가 경전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 중 몇 가지 예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러한 교훈을 가르칠 책임을 맡아 우리 가족의 마음에 그것을 깊이 심어주는 것입니다.

둘째, 우유병은 육신이 영양을 필요로 함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복지 사업 프로그램을 보면 세상적인 자립에 필요한

요소가 수레바퀴 살에 비교되어 있습니다. 수레바퀴를 지탱하고 있는 살들은 교육, 건강, 직업, 가정 비축, 자원 관리, 그리고 사회적, 정신적, 영적 능력입니다.

이번 여름 저는 어느 80세 되신 노인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분은 앞에서 말씀드린 모든 요소를 인생에서 실천하며 보여주시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아이다호주의 조그만 읍에서 태어나 교육을 받기 위해 농장에서 오랫동안 일했습니다. 그분은 소규모의 고등학교에서 영어 및 스페인어를 가르치는 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분은 많은 자녀들의 교육과 선교 사업을 위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딸기를 재배하여 시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그분은 여름내내 이런 일을 해야 했습니다.

이 농사일은 너무 힘든 일이었으므로 누구나 이를 회피하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딸기는 생산하기가 무섭게 모두 팔렸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현재의 생산량에 만족하지 않고 더욱 많이 생산하기 위해 새로운 품종을 개발했습니다. 그분의 뒷마당은 글자 그대로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기 위한 실험장이었으며 개발된 품종은 그 특정한 기후에서도 가장 달고도 풍성한 수확을 안겨 주었습니다. 그분은 노동을 통해 건강을 유지했으며, 딸기 농장은 가족들에게 여름에 일할 곳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시장성 좋은 이 딸기는 현금 수입만 가져온 것이 아니라 가정 비축을 위한 일상 용품과도 교환될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재정 관리를 잘하여 아름다운 집도 마련하였으며 가족들도 넉넉히 부양하였습니다.

그분은 이 땅을 번성하여 충만케 하시는 주님의 섭리를 즐거이 지켜보면서 사회적, 정신적, 영적인 능력을 얻었습니다. 이제 그분은 훌륭한 교사로서 정년 퇴직하였으나 아직도 딸기밭을 가꾸는 데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딸기를 수확하는 시기에는 매주 6일 동안 아침마다 그분의 딸기 밭으로 향하는 열 대쯤 되는 자동차들의 행렬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족이 와서 가정 비축을 위해 딸기를 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맡아서 손수 일할 경우에는 딸기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았더니 그분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분들이 직접 딸기를 한 아름 안고서 받을 때 그 기쁜 표정을 보는 것이 제가 받는 보상입니다."

가족이 생산적인 방법으로 함께 일함으로써 자립할 수 있는 길은 수없이 많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마도 가정의 밤 시간에 함께 토론한다면 여러분의 가족이 좀더 자립하는 데 도움이 되는 좋은 제언이 많이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제가 언급했던 장난감은 세상의 것을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무엇이든지 오늘 들여다 놓고 나중에 월부로 조금씩 갚으라고 하는 선전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무엇이든지 즉시 소유하기를 원하는 조금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것들은 소유하게 되면 만족감을 지속적으로 주기 보다는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은 욕망을 더 부추키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진 세상의 자원을 현명하게 이용한다면 더욱 자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번 여름에 어느 젊은 부부가 이사하는 것을 보았는데 창고에서 나오는 집에 표시된 글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두살짜리 여자 옷", "세살짜리 여자 옷" 등으로 표시된 글이었습니다. 이 가족은 구입한 옷들을 최대한 잘 이용하려는 계획을 세웠음이 분명했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풍요로운 축복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축복받은 이러한 자원을, 결코 낭비하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까.

끝으로, 저금통은 재정적인 면에서 복지를 상징합니다. 저는 회사에 처음 일하던 당시에 큰 교훈을 배웠습니다. 어느 날 저의 상사가 저를 불렀을 때 저는 그분이 평가 마음속에 품은 뜻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이자"가 무엇인지 설명해 달라고 했습니다. 물론 저는 대학 시절에 교과서에서 배운대로 그 뜻을 설명했으나



대회를 위해 연수한 태버네클 오르간 반주자인 클레이 크리스찬슨 형제.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오.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바라는 대답은 바로 이자에 관해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이자를 받을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자를 지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자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저축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금을 하면서도 생활 수준을 계속 높으려면 신앙을 갖고 실천해 보아야 합니다. 주님께 정확한 심일조를 드린 후에는 미리 정한 금액을 저금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후에도 세금, 식품비, 의복비, 집세, 교통비 등을 지불할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온 생애 동안 열심히 일해 번 돈으로 식품점, 집주인, 전기 회사, 자동차 업자, 은행 등에 계속 지불하고

있으나 자신이 기울인 노력에 대해서는 자신에게 한 푼도 지불하지 않는 것, 즉 저축하지 않는 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투자하실 때에는 조심스럽고 현명하게 투기성 없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 투자가 정기적으로 지속되어 위급한 때와 퇴직 후에 사용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좀더 자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립의 원리는 세상적인 면에서 뿐만 아니라 영적인 면에서도 적용됩니다. 이것은 세상이 곧 끝날 것이라는 두려움에 기반을 둔 프로그램이 아니며, 우리가 매일 생활하는 가운데 실천해야 할 원리입니다. 우리가 이 영원한 진리인 자립의 원리에 충실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

매우 소중한 어린이... 하나님의 은사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2보좌

“만일 모든 어린이가 사랑하는 부모와 안전한 가정과 돌보아주는 친구를 갖고 있다면 그들에게는 얼마나 훌륭한 세상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불행하게 어린이들이 모두 그렇게 풍성한 축복을 받고 있지는 못합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변형의 산에서 내려와 갈릴리에 잠시 머물렀다가 가버나움에 이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
(마태복음 18 : 1~6)

저는 전세를 떠나 지상에 온 지 얼마 안된 어린이들을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들은 그 당시나 지금이나 우리의 삶을 축복해주고, 우리의 사랑이 타오르게 하며 우리에게 선행을 하도록 영감을 줍니다.

시인 워즈워드¹⁾가 우리의 출생에 대해 “영광의 구름을 타고 우리의 본향인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윌리엄 워즈워드, “송가: 어린 시절의 회상에서 불멸의 암시를 받음”, 윌리엄 워즈워드 시 전집, 런던: 맥밀란 출판사, 1924년, 359쪽)

대부분의 어린 아이들은 그들의 도착을 애타게 기다리는 부모들에게, 즉 우리가 출생이라고 부르는 그러한 기적에 동참하는 것을 기뻐하는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옵니다. 어떤 희생도 그리 크지는 않으며, 어떤 고통도 그리 심하지는 않고, 어떤 기다림도 그리 길지는 않습니다.

미국의 한 도시에서 생긴 다음과 같은 사건에 관한 뉴스를 듣고서 우리가

충격을 받은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종이 백에 싸인 채 쓰레기 통에 내버려진 여자 신생아가 병원에서 간호와 검진을 받고 있습니다. 아기의 상태는 양호합니다. ‘아주 예쁘고 건강한 여자 아이입니다.’라고 병원 대변인이 수요일에 말했습니다. 경찰에 의하면 청소원이 쓰레기 통을 비워 청소차 뒷쪽 끝에 버리고 나서 쓰레기 속에서 무엇이 움직이는 것을 본 후에 이 아기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당국은 그 어머니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 생애의 일부가 되는 어린 아이를 우리의 가정과 마음에 환영하고 영접하는 것은 우리의 엄숙한 의무요 귀중한 특권이며 진실로 성스러운 기회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은 서로 다른 배움의 교실을 세 개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학교의 교실, 교회의 교실 및 가정이라 불리는 교실이 바로 그것입니다.

교회는 항상 공공 교육에 지대한 관심을 기울여 왔으며 회원들에게 우리 청소년의 교육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된 부모와 교사 활동과 기타 행사에 참여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공공 교육 부문에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 소년 소녀와 청년 청년을 사랑하고 가르치며 영감을 불어넣어 주는 기회를 가지고 있는 교사보다 더 중요한 요소는 없습니다.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님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르치는 일은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일입니다. 가정의 안정과 순수함 그리고 국가의 안전과 영속성은 청소년에 대한 올바른 교육에 달려 있습니다. 부모는 아이에게 살아갈 기회를 주며, 교사는 아이가 훌륭하게 살아가도록 할 수 있습니다.” (데이비드 오 맥케이, 복음 이상, 솔트레이크시티: 임프르브먼트 이라, 1953년, 436쪽) 저는 우리가 충분한 시설을 제공하고 우리의 감사와 신뢰를 나타내 주는 가장 훌륭한 책과 봉급을 줌으로써 교사의 중요성과 중대한 사명을 인정하게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각자 우리 청소년의 교사들을 애정을 갖고 기억합니다. 저는 저의 국민학교 음악 선생님이 샤프 양이었다는

것을 재미있게 생각합니다. 샤프 양은 학생들에게 음악에 대한 사랑을 불어넣어 주는 능력을 갖고 있었으며 우리에게 여러 종류의 악기와 그 소리를 알아낼 수 있도록 가르쳤습니다. 저는 또한 건강에 관해 가르친 루스 크로우 양의 영향력을 잘 기억합니다. 그때는 경제적인 불황기였지만 그녀는 각 학생의 치아 건강을 위해 직접 점검하고 공립 기관이나 사립 기관을 통해서 모든 어린이가 제대로 치아에 대한 치료를 받게 해주었습니다. 지리를 가르친 버크하우스 양이 세계 지도를 펼쳐서 지시봉으로 각국의 수도를 표시하며 각 나라의 독특한 특징과 언어와 문화를 말했을 때, 언젠가 제가 이러한 나라들과 국민들을 방문하게 되리라고는 예상하거나 꿈꾸지 못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에게 그들을 격려해 주고 기운을 북돋아주며 그들의 지적인 능력을 키워 주며 그들에게 동기를 부여해 주는 교사들은 참으로 중요한 존재입니다.

교회의 교실은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의 교육에 중요한 분야를 더해 줍니다.

이곳에서 교사들은 자신의 공과에 귀를 기울이며 자신의 간증의 영향력을 느끼는 학생들에게 영감을 줄 수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주일학교, 청년 모임 및 아론 신권 모임에서 주님의 영감으로 부름받은 잘 준비된 교사는 각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고 모든 사람에게 "가장 좋은 책에서 지혜의 말씀을

구하고... 연구와 신앙으로써 학문을 구하라"고(교성 88 : 118) 격려할 수

있습니다. 이 격려의 말씀과 영적인 생각은 귀중한 삶에 영향을 미치고 불멸의 영혼에 영원한 자국을 남길 수

있습니다. 수년 전에 교회 잡지 시상식 연회에서 우리는 해롤드 비 리 대관장님 내외분과 함께 앉았습니다.

리 대관장님은 저의 10대 딸인 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너에게 아름다운 얼굴과 몸을 축복으로 주셨단다. 그것의 내면을 외면처럼

아름답게 가꾸어라. 그러면 너는 참된 행복을 축복받게 될거야." 이 훌륭한 선생님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의 해의 왕국에 이르는 영감받은 지침을 앤에게

주었습니다.

교회 교실의 겸손하고 영감받은 교사는 학생들에게 경전을 사랑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진실로 교사는 옛날의 사도들과 세상의 구세주를 교실로 모셔 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어린이들의 마음과 정신과 영혼 안으로도 모실 수가 있습니다.

아마 모든 교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교실은 가정이라는 교실일 것입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우리의 태도와 우리에게 가장 큰 의미가 있는 믿음을 형성합니다. 가정에서 어린이들은 희망을 얻거나 잃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우리 인생의 실험실입니다. 가정에서 우리가 하는 일은 우리가 가정을 떠날 때 우리의 인생 행로를 결정해 줍니다. 스투어트 이 로젠버거 박사는 그의 저서, *확신에 이르는 길*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모든 새로운 발명과 현대의 디자인, 유행과 미신에도 불구하고 아직 아무도 우리의 가족과 대체할만한 것을 발명하지 못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은 정말 지상의 천국입니다. 조지 앨버트 스미스 대관장님은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다면 가정이 기도와 감사가 항상 있는 곳이

되게 하십시오."(연차 대회, 1944년 4월)

어린이들이 신체적 장애나 정신적 장애를 갖고 지상에 오는 상황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이유를 이해하려고 하더라도 왜 어떻게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아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아무런 불평없이 그러한 아이를 그들의 팔과 생활에 받아들여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 중 하나인 그 아이에게 더 큰

희생과 사랑을 바치는 부모들에게 경의를 포함합니다.

지난 여름 에스펜 그로브 가족 아영에서 저는 태어날 때 장애자로 태어나 전적으로 어머니에게 의존하는 10대 딸에게 안내심을 갖고 음식을 먹이는 한 어머니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어머니는 딸의 머리와 목을 붙들고는 음식과 물을 한 숟가락씩 떠먹여 주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17년 동안 이 어머니는 자신의 편안함이나 즐거움이나 음식을 결코 생각하지 않고 이러한 일을 포함한 모든 일들을 해 오셨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어머니와 아버지와 어린 아이들을 축복해 주시길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분들을 반드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전세계의 모든 부모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감동을 주는 정은 거창한 세계적 행사에 의해 생기는 것도 아니며, 소설이나 역사책에서 발견되는 것도 아니며, 다만 잠자는 아이를 가만히 지켜 보는 부모에게서 생긴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찰즈 엠 디킨슨의 진리의 말이 마음에 떠오릅니다.

그들은 마음과 가족의 우상, 모습을 변장한 하나님의 천사들이네. 햇빛은 슬픔은 그들의 머리카락에서 잠자고

하나님의 영광은 그들의 눈에서 빛난다네.

이 작은 아이들은 가정과 하늘에서 와서 나를 더 남자답고 부드럽게 만드네. 이제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왕국을 어린 아이에게 비유하신 것을 깨달았네. 어린이들과 매일 경험을 같이 나누면서



우리는 그들이 매우 총명하며 때로는 심오한 진리를 말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고전인 *크리스마스 송가*의 저자인 찰즈 디킨즈는 매우 빈약하지만 오랫동안 몹시 기다리던 성탄절 만찬을 위해 모여 있는 봄 크래킷 가족을 묘사하면서 이 사실을 설명했습니다. 가장인 봄이 그의 허약한 아들인 타이니 팀을 어깨에 메고 집으로 오는 중이었습니다. 타이니 팀은 작은 목발을 갖고 다녔으며 다리에는 쇠 버팀대를 부착하고 있었습니다. 봄의 아내는 남편에게 “팀이 어떤 반응을 보이던가요?”라고 물어보았습니다.

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주 훌륭히 행동했어요. 팀은 약간 생각에 잠기며 혼자서 한참 앉아 있더니 가장 이상한 것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팀은 집으로 오면서 내게 사람들이 교회에서 자기를 보기를 바랬다고 말했어요. 불구자인 자기를 보고 질름발이 거지들을 걷게 하고 눈먼 사람들을 보게 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은 그들에게는 즐거움이 될 거라고 하면서 말해요.”(찰즈 디킨즈, *크리스마스 캐롤 및 노변의 귀뚜라미*, 뉴욕: 그로셋과 던롭사, 50~51쪽)

찰즈 디킨즈 자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 이런 아이들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곁에서 가장 최근에 우리에게 온 그들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어린이들은 독창적이며 매우 새로운 방법으로 그들의 사랑을 표현합니다. 몇 주 전 저의 생일에 귀여운 작은 소녀가 저에게 손으로 쓴 생일 카드와 함께 제가

선물로 받고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한 작은 장난감 자동차를 넣은 봉투를 주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랑스러운 광경 중에서 어린이가 뭔가를 줄 때만큼 아름다운 광경은 없습니다. 어린이는 조그만 것을 주지만 여러분에게 세상을 주며, 마치 결코 잃을 수 없었던 한 권의 책임듯한 세상을 여러분에게 세상을 보여 줍니다. 그러나 어린이가 다른 사람에게 줄 선물을 찾아야 할 때 그것은 항상 광대와 같이 보이는 천사의 그림을 비추러지게 풀로 붙인 우스꽝스러운 작은 것입니다. 어린이는 자기가 줄 수 있는 작은 것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는 자기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주고 있음을 결코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마가렛 리 런백, *조그만 조각들*, 1990년 9월 20일)

제니가 저에게 준 선물은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어린이들은 천성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능력을 믿는 변치 않는 신앙을 부여받은 것 같으며 그들의 순진한 기도가 응답되기를 바랍니다. 저의 개인적인 경험에 비추어 보면 어린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과거에 애틀랜타 브레이브스 야구 클럽의 프로 야구 선수들로 잘 알려진 배리 보넬과 테일 머피의 경험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들은 모두 교회 개종자였는데, 테일 머리가 배리 보넬에게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배리가 “인생을 바꿀만한 사건”이라고 묘사한 일이 1978년 시즌에 생겼습니다. 그는 타율이 매우 저조하여 무척 고심하고 있었습니다. 타격 성적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자신을 비하하며 괴로워했습니다. 그는 데일 머피가 “병원 가는데 같이 가자”라고 했을 때 사실상 가고 싶지 않았으나 아무튼 가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그는 충실한 애틀랜타 브레이브스 팀의 편인 립키 리틀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는 백혈병을 앓고 있는 젊은이였습니다. 립키의 임종이 임박한 것을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배리는 위로의 말을 생각해보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었으나 적절한 말이 전혀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그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겠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 젊은이는 주저하다가 두 선수가 모두 다음 경기에서 자기를 위해 홈런을 칠 수 있겠는지 물었습니다. 배리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부탁은 사실상 그날 밤 두 개의 홈런을 친 데일에게는 그다지 힘든 일이 아니었지만 저는 타격 성적이 안 좋은데다 일년내내 홈런을 한 개도 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마음에 따뜻한 느낌을 느꼈고 립키에게 그를 위해 홈런을 날리겠노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배리는 시즌 동안 유일한 홈런을 쳤습니다.(짐 아이슨, *메이저 리그의 물문*)

한 어린이의 기도는 응답되었으며 어린이의 소망도 성취되었습니다. 만일 모든 어린이가 사랑하는 부모와 안전한

가정과 돌보아주는 친구를 갖고 있다면 그들에게는 얼마나 훌륭한 세상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불행하게도 어린이들이 모두 그렇게 풍성한 축복을 받고 있지는 못합니다. 어떤 어린이들은 아버지가 야만적으로 어머니를 때리는 것을 보는가 하면 그런 학대를 직접 당하기도 합니다. 이 얼마나 비겁하고 사악하며 부끄러운 일입니까!

곳곳에 있는 많은 병원에서는 상처가 나고 두들겨 맞은 어린이들을 받아들이고 있는데 여기에는 어린이가 “문에 부딪혔다”거나 “계단에 넘어졌다”는 뻔뻔스런 거짓말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을 못살게 하는 거짓말쟁이들은 언젠가 자기들의 혐오스런 행동에 대해 크게 처벌받을 것입니다. 학대와 때로는 근친상간의 희생자가 된 말 못하는 상처받은 어린이들은 반드시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한 지방 법원의 판사는 저한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린이들에 대한 성적 학대는 문명 사회에서 가장 사악하고 파괴적이며 퇴폐적인 범죄에 속합니다. 어린이들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성적 학대의 건수가 놀랄만큼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법원은 이 불쾌한 행동에 대한 보고로 가득 차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같이 거증스럽고 비열한 행동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어린이들에 대한 그러한 취급을 가장 혹독한 말로 비난합니다. 어린이가 구조되고 양육되며 사랑받으며 고침을 받도록 하십시오. 학대자를 재판에 회부하여 그의 행동에 처벌을 받게 하며 그로 하여금 그같은 사악하고 악마같은 행동을 그만두도록 전문적인 치료를 받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이러한 행동을 알고도 그것을 근절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심각한 문제에 놓이게 되며 죄에 동참하는 것이 되며 형벌의 일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제가 너무 거칠게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어린이들을 사랑하며 주님도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니파이삼서에 설명되어 있는 어린이에 대한 예수님의

축복보다 이러한 사랑에 관한 더 감동적인 기록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 기록은 병자를 고치시고 백성들을 가르치시며 그들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리시는 예수님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귀한 말씀을 인용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어린 아이들을 안으시고 차례대로 저들을 축복하시며 아버지께 저들을 위하여 간구하시었고
“이같이 행하시고 나서 또 다시
우시더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너희 어린 것들을 보라 하시매

“저들이 눈을 들어 똑바로 하늘을 우러러 보니,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마치 불에 싸인 형상으로 하늘로부터 내려와... 천사들이 어린 아이들을 축복하더라”(니파이삼서 17 : 21~24)

여러분은 **이같은 일이 오늘날에도 일어납니까?**라고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느 선교부에서 현재 봉사하고 있는 할머니와 할아버지와 그들의 작은 손자가 축복받은 방법에 관한 아름다운 기록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선교사인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저는 아내인 디에나와 함께 지금 오히리오주 책상에 있는 어느 선교부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사 부름을 받아들일 때 크게 열려한 것은 우리 가족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에 문제가 있을 때에도 우리는 그들과 함께 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선교사로 나오기 전에 우리의 손자는 두살 반이었으며 한쪽 눈의 사시를 교정하기 위한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저에게 그들과 함께 가자고 부탁했습니다. 왜냐하면 손자와 저는 친한 친구이기 때문입니다. 수술은 잘 되었으나 손자는 수술을 전후하여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왜냐하면 가족 중에서 아무도 수술실에 들어갈 수 없었으므로 혼자서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약 6개월 후, 우리가 아직 선교부에서 봉사하고 있는 동안 손자는 다른 쪽 눈의 사시를 교정해야만 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전화를 하여 저에게 두번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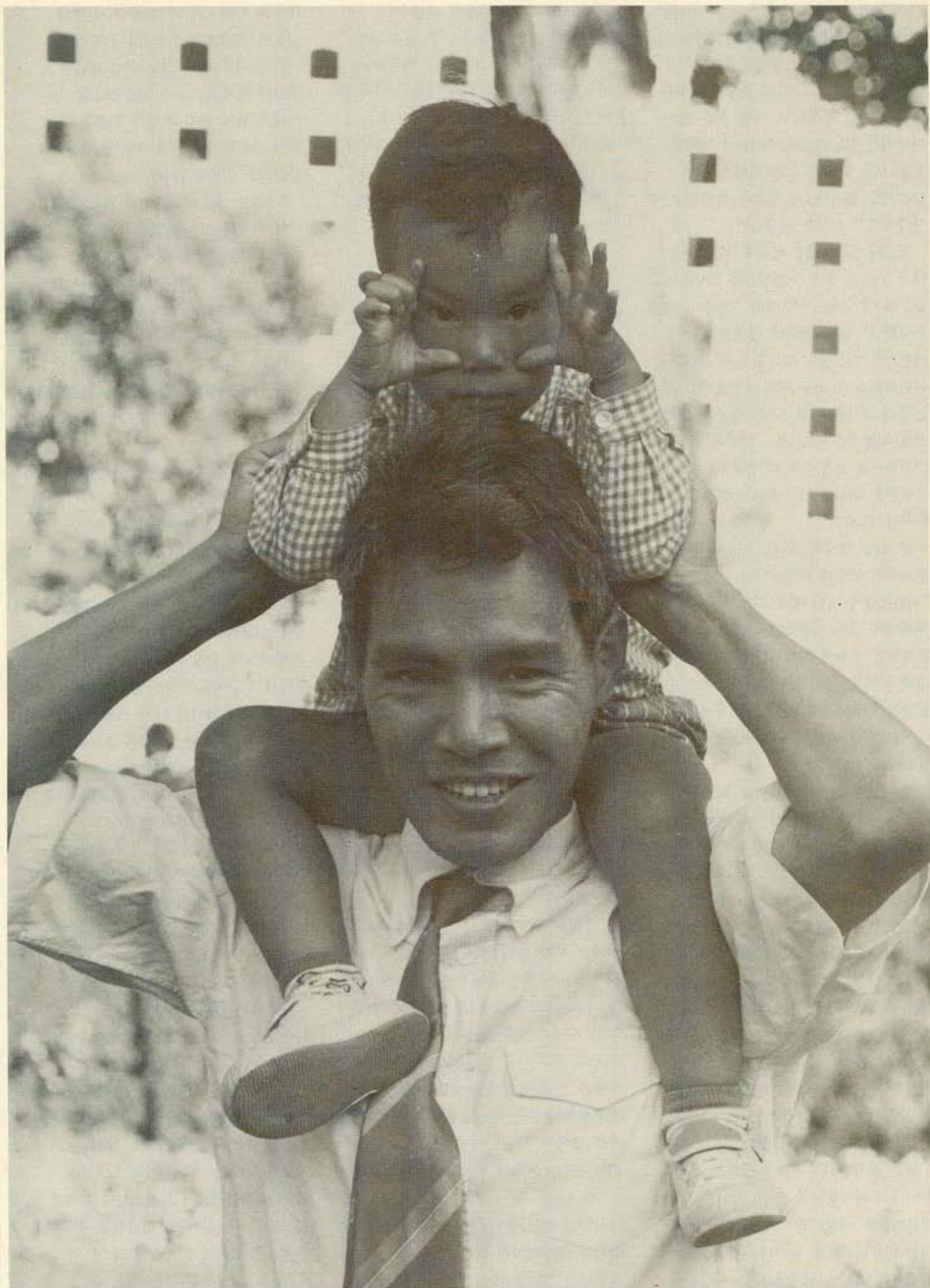
수술을 위해 그들과 함께 가기 위해 그곳에 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물론 거리가 너무 멀고 선교 사업 때문에 손자와 함께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아내와 함께 우리 손자가 수술을 받는 동안 주님께서 그에게 위안을 주시도록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수술이 끝난 후 즉시 전화를 하여 손자가 이전에 받은 수술을 기억하고는 부모를 떠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수술실에 들어가자마자 마음이 안정되었습니다. 그는 수술대에 누워 의사들을 위해 안경을 벗었으며 침착하게 수술을 완전히 받았습니다. 우리는 대단히 감사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었던 것입니다.

“이들 후에 우리는 딸에게 전화를 하여 손자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그의 상태는 좋았으며 딸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일을 말해 주었습니다. 수술이 끝난 후 오후에 손자는 잠에서 깨어나 어머니에게 자기가 수술을 받는 동안 할아버지가 함께 계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할아버지가 같이 계셔서 모든 일이 잘되게 하셨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은 마취 의사가 마치 그의 할아버지인 것처럼 그 어린 소년에게 나타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거의 3,000Km나 떨어진 어느 선교부에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여러분의 침대 곁에, 즉 손자 곁에 안계셨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분의 인도와 생각 속에 계셨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손 안에서 양육되었으며 우리 모두의 아버지에게서 축복받았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어린 아이들의 웃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기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린 아이들의 신앙으로 우리의 영혼이 위로받으며 어린 아이들의 사랑으로 우리가 선행을 하도록 영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시편 127 : 3)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특별한 친구들이 이 아름다운 영혼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 아멘. *



“힘없는 무릎을 강건케 하라”

마빈 제이 애쉬튼 장로
십이사도 정원희

“사람들의 좋은 특성을 지적해 줌으로써 강화시켜 주며, 지나치게 비평함으로써 약화시키고 두려워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경전에서 네 번 사용된 구절로서, 늘 저의 호기심을 불러 일으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힘없는 무릎”이라는 낱말입니다.

“힘없는”이라는 낱말의 사전적인 정의는 약한, 강하지 않은, 기력이 없는, 쉽게 부러질 수 있는, 허약한 등입니다.

프레드릭 지 윌리엄스가 요셉 스미스의 보좌로 부름받았을 때 그는 “그러므로 충실하라. 내가 네게 임명한 직분을 감당하라. 연약한 직분을 감당하라. 연약한 자를 복돋아 주며 처진 팔을 높이 들며 힘없는 무릎을 강건케 하라.”

(교성 81 : 5)는 명을 받았습니다.

더욱 강하게 만들라는 뜻의 “강건케 하라”는 말이 “힘없는 무릎”에 연결되어

이 구절의 의미를 더욱 깊이 생각하게 만듭니다.

저는 이전에 힘없는 무릎은 약한 또는 지쳐 있는 무릎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시아에서 사용된 그 낱말의 의미는 두려움을 내포한 좀더 확장된 뜻을 가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아시아의 해석을 더 좋아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종종 두려움을 나타내는 말로 “약해진 무릎” 또는 “후들거리는 다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교리와 성약 81편 5절은 주님께서 프레드릭 지 윌리엄스에게 약한 자를 강화하고 (“연약한 자를 복돋아주며”), 지치고 실의에 잠겨 있는 자들을 격려하며(“처진 팔을 높이 들며”), ‘힘없는 무릎’과 두려운 마음을 지닌 자들에게 강건함과 용기를 주라고 명하신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81편의 계시가 주어졌던 1832년 3월에 교회 회원들이 두려움을 가졌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요셉 스미스가 살았던 오하이오주 하이람에서는 교회 회원들에 대한 적대감이 일고 있었습니다. 요셉과 시드니 리그돈은 50명의 폭도들에게 격렬한 공격을 받았습니다.

거의 160년 정도가 지난 오늘날, 나는 일말의 의심도 없이 힘없는 무릎을 강건케 하라는 권고가 어느 때보다도 시기적절했음을 믿습니다.

우리 중 누가 일생 동안 우리가 받은

책임에 대해 힘없는 무릎, 즉 두려움과 불확신을 겪어보지 않았겠습니까?

예를 들면 오랜 시간동안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일했는데 그 결과로 받은 급료가 겨우 가족의 필요 사항만을 충족시킴을 알게 된 아버지의 경우는 어떻겠습니까? 예상치 못한 지출 때문에 가족의 꼭 짜여진 가계가 뒤엎어져 버릴 것같은 두려움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신이 가족의 필요 사항을 충족시켜줄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가진 적은 없겠습니까?

또 불만을 갖고 순종하지 않는 자녀를 둔 부모의 경우는 어떻겠습니까? 그들이 올바른 권고와 원리와 규범을 배우지 못할 것 같다는 두려움과 의심을 가진 적은 없겠습니까? 자녀들에게 충분히 무조건적인 사랑을 줄 수 없을 것 같다는 두려움을 느낀 적은 없겠습니까? 부모로서의 역할을 잘하지 못해서 자녀들이 영원히 구원받지 못할 것 같다는 두려움을 느낀 적은 없겠습니까?

혼자 자녀를 키우는 독신 부모의 경우는 어떻겠습니까? 엄청난 책임, 특히 혼자서 그 수많은 책임을 짊어져야 하는 것 때문에 자신이 압도될 것같은 두려움을 느낀 적은 없겠습니까?

그 누구도 불확신과 불안, 의심, 그리고 두려움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필멸의 생은 늘 도전과 예측 불허의 삶입니다. 인생의 본질에 대해 잘 알게 된 사람이라면 그의 주변 환경이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두려움과 ‘힘없는 무릎’을 갖게 될 순간을 어떻게 대처할 수 있습니까? 그 순간을 우리는 절대로 혼자 맞이해서는 안됩니다. 사랑하고 신뢰하는 친구와 우리의 불안에 대해 귀기울여 들어주고 이해해 주는 친척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은 도움과 위안이 됩니다. 우리는 흔히 그런 사람들이 두려움에 대한 유사한 경험을 가졌음을 알게 되며 게다가 그들의 현명한 조언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인생은 결코 순조롭지 않으며 때때로 우리는 힘없는 무릎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고 돕는 것이 우리에게 필수적인 일입니다.

우리는 힘없는 무릎을 가진 친구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강건케 하고자 할 때 우리 자신의 무릎의 상태를 잘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언어와 행동에 있어 우리는 자신과 동료들 약화시킬 수 있는 힘없는 무릎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무릎을 힘있게 만들 수 있는 미묘하게 나타나는 경향과 유혹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중의 어떤 것도 그것 자체로는 배도의 원인이 되지는 않지만 계속되다 보면 우리의 무릎은 인생의 실체와 두려움에 직면하는 데 필요한 힘을 잃게 될 것입니다.

교리와 성약 11편 22절에는 “인간의 자녀에게 이미 전파된 나의 말을 연구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도 우리는 개인적으로 복음의 교리를 수정하여 변경시키도록 권고받지는 않았습니다. 우리의 시야는 제한되어 있으며 우리의 개인적인 힘은 주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이해하고 따르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중 어떤 사람들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다 필요 이상으로 자신의 생각을 덧붙여서 주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나의 글과 조언, 또는 관찰들이 신앙을 키워주며 간증을 강화해 주는가?”라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막아주는 질문을 통해 잘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의 교리에 동의하지 않고 물의를 일으킬만한 원인이 되는 것에 대해 얘기하는 것은 종종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활에 혼돈을 주며 잘못 인도받게 할 수 있습니다. 힘없는 무릎은 개인적인 해석을 하는 사람들보다는 특정한 목표를 갖고 인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강화됩니다.

오늘날 어떤 이들은 안식일을 그릇되게 준수함으로써 비롯되는 영적인 힘을 잃고 있습니다. 그들은 “일요일은 직장을 쉬는 날이야.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겠어. 모임에 참석하는 것과 가족 및 이웃과의 의미있는 관계를 위해 계획된 날을 지키지 않고도 예배는 드릴 수 있어.”라고 말합니다.

때때로 안식일의 자유와 축복은

이기적인 태도와 영적인 힘을 주는 안식일 활동에 참여하지 않으려 하는 태도에 의해서 잃게 될 수 있습니다. 안식일은 한 순간에 한 시간을 잃을 수 있습니다. 또 한 순간에 완전히 잃을 수도 있습니다.

논쟁과 다툼은 힘없는 무릎을 만드는 또 다른 습성입니다. 사탄이 우리가 논쟁과 다툼과 분쟁을 일으키는 데 시간을 쏟도록 하는 것에 성공한다면 그는 더욱 쉽게 우리의 영생을 막을 수 있는 더 무거운 죄에 우리를 속박시켜 버릴 것입니다. 분노는 극기와 자비로운 봉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최근에 우리 모두는 자신의 세상적인 목표에 도달기 위해서 성실과 정직의 중요한 원리를 거부함으로써 완전히 타락해버리는 지점까지 자신을 약화시켜가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자신이 올라서기 위해 다른 사람을 밀어내는 사람들은 결코 영속적이고 훌륭한 개인적 고지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작은 거짓말이 곧 치료할 수 없는 커다란 거짓말로 변함을 알게 되는 것은 놀랄만한 일이 아닙니다.

실업계, 종교계, 정계에서 일어나는 끝없는 추문들에도 불구하고 정직과 성실은 여전히 무릎을 강건케 해주는 요소입니다.

일리노이주 동부 세인트 루이스 고등학교의 어떤 코치는 한 그룹의 학생들을 경기에 참가시켜 우승으로 이끌었습니다. 세인트 루이스의 한 스포츠 잡지 편집자는 “이것은 할리우드가 믿지 못할 이야기이다. 우수한 학생들은 생존을 위해 고투해야 하는, 미국에서 가장 살기 힘든 지역에서 자라났다. 그들에게 돈도 없었고 충분한 시설도 없었다. 단지 자신감과 열심히 노력하는 것만이 최선의 길이라 믿고 가르치는 코치가 있었을 뿐이다.”라고 썼습니다.

그 코치는 선수들에게 “인생은 늘 공평하지만은 않지만 그래도 우리는 최선을 다 해야만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모든 선수들, 가장 잘하는 선수들에게까지도 열심히 연습해야 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우승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지난 번에 영국으로 여행할때 저는 그 선교부의 많은 선교사들과 가깝게 지내왔던 한 십팔 세된 청년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며칠 동안 있으면서 선교사들에게 말씀하기 전에 그 소년에게 선교사들이 성공하기 위해 지녀야 할 가장 중요한 특성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그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선교사들은 일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어떻게 일해야 하는지를 전혀 모르면서 선교사로 출발합니다.”오랜 세월을 걸친 저의 경험으로 보던데 힘없는 무릎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전념하거나 일하는 것의 산물로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18세 청년이 관찰한 것처럼 우리는 일을 시작함으로써 다른 사람과 우리 자신의 힘없는 무릎을 강건케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노력하거나 일하지 않고 즉각적인 힘, 즐거움, 인정, 안도, 해답, 변화, 성공, 지식, 재산 등을 얻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시 목표가 달성되지 않으면 실망하게 되고 무릎은 더욱 힘없게 될 것입니다. 일은 확고한 삶에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이의 모범이 되고 남을 판단치 말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다른 사람의 흠을 지적하고 우리 자신의 약점에 대해 계속 생각합니다. 계속되는 비평은 사람을 약화시키며 무릎을 약화시킵니다. 가족과 친구와 지도자들을 가까이 대하다 보면 그들의 인간적인 한계를 보게 됩니다.

제가 오래도록 좋아했던 한 옛날 우화를 들려 드리겠습니다.

일본의 어느 학자는 매일 저녁마다 공장에서 돌아오는 노동자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느날 밤에 그는 그들에게 다음 날 아름다운 것을 가져다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사람은 장미를 가져다 달라고 했고 다른 사람은 나뭇가지를, 그리고 세번째 사람은 백합을 요청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에 그 학자는

장미와 나뭇가지와 백합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주신 장미에 가시가 있군요.”라고 첫번째 사람이 말하였습니다. 두번째 사람은 “제게 주신 나뭇가지에는 죽은 이파리가 하나 있어요.”라고 불평하였습니다. 세번째 사람은 “제가 받은 백합에는 흠이 묻어 있어요.”라고 소리쳤습니다.

그 학자는 나눠준 선물을 모두 빼앗고서는 “아름다운 장미에서 볼 수 있는 것이 겨우 가시 뿐이고, 훌륭한 푸른 가지에서 볼 수 있는 것이 겨우 죽은 이파리이며, 고귀한 백합에서 볼 수 있는 것이 겨우 묻어 있는 흠뿐이란 말이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각자의 특성에 가시가 하나 있을 수도 있고 각자의 명성에 죽은 이파리가 하나 붙어 있을 수도 있으며 각자의 과거에 흠이 조금 묻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과거의 잘못에 집착한다면 마침내 우리의 무릎은 약해지며 우리는 두려워지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과 실수를 지적할 때 우리는 결코 다른 사람들의 치진 팔을 높이 들며 힘없는 무릎을 강건케 해 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윌리엄 제임스는 “혁명하다는 것은 무엇을 그냥 지나쳐야 하는가를 아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친근한 인용문, 존 바렛 핀, 보스턴 : 리틀 브라운, 1980년, 649쪽)

요셉 스미스는 “저는 그들에게 제가 단지 인간에 불과하며 제게서 완전함을 기대해서는 안된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만일 그들이 제게서 완전함을 기대한다면 저도 그들에게서 완전함을 기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저의 결점과 형제들의 결점을 너그럽게 보아 넘긴다면 저도 마찬가지로 그들의 결점을 너그럽게 대할 것입니다.” (교회 정사, 5 : 181)라고 말했습니다.

“매를 아끼면 아이를 망친다.”는 속담이 받아들여진 이래 사람들의 태도는 많이 변했습니다. 직장에서나 가정에서 우리는 사람들이 좋은 일을 하는 것을 알면 솔직하게 칭찬해주도록 권고받고



대회 모임에서 나가는 밴슨 대관장이 회중을 향해 손을 흔들어 인사하심.

있습니다.

사람들의 좋은 특성을 지적해 줌으로써 강화시켜주며 지나치게 비평함으로써 약화시키고 두려워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다른 이의 잘못을 기억하고 질책하기 보다는 잊어버리고 감싸주는 것이 옳은 일이라는 데 동의합니다.

경전에서서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훼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에베소서 4 : 31~32)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신성치 못한 손이 주님의 사업이 진보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핍박은 격노로 변하며 폭도는 규합하고 군대는 집합하며 증상은 명예를 손상시킬 것이지만 하나님의 진리는 모든 나라에 전파될 때까지 대담하게 고결하게 독립적으로 진행될 것이며 주님의 목적이 성취될 때까지 모든 지방과 나라와 귀있는 모든 이에게 전파되어 마침내 위대하신 여호와께서는 모두 이루어졌다 라고 선포하실 것입니다.”

(교회 정사, 4 : 540)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예언자의 이와 같은 선포가 어떤 사람의 무릎을 힘없는 상태로 놔두겠습니까?

매일 우리의 태도와 모범을 향상시킴으로써 우리 자신과 우리 주변 사람들의 힘없는 무릎을 강건케 해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기쁨과 자비

앨런 에이치 옥스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기쁨은 최고로 행복한 느낌입니다. 그것은 완전케 되며 우리의 창조주와 그분의 영원한 율법과 조화를 이루는 데서 얻게 됩니다."



하 나님의 모든 계시 가운데 가장 위대한 것 중 하나는 아버지 리하이의 가르침인 "인간이 존재함은 기쁨을 갖기 위함이니라"

(니파이서 2 : 25)입니다. 기쁨은 행복 이상의 것입니다. 기쁨은 최고로 행복한 느낌입니다. 그것은 완전케 되며 우리의 창조주와 그분의 영원한 율법과 조화를 이루는 데에서 오게 됩니다.

기쁨의 반대말은 비참함입니다. 비참함은 불행이나 슬픔, 또는 괴로움 이상의 것입니다. 비참함은 하나님과 그분의 율법에 일치하지 않는 데에서 오는 궁극적인 상태입니다.

기쁨과 비참함은 그 크기를 필멸의 육신으로는 경험할 수 없을 만큼 영원히 지속되는 느낌입니다. 우리는 이 필멸의 생애에서 그와 비슷한 감정들을 경험하는데 그것들은 행복이나 쾌락, 그리고 불행이나 고통이라고 불립니다.

이 두 가지의 상반되는 느낌 한 가운데에 고난이 존재합니다. 어떠한 고난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죄로부터 오지만 많은 것이 단지 사고로 다치는 경우처럼 필멸의 상태에 있을 동안 오는 불가피한 것들입니다.

두 해 전에 이 두 가지 극단적인 느낌이 교차한 실례가 있었습니다. 야의 활동의 하나로 일단의 말일성도 소년단이 여기서 멀지 않은 산에 있는 한 폐광에 들어갔습니다. 어찌다 어린 조슈아 데니스는 일행에서 이탈되어 광산에서 길을 잃게 되었습니다. 가치있는 것을 잃어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끔찍한 느낌을 기억할 것입니다. 고통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될 때 가장 심각합니다. 조슈아의 가족과 친구들은 조슈아를 영영 잃게 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수색대가 조직되었습니다. 여러 날 동안 훌륭한 많은 사람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그 잃어버린 아이를 찾아나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슈아를 잃은 고통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다가 기적적으로 그를 찾았습니다. 기도는 응답되었고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심은 잃었던 아이와 재결합된 가족과 친구들의 기쁨에서 명백히 나타났습니다. 잃어버림의 고통은 넘쳐흐르는 재결합의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조슈아 데니스: 신앙의 보물", 성도의 빛, 1991년 8월호, 62쪽 참조)

우리가 잃게 될까봐 두려워했던 소중한 것을 다시 찾게 되는 것보다 더 잘 지상에서의 기쁨을 설명할 수 있는

경험은 없습니다. 경전에서 이러한 경험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의 비유에서 그 목자는 "잃은 양을 찾았노라"(누가복음 15 : 6)며 친구들을 불러 함께 즐기자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회개한 죄인으로 인하여 하늘에서 기뻐할 것"(누가복음 15 : 7)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비유에서는 어떤 아버지가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누가복음 15 : 32)하면서 탕자가 돌아온 것을 기뻐하였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우리의 영원한 여행 길을 상징합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면전에서 떨어져 나왔습니다. 우리는 어느 길로 가야할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에게서 갈라져 나가 영원히 버림받게 된 사탄은 우리 역시 영원히 갈라져 버리는 것을 보고 싶어합니다. 아버지 리하이는 사탄의 목적이 인간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제가 하늘에서 타락하여 영원토록 비참한 지경에 이른지라. 온 인류를 비참하게 하려 하였음이라."(니파이서 2 : 18, 27 참조) 사탄의 유혹에 굴복한 자들은 그와 똑같이 비참한 운명에 놓이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면전에서 쫓겨나 "비참하며 끝없는 고난의 처소"(모사이아서 3 : 25, 니파이서 2 : 5 참조)에 놓이게 됩니다. 주님께서 사악한 자들에 대하여 말씀하신 바대로 "비참, 이것이 저들의 운명"(모세서 7 : 37)이 되게 됩니다.

사탄이 조장하는 많은 비참함들은 무언가를 잃게 됨으로써 옵니다. 사탄은 그의 첫째 지체를 잃었을 때 그런 비참함을 경험하였습니다. 이제 그는 둘째 지체인 필멸의 육신의 상태로 나아온 자들에게 비슷한 손실을 입히려고 합니다. 사탄은 유덕함과 고결함과 훌륭한 평판과 이상과 건전한 교제와 심지어는 생명까지도 잃도록 조장합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저항하여 그러한 손실을 극복하도록 또 완전하게 되고 기쁨을 누리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께로 돌아가기를

원하시며, 그런 재결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복음을 “이는 하늘에서 들리는 자비의 소리요...산자와 죽은 자를 위한 즐거움의 소리요, 큰 기쁨의 즐거운 소식이라”(교성 28 : 19)고 말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의 창조주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복하길 원하십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행복은 우리 존재의 목적”(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249쪽)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이 지상의 것들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는 현대의 계시를 통하여 “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인간의 유익을 위하여 인간이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이요. 눈을 기쁘게 하며 마음을 즐겁게 하느니라”(교성 59 : 18)고 알고

있습니다. 예배의 날인 안식일에 있어서도 주님은 우리가 “즐거운 마음과 유쾌한 얼굴”(교성 59 : 15)을 하기를 바라십니다. 한 예언자는 복음 계획을 “위대한 행복의 계획”(앨마서 42 : 8)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행복이나 기쁨을 어떻게 추구합니까? 베냐민 왕은 그의 백성을 불러모으고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자들이 축복을 받은 행복한 상태를 마음에 기억하라. 보라, 이들은 세상의 일이나 영적인 일이나 범사에 축복을 받으며 이들이 끝까지 충실할진대 하늘에 영접되어, 하나님과 더불어 행복이 그치지 아니하는 곳에 거하리다”(모사이아서 2 : 41)

아버지 리하이는 아담과 이브가 우리가 일컫는 바, 타락이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면 그들은 최초의 무지의 상태에 끝없이 머물게 되어 “비참함을 알지 못함에 기쁨이 없고, 죄를 알지 못함에 선을 또한 행하지 못하였을 것”(니파이아서 2 : 23)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우리의 시조는 이 원리를 알았습니다. 성신이 그들에게 임하여 아버지와 아들을 증거하였을 때 아담은 주님의 이름을 축복하였고 “내 범법으로 말미암아 눈이 열렸고, 이 생에서 기쁨을 누리리라.”(모세서 5 : 10)고



본부 청녀 회장단 : 아데스 지 캠프 회장(중앙), 제인 비 앨런 자매, 제1보좌(좌), 제니트 시 헤일즈 자매, 제2보좌.

선언하였습니다. 이브는 영감받은 통찰력으로 인생의 목적과 기쁨의 근원을 설명하였습니다.

“우리의 범법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결코 후손을 갖지 못하였을 것이요, 선악이나 우리의 구속의 기쁨,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모두에게 주시는 영생을 알지 못하였으리라.”(모세서 5 : 11)

이 생에서의 행복이나 기쁨을 생각해 볼 때 저는 단순하고 기본적인 몇 가지 경험들로부터 시작합니다. 저는 첫 걸음마를 하는 한 살된 아이의 얼굴에 나타난 표정을 봅니다. 두 살된 어떤 아이가 부드러운 아이스크림에 심취해 있는 것이 기억납니다. 한 어린 아이가 강아지나 고양이 새끼를 다정스럽게 쓰다듬어 주고 있는 것을 생각합니다.

나이든 사람들도 신체적으로나 영적으로 감수성을 과도하게 사용하거나 또는 전혀 사용하지 않아서 그것이 무더진 것이 아니라면 그들 역시 단순하고 기본적인 것, 즉 꽃이나 다른 성장하는 것들에서, 해돋이 때나 저녁 노을에서, 또는 다른 자연의 아름다움에서, 건전한 교제에서 기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상에서의 행복과 기쁨의 또 다른 원천은 합당한 목표들, 즉 신체적 운동과 같은 단순한 것, 혹은 매우 힘든 일을

완수하는 것과 같은 좀더 복잡한 목표들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표들은 영원한 중요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이 생에서 기쁨을 가져다주며 오는 세상에서 영원한 기쁨을 약속해 줍니다. 몇 주일 전, 저와 렉스 디 피네가 장로가 앨버타 카드스톤에 있는 아름답게 수리된 성전을 방문했을 때 이러한 실례를 보았습니다. 어떤 아름다운 젊은 자매가 웨딩 드레스를 입고 신부 대기실에서 있었습니다. 그 자매는 의로운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곳에 서있게 된 것입니다. 그 자매의 눈빛과 얼굴 표정은 기쁨을 온전히 구현한 그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나, 또는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는 충분한 기쁨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교성 101 : 36 참조)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우리의 기쁨은 충분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천사가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누가복음 2 : 10~11)고 선언한 이유입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해의 영광의 부활을 함으로써 영과 육이 떨어질 수 없게 결합할 때만 충분한 기쁨을 가질 수 있습니다.(교성 93 : 33, 75 : 50~70)

참조) 그 기쁨은 거룩하신 메시아의 자비를 통해서만 오게 되는데 그의 부활은 사망의 굴레를 끊으셨으며 그의 속죄는 우리의 죄를 정결케하여 하나님의 면전으로 나아가 아버지의 찬만하심을 받도록 함으로써 한량없는 자비를 우리에게 허가해 주시다.

우리는 기쁘게 “거룩하신 메시아의 공덕과 자비와 은혜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육신으로 하나님 면전에 거할 수 없음”(니파이서 2:8)을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궁극적이고 영원한 기쁨의 유일한 원천인데 이 기쁨은 모든 손실을 회복시켜주고, 모든 눈물을 마르게 하며, 모든 고통을 없애줍니다. 영원한 기쁨은 모든 고난을 초월합니다.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그 기쁨은 부활과 죄사유함을 통하여 생깁니다.

엘마는 그의 젊은 시절을 회고하면서 그의 죄가 어떻게 그로 하여금 “지옥의 고통을 맛보게”(엘마서 36:13) 하였는지 말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저주받은 영으로의 온갖 고난을 다 당하였다”(엘마서 36:16)고 말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세상의 죄를 속죄하실 구세주에 대한 부친의 가르침을 기억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엘마서 36:18)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의 인생에 용서가 남는 기적이 일어났으며 죄의 쓰디쓴 고통은 구속의 감미로운 기쁨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의 이야기 중에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놀라운 기쁨과 빛을 보았나니, 내 영혼은 전에 고통으로 가득찼던 것처럼 이번엔 기쁨으로 가득차게 되었느니라.”(엘마서 36:20)

엘마는 죄에서 비롯되는 고통과 비참함은 오로지 회개를 통해서만 없어질 수 있다는 영원한 진리를 배웠습니다. 육체적 고통은 사망과 더불어 끝이 납니다. 영적인 고통이나 비참함은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한 영원히 지속됩니다.

물론 경은 죄사함을 받아 “기쁨으로 찬만해지고 양심에 평안을” 얻은 어떤 백성 전체에 대해 말해주고 있습니다.(모사이야서 4:3) 베냐민 왕은

그들에게 “너희 영육을 그토록 기쁘게 하는 죄사함을 얻었”(모사이야서 4:11) 다고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죄사함에 수반되는 기쁨은 주님의 영으로부터 옵니다.(모사이야서 4:3, 20) 그것은 “내가 나의 영을 네게 나누어 주려니와...네 영육을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리라.”(교성 11:13)고 하신 주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사도 바울의 가르침대로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화락과 화평”(갈라디아서 5:22)입니다. 그것은 빈부를 막론하고 유명하든 평범하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방법으로 옵니다. 속죄를 통한 위대한 자비의 은사를 내려주심에 있어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십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사탄의 유혹에 굴복한 자들은 경전에서 언급한 것처럼 “잠시 최악의 낙을 누릴”(히브리서 11:25)지 모르나 그런 류의 쾌락은 결코 지속적인 행복과 영원한 기쁨으로 인도될 수 없습니다. 사탄의 영과 영향력은 혼돈과 분쟁과 어두움과 무질서와 노여움과 증오와 비참한 느낌들을 가져다 줍니다.

사탄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사탄이 갖고 있는 비참함을 얻게 됩니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거짓의 아비와 함께 하며 그와 더불어 비참한 지경에 빠지게”(니파이서 9:9)될 것입니다. 엘마가 그의 불순종한 아들에게 말한 것처럼 “죄란 결코 행복한 것이 아닌 것”(엘마서 41:10)입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경험과 대부분의 뉴스 방송 및 신문은 우리에게 이 지상에서 겪는 불행과 고통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 중 어떤 것은 죄의 결과로 일어납니다. 교회 본부로 오는 수많은 편지를 보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의 원천이 되어야 할 가족 관계 내에서 종종 서로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진리의 길에서 빛나갈 때 부모들이 겪는 고통을 보아 왔습니다. 우리는 주부가 마치 나방이 불속으로 뛰어들듯이 가족을 버리고 금지된 길로 쾌락을 좇기 위해 떠나버릴 때 야기되는 고통을 보아왔습니다. 더 많은 경우에 우리는 남편이 아내와 자녀를 버리고

자멸적으로 쾌락을 추구할 때 오는 고통을 보아왔습니다.

또 다른 불행은 권력과 부를 갈망하는 데에서 야기됩니다. 저는 몇 주일 전에 몇몇 총관리 역원들과 함께 최근에 전복된 잠재자에 의해 수십년간 통치되어 온 어떤 나라를 방문했습니다. 우리는 백성들의 돈으로 자신의 욕망을 채워온 통치자들이 만들어낸 상황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궁전은 실내에 배관 시설도 하지 않고 지어진 노동자들의 아파트와는 대조적으로 부끄럽게 서 있었습니다. 도처에서 우리는 공공 서어비스 시설을 등한시한 비참한 결과를 보았습니다. 잠언에서 말하듯 진실로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게”(잠언 29:2) 됩니다.

사악함의 결과는 멀리까지 미칩니다. 그것은 몇 세대를 통하여 계속됩니다. 신체적으로 성적으로 정서적으로 학대받은 가없는 희생자는 사탄의 책략에 더 쉽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들은 더 쉽게 이러한 추한 죄를 가족 사이에서 계속하여 지을 수 있습니다. 전염도가 높은 신체적인 병처럼 욕망과 욕심과 부패와 같은 영적인 질병은 그 악한 영향을 퍼뜨리며 사탄은 잇달은 세대마다 그것들이 야기한 불행과 고통을 보고 기뻐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죄란 결코 행복한 것이 아니며 죄는 비참함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젊은이 여러분, 젊은 번지르르하지만 아무 의미없는 세상적인 것에서 행복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릇된 것에서 영속적인 행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결코 자신이 필요로 하지 않는 것에서 충분한 것을 취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불필요한 그것은 결코 우리를 만족시켜줄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청장년 여러분, 대중 매체에 실린 기만적인 메시지에서부터 눈과 마음을 돌리십시오. 술과 마약에서는 행복을 찾을 수 없고 다만 그것의 노예가 될 뿐입니다. 폭력에는 행복이 없으며 단지

고통과 슬픔만 있을 뿐입니다. 결혼 관계 이외의 성관계와 신체적 접촉에서 행복이란 없으며 단지 타락과 영적인 사망의 길로 점점 더 줄달음치는 일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소유한 것들에서는 영속적인 행복이 없습니다. 행복과 기쁨은 인간 됨됨이에서 오는 것이지, 재산이나 겉치레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의 표준에 따라 생활하십시오. 소책자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를 공부하고 이용하십시오.

의로움은 의로움을 낳습니다. 의로운 모범의 효과는 다음에 오는 세대가 느끼게 됩니다. 부모 노릇을 훌륭히 하면 그 자녀도 훗날 훌륭한 부모가 됩니다. 개척 시대의 조상들이 여러 곳에서 보여준 고귀한 모범 때문에 우리들이 힘을 얻었듯이 우리가 지금 하는 희생과 의로운 선택은 장차 우리 가족과 친구와 국가에게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처치 뉴스*와 교회 잡지가 행해온 업적에 감사드립니다. 그것들은 우리 모두를 강화시켜 주는 가치있고 유익한 기사를 전해 줍니다. 우리는 대중 매체가 부정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춘 것을 보면서 슬퍼하게 됩니다. 본보기는 막강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허물어 버리기 위해서가 아니고 쌓아올리기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충실하고 계명을 꾸준히 지키는 자가 갖는 영속적인 행복과 최상의 기쁨에 대해 여러분께 간증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의로운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에서 얻게 되는 기쁨을 추구하도록 여러분에게 촉구합니다.

저는 충실한 자는 “주의 기쁨에 참여하여 영생을 상속받으리라”(교서 51:19)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진실함을 간증드립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복과 자비의 위대한 계획을 세우신 분들의 임을 간증드립니다. 저는 우리가 이 생에서 행복과 화평을 얻고 오는 세상에서 기쁨과 영생을 얻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행하기를 간구합니다. 아멘. *

“사랑은 오래 참고”

에일린 에이치 클라이드 자매
본부 상호 부조회 회장단 제2보좌

“우리의 목표는 성경의 인도로써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아들여 그분이 사물을 보는 방식과 행동하는 방식으로 우리 자신을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험 이야기 및 경전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지금 그것을 상기해보면 어머니께서 경전의 이야기를 선별해서 읽어주셨음을 알게 됩니다. 어머니는 우리가 어린 아이로서 이해할 수 있는 수준과 내용을 선별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물가의 여인과 같은 비유나 추상적인 것까지도 함께 읽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는 다음 성구를 읽어주셨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치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고린도전서 13:4, 7~8; 모로나이서 7:45~46 참조)

하워드씨는 자주 그랬듯이 어머니께서 읽는 도중에 “사랑이 무엇이지?”라고 물었습니다. 제 동생은 우리가 방금 들었던 것의 의미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저도 계속 그것이 뜻하는 바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읽어나가기만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동생이 궁금해하는 것에 대해 기뻐하시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때, 그리고 후에도 어머니는 만일 우리가 진정으로 무엇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면 좋은 질문을 던지는 것은 중요하며 때로는 그 질문에 대해 만족할 만큼 훌륭한 답을 얻는 데에는 평생이 걸릴 수도 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어머니는 신약을 내려 놓고

제가 유년기에 받았던 큰 축복 중 하나는 어머니께서 저와 제 남동생인 하워드에게 책을 읽어주는 데 많은 시간을 들이셨다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좋은 책의 중요성을 잘 알고 계셨으며 우리를 가르치고 즐겁게 해주기 위해 그것들을 이용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어린 우리가 제한된 생활에서 매일 겪는 경험의 범주를 뛰어넘도록 해주었습니다. 책임기는 제가 뛰어들 나이였던 유아원 때와 하워드가 심한 신체 장애를 갖고 태어나 걸어도 할 수 없어서 특별한 보살핌을 받아야 했던 때에 시작되었습니다. 저도 또한 특별한 배려를 받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 책들은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있었으며 우리가 자람에 따라 그 수준도 높아졌습니다. 저는 동요, 시, 러시아 민화



물론경을 읽으셨습니다.

“사랑은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이라. 누구든지 마지막 날에 사랑을 지닌 것으로 인정받는 자에게 모든 것이 잘 되리다.”(모로나아서 7:47) 이 한 구절에는 심오하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유익한 정의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날 제가 들은 것은 분명히 어린 제 이해력의 범주를 넘어선 것이었지만 거기엔 사랑의 영이 있었으며 어린 시절의 다른 세부적인 사건들만큼이나 실감나게 느껴졌습니다.

경전은 우리에게 사랑에 대하여 새로운 방법으로 생각해보도록 가르쳐준 질문을 한 사람들의 예를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 그리스도는 그분을 곤경에 빠뜨리려는 바리새인에게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크니까란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마태복음 22:37, 39)고 대답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질문을 던진 율법사가 더 많이 알기를 원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아마 자신의 사랑을 헛되이 쓰지 않을까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 이웃이 누구오니이까?”(누가복음 10:29)라고 물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담으로 주셨습니다. 그 사마리아인은 다른 사람들이 눈을 가지고도 보려하지 않고

지나친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아무도 하려들지 않았던 것이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하였으며 그로 말미암아 자신을 존귀하게 하였으며 우리들 모두가 그를 존경하도록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는 사마리아인을 우리 이웃으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에게 봉사해야 하는지를 물어보려고 하지는 않았지만 저는 가끔 우리가 정말 그것을 알고 있는지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에게 진실한 사랑의 본모습을 들기 위해 사마리아인을 택했다는 것이 제겐 흥미롭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것으로 알려진 사람들이었으므로 이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최소한 그들 중 몇몇은 새로운 방법과 새로운 정신으로 자유롭게 볼 수 있게 되었으며 그리스도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이웃을 사랑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로써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아들여 그분이 사물을 보는 방식과 행동하는 방식으로 우리 자신을 이끌어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사랑을 이해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경전에서 그것이 쉬우리라고 말해 준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사랑은 오래 참고”란 구절에는 우리의 사려깊은 해석이 필요합니다. 사랑에서 비롯된 “참음”은 우리의 지대한 배려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참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그토록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종류의 참음을 피하려면 우리는 우리에게 생명과 소망과 기쁨, 그리고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가능성을 주는 것들을 피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거나, 그들이 힘들게 고난을 이겨내려 하는 것을 보거나, 잘못 인도될 때 또는 그들이 우리를 오해하거나 배신할 때와 같이 참아내기 힘든 때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함으로써 그것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칭례받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써 다른 사람의 짐을 나누어 지며 슬퍼하는 사람과 함께 슬퍼할 것을 약속했습니다.(모사이사서 18:8~9 참조) 우리가 우리를 필요로 하는 다른 사람들을 돕고 사랑할 때 그리스도의 영과 권세가 우리를 위로해 줄 것입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쉽게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것을 쉽게 오해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가할 수 있는 어떤 식의 박해나 불의한 행위를 참는 것은 사랑이나 친절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듯 우리 자신을 존중해야 한다는 계명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무례함을 받아들여서는 안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우리의 신성한 본질과 자유의지를 부정하도록 방지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절망과 무력함에 굴복하는 것도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한 부류의 참음은 반드시 종결되어야 하며 혼자서 그것을 종결시키리라 어렵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알고 도움을 주며 그들을 강화시켜줄 신권 지도자와 사랑하는 또 다른 역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도 우리를 돕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 깊이 이해할 때 받게 되는 영향은 개인이 자신을 훌륭하게 여기게 되며 또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도록 동기를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남아프리카의 소웨토에 사는 교회 회원인 줄리아 마빔벨라 자매는 자신의 개종으로 인해 그녀가 어떻게 고달픈 환경을 극복하고 주변 사람들을 돕도록 신앙과 힘을 얻게 되었는지 이야기합니다. 그 자매는 이웃 사람들이 기아에서 벗어나도록 채소 밭 가꾸기를 가르쳤으며 분쟁으로 파괴된 나라를

치유하기 위해 평화를 위한 여성 모임을 조직했습니다. 1970년대 후반의 태국에서는 스리락사나 자매가 일주일에 5일간을 경전 번역자로 일했으며 매 주말마다 자신의 경비로, 갖조직원 상호부조회를 방문하기 위해 전국을 여행하였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러한 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봉사하기 위해 영감을 받은 대로 최선을 다해 봉사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다했으며 모범으로써 우리도 그같이 하도록 권유합니다.

사랑이 가득 담긴 자선 봉사는 상호부조회 조직의 중심이 되는 사명입니다. 현재 상호부조회의 회원은 전세계적으로 300만명이 되며 우리는 서로 각기 다른 배경에서도 자매애로 단합됨을 기뻐합니다. 우리는 내년에 150주년을 맞이하는 이 조직이 많은 훌륭한 일들을 이루어냈음을 압니다. 또 우리는 혼자라면 불가능했을 많은 일들을 함께 함으로써 이룩해낼 수 있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조직으로서 우리의 주요 초점은 각 여성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지식을 키우며 남에게 의롭게 봉사함으로써 자신의 복음 지식을 반영시키도록 축복해주는 것입니다.

작년 10월 연차 대회에서 글렌 엘 페이스 감독은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속한 지역 사회에서 아픔과 외로움과 부당함을 줄이기 위해 우리가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주변을 살펴보도록 권고하였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만일 그렇게 한다면 우리 마음에 동정심이 깃들게 될 것이며 성신을 통해 우리 영혼이 정화되고 우리는 더욱 구세주를 닮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도의 빛, 1991년 1월호, 8쪽 참조)

저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으로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게 되며 또 성신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의 의미를 알게 되어 그것을 우리가 생활하는 가운데 실천할 수 있기를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 아멘. *

기도의 양면성

프랜시스 엠 기번즈 장로
철심인 정원희

“하나님께서서는 지상에 있는 그분의 자녀들과 그분이 교통할 수 있으나 우리의 공동의 적인 사탄은 침범할 수 없는 의사 소통의 경로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형 제 자매 여러분, 저는 제 인생에서 한 문이 닫히고 또 다른 한 문이 열리는 이때, 요셉 스미스 만을 제외한 회복된 교회의 모든 예언자들이 말씀하시고 간증하신 이 역사적인 건물의 단상에 서서 이 오후에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음을 감사하게 여깁니다. 저는 지금 제가 짝막한 말씀을 전할 때 성신이 저와 함께 하여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토대는 기도로 말미암아 굳건히 확립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복음 회복의 문을 연 것은 요셉 스미스의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야고보서 1장에 있는 기본이 되는 성구, 즉 요셉 스미스로 하여금 숲으로 가 기도하도록 결심하게 한 그 성구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의 기도에 응답하실 필요 조건이 분명하게

나와있습니다. 거기에 적힌 바로는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야 하며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동요하는 바다 물결 같”다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1:6) 경전에서는 그런 다음에 이러한 말씀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곧 의심하는 자는,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야고보서 1:7)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로 가는 보물 창고의 자물쇠를 여는 열쇠가 담긴 이 기본적인 성구 외에도 기도의 원리와 기도를 우리 생활에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 더 깊이 설명해주는 다른 성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엘머서 34장 2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소리내어 주께 외치지 않을 때는 너희 복리와 너희 이웃의 복리를 위해 끊임없이 주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라.” 따라서, 우리가 실제로 기도하지 않을 때에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혹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항상 마음속에 기도를 품고 있어야 합니다.

권고를 넘어서 계명의 범위에 드는 기도에 대한 또 다른 중요한 성구는 교리와 성약 19편 28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내가 네게 명하노니 소리를 내어 기도하고 마음속으로도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도 하고 세상 사람 앞에서도 하며 회중 앞에서도 하고 홀로도 기도하라.”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본부 초동협의회 회장단 : 미셸린 피 그레슬리 회장(중앙), 베티 조 겐슨 자매, 제1보좌(좌), 루스 비 라이트 자매, 제2보좌.

소리내어 기도하는 것과 은밀한 중에 기도하는 것을 다 계명으로 정해 주셨을까?"라고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소리내어 기도하기가 곤란하거나 실행이 불가능한 많은 경우에 은밀한 기도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하거나 누구를 만나는 상황에 처해 있는 순간에 위안이나 인도가 필요하다면, 종종 은밀한 기도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일 것입니다.

그러나 은밀한 기도에 대한 더 중요한 이유는 교리와 성약 6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네 생각과 마음의 의도를 아시는 이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음을 너로 알게 하려 하노라."(16절)

다른 성구들에는 이러한 개념이 확대되어 하나님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신 자들까지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능란한 변호사였던 지에즈롬은 엘마와 앰올레크에게서 가르침을 받고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들이 저의 생각과 계락을 미리 알고 있음을 알게 된 때문이더라. 엘마와 앰올레크는 예언의 능력으로 미리 이와 같은 것을 알 수

있었느니라."(엘마서 12:7)

그렇다면 하나님의 면전에서 쫓겨나 그분의 영의 영향력을 받을 수 없게 된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은 예언과 계시의 영에 의해서 우리 마음 속의 생각과 의도를 알 수도 있을 사람들에게서는 제외된다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지혜와 자비로 지상에 있는 그분의 자녀들과 그분이 교통할 수는 있으나 우리의 공동의 적인 사탄은 침범할 수 없는 의사 소통의 경로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은밀한 기도의 경로입니다. 이러한 수단에 의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은밀히 교통할 수 있으며 악마가 침입할 수 없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이것의 중요성은 말일성도에게 있어서 의미가 깊은 것입니다.

몇년 전, 한 아름다운 자매를 사랑하던 젊은이가 제게 조언을 구해 왔습니다. 그는 그 자매와 결혼하는 것이 마음에 내키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그 자매의 부모가 배도의 길에 빠져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그 자매의 어머니가 그에게 교회가 거짓된 것임을 안다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아느냐고 그가 묻자, 그분은 말하기를, 전에 어떤 목소리가 자기에게 근처에 있는 서점으로 들어가도록 속삭였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그대로 했고 거기서 물문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서적을 발견하여 읽음으로써 교회가 올바르지 않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만일 그 자매가 복음을 이해하고 있었다면, 교리와 성약 9편에 묘사된 방법으로 자신의 경험과 관련하여 그 결론이 옳은 지를 계시해 주시도록 하나님께 은밀한 기도를 드렸어야 합니다.

데이비드 휘트머는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가 하면, 사람의 계시도 있고, 악마의 계시도 있다"고 가르쳤다고 말했습니다.(비 에이지 로버트, *교회정사*, 1:163~66) 그러나 사탄은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품게 할 수는 있지만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말과 행동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사탄은 그러한 것이 우리 내부에 자리를 잡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데 있어 지혜로워야 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우리는 또한 영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된 귀중한 것들을 지키는 방법에 있어서도 슬기로워야 합니다. 예를 들면, 허버 제이 그랜트 대관장님이 젊은 시절에 톨레 스테이크를 감리하던 때 존 로우베리 축복사가 그에게 특별한 축복을 주었습니다. 잠시 후, 축복사가 그랜트 대관장에게, "저는 제가 감히 언급할 수 없는 어떤 것을 보았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나중에 그랜트 대관장님은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자신이 언젠가는 교회의 대관장이 될 것임을 알게 되었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는 이 계시를 결코 아무와도 의논하지 않았고, 기록하지도 않았으며, 단지 그것이 실현된 후에야 드러내 놓았습니다. 그는 얼마나 현명하였습니까? 왜냐하면, 그가 만일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알렸다면 그의 적인 사탄이 알았을 것이고, 사탄은 그 지식을 바탕으로 상상할 수도 없는 어려움들을 그에게 주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종종, 우리는 너무 많이 말합니다. 말할 필요가 없거나, 말해서는 안될 것까지도

우리는 말합니다. 그러한 것들을 말하는 가운데 우리는 아마 루시퍼가 그의 방법을 우리의 생활에 밀어 넣을 수 있게 하는 틈을 내어줄 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니파이서서 2장 27절에서 사탄이 “만민을 자기 처지처럼 비참하게 만들고자 함”을 압니다.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은 끈덕지게 우리를 그들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려고 애씁니다. 그들은 그들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떠한 간계나 술책이라도 사용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만일 그들이 그랜트 대관장에게 주어진 것 같은 계시를 알게 되거나, 우리의 언어나 행위로부터 우리들 사이의 원한이나 증오나 불화의 증거를 보게 된다면 그들은 아마 우리에게 해로운 방법으로 그러한 것들을 이용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사탄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해를 입히게 할 수도 있고 혹은 불화와 반목을 일으킬지도 모를 말과 행위들을 자제하는 것이 우리에게 지혜로운 일인 것입니다.

여러 해 동안 우리는 표면적으로 행복하고 아주 조화롭게 보이던 한 부부를 알았으며 그들을 칭찬하였습니다. 그들의 관계가 두 사람 사이의 끊임없는 말다툼과 험뜯음에서 비롯된 불화와 괴로움으로 채워져 있음을 알았을 때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하여 그 부부는 원래 그들을 결속시켜 주었던 사랑의 유대를 부식시켜버렸으며, 나아가서 서로의 자긍심을 파괴해버렸고 사탄이 들어오도록 문을 열어주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공동의 적인 사탄의 책략으로 끊임없이 방해받는 구세주의 권고를 따르는 것, 즉 친절과 사랑으로 말하고 우리의 가정을 세상의 혼란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한 지대로 만들라는 권고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방벽을 높이고 서로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적인 것을 강조하고 그것에 초점을 맞추며, 사탄이 우리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기회를 최소한 적게 하는 것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 이렇게 행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

“너희 자녀를 빛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라”

에이치 벌란 앤더슨 장로
철심인 정원희

“자녀를 올바르게 가르치는 것은 참으로 우리의 행복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서 가장 본질적인 부분 중 하나입니다.”



이번 연차 대회가 끝나면서 저와 제 아내는 서로 함께 나누었던 가장 보람있었고 즐거웠던 경험 중 하나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기회를 가질 수 있었던 것에 대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깊은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저희는 대부분의 시간을 라틴 아메리카에 있는, 저희가 깊이 사랑하게 된 훌륭한 사람들 사이에서 보냈는데 오늘 여러분께 그들의 조상에게 일어났던, 세계 역사상 가장 큰 사건 중 하나로 보여지는 기적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죄와 고통으로 만연된 그들의 사회를 완전한 의로움과 행복의 상태로 바꾸어 놓으신 기적입니다.

여러분도 아시아서피 구세주께서 미대륙을 방문하시기 전에 600년 동안 니파이인과 레이멘인들은 거의 끊임없이 서로 전쟁을 벌여 왔습니다. 평화와 번영의 때도 있었지만 그렇게 빈창하게 되면 그들은 교만하고 사악해져서 징벌을 받았으며 그 과정은 계속 되풀이 되었습니다.(힐라멘서 12:1~4 참조) 이러한 인간적인 어리석음을 보여주는 사건은 비교적 짧은 주기로 반복되었는데 매 5년 또는 10년마다 일어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구세주께서 미대륙을 방문하셨을 때 그분은 죄와 범죄와 전쟁이 없는 단합된 세상을 만드셨으며 이러한 상황은 여러 지역에서 약 300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물론경은 그 백성들의 상태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백성들의 마음에 깃들어 온 땅에 불화가 일지 아니하였고, “시기가 분쟁이나 폭동, 음행, 거짓말, 살인 등 온갖 음란한 것들을 범치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의 손으로 지어진 인간 중에서 이들보다 더 행복한 백성이 없었으니.”(니파이서서 1:15~16)

그런 세상에서 살기 위해 무엇인들 내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아시는 바와 같이 니파이 백성들은 결국 악한 길로 되돌아갔으며 멸망될 수 밖에 없을 정도로 교만해지고 사악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그토록 오랫동안

천국 백성처럼 살 수 있었을까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또 어떻게 인간들이
복천년 동안에 거의 천년 동안 의롭게
사는 것이 가능할 것인가?라고 질문해 볼
수도 있습니다. 두 질문에 대한 대답은
같은 것으로 보이며 저는 이것이 그
답이라고 믿습니다. 즉, 부모가 자녀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는 것, 특별히 그들이
유혹받지 않을 어린 시절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니파이인과 레이맨인의
어린이들에게 행하신 기적에서 이러한
증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분은 어린
아이들을 부모들로부터 따로 구별해서서
그들에게 우리들에게 가르쳤던 것보다 더
위대한 것을 가르쳤으며 그 다음에는 그
어린이들이 부모들에게 그 위대한 것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니파이삼서 26 :
14~16 참조) 이 사건은 우리가 그
사회의 기적적인 변화를 이해하도록
도와주지 않습니까?

주님이 어린 아이들의 특별한 영적인
능력을 드러내 보이신 후 그 부모들에게
주님의 모범을 좇게 하고 또 그들이
그렇게 했다고 추측해 보십시오. 제대로
가르침을 받은 그 어린 아이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 의롭게 생활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 부모들도 그들을
가르치는 과정에서 똑같이 겸손하고
의롭게 되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이 기적같은 역사적인
사건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복천년에 살게 될 부모에 관한
다음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땅을 유산으로 받으리니 번성하여
강하여지고 그 자녀들은 죄없이 자라나
구원에 이르리라.”(교성 45 : 58)

명백히 복천년에 이 세상을 상속받을
부모들은 그 자녀들이 죄없이 자라나
구원에 이르도록 가르칠 것입니다.
니파이인과 레이맨인의 어린 아이들에게
일어났던 그 기적을 기록한 물문은 그
사건을 더욱 자세히 기록하고
싶어하였지만 주님은 “내가 내 백성들의
신앙을 시험하리니.”고 하시며 그것을
금하셨습니다.(니파이삼서 26 : 11 참조)
그 기적이 우리의 신앙을 시험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천세에서 발전된

영적인 능력이 그 부모들과 같거나 또는
그보다 더 우월한 죄없는
어린이들에게 심오한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셨음을 믿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대한 시험은
오늘날, 우리 자녀들이 옛날의
니파이인과 레이맨인 어린이들처럼
영적인 진리를 이해할 수 있다고 믿으며
그 믿음을 실제로 적용하여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데에 있습니다. 참으로 주님은
이 말일의 교회 회원들에게 자녀들을
그렇게 가르치도록 명하셨습니다. 이것을
입증해 줄, 교회 초기에 주어졌던 세 가지
계시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교리와 성약 29편에서 주님은 “어린
아이들은 죄지를 수 없으며 저들이
성장하여 내 앞에서 책임을 깨닫게 될
때까지는 어린 아이를 유혹하는 능력을
사탄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저희 아비에게는 내가 원하는대로 내가
뜻하는 바에 따라 더욱 큰 일을
요구하였음이라.”(46~48절)고
하셨습니다. 과연 어린 아이들이 유혹을
받을 수 없는 기간 동안 그들의 부모에게
바라시는 이 더욱 큰일이란 무엇일까요?

교리와 성약 68편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 계시에서 주님은 시온의
부모들에게 자녀의 나이가 여덟이 되었을
때 교회의 교리를 이해하도록 가르치라고
명확하게 명하셨으며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 죄는 부모의 머리에 머물러
있느니라.”(25절)고 말씀하셨습니다.

1833년 5월에 주신 또 다른 계시에서
주님은 당시 교회를 이끌던 지도적인
위치의 형제들이 그 자녀들을 빛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지 않았음을
꾸짖으셨으며 각자의 가정에 질서를
세우라고 명하셨습니다.(교성 93 : 41~50
참조) 이러한 일이 행해져야 할 명확한
시기는 언급되지 않았으나 그 계시가
주어질 당시 견책받았던 네 명의
형제들은 모두 비교적 젊은 가장들로서
어린 자녀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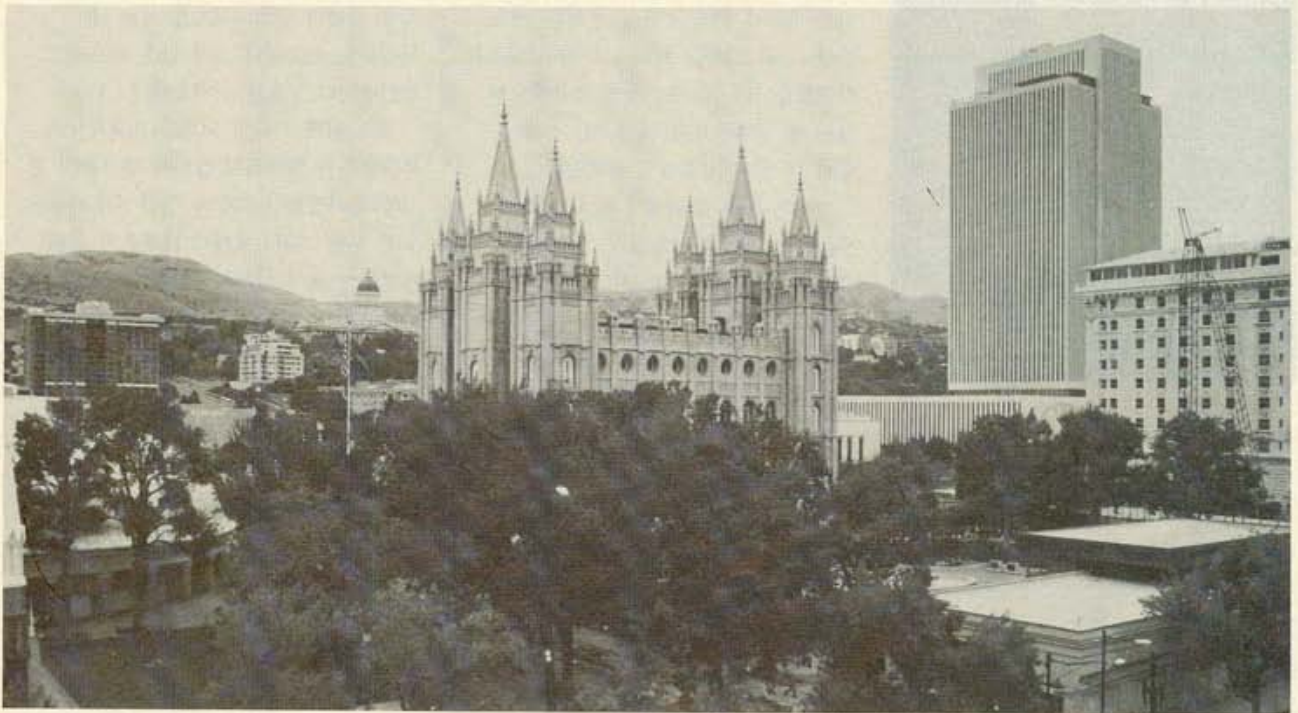
이 계시에서 주님은 유아들이 하나님
앞에 결백하지만 사탄이 불순종과
선조로부터 전해내려오는 말로
그들에게서 빛과 진리를 빼앗아 간다는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이러한 것을 막기

위해 주님은 부모들에게 그 자녀를 빛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라고
명하셨습니다.(교성 93 : 30~40 참조)
주님은 부모로서의 책임을 태만히 한
지도적인 위치의 형제들과 실제로 시온에
있는 모든 부모들을 꾸짖으셨지만 회개가
가능하다는 것도 지적하셨습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의
처소에서 옮기워 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교성 93 : 41~50 참조)

경전에는 우리가 언제 가르치는 것이
가장 좋은지(교성 68 : 25~32 ; 신명기 8
: 5~9 참조) 뿐만 아니라 무엇을 배워야
하며 무엇을 배워서는
안되는지와(모로나이서 7 : 14~19 ;
니파이서 9 : 28~29 참조) 또한 어떤
사람이 가르치고 어떤 사람이 가르치지
말아야 하는지(니파이서 28 : 14, 31 ;
모사이아서 23 : 14 참조)까지도
지시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이 어릴 때에 부모로부터 받은
가르침은 우리의 삶을 괴롭힐 수 있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줍니다.
이것이야말로 나이는 자녀들에게 일어날
커다란 문제들을 해결해야 할 필요성을
없애기 위해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작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남편과 아내가
현재와 영원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청지기 직분이 이 일을 전적으로
협조하여 수행하는 것보다 더 부부 간에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겠습니까? 어린 아이들이 순진무구한
시기에 그들을 가르치는 전통을 가정에
세우는 것보다 무엇이 조부모와 다른
사람들의 삶에 더 큰 의미와 만족을
가져다 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
어린 아이들의 겸손함을 배워야 하는
데에 그들을 가르치는 것보다 더 쉽게
우리의 교만함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자녀를 올바르게 가르치는
것은 참으로 우리의 행복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서 가장 본질적인 부분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영의 자녀 중
하나를 우리의 가정에 보내실 때 그것은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존과 메리에게, 여기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보물, 즉 어린 아이의 영혼이 있느니라. 너희들이 볼 수 있듯이 이 아기는 무력하며 자신의 생명조차도 너희에게 완전히 의지하고 있느니라. 너희는 이제 가장 좋게 생각하는 대로 이 아기의 인생을 형성시켜 줄 특권을 부여받았도다. 부디 내가 그의 아버지이며 예수가 그의 구세주이고 우리는 이 생이 끝나면 그와 너희가 우리에게 돌아와 함께 살기를 바란다는

것을 그에게 가르쳐다오. 우리의 이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너희가 나의 도움을 구하기만 하면 내가 언제나 인도해 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여라. 너희들이 자주 도움을 구하기 바라노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이스라엘의 아버지들에게 주신 놀라운 말씀에서 벤슨 대관장님은 우리에게 현세와 영원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부름은 남편과 아버지로서의

부름이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저는 결코 그 부름에서 해임되지 않기를 간구하며 교회의 앤더슨 가족이 사는 지역에서 온 시간을 바치겠습니다. 저는 우리들 각자가 자녀를 빛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라는 우리의 신성한 의무를 잘 알고 완수하며 하나님의 모든 은사 중 가장 위대한 은사인 영생을 얻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부름 - 영원한 기적

가드너 에이치 러셀 장로
칠십인 정원회

“우리가 지도자와 부모로서 그 부름의 권세와 훌륭함에 내포된 영원하고 신성한 속성을 완전히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알려지지 않은 수천 명이 더 많이 복음 선교사로 봉사하게 될 것입니다.



일

전에 저는 “봉사하도록 부름받음”이란 비디오

테이프에서 새로이 부름받은 각 선교사가 교회의 대관장님이 서명 날인한, 복음 선교사로 부르는 공문을 가족과 함께 개봉하여 낭독하는 것을 보는 순간에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저는 아르헨티나의 선교부로 부름받았던 때를 회상하였습니다. 그 부름을 받고서 저는 가족과 함께 흥분된 감정을 나누는 후에 교회 회원은 아니었지만, 전 미 상원 의원이며 제가 아주 신뢰했던 특별한 친구에게 그 소식을 알려주기 위해 그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대수롭지 않은 인상으로 만일 제가 선교 사업을 하러 떠날 것을 고수한다면 귀환하였을 때 좋은 직장은 다 없어져 버렸을 것이며 제가 결코 어떤 중요한 것도 이룰 수 없을 것이라고 딱 잘라 말하였습니다.

저는 의기소침해졌지만 그가 저의 미래를 단지 세상적인 안목으로만 보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로부터 몇년 후에 저는 저의 선교 사업 때문에 인생의 우선 순위를 가족, 봉사, 그리고 복음 원리에 두게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또 추가적인 축복으로써 저는 옛 급우들보다 세상적인 것에서 훨씬 더 앞서 성취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저는 교회에서 복음 선교사로 부름받는 것이 영원불변의 기적임을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저는 후에 그 부름이 유일무이한 것이며 매순간마다 주님의 교회를 발전시키며 강화해주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복음 선교사로서의 부름이 봉사에 편하거나 쉬울 때 오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저는 에스라 테프트 벤슨 대관장님께서 청년 시절에 그 당시 살아계신 예언자로부터 편지를 받고 복음 선교사로서의 부름을 주저없이 받아들였다고 하시는 간증을 아무리 들어도 싫증이 나지 않습니다. 그 편지의 송신자 주소는 단지 솔트레이크시티의 “사서함 나”였다고 합니다.

이 시대의 초기 시절에도 기혼자에게 복음 선교사로 봉사하라는 부름이 주어졌습니다. 저희 부모님의 침실 벽에는 저의 부친이 그 당시에 높은 것과 중절모 차림으로 찍은 사진이 담긴 신문이 누렇게 바랜 채 액자 속에 끼워져 걸려 있습니다. “이년 반 동안 결혼한 상태에서 서로간에 단 한마디의 대화도 없었다.”라는 글귀가 표제로 적혀

있습니다.

그분은 결혼하자마다 선교사로 봉사하기 위해 호주로 떠나셨으며 귀환하실 때까지 저의 어머니와 전혀 대화를 나누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가족과 떨어져 의사 소통도 하지 못하면서 장년기에 선교사로 봉사했던 초기 개종자들 가운데에는 영국으로 부름받아 훌륭하게 봉사하셨던 스노우라는 저의 증조부님이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그 부름은 영원한 기적이며 결코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요셉 스미스는 자신보다 먼저 부름받았던 모세, 아브라함, 야고보 및 기타 다른 예언자들처럼 주님에 의해 이름이 불리워졌습니다. 그분은 그 일에 관해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다른 한 분을 가리켜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셨습니다.”(요셉 스미서 1:17)

그가 원래 모습의 교회를 회복하도록 부름받았는지 얼마되지 않아서 대부분이 한 가족의 가장들이나 소수의 신권 소유자들만 수천 명을 그리스도께로 데려오기 위해 미대륙과 세계 각처의 선교 지역으로 나가라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회복된 교회의 견고하고 다양한 기초를 만들어 냈습니다.

예언자께서는 부름받은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싶어하는지 또는 봉사할 수 있는 형편인지를 결코 묻지 않으셨습니다. 각자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관하시는 대로 공식적인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이 부름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믿었고 “...내 자신의 음성이거나 내 종의 음성이거나 다 같으리라.”(교성 1:38)는 것도 믿었습니다.

선교사 부름이 편리한 시기에 찾아오는 일은 드뭅니다. 제게 우쿠파이와 파라파이의 선교 부장으로 봉사하라는 부름이 주어졌을 때 저는 살던 도시에서, 또한 사업상 해야 할 책무를 갖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들이 기적적으로 수습되었으며 저는 부름을 받아들였습니다. 칠십인 정원회의 일원으로 5년 이상이 지났지만 찬송가에

있듯이 저는 여전히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벅잡니다. 부름받던 그때처럼 지금도 똑같이 두렵고 겸손한 느낌이 듭니다. 저는 제 아내에게 찬사를 보내고 싶습니다. 제 아내는 제가 느끼는 것과 같은 경외심을 함께 느꼈으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는 데 늘 용감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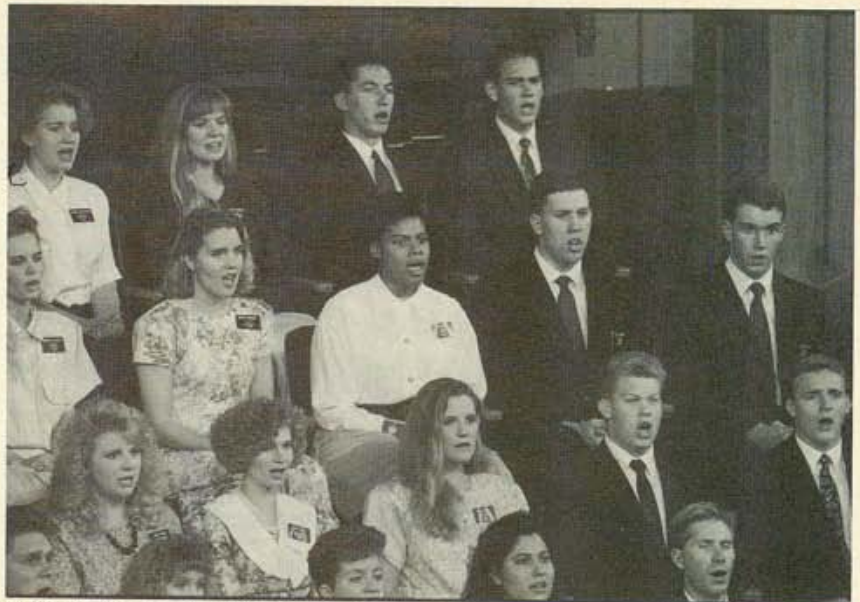
교회 회원으로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의 부름이 모든 것에서 우선 순위라고 믿기 때문에 그분의 부름에 충실하게 복종해 왔습니다. 우리는 세계 도처의 수백여 선교부에서 일하는 45,000명의 복음 선교사들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많은 청남 청년들이 젊은 나이에 선교사 부름을 받게 되면 그것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족의 전통대로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최근의 개종자로서 복음 선교사 부름을 받아들입니다. 그들 모두는 다음 세대들을 위한 본보기와 전통을 세웁니다.

많은 와드와 스테이크에서 그 부름이 너무나 성스럽게 여겨지기 때문에 모든 청남과 많은 청년들이 복음 선교사로 봉사하라는 그 부름에 응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거의 대다수의 청년들이 선교사 부름에 응합니다. 이들이 선교사를 배출하는 훌륭한 와드와 스테이크입니다. 이들 예비 선교사들이 가지는 유일한 의문은 내가 언제 복음 선교사로 봉사하라는 부름을 받게 될까 하는 것이지 내가 봉사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과 멕시코와 중앙 아메리카에서 열렸던 몇몇 스테이크 대회와 토요일 저녁 모임에서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이 하도록 요구하시는 일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주님께서 직접 여러분에게 그것을 하도록 요구하시는 것임을 안다면, 무엇이든지 하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손들어 보십시오."라고 질문하였습니다. 즉시 많은 손들이 올라왔습니다.

그것이 참되며 교회의 모든 충실한 회원들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기를 바라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하겠다는 것이



유타주 프로보의 선교사 훈련원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 선교사들로 최초로 특별히 구성된 합창단이 대회를 위해 노래했음.

사실이라면 그 부름은 더욱 힘있고 단도직입적인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세계 곳곳에서 앞으로 선교사가 될 사람들에게 감독들이 "김 형제님, 선교사로 봉사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라고 질문하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그 청남은 속으로 *교회의 청남으로서 선교 사업에 대해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걸까?*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감독은 청남, 청녀 또는 부부들이건 상관없이 그들에게 종종 "선교사로 봉사하고 싶습니까?"라는 질문을 합니다. 이것은 필요한 질문이긴 하지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교회의 초기 선교사들에게는 아무도 선교 사업을 원하는지 또는 봉사하기에 형편이 괜찮은지 묻지는 않았습니니다.

최근에 저는 어느 훌륭한 감독이 예비 선교사인 충실한 청남과 약속 시간을 정하여 접견하면서 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며 그와 함께 영을 느끼는 장면을 보고 감동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후 감독은 그 청남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기꺼이 하겠는가를 묻고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제가 보좌들과 함께 기도할 때 그분은 형제님이 복음 선교사로 봉사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 주셨습니다. 형제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뭐라고 말씀드리겠습니까?" 그 청남은 기꺼이 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런 다음 감독은 그 예비 선교사에게 그의 새 차와 여자 친구 및 학업 등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하였으며 부름받기 전에 해결되어야 하는 것들에 대해 질문하였습니다.

현재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충실한 청남 중 반이 좀 못되는 수가 선교사로 봉사하러 나갔으며 그외의 세계 각처에서는 십분의 일 또는 이 정도가 봉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도자와 부모로서 그 부름의 권세와 훌륭함에 내포된 영원하고 신성한 속성을 완전히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알려지지 않은 수천 명이 더 많이 복음 선교사로 봉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진 않겠지만, 그분으로부터 부름받고 성임된 종들이 그분의 이름으로 또 그분의 영감과 계시로써 일정 기간 동안 봉사하도록 우리의 이름을 부를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위대하고 영원한 기적인 이 부름의 신성한 속성과 의미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지닐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

주님으로부터 도움을 얻음

리차드 지 스코트 장로
십이사도 장원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삶을 찬란한 빛으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통제하거나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시련에 더 이상 혼자 맞서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 늘날의 세상에서 인생은 때때로 너무 어려울 수도 있고 우리가 직면한 어려움이 해결하기엔 우리 개개인의 능력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도움을 어떻게 받아야 할지를 모르는 듯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종종 도움을 요청하는 그들의 다급한 간청이 무시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 자신이 “구하라. 그리하면 얻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리리라.”(교성 4:7)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어려움들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주님의 영적인 율법을 따르지 않았거나

또는 도움이 와도 그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야고보는 이 점에 관해 잘 설명했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잘못 구함입니다.”

(야고보서 4:3)

참으로 주님은 “구하라. 그리하면 얻을 것이요.”(교성 4:7)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또한 “보라, 너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나니 깊이 생각지도 아니하고 구하기만 하면 내가 그것을 네게 줄 것으로 여겼도다.”(교성 9:7)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우리 몫을 다하기를 그분께서 기대하신다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물질적인 법칙에 순종하지 않고서 그 결과를 얻으려고 기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도움을 바라는 만큼 우리는 그 도움을 가능케 하는 영적인 율법을 따르려고 해야 합니다. 영적인 도움은 불가사의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경전에는 그것이 뜻깊은 구절들로 상세히 정의되어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도움을 구하는가를 가르쳐 주는 핵심 성구들을 인용하고 그 다음에는 그 구절들이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영적인 율법을 요약하겠습니다.

구세주께서는 “나, 주는 내가 한 말을

너희가 행할 때에는 너희의 말을 들어줄 수 밖에 없으나 내가 한 말을 너희가 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너희는 약속을 받지 못하느니라.”(교성 82:10)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요한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요한일서 3:22)라고 가르쳤습니다.

또 니파이는 “너희가 마음을 강박하게 먹지 아니하고 부지런히 나의 계명을 지키며, 응답되리라 믿으며, 신앙으로 구할진대, 이러한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 주시리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너희는 기억하지 못하느냐.”(니파이일서 15:11)라고 권고하셨습니다.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축복해 주실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의 도움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그분의 계명에 꾸준히 순종해야만 합니다.

이노스는 “내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으리라 믿고 신앙으로 구할진대 구하는대로 받으리라 하신지라. 주께 쉬지 않고 간구하였노라.”(이노스서 1:15)라고 기록하셨습니다.

몰몬은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의심치 않고 그리스도를 믿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다 얻을 것이요. 이는 만민에게 주는 약속이며 땅끝에 거하는 자에게까지 주시는 약속이시니”(몰몬서 9:21)라고 기록했습니다.

구세주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셨습니다.

“신앙없이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음을 잊지 말지니 그러므로 신앙으로 구하라. 이러한 것들을 가벼이 여기지 말며 구해서는 안될 것을 구하지 말라.”(교성 8:10)

“너희가 반드시 주시리라고 믿으며 무엇이든지 의로운 것을 아버지께 나의 이름으로 구하면 보라 너희에게 주시리라.”(니파이삼서 18:20)

“그러므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면 무엇이든지 주시리라.”

(교성 88 : 64)

“만일 너희가 정결하게 되어 모든 죄로부터 깨끗이 되었으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지리라. 그러나 이 사실을 알지니 무릇 너희가 구하는 것은 너희에게 허락될 것이요.”

(교성 50 : 29~30).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우리가 무엇을 간구하고 또 어떻게 간구하여야 할지를 가장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그분의 뜻을 찾고 행할 때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을 얻는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마음에서 우리나라오는 감사를 드리는 것은 기본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일로도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하나님의 분노를 자아내게 하지 못하되 다만 만사가 하나님의 주관아래 있음을 고백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하나님을 거역하며 하나님의 분노를 자아내게”(교성 59 : 21)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요약해 보면 축복은 우리가 다음과 같이 행할 때 오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할 때.

그분의 계명을 성실하게 지킬 때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구할 때
의로운 것을 구할 때
마음을 강박하게 먹지 않을 때
감사함을 표할 때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한 방법은 신권의 축복을 통한 것입니다. 어떤 합당한 신권 소유자에게 특별히 신권의 축복을 받으면 우리는 크게 위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몫의 노력이 없이는 아무런 좋은 결과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신권의 권능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주님의 의지와 부합되는 방식으로 도움을 경로를 열어줍니다. 축복은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나 개인적인 능력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일들을 해결해 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축복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우리 몫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합당하게 되도록 아주 많이 노력해야

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데 필요한 신앙을 행사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할 때는 그 도움도 또한 사용해야 합니다. 축복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해내는 것과 그것이 실현되게 하는 주님의 능력이 결합되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언젠가 저는 초조한 빛이 역력한 어느 어머니로부터 전화를 받고 잠에서 깨었습니다. 그분이 낳은 미숙아가 그날 밤을 넘기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그분은 신권의 축복을 요청하였습니다. 제가 고통에 시달리는 그 아이에게 다가갈 때 그 어머니는 저를 멈춰세우고 제 눈을 들여다보며 “제 아이를 축복하기에 합당한 분이신가요?”라고 물었습니다. 그것은 적절한 질문이었습니다. 아무도 완전히 합당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없었지만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저는 그 아이가 낫도록 축복해 주라고 영이 강하게 격려함을 느꼈습니다. 그 훌륭한 어머니는 계속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자신의 신앙을 행사하였습니다. 주님은 그분에게 필요한 부가적인 축복으로 응답하셨습니다. 그 아이는 회복되었습니다.

김볼 장로님께 어떤 친척 한 사람이 소아마비 병을 극복할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김볼 장로님은 얼마동안 자신을 영적으로 준비한 다음 금식하고서 그 자매가 병고침을 받게 축복해 주었습니다. 몇 주 후 그 자매는 화가 난 채로 찾아와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병고침을 받게 될 때를 참고 기다릴 수가 없다고 불평하였습니다. 김볼 장로님은 “이제 왜 당신이 축복을 받지 못했는지 알겠습니까. 당신은 인내해야 하고 자기 몫을 해야 하며 또 조금이라도 나아진 것을 알게 되면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자매는 회개하였으며 그의 권고를 그대로 따라서 결국 낫게 되었습니다.

곤경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 데 주님의 대표자로 행동하는 것은 신권을 소유한 이들에게 주어진 엄숙한 의무입니다. 그 의무에는 신앙과 합당함과 또한 주님의

뜻과 교통하기 위해 영의 속삭임에 민감해야 함이 요구됩니다. 또한 신앙을 행사하고, 더 나아진 모든 상황에 감사하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는 것이 축복을 받는 사람들의 엄숙한 의무입니다.

삼년 전에 저는 사고로 심하게 다친 한 젊은이를 만났습니다. 의학적인 판단은 매우 부정적인 것이었습니다. 그가 살아난다 하더라도 여생을 완전히 신체가 마비된 채로 지내야 할 정도였습니다. 최근에 저는 그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는 주님께서 그가 인생에서 하도록 계획하신 모든 일을 하는 데 필요한 힘을 얻도록 축복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전기의자 차를 가까이 움직여와서 저와 악수를 나누었으며 똑바로 앉아 환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방은 온통 그의 불굴의 의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의 신앙과 주님의 축복을 통해 증대된 믿을 수 없을만큼 어렵고 고통스런 노력이 기적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친구들의 도움을 이따금씩 받으며 대학 생활을 잘 보내고 있으며 또한 선교사가 될 자격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의 끊임없는 노력이 더 큰 향상을 가져오리라는 것을 압니다.

여기 전혀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저에게 처음 한 말은 영원한 동반자가 마치 선택할 여지도 안 주고 얻을 수 있는 꿈인형이나 되는 것처럼 “왜 주님은 제게 아내를 주시지 않습니까?”였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한 결과 그는 아내를 찾기에 적합한 가장 기본적인 자격도 갖추지 않았음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과도한 체중에 대해 뭔가를 해야 할거라고 인정하였지만 그것은 힘들었습니다. 그의 옷은 단정하지 못했으며 그는 자신의 몸을 청결히 하지 않아서 그에게 가까이 있는 것도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분명히 그는 자신이 해야 할 몫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도움은 일반적으로 한 번에 조금씩 옵니다. 주님은 당장이라도 심각한 질병과 장애를 고치실 수 있으며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형식은 조금씩



단계적으로 향상되는 것입니다. 그 계획은 우리에게 우리가 무엇을 배우기를 주님이 기대하시는지 발견할 기회를 줍니다. 주님이 우리의 일정표가 아닌 그분의 일정표에 따라 우리를 도우심을 알기까지는 인내심이 요구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노력과 그분에 대한 신뢰를 키우게 해주며 우리가 받는 도움에 감사를 드릴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종종 우리는 우리 생활이 너무 잘 진행되어 갈 때 우리가 배우기를 주님이 바라시는 교훈을 배우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고통과 아픔을 겪을 때면 우리는 자신에게 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그것들 중 몇 가지는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 주님은 이 경험을 통해 내가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실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내가 무엇을 바꿔야 할 필요가 있을까? 나는 누구에게 봉사할 필요가 있는가? 또는 나의 어떤 성품을 향상시켜야 할까?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은 극복해야 하는 어려움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모든 기도가 우리가 바라는데로 응답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알기가 늘 쉬운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분은 그분의 가르침과 완전히 일치되지 않는 것을 결코 우리에게 하도록 요구하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가 고의적으로 부도덕하거나 일부러 불순종한다면, 우리가 진실로 회개하지 않는 한 우린

도움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순결의 법을 어떤 정도로든 어기고 있으면서 어떤 다른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동반자가 될지 알기 위해 기도한다면 회개없이 응답받을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보라 주가 이르셨으니 나는 나의 백성들이 범법하는 날에 저들을 구제하지 아니하며 변영의 길을 막으며 저들의 행하는 일들이 걸림돌이 되게 하리라.”(모사이사서 7:29)

“그러나 너희가 마음을 다하여 주께로 돌이키며 주를 의지하고 정성과 부지런을 다하여 주를 섬길진대 주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대로 너희를 속박에서 건져 주시리이다.”(모사이사서 7:33)

우리의 성실한 기도는 그것이 주님의 뜻과 일치될 때 응답됩니다. 우리는 그분의 뜻을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시며 그분의 결정은 완벽합니다. 우리의 한정된 능력 때문에 주님께서 인간에게 하시는 일을 모두 다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 그분의 축복을 받는 데 장애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분의 뜻은 우리가 그것을 모두 이해하던 못하던 우리 인생에서 가장 최선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도덕적 의지를 현명하게 사용하여 행동하면 주님은 그의 뜻에 따라 행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 개개인을 위해 만드신 영원한 계획에서 극히 제한된 일부만을 보는 것입니다. 비록 현재는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주님을 믿고 그의 영원한 계획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즉시 행하고 싶을 때 기다릴 것이 요구된다면 인내하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의 의지와 정반대되는 어떤 것을 하도록 요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신앙을 행사해서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라고 말씀하십시오. 그러나 이러한 경험들을 할 때 훌륭하게 행동한다면 여러분은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준비를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버지로서 주님의 목적은 여러분의 영원한 행복과 지속적인 성장과 능력을 증대시키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가 가지신 모든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걸어가야 하는 인생의 길은 서로 매우 다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며 무엇을 하시는지 항상 알 수는 없으나 그가 온전히 공의로우시며 자비로우시다는 것은 압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필요치 아니한 점을 건디라고 하시거나 불필요한 어려움 때문에 고난을 겪도록 하시지는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삶을 찬란한 빛으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여러분은 주님께서 “너희가 나를 믿는 신앙을 가진진대 내게 합당한 것이면 무엇이든지 다 행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지리이다.”(모로나이사서 7:33)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통제하거나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시련에 더 이상 혼자 맞서고 있지는 않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극히 희망이 없다고 느끼거나 죄 때문에 깊이 고민하거나 아프거나 외롭거나 또는 위안과 지지를 간절히 필요로 한다면 저는 여러분이 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영적인 울림을 신중하게 따를 때 주님이 여러분을 도와 주실 것임을 엄숙히 간증드립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아버지이며, 여러분은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분은 결코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저는 그분이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리라는 것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2보좌

“대회의 연사들은 우리 시대의 문제들과 우리가 복을 원리에 따라 생활할 것을 확실히 할 필요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통례적으로는 연차 대회의 폐회 말씀은 교회의 대관장께서 하십니다.

벤슨 대관장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분이 아흔 셋의 연세에도 불구하고 고통없이 자유롭게 움직이시며 때때로 대관장단과 십이사도회 모임을 가지시고 그분을 위한 여러분의 신앙과 기도와 사랑의 표현을 받으실 수 있는 것에 대해 감사를 느낍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실 수 없기 때문에 대회 전에 제가 그분 대신 말씀을 전하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언자의 사랑과 권고를 전하는 가운데 주님께 영감을 구합니다.

지금까지 대회는 정말

영광스러웠습니다. 총관리 역원들은 영감받은 말씀을 해 주셨으며 마음에서 우리나라 기도가 바쳐졌고 음악들은 참으로 “의인의 노래요, 주께 바치는 기도”(교성 25:12)였습니다. 참으로 어떤 면에서든 이 대회를 기억할만하게 만들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데릭 에이 커스버트 장로님과 가졌던 친분을 그리워합니다. 그분은 1991년 4월 7일에 하늘의 집으로 불리워 가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업에 관한 그분의 진실된 간증을 생각하며 건강상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성취해냈던 모든 일에 대해 놀라움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의 사랑하는 아내 유리엘과 각 가족들을 기억합니다.

대회의 연사들은 우리 시대의 문제들과 우리가 복을 원리에 따라 생활할 것을 확실히 할 필요성을 강조하셨으며 이 생의 여정 동안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며 순종을 통해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받기에 합당하도록 그분과의 동반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생활하는 것을 강조해 왔습니다.

벤슨 대관장님은 종종 가족의 중요성을 강조해 오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족은 오늘날 만연된 악에 대항하는 하나님의 가장 훌륭한 요새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족이 강화되고 서로 가까워지며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에 합당하게

유지되게 하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은 영원히 여러분의 인생에 축복이 될 신앙과 힘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엔사인, 1986년 5월호, 43쪽) “우리의 가정은 매일 하나님과 교통함으로써 오는 축복이 필요합니다... 하루의 일과를 통해서 오는 어려움과 짜증은 가족이 함께 기도함으로써 잊혀질 것입니다. 더욱 단합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과 애정의 결속이 강해지며 하늘의 평화가 깃들게 될 것입니다.” (뿌린대로 거두리라, 솔트레이크시티 : 데저렛 북 출판사, 1960년, 107쪽) 벤슨 대관장님은 청소년들의 힘과 그들에 대한 우리의 책임을 항상 강조하셨습니다. 그분은 다음과 같이 권고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요구하시는 한 가지 중요한 일은 행복하고 선을 위해 적극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가정을 만드는 것입니다. 장래에 우리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집에 얼마나 값진 가구가 있으며 방이 몇 개가 있느냐가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가정에서 얼마나 사랑받고 인정받음을 느끼느냐에 달려 있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 행복과 웃음이 있는지 아니면 다툼과 분쟁이 있는지가 중요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1981년 4월, 연차 대회)

벤슨 대관장님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만나고 그들과 악수를 나누는 것을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분은 교회 전역을 여행해 다니시면서 어린이들에게 “물론 소년”이란 노래를 불러주시는 것을 언제나 무척 좋아하셨습니다.

벤슨 대관장님은 어린이들에게서 많은 편지를 받으십니다. 때때로 그 내용은 매우 재미있으며 어떤 때는 상냥하기도 합니다. 한 번은 벤슨 대관장님이 입원하셔서 의사들이 그분의 심장을 조절해 주기 위해 심장 박동기를 장치해 주었을 때 한 어린 소녀가 편지를 써서 “사랑하는 대관장님, 저는 대관장님이 괜찮아지실 것을 알아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을찌니’라고 했거든요.”라고 말하셨습니다.

벤슨 대관장님은 제가 어느 어린



대회때 와이드 앵글로 찍은 템플 스퀘어의 정경.

아들을 둔 아버지의 편지를 읽어드렸을 때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 편지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지난 4월에 저와 아내는 연차 대회의 일요일 오후 모임을 보고 있었습니다. 세 살난 저희 아들 크리스토퍼는 부엌 카운터 앞에 있는 의자에 서서 라디오에서 방송되는 대회 말씀을 들으며 찰흙을 갖고 놀고 있었습니다. 벤슨 대관장님이 어린이들을 위해 하신 말씀이 끝난 후 부엌에 들어갔더니 크리스토퍼가 흥분해서 '라디오에서 말씀한 그분이 우리가 실수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했어요.'라고 알려

주었습니다. 그 간단한 말씀이 저희의 어린 아들에게 지속적이며 의미있는 인상을 남겨 주었습니다. 제가 오늘이라도 벤슨 대관장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고 그에게 물어보면 똑같은 힘찬 대답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에게는 하늘에 친절하고 사랑이 많은 아버지가 계심을 아는 것이 위안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감동적인 이야기는 벤슨 대관장님이 다른 사람들에게 항상 개인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미쳐 온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분은 상냥하시며 친절합니다. 또한 그분은 다정합니다. 그분은 여러분과

저의 친구이며 또한 그분은 우리 구세주이신 주님을 압니다. 저는 이 대회를 끝내면서 그분과 모든 형제님들을 위해 다음 성구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호와께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며

"그 얼굴로 네게 비취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민수기 6 : 24~26)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모든 선한 일에 기뻐합니다”

지애코 앤 오가자끼 자매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 제1보좌

“천절한 사람이 되기 위해 감독님의 지시를 받을 필요는 없으며, 남을 생각하는 사려 깊은 사람이 되기 위해 서명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오늘 이곳에 참석하여 여러분의 얼굴을 직접 볼 수 있고, 노래로 온통 둘러싸여 있는 느낌을 느낄 수 있으며, 전세계의 자매들이 우리를 볼 수 있도록 이어주는 전기와 위성 중계 시설들을 갖추게 되어 저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은 아마 상상도 못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우리를 시각적으로 연결시켜 주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실제 존재하는 것과 똑같이 지금 이 순간과 또한 내년에 상호부조회 창립 150주년을 기념하는 동안 우리를 연결시켜 주게 되는 것은 영적인 결속의 자매애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입고 있는 옷이 무엇이든지,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언어가 무엇이든지간에 여러분은 기쁨과 평화와 선함이라는 강력한 힘을 이루는 조직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주신 모든 복을”(신명기 26 : 11) 함께 누리고자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기뻐해야 할... 뜻”(엘마서 26 : 35)을 주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그리스도와 같은 생활을 통해서 오는 힘이며 기쁨입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부터 나오는 축복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우리 모두 우리가 갖고 있는 자매애를 기뻐합니다. (2) 우리 각자가 갖고 있는 다양성을 기뻐합니다. (3) 다른 사람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기뻐합니다.

첫째, 우리 모두 우리가 갖고 있는 자매애를 기뻐합니다. 여러분이 계신 이 방을 둘러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이들이 함께 있습니까? 이 태버나클 안에 수 천 명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수 많은 사람들 중의 한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십시오. 여러분이 적은 무리 중의 하나일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1842년에 나부에서 상호부조회가 창립되었을 때는 오직 20명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와드나 지부에서 나부 세대의 회원들같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삼백만 여성 중의

한 사람입니다. 여성 역사를 연구하는 한 학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자매애는 단순한 친구 관계로부터 큰 조직에 이르기까지 개인적으로 공적으로 여성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결속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물론 여성들은 복합적이고 생명력 넘치는 자매애를 유산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안에서 여성들은 그들의 생활에서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지적 사회적으로 서로의 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질 멀베이 더어, “물론 자매애가 주는 결합에서 오는 힘,” 영적인 자매들 : 역사적 문화적 측면에서 본 물론 여성, 앨버너 : 일리노이 대학교 출판사, 1987년, 154~155쪽)

우리가 함께 나누는 단합된 자매애를 기뻐합니다.

둘째, 우리 각자가 갖고 있는 다양성을 기뻐하십시오. 저는 하와이 한 큰 섬에 있었던, 지금은 없어져버린 아주 작은 마을인 마후코나에 있던 일본인 농장에서 일하는 한 노동자의 딸로서 자라났는데, 저의 집은 불교를 믿었습니다. 저는 농장을 관리하던 백 선장이 준비한 연례 크리스마스 행사에서 처음 기독교를 접하게 되었는데, 매년, 그곳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한 연극과 크리스마스 캐롤과 빨간 옷에 하얀 수염을 기른 신비로운 뚱뚱한 할아버지가 주는 멋진 선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일곱 살쯤인 때였습니다. 백 선장이 저에게 그리스도 탄생 연극에서 천사의 역할을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비록 천사가 무엇인지 몰랐었지만 저는 연기자로 뽀뽀하게 된 것이 자랑스러워 대사를 열심히 외었습니다. 매우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쓰던 말은 일본어와 간단한 영어의 혼용어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 성경에 나오는 17세기 영어를 외워야만 했습니다. 저는 구부러진 반짝이는 날개가 달린 하얀 무명 옷에 흔들거리는 둥근 반짝이 후광을 머리에 쓴 말라깽이 일곱살 짜리 꼬마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행사가 열리는 밤이 되었을 때 저는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 엘레인 엘 잭 회장(중앙), 자예코 엔 오카자키 자매, 제1보좌(좌), 에일린 에이치 클라이드 자매, 제2보좌.

“두려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누가복음 2: 10) 저는 누가 다윗인지 예수님인지 몰랐습니다. 저는 오로지 부처님만 알았습니다. 저는 강보가 무엇인지 왜 아기가 구유에 놓여 있었는지 몰랐으며, 목자가 무엇인지 왜 그들이 두려워 했는지 또한 좋은 소식이 뭔지 몰랐습니다. 저는 11살에 교회를 알게 되어 15살에 교회에 가입한 후에 비로소 그 아기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좋은 소식이 복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후에 저는 “주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기뻐해야 할... 뜻”을 이해하였습니다.

다시 한 번 여러분이 있는 곳을 둘러 보십시오. 여러분은 교회에서 나이도 인종도 환경도 다른 여성들을 보지 않습니까? 교육 정도도 결혼 상태도 직업적인 경험도 다 다른 자매들을 보지 않습니까? 아이가 있는 자매, 또는 아이가 없는 자매도 보지 않습니까? 건강이 좋은 자매 또는 만성적인 질병이나 장애가 있는 자매들도 보지 않습니까? 우리 자매들이 갖고 있는 서로 다른 다양성을 기뻐하십시오. 무지개를 만드는 것은 바로 스펙트럼 안에 있는 다양한 색깔입니다. 우리의 환경이 서로 다른 것이 우리에게 동정심을 갖게 해 줍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영적인 은사를

갖고 있음이 교회에 유익을 줍니다.

제가 본부 초등학교 직원으로 있었을 때 전임 직원이자 저의 친구인 패트리샤 켈지 그레이엄 자매가 “우린 서로 달라요”라는 노래를 지었는데, 저는 이 노래를 무척 좋아합니다. 이제 그레이엄 자매님의 반주로 커스틴 라슨 자매와 매리엔 페더스톤 자매님이 노래를 부르셨습니다. 노래를 들으면서 서로를 알고 도우며 사랑함에 관한 이 노래의 메시지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 너 나 알지
우리는 해와 바다처럼 달라
나는 너 너 나 알지
서로를 잘 알아야 참 친구

나는 너 너 나 돕지
문제가 생겼을 때 알게 되지
나는 너 너 나 도와
서로를 잘 알아야 참 친구

나는 너 너 나 사랑
서로가 최선 다해 친구되자
나는 너 너 나 사랑
서로를 잘 알아야 참 친구

노래의 메시지를 들으셨습니까?
우리가 비록 서로 다르지만 알고 돕고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인 우리들도 서로 다릅니다. 엘레인, 아일린, 케롤,

그리고 저 모두 다릅니다. 결혼한 사람도 있고 독신도 있고, 가정 주부도 있고 직업을 가진 분도 있고, 먼 곳에서 온 분도 있고 이곳 출신도 있고, 개종자도 있고 5대째 내려오는 회원도 있고 고등학교 졸업자도 있고 석사 학위 소유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서로 알고 돕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다양성을 기뻐하며 단합된 자매애를 누립니다. 여러분의 와드나 스테이크 내에서도 이와 똑같이 하십시오.

셋째, 우리에게 주어진 사랑의 위대한 은사를 기뻐합니다. 저는 정말 기쁩니다. 부름은 우리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줍니다. 상호부조회 창립 150주년을 맞은 내년에 우리는 많은 사랑의 봉사와 지역 사회를 위한 봉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러한 일을 하십시오! 또한 함께 참여하십시오! 모든 일을 와드나 스테이크 직원들에게만 맡기지 마십시오. 나부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그들에게 셔츠를 만들어 주고자 하는 계획을 자기의 고용인 사라엠 킴볼 자매와 다른 두 사람에게 이야기 한, 지금은 이름도 모르고 성만 아는 쿡 자매 라는 한 여성으로 인하여 상호부조회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쿡 자매와 같이 되십시오.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살피십시오. 상호부조회에서 자매들과 이야기하십시오. 힘을 합치십시오. 여러분 각자가 훌륭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 함께 봉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십시오. 봉사는 여러분이 사는 지역 사회의 필요요 사항과 자매들의 능력에 따라 달라야 합니다.

우리가 침례의 물에 발을 디뎠을 때 사랑과 동정으로 가득 찬 기독교인이 되어야 한다는 진절헌 부름이 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안수를 통해서 성신의 은사가 우리의 것이 됩니다. 성신의 은사를 교회 도서관에서 대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친절한 사람이 되기 위해 감독님의 지시를 받을 필요는 없으며, 남을 생각하는 사려 깊은 사람이 되기 위해 서명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른

이들의 필요에 민감한 사람이 되기 위해
와드 회원들의 지지를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사랑과 용서와 동정이 가득한
사람이 되기 위해 그리스도에게서 주어진
힘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재능이 대수롭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테레사
수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작은 연필에
불과합니다. 그분이 생각하시고 그분이
적으십니다. 무척 힘들 때에도 때때로
연필이 부러졌을 때에도 주님이 모든
것을 다하십니다. 하나님은 연필을 좀더
뾰족하게 깎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언제 어디서나 쓰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 안의 작은 도구가
되십시오... 우리는 오로지 그분에게
'예'라고 해야 합니다. (“제철의 열매,
사랑,” 매일의 명상, 샌프란시스코 :
이그네티어스 출판사, 1987년, 243쪽)

자매 여러분, 우리는 함께 있을 때
강하게 되며, 서로 보살필 때 위안을 받고
서로 간증과 경험을 나눌 때 강하게 되며,
의로운 일에 헌신할 때 힘이 생깁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사도 바울이
에베소인들에게 남긴 모든 축복을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본부 회장단인 저희가 교회의
자매님들에게 바라는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의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에베소서 3 : 17~19)

우리 모두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와 모든
선한 것을 주신 주님을 기뻐하며, 또한
주님이 주신 모든 선한 것 즉, 다양성,
단합된 자매애, 그리고 이 지상에서
주님의 사랑의 사업을 함으로써 주님의
팔이 될 수 있는 기회를 기쁘하게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
아멘. *

지금 이 여러분의 날입니다

제인 비 맥런 자매
본부 청녀 회장단 제1보좌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누구인지 압니다. 그들은 여러분을 접하면서
여러분의 눈빛을 통해 발하는 영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스테이크 청녀 회장직에서
해임되고 나서 제일
아쉬워하며 그리웠던 것은 청녀
캠프였습니다. 주위 세상에 감사하는 것을
배우는 청녀들의 즐거움과 흥분된 마음,
그리고 ‘전에는 영의 영향력을 느껴보지
못했던’ 청녀들이 새롭게 간증을 갖는
것을 보는 것 등이 그리웠습니다. 제가
키운 사랑하는 청녀들이 보고 싶었고
별이 가득 한 하늘 밑에서 자던 일이
그리웠습니다.

청녀 캠프에서 야영하는 때에는 어떤
초현상적인 힘이 있었으며, 특히 달도
없고 별만 반짝이는 밤에는 더욱
그러했습니다. 조용히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고 음악을 즐기기에 완전한 더할나위
없는 분위기입니다. 아무리 피곤한

밤일지라도 어둠 속 여기 저기서
청녀들의 노래 소리가 울려 퍼지고
간간이 저 멀리서 우크레나나 기타
소리가 아련히 들려옵니다. 야영을 하면서
저는 한 밤중에 이야기를 하면서 도움과
위안과 조인을 수월하게 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작년 캠프 때에도 저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밤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유타주 우인타 산맥의 남쪽을
지나 있는 울프 크리크에서 야영을
했는데, 잠들기를 못내 아쉬워하던
청녀들이 잠자리에 들고 캠프가 마침내
조용해졌을 때쯤 저는 여명이 밝아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일출을 구경할
만한 장소를 찾고 있었는데, 마침 그
장소를 찾기에 완벽한 시간에 제가 깨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침낭에서 빠져
나와 나무 사이에 나 있는 오솔길을 따라
갔습니다. 약간 경사진 곳에 올라 보니
북쪽으로 계곡과 산들이 보이는 푸른
초원이 있었습니다. 저는 하늘이 점점
밝아오면서 구름이 회색에서 핑크색으로
그리고 흰색으로 변하는 것을 보며 한참
동안 그곳에서 있었습니다. 동이 틀 때
저는 그곳에 처음 왔으면서도 계곡
저편의 산들이 매우 친근하게
느껴졌습니다. 처음 본 산이라는 생각이
사라지면서 저는 제가 잘 알고 있는 산을
반대쪽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목장에 있던
저희 집 이층 침실 창문으로 볼 수

있었던 산이었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던 날이면 구름이 산에 몰려들면서 색깔이 변하고 저희 목장이 있는 계곡으로 비가 내리는 것을 여러 번 지켜보았습니다.

저의 기억은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옮겨 가서 그분들의 저에 대한 사랑으로 흘러 갔습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여 그분이 어떻게 저를 축복하였는지를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에 서서 동이 트는 것을 바라보면서 구세주의 사랑과 인도의 따뜻한 손길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문자 그대로 제가 하나님의 딸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독생자의 희생으로 제가 언젠가는 육신의 부모와 다시 만날 수 있으며 하나님 아버지의 면전에서 살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이전에 이 진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수없이 가르쳐 왔지만 그날 아침에 그 사실을 처음 발견한 것 같았습니다. 아마 실제로 그랬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성신의 증거를 받았습니다.

그 언덕 꼭대기에 서서, 저는 제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면서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제 생애를 바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순간의 기쁨을 말로는 표현할 수 없습니다. 저는 서둘러 야영장으로 돌아가 모든 사람을 깨우고 싶었습니다.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딸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신앙을 갖고, 사소한 일이나 바꿀 수 없는 일에 대한 걱정을 멈추기 위하여 하나님과 대화하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청년들에게 하나님은 살아 계셔서 우리를 지켜보시며,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가능케 하였고, 우리가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하며 그분과 가까이 있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에게 "여러분은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분은 여러분 모두를 필요로 하십니다. 이것을 알고 있습니까?"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야영장으로 돌아가서도 그들을 깨우지는 않았습니다. 잠에 취해 있는 사람들이 남의 말에 귀기울여 들을리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바로

오늘과 같은 날을 위해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청녀 여러분,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의 딸임을 아십니까? 여러분 각자가 스스로 이 사실을 확실히 알 수 있다면, 마음속에 따뜻한 평화를 갖게 될 것이며 인생에 오는 어떠한 역경에도 도전할 자신을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길에 유혹이 올 때 어떻게 할까 하는 의문은 절대로 갖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대부분 저의 말이 참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누구인지 알며, 성신이 주는 느낌을 따를 때에 구세주의 사랑과 인도의 손길을 느낄 것이며 제가 말하는 평화를 가슴 속에 느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누구인지 압니다. 그들은 여러분을 접하면서 여러분의 눈빛을 통해 발하는 영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청년들을 만났으며, "어느때 어느 곳에서나 범사에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모사이사서 18:9)라는 청년 주제가 여러 다른 나라에서 서로 다른 언어로 청년들에 의해 서약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많은 청년들을 껴안아 주었으며 대화도 나누었습니다. 성전 축복을 받기 위한 준비를 하면서 기도하고 경전을 상고하여 복음에 따라 생활하는 것이 어떻게 청년 여러분의 생활의 일부가 되어가는가를 보는 것은 얼마나 가슴 설레는 일인지 모릅니다!

제넬린이 그 한 예입니다. 매년 유타주에서는 1847년을 기념하는 축하 행사를 위하여 물론 개척자들의 후손을 대표하는 청년 세 명을 선발합니다. 제너는 지역 사회에서 훌륭하게 봉사해서 국가 표창을 받았으며, 역시 마지막 최종 결선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무대에서 최종 심사 결과를 기다리면서, 마음속으로 청년 주제를 되풀이 할 때 마음 속에 평화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너는 "나는 여기, 이 시간, 이곳에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설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너의 단 한가지 소망은 "하나님 왕국을 건설하는 주님에게 큰 도움이 되기 위하여 올바른 시간에 올바른 장소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제너는 선발되었다는 발표와 함께 잠시 이야기하도록 요청받았습니다. 마이크를 잡고서는 관중 가운데 물몬이 아닌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녀는 자신의 간증을 전했습니다. 그녀가 말을 시작하자 관중들은 매우 숙연해졌습니다. "저는 금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젯 밤 기도하며 제가 이 영예를 받으면 주님을 대표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개척자 자손을 대표하는 이 부름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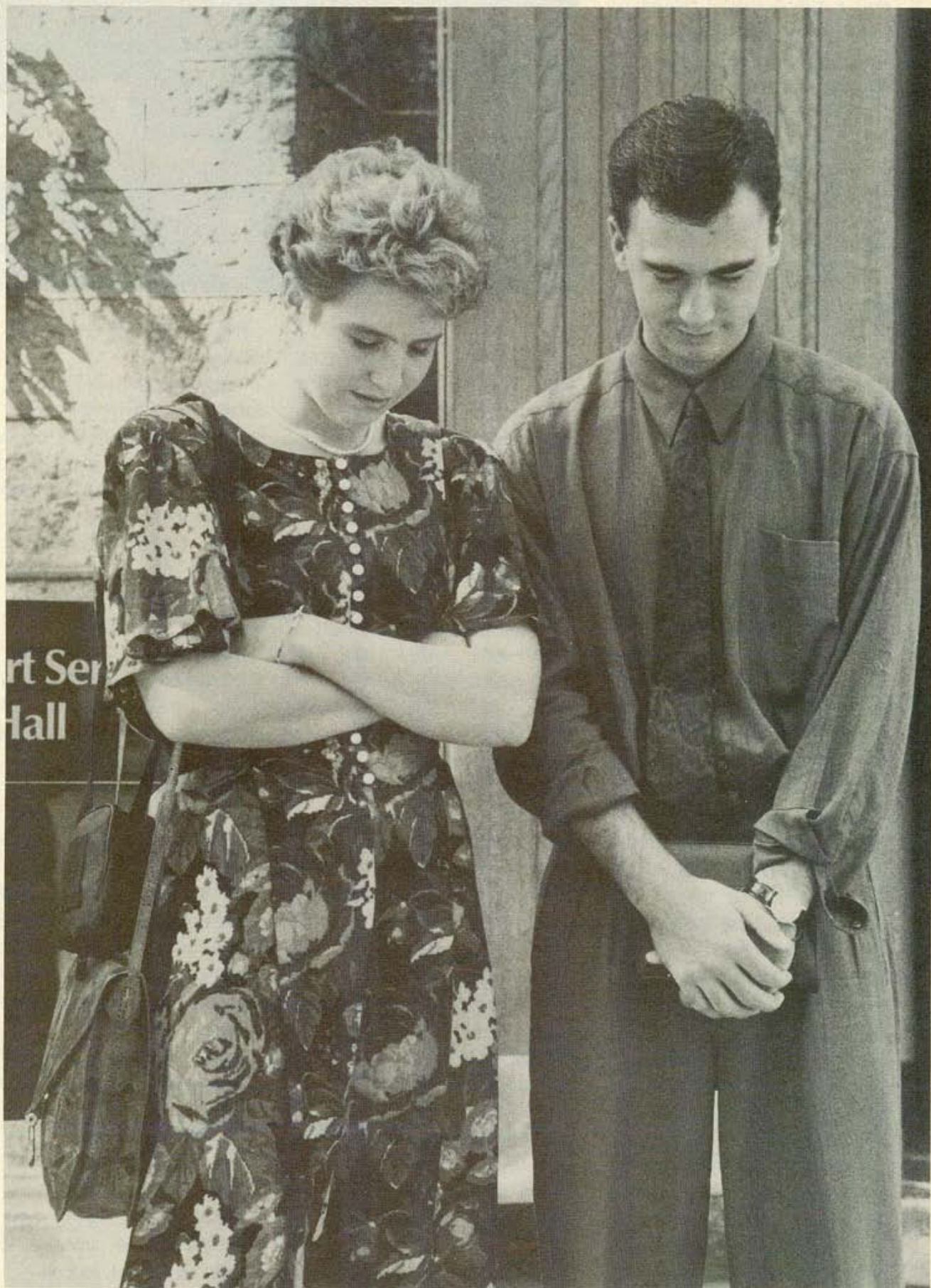
스스로 하나님의 딸임을 알고 그에 어울리는 생활을 하는 제넬린과 같은 여러분에게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가던 길을 계속 가십시오." 지금 여러분은 의로움으로 인도되어 다른 사람들이 안전하게 여러분을 따를 수 있으며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오도록"(모로나아서 10:30) 준비하는 날입니다.

자신의 함당성에 의문이 있고 하나님이 진실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지 궁금한 사람은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해 볼 시기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순종이 없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들여주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없습니다.

소책자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에서 말하듯이 "옳지 않은 일을 행하면서 옳다고 느낄 수는 없습니다! 절대로 불가능합니다."(*청소년의 힘을 위하여*, 솔트레이크시티 :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1990년, 4쪽) 여러분에 대한 사랑과 관심으로 대관장단은 여러분이 어떻게 현명한 선택을 하며 어떻게 구세주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지를 알도록 표준을 세워 주셨습니다.

그것이 이 작은 카드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이 표준대로 사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항상 이 카드를 몸에 지니고 다니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자신이 옳지 않은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 당장 그만 두십시오.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도와 줄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필요로 하십니다.

청녀 여러분,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십시오. 매일 경전을 읽으십시오. 경전과 하나님의 영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와 교통할 때, 여러분은 던이 받은 것처럼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던은 부모님이 선교사 부름을 받고 일본으로 가게 되었을 때 부모님과 함께 갈 것인가 아니면 남아있을 것인가를 결정해야 했습니다. 간다면, 친구들과 헤어지게 되고 고등학교 3학년 과정을 놓치게 되며, 전반적으로 던의 장래의 계획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결정을 내리기가 무척 어려웠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많이 울었으며 왜 내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야 하는가 라는 의문을 가졌었습니다."

던은 결정을 하기 위하여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세미나리에서 물문경을 공부하면서 리하이의 가족에 대하여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왜 레이먼과 레뮤엘이 의로운 길을 택하기가 어려웠을까 하고 의아해 했습니다. 그들은 형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모범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던은 자신을 경전 구절에 비유하기 시작했습니다. 던은 집안에서 큰 딸이었고 일본으로 간다는 것은 마치 그녀에게는 광야로 가는 것과 같았습니다. 많은 소중한 것들을 두고 떠나야 할 형편이었습니다. 던은 "레이먼이나 레뮤엘과 같이 되고 싶지 않았으며,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고 그분의 뜻대로 하고 싶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던은 부모님에게 함께 일본으로 가겠다고 말하면서 그녀의 결정이 옳다는 것을 알았으며 마음이 몹시 편했습니다.

송별 모임에서 던은 자신이 친구들을 얼마나 사랑하며 몹시 그리워할 것이라고 말하고 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가장 훌륭한 친구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매일 그분의



사랑을 느낍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경전을 통하여 인도를 구하고 기도를 통하여 구세주와의 관계를 더욱 가깝게 해야 할 시기입니다. 구세주는 여러분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될 수 있으며 그분을 통해 여러분이 하나님의 딸이라는 것을 스스로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세상의 구세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분의 여동생입니다. 그 사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이 완전하게 회복되었고 복음의 메시지가 전파될 수 있도록 나라의 장벽이 극적으로 열리는 역사의 이 위대한 시기에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청녀 여러분, 지금은 모든 대륙과 모든 해안으로 몰아쳐 오는 거센 파도처럼 온 지상을 휩쓸고 있는 이 위대한 진보의 움직임 속에서 여러분의 위치를 지키기 위하여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준비해야 할 여러분의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기도하고 경전을 공부하고 계명에 순종함으로써 의로움으로 인도되도록 준비할 수 있습니다.

본부 청녀 회장단으로서 우리는 여러분이 와드와 지부에서 하나가 되고, 서로 사랑하고, 다른 사람의 모범으로부터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함께 서고, 도덕성을 지키며, 세상의 악한 영향력에 대항해서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리와 정의를 수호하며 모범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시겠습니까?

아테스 지 캡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의로운 청녀들을 부르시는 소리에 대답하는 청녀의 합창 소리가 땅과 바다를 건너 하늘을 향해 높이 울려 퍼지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신앙으로 굳건하게 서서 새로운 것을 찾는 기쁨과 젊음으로 가득 찬 여러분을 볼 수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고 올바른 선택을 하는 기쁨을 맛보는 여러분을 봅니다. 약한 자를 돌보는 여러분을 봅니다. 서로 다시 단합하고 청녀 가치관으로 함께 모인 힘은 여러분 인생의 일부가 되며, 여러분과 같은 청녀들이 모임으로써 나오는 힘은 산과 계곡과 바다의 섬과 사막과 열대의 밀림 등,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 곳이면 어디에서나 나오게 됩니다.

"자매애의 위대한 결속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손길을 뻗으십시오. 의로움으로 하나가 되십시오. 여러분의 깃발을 높이 들어 올려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목표와 목적은 영광스러운 것이기 때문입니다!"(청녀 노년의 밤, 1985년 1월 10일)

"이 날을 주의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훌륭한 점을 드러내어 세상의 표준이 되십시오."(모드 오스몬드 쿡, 1991년 10월 반 연차 대회)

우리는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루스 비 라이트 자매
본부 초등학교 회장단 제2보좌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열심히 생활하는 사람들의 모범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희 가족이 나누는 가장 훌륭한 대화는 바로 식탁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식탁에서 웃고 울며, 우리의 느낌과 희망과 꿈을 나누기도 하고 서로의 의견 차이를 해결하고 세상의 문제도 풀니다. 그리고 밤이 늦도록 우리의 강점과 약점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라이트 가족의 식탁이 오늘 말씀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라고 묻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 관련도 없습니다. 저는 그저 우리 모두가 우리집 식탁 앞에 둘러 앉기를 바랄 뿐이며 여러분이 우리집 식탁 앞에 둘러 앉아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저를 편하게 해 줄 것이 틀림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의 생각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때 생각만이라도 여러분을 우리집 식탁으로 초대합니다.

방금 합창단이 들려 준 아름다운 메시지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 역시 우리 구세주의 사랑을 느낍니다. 그분의 영은 우리의 영혼에 영감을 줍니다. 저는 주님의 사랑의 품에 안겨 보았으며 그분이 주신 축복들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주님께 봉사하도록 애쓰면서 그분을 따르기를 소망하며, 주님의 사랑의 위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주어졌다는 것을 느끼며 그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열심히 생활하는 사람들의 모범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의 할아버지 브로드벤트가 바로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모범으로 가르치셨으며, 항상 자녀들과 함께 일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저의 아버지에게 말뚝 박는 방법을 편을 짜 게임으로 즐기면서 가르쳤습니다. 서로 누가 말뚝 박는 일을 먼저 끝내는지 경쟁을 하곤 하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일을 시작하면 그 일을 잘 해야 하고 완전히 끝을 맺어야 한다는 원리를 철저히 믿고 행했으며, 열심히 일을 했을 뿐만 아니라 복음에 따라 생활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할아버지는 복음의 계획을 의심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십일조를 결산할 때가 되면 온 가족이 모여 완전한 십일조를 내었는지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할아버지는 대공황으로 인한 어려운 시기에 아이들을 선교사로 보냈습니다. 할아버지는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사랑했습니다. 저는 십대의 소녀였을 때 할아버지 댁에 수없이 갔었는데,

할아버지가 가만 가족 의자에 앉아 경전을 읽으시는 것을 보곤 하였습니다. 할아버지는 가족에게 헌신적이었고 우리가 할아버지 댁에 자주 모이는 것을 좋아하셨습니다. 가족이 함께 모였다가 돌아갈 때가 되면 우리를 모으셔서 함께 이야기하곤 하시면서 할아버지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항상 우리에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과 복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공부를 열심히 하고 학교에서 최선을 다 하라고 격려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참됨에 대한 강한 간증을 전하시며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였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할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에 저는 추호의 의심도 품지 않았습니. 할아버지의 자손들은 대대로 그분의 훌륭한 모범을 따랐습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지만 저의 자녀들은 그분이 주님을 사랑했던 분이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니는 우리집 이층 침실에서 살았습니다. 연세가 90이 넘으셔서 몸이 쇠약하셨지만 마음은 빈틈이 없으셨으며 아기 이불 가장자리를 코바늘로 떠서 예쁘게 장식하거나 우리 어머니를 위해 바느질을 하시며 분주히 손을 움직였습니다. 할머니가 안계신 집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할머니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분이셨습니다. 할머니는 매우 인내심이 많았습니다. 제 남동생 리치와 저는 병원 침대에 누워계신 할머니와 말타기 놀이를 하며 많은 시간을 보냈으며, 침대 발치에 있는 크랭크를 돌려서 머리카락을 올렸다 내렸다 하였습니다. 할머니가 쉬고 계시면 우리는 할머니 방에 가서 크랭크를 올렸다 내렸다 해도 괜찮으신지 여쭙어보곤 하였습니다. 이 놀이가 시시해지면 우리는 할머니가 누워 계신 침대를 양쪽이 위로 올라가고 가운데가 폭 꺼지게 된 채로 두고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할머니는 이 일로 해서 결코 우리를 꾸짖으시지 않았으며 어머니에게도 우리를 꾸짖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할머니는 우리가 어린 아이라는 것을 이해하셨습니다. 다만 할머니는 옆에 놓여 있는 금줄을 들고 우리 언니들이나 부모님이 와서 할머니의 머리와 다리를 제자리로 내려주실 때까지 손을 올리셨습니다.

매일 저녁 혼들 의자에 앉아서 우리를 할머니 곁으로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자고 하시곤 하셨습니다. 우리가 따라서 반복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이 아름다운 짧은 구절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는 이제 잠자리에 들면서 제 영혼을 지켜주시도록 기도합니다. 제가 깨기 전에 죽어야 한다면 주님께서 제 영혼을 거두어 가시기를 기도합니다.” 그후에 우리는 각자 하나님에게 기도를 드립니다. 할머니는 우리 기도를 주의길게 들으시고는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곤 하셨습니다. 할머니는 모범으로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쳤습니다. 할머니는 저에게 기도에 대하여 가르쳐 주셨으며, 또한 사랑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디모테서에서 우리는 “믿는 자에게 본이 되”(디모테전서 4:12)라는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믿는 자란 그들이 배운 믿음에 따르는 사람을 말하며, 믿는 자의 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애와 원리를 생각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이해하며 행동이 그 믿음의 증거가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내가 믿는 자의 본이 되어야지”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고 사려깊고 모든 거래에 정직하고 충실하며 다른 사람을 돕고 내가 발전시켜야 할 필요가 있는 원리를 실천해야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열심히 노력하고자 하루 종일 애쓸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본으로 삼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원리에 훌륭한 본을 보이기 위해서 우리는 그 원리를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원리를 생활화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더라도 그것이 생활의 일부분이 되어 우리가 삶에서 믿고 있는 원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표출되어야 합니다.

어린이들은 꾸밈없이 보여지는 모범이 주는 힘에 특별히 민감합니다.

열 살 난 앤드리아가 연단에 섰습니다. 앤드리아의 까만 눈동자가 방을 한 번 둘러 보았습니다. 앤드리아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는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에이미 언니를 사랑합니다. 저는 에이미 언니가 친구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점을 사랑합니다. 에이미는 좋은 언니입니다.

“엘레인 아주머니는 쾌활하고 명랑한 어머니입니다. 아주머니는 모든 사람이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엘레인 아주머니와 같이 되고 싶습니다.

“할머니는 언제나 저에게 관심을 가지시며 저의 이야기를 잘 들어 주십니다. 친절하고 정다우시며 항상 모든 일을 올바르게 하시려고 하십니다.”

앤드리아의 언니, 아주머니, 할머니는 앤드리아의 마음을 사로잡을 만큼 원리들을 그리스도처럼 생활에 실천하였습니다. 앤드리아는 그들과 함께 있을 때 그들로부터 사랑과 자비를

느끼므로 그들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우리가 함께 있을 때 우리 자신에 대하여 좋은 느낌을 갖게 해주는 사람에게 끌린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과 같이 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런 일입니다.

믿는 자의 참된 본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그 원리에 충실해져서 자연스럽게 행동으로 표출되도록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가족 기도의 원리를 기키고자 한다면 부모로서 정구적으로 가족과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헌신하는 것과 기도에 의존하는 것을 깨달아서 부모의 모범을 따라 자신의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사랑을 말하네”라는 노래는 자녀에게 보여진 어머니의 기도의 힘을 나타냅니다.

“나는 매일 가족과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어머니를 보네.

머리 숙여 속삭이는 기도 소리를 듣네. 아버지께 드리는 어머니의 간구는 나의 두려움을 잠자게 하며,

나는 여기서 사랑을 말하는 것을 감사하네.”(어린이 노래책, 솔트레이크시티 :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1989년, 190~91쪽)

어머니의 모범으로 자라는 가족 기도에 참여하는 동안 평온을 느낍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모범을 선택하는 것에 특별히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선택하는 것을 통해서 자유 의지를 훈련합니다. 따라서 어떤 본을 따라야 한다는 강요를 받지 않습니다. 누구를 따라야 하고 누구를 따르지 않아야 하는지는 스스로가 선택합니다. 선택은 우리의 것이며 그 결과의 짐도 우리의 것입니다. 어떤 본을 따라야 하는지는 우리의 책임입니다.

물문경 첫 부분에서 우리는 니파이가 아버지의 말을 믿고 자신의 자유 의지에 따라 리하이의 의로운 모범을 따랐다는 것을 읽습니다. 레이먼과 레뮤엘은 아버지가 어리석다고 생각해서 반항하고 불평하였으며, 아버지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을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니파이, 레이먼, 레뮤엘의 선택의 결과는

분명합니다. 니파이는 주님의 영으로 축복을 받았으며, 레이멘과 레뮤엘은 절망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 스스로 선택한 결과는 그들의 것입니다.

믿는 자들의 살아 계신 분이 되시는 사랑하는 우리의 예언자 예즈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님은 “합당한 모범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됩시다. 이를 대신할 만한 만족스러운 방법이 없습니다.”(임프르브먼트 이라, 1948년 8월호, 494쪽)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를 우리의 완전한 모범으로 삼을 때, 안전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뿐만 아니라 무엇이 되어야 할 것인가도 보여 주셨습니다. “이제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느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거니와 나와 같은 자라야 하느니라.”(니파이삼서 27 : 27)

예수님은 유혹을 물리치시고,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하셨으며, 가르치실 때는 인내하셨지만 악을 책망하시는 데는 단호하셨습니다. 또한 회개한 자를 용서하셨고 병든 자를 고치셨으며 끊임없이 봉사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니파이인들에게 아름다운 복음 원리를 많이 가르치셨습니다. 행복해 지려면 계명을 따르라고 가르치셨고, 침례의 중요성에 대하여 가르치셨으며, 다투거나 싸우지 말고 서로 사랑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치셨고, “보라 나는 빛이라, 내가 너희의 분이 되노라.”(니파이삼서 18 : 16)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사랑에 있어서 완전한 모범을 보이셨으며,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요한복음 13 : 34)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주일날, 저는 초등학교의 다섯 살 짜리 말쑥꾸러기들 반을 대신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공과는 사랑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사랑하라



철심인 정원회 회원들. 새로 지지받은 샘 케이 시마부부로 장로와 한인상 장로가 애드니 와이 고마즈 장로와 함께 서 있음. 시마부부로 장로와 한인상 장로는 북아시아 지역 회장단 보좌임. 고마즈 장로는 신권과의 집행 관리자 보조임.

예수 말씀하셨네”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예수님은 누구나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로비가 어려운 질문을 했습니다. “아니에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셔요... 나쁜 사람은 사랑하지 않으셔요!”

“아니란다, 로비,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신단다.”

“예수님은 도둑을 사랑하지 않으셔요.”
“도둑까지도 사랑하시지.”

로비는 잠시 생각한 후에 “그분이 사랑하지 않은 사람을 알아요. 그분을 죽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그 때 저는 로비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심에 대하여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로비가 말을 가로 막으며, “정말로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을 박았어요?”라고 물었습니다.

“그렇단다.”

“어휴, 무척 아프셨겠네요.”

“그럼! 그러나 예수님은 못에 박혀 큰 고통으로 십자가에 매달리신 후에 까지도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누가복음 23 : 34)라고 그분을 십자가에 박은 사람들에 대하여 말씀하셨어요.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께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셨어요. 로비,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용서하였고 사랑하시기까지 하셨단다.

로비는 저를 쳐다보고 머리를 가우뚱거리며 “예수님이 정말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아파한테 물어볼거예요.”라고 말했습니다.

공과가 끝난 후 제가 가족과 함께 성찬식에 참석하러 가고 있는데 누군가 제 옷자락을 잡아당기는 것을 느꼈습니다. 로비였습니다.

“라이트 자매님, 아파가 그러시는데 자매님 말씀이 맞대요.”

저의 이 경험에서 중요한 점은 로비가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실 수 있다는 개념을 의아하게 생각한 것에서 그리스도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믿는 것으로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른 사람의 의로운 모범을 통해서 구세주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믿는자의 분이 될 수 있는 삶을 살도록 노력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시며 우리의 완전한 모범이 되신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엠 러셀 벨라드 장로
십이사도 정원희

“여러분이 능력껏 최선을 다했을 때, 만족하시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이 할 수 있었을까 하고 생각하며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사 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성인 자매 여러분. 1991년도 교회의 여성 대회에서 잠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게 된 것을 특별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주님께서 제 말씀이 여러분 각자에게 도움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각양 각색의 여성임을 잘 압니다. 오늘밤 생에 대한 열정으로 빛나는 순진한 얼굴의 아름다운 청년들이 보이고 주님에 대한 진실한 사랑으로 빛을 발산하고 있는 백발의 할머니들도 보입니다. 물론 여러분 중에는 최근에 침례받은 회원이 있는가 하면 평생 동안 교회를 위해 충실히 봉사한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중에는 기혼 자매와 독신 자매들이 있으며, 이혼을 하고 혼자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자매들과 미망인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건강하고 행복하며

영적으로 고조되어 있는 자매들이 많은 반면, 좋지 못한 건강과 외로움의 짐을 지고 마음의 화평을 찾기 위해 힘들게 노력하는 자매들도 있습니다.

어떤 자매들은 “최고의 엄마”가 되려고 애쓰는 듯 합니다. 여러분은 남편과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필요성을 느끼며, 반드시 가족 기도를 드리고 경전을 읽으며 가정의 밤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또한 자녀들의 숙제와 음악 레슨을 도울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며, 가정을 맡김히 정돈하고 보기 좋게 가꾸며, 영양식을 준비하며, 옷을 깨끗이 세탁하고 수선하며, 자녀들과 그들의 친구들을 차에 태워 학교에 데려다 주고 여러 가지 레슨과 연습과 운동 경기를 하게 하며, 가족이 각자 계획표대로 생활하게 하며, 그들이 있어야 할 때에 있어야 할 곳에 반드시 있게 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가족과 가정의 일입니다. 여기에는 사친회, 자원 봉사, 환자나 부상자나 특별한 관심을 요하는 사람들을 돌보는 일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선정적인 텔레비전, 영화, 비디오, 술, 마약, 외설물 등과 같은 세상의 악한 영향력으로부터 여러분의 가족을 보호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교회 부름을 충실히 완수해야 합니다. 더욱이 여러분 중에는 무시할 수 없는 실질적인 재정적 궁핍 때문에 생계비를 벌어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버려 두거나 소홀히하는 일이 있으면 여러분은 자신이 실패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괴로움을

느끼며 일이 밀려 주체 못하고 있는 자매들과 자신이 꼭 타야 한다고 생각하는 기차가 출발할 때 그 기차를 잡아탈 수 있을 만큼 자신이 빨리 달릴 수 있을까 하고 걱정하는 자매들에게 저는 이런 제언을 드립니다. 죄의식이나 부족하다는 느낌을 갖지 않고 능력껏 최선을 다하며 매일의 일에 대처하는 것을 배우십시오.

저는 언젠가 차 범퍼에 붙은 스티커에 다음과 같이 쓰여진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정해진 몇 가지 일을 하도록 이 지상에 저를 보내셨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 일을 다 못했으므로 그 일을 이루기 전에는 갑자기 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지상 생활의 시험 기간을 지나는 동안 이룩해야 할 자신의 목표를 갖고 있으며 아마도 종종 우리 자신의 목표가 가장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늘을 향해 바라보며 매일 인생의 즐거움을 찾으십시오.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십시오. 무엇이나 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능력껏 최선을 다했을 때, 만족하시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이 할 수 있었을까 하고 생각하며 뒤돌아 보지 마십시오. 스스로 마음을 편안히 가지십시오. 여러분이 행하지 않은 것 때문에 자신을 책망하기 보다는 오히려 여러분이 행한 일에 대해 자신에게 축하하십시오.

저는 저의 다섯 명의 딸과 두 며느리에게 그들이 마땅히 되어야 한다고 여기고 있는 그대로 되고 있을까 하고 걱정할 때 이 권고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능력보다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기대하지는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남편과 자녀들에게 이 권고가 필요할 때, 그들에게 이 권고를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현재의 환경이 어떠하든, 전세계에 퍼져 있는 이 위대한 자매애를 나누는 헌신적인 여러분은 자기 나름의 독특한 방법으로 교회를 세우고 강화하는 것을 돕는 데 매우 열심히 봉사하고 있습니다. 자매들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마음속에 확고한 간증을

업도록 도와 주는 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최근에 교회에 들어온 충실한 자매들과 청년들이 동유럽의 여러 나라와 소련 연방 공화국을 포함해서 새로 개방된 많은 나라에서 이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광활한 아프리카 대륙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으며 충실한 자매들의 봉사를 통해 촉진되고 있습니다. 때때로 많은 것을 희생해야 하는 지역인 아시아에서 입교하는 의로운 자매들은 자기 나라에서 교회를 강화하는 일을 돕고 있습니다. 많은 훌륭한 자매들이 라틴 아메리카와 대양의 섬들에서 용감하게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사실상 여러분은 현재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135개의 국가와 영지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1830년 초기부터 이 교회의 힘은 여러분과 같은 훌륭한 자매들과 청년들의 충실한 봉사를 통해 유지되어 왔으며 앞으로 계속 확장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지도자들이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며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으며 우리가 여러분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있음을 아십시오. 바로 이 순간 여러분의 환경에 관계없이 여러분 개개인인 하나님 아버지와의 사랑을 사랑하는 아들인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우 귀중한 존재임을 확신하십시오.

교회의 본부 직원들은 전세계 여러 나라를 여행하며 경청하고 가르치며 복음이 진실함을 간증합니다. 회원들을 방문할 때, 우리는 이 위대한 사업에 여러분과 같은 사랑스런 자매들이 훌륭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압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교회에 충실하며 주님을 사랑하고 있음을 알려, 여러분이 떠받쳐 주는 영향력을 느낍니다.

인내심으로 총관리 직원들을 대하십시오. 총관리 직원들은 스테이크와 와드의 신권 지도자들에게 청년과 성인 자매들의 필요 사항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의 말씀을 경청하고 여러분과 의논하도록 가르치고 있음을 아십시오. 여러분의 의견은 이 신권



템플 스케이에서 봉사하고 있는 자매 선교사들.

지도자들에게 귀중하고 절대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여러분의 식견과 통찰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교회 회원의 가정과 가족을 강화하는 데 바칠 많은 것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힘에 놀라며 여러분의 봉사를 소중히 여기며 여러분이 영생을 얻으려고 충실히 노력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여러분의 신앙과 개인적인 의로움은 여러분이 다음과 같은 진리를 이해하고 있음을 나타내 줍니다 :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합당하게 지킴으로써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순종하는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현재에서 자기 마음속의 모든 의로운 소망을 이루는 기회를 얻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만일 여러분이 지상 생활 동안 충실하고 복음의 원리대로 생활하면 영원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교회 지도자들은 여러분에게 영적인 복지와 세속적인 복지를 위한 지침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반복해서 가르치는 한 가지 원리는 여러분이 스스로 결정하도록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귀중한 자유의 가치입니다. 도덕적인 자유 의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지상 생활에서 믿음의 대상과 삶의 방법을 선택하게 해줍니다. 복음대로 생활하는 여러분의 순종에 기초를 두고 여러분은 자신의 행위에 따라 심판받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훌륭한 은사인 도덕적인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은 경전과 교회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공부할 수 있으며 성령의 속삭임을 통해 여러분의 영혼에 화평과 기쁨을 가져다 줄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의 대부분은 빅토르 위고의 고전 소설인 *레 미제라블*을 잘 알고 있습니다. 현대의 어느 작곡가는 이 이야기를 뮤지컬로 작곡했으며 그는 이 작품에서 평생 동안의 선택, 즉 일부 잘못된 선택과 영광스러운 많은 올바른 선택에서 비롯되는 결과를 시대순으로 아름답고 극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주인공인 장발장은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굶주리지 않도록 하려고 작은 빵 한 개를 훔친 죄 때문에 중노동의 종신형을 선고 받았습니. 감옥을 탈출한 그는 어느 신부의 가정에서 음식을 먹고 하룻밤을 피신합니다. 괴로움과 절망에

빠진 그는 수도원장 집의 탁자위에 있는 은촛대를 갖고 동트기 전에 몰래 달아납니다. 경찰은 그를 체포하여 신부에게 그 촛대가 도난당한 것인지 물어 봅니다. 신부는 경찰에게 은촛대는 거저 준 것일 뿐만 아니라 장발장이 그 쌍촛대의 한 짝을 잊어버리고 갔었다고 말합니다.

감사함을 느끼고 겸손해진 장발장은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에게 봉사하는 삶을 살기로 맹세합니다.

수년 후, 신원이 잘못 확인된 한 남자가 장발장이 선고 받은 형을 살도록 명령받습니다. 이제 장발장은 불가능한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그는 자신이 앞으로 나서서 자신의 신원을 밝히고 자신의 형을 살 것을 선택하는 경우에 오는 결과를 마음 속으로 생각해 봅니다. 그때까지 그는 매우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가 고용하고 있는 수천 명이 실직하게 됩니다. 그가 시장인 그의 마을이 수난을 겪게 됩니다. 그는 많은 사람을 도운 자선가였으며, 그들은 옹호자를 잃게 됩니다. 만일 그가 침묵을 지키면 분명히 그의 신분은 정당화됩니다.

그의 영혼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노래의 후렴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내가 이 남자에게 중노동의 형을 선고 받게 할 수 있을까?

그의 고뇌를 못본채 하면...

내가 내 신분을 영원히 숨길 수 있을까? 만일 내가 말하면 나는 죄를 선고 받는다. 만일 그대로 침묵을 지키면 나는 저주받는다.

절망에서 빠져나온 그의 결심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나는 내 영혼이 하나님에게 속해 있음을 알고 있다.

나는 오래 전에 그 약속을 했다.

하나님은 회망이 사라졌을 때 내게 회망을 주시고 인생의 여정에 힘을 주셨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시대를 초월하는 질문에 직면하여 만일 자신이 말하지 않으면 배신당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될 것이라고 깨달은 그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장발장입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여러분 개인은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반복해서 물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교회의 여성들을 위해 다음과 같은 청년 주제에 나와 있는 대답보다 더 좋은 대답이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딸이다. 우리는 그를 사랑한다. 우리는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범사에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모사이사서 18:9) 청년의 다음 가치관을 생활하고자 한다. 신앙, 거룩한 성품, 개인적인 가치, 지식, 선택과 책임, 선행, 성실.

“우리는 이러한 가치관을 받아들여 수행할 때 거룩한 성약을 맺고 지키며, 성전 의식을 받고, 승영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 준비를 갖추게 될 것임을 믿는다.” (청녀 지침서, 3쪽 참조)

저는 이 주제가 영감받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자녀가 이 주제를 이해하고 따른다면 이 세상은 훨씬 더 좋은 세상이 될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 진리대로 실천하면 자신이 누구인지, 왜 존재하는지, 또는 구원의 계획에서 맡고 있는 중요한 역할을 모르는 듯한 여성들의 조류에 함께 휘말리지 않을 것입니다.

1979년, 스펜서 더블류 킴블 대관장님은 제가 오늘 밤에 말씀드리는 것과 똑같이 교회의 여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 하나님의 예언자로서 참된 예언의 말을 사용하여 그분은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말일에 교회의 많은 주요한 발전은 (내적인 영성이 있는) 세상의 훌륭한 여성들이 교회에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발전은 교회의 여성들이 그들의 생활에서 의로움을 보여주고 그들의 생각을 명확히 말하는 정도까지 일어날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에서 모범이 되는 여성들이 말일에 숫적인 면이나 영적인 면에서 교회 발전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연차 대회, 1979년 10월)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이 얼마나 여성의 품위를 높여주는 말씀입니까.

모범이 되는 여성 여러분! 여러분이 주위의 모든 사람들을 강화시킬 수 있고 교회 발전에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약속입니까!

청녀 여러분, 작년 10월에 저는 연차 대회의 신권 모임에서 형제들에게 주로 도덕에 대하여 말씀했습니다. 저는 청남들에게 모든 연령의 자매들에게 사려깊은 태도를 함양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에게 여러분을 존중하고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예의를 보이도록 가르쳤으며 그들에게 동년배의 압력이 도덕적인 방법을 정당화시킬 수 있다는 생각에 절대로 굴복하지 말도록 권고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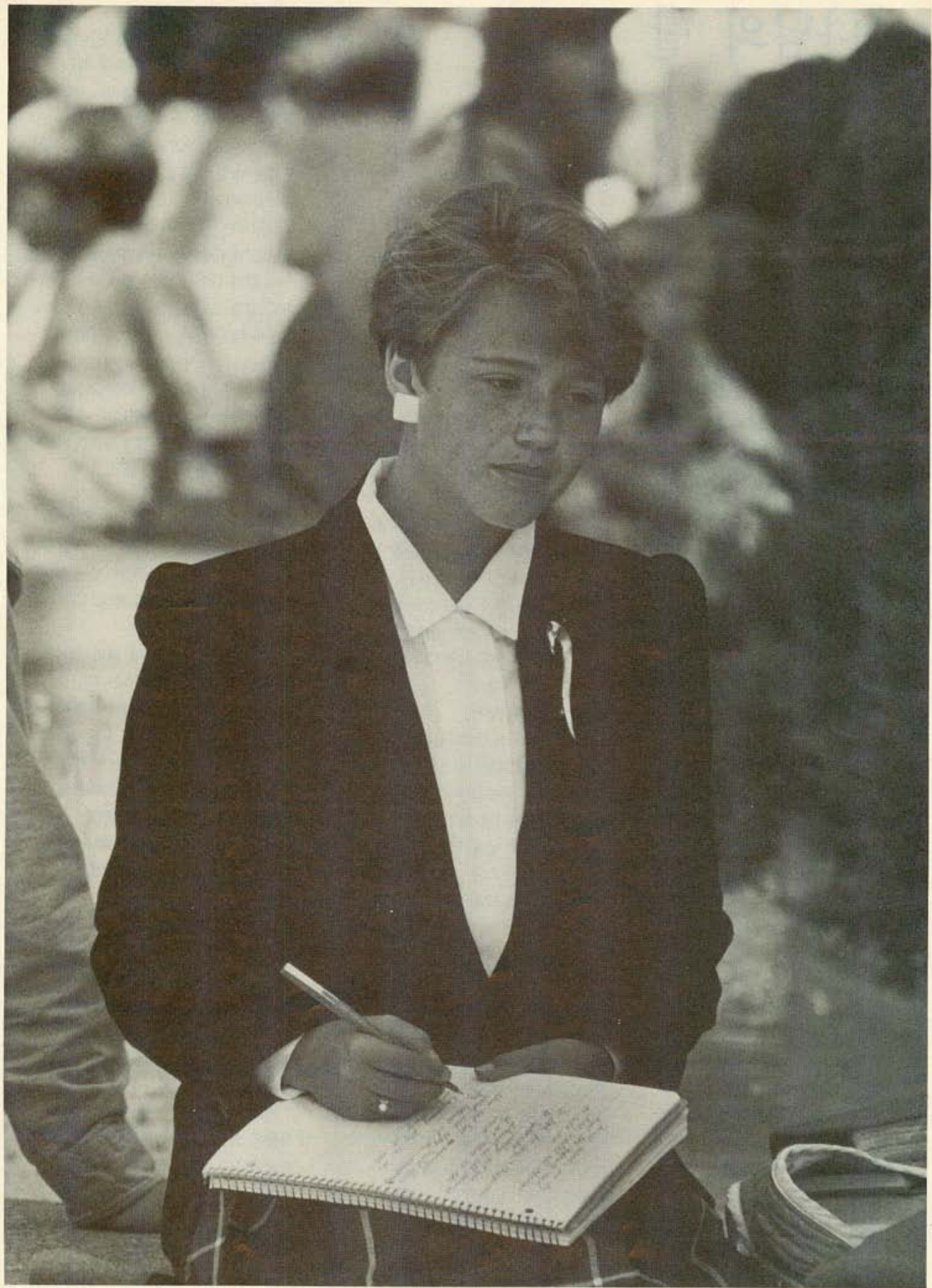
어떤 것이든 범법한 후에는 항상 자신을 존중하지 않게 됩니다.

청녀들은 청남들이 여러분의 가치관을 존중하고 여러분을 당연히 대접받을 자격이 있는 하나님의 딸로서 대하도록 모범을 보이는 생활을 할 책임이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의로운 딸들은 오늘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해 온세상을 준비시킬 사명을 띠고 있는 교회에 절대로 필요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모범과 빛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딸입니다. 여러분이 각자 모범이 되는 의로운 생활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사랑을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마음속에 항상 이 교회는 참되다고 하는 지식을 간직하고 계십시오.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시며 이 교회를 관리하고 계시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벤슨 대관장님은 주님의 예언자이시며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이신 예수님은 여러분의 모든 지도자들과 마찬가지로 교회의 귀중한 여성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은 물론이거니와 언제나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겸손히 간구드립니다. 아멘. *



하나님의 딸

고든 비 힐클리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1보좌

“우리는 모두 우리의 불멸성과 영생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에 따라 여기에 왔습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말씀해 주신 모든 분들과 아름다운 음악을 불러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 모임을 통해 영적으로 고조되고 영감으로 가득차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훌륭하신 자매님들과 벨러드 장로님의 뒤를 이어 말씀을 드리게 되어 매우 어려움을 느낍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야 할 무겁고도 중대한 책임을 실감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의 인도를 간구합니다.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 모두가 현재 치해 있는 환경에 관계없이 매우 소중한 분들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계획 안에서 높고 성스러운 위치를 차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매우 소중한 하나님의 딸이며 그분의 사랑을 받는 매우 귀중한 분들입니다. 여러분이 안계시다면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성취될 수 없습니다.

며칠 전, 벤슨 대관장님 앞으로 오는 편지가 제 사무실로 전달된 적이 있습니다. 그 편지를 조금 읽어드리고 그것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낸 사람의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 자매님이 어디에선가 제 말씀을 듣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며, 어쨌든 그 자매님을 곤란하게 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 자매님의 이름을 버지니아로 바꾸어서 편지의 일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벤슨 대관장님께,

“제 이름은 버지니아입니다. 저는 열네살입니다. 그런데 요즘 제 마음에 어떤 의문이 생겼습니다. 저는 경전에서 여성이 합당하다면 해의 영광에 갈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요셉 스미스와 같은 분이 해의 영광의 시현을 보았을 때, 그곳에는 남자만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기도해 보았지만 대관장님의 조언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경전에, 여성이 의로우면 축복을 받는다고 되어 있기는 한데 해의 영광에 대해서는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정말 저를 괴롭힙니다.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경전은 남자가 여자를 다스린다고 말합니까? 왜 경전에서 이브가 아담으로부터 창조되었다고 합니까? 제가 어리석음을 모르지만 솔직히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복음을 사랑하며 복음이 참되다는 것에 대하여 배우고

있습니다. 저는 간증도 있으며 인생에는 신성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저는 남자가 여자보다 더 중요한지 여쭙어보고 싶습니다. 여자 또한 해의 왕국에 갈 수 있습니까?...

“저는 아직 어리고 배우는 중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도움을 주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버지니아 올림”

벤슨 대관장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자매님의 편지에 대신 답을 드리며, 또한 오늘 저녁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인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자매님의 편지는 대관장단의 서기가 접수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자매님의 편지가 매우 심각한 어조로 쓰여졌다고 느꼈으므로 좀더 만족할 만한 답을 필요로 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매님의 질문은 아마도 자매님 연령의 청년과 어머니 나이의 여성들, 할머니 나이의 여성들 또는 결혼을 했던 독신이든 상관 없이 많은 자매님들이 마음에 품고 있을 것입니다.

첫째, 자매님은 여자가 해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물론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남자와 똑같이 해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으며, 합당성이 그곳에 들어가는 결정 요소가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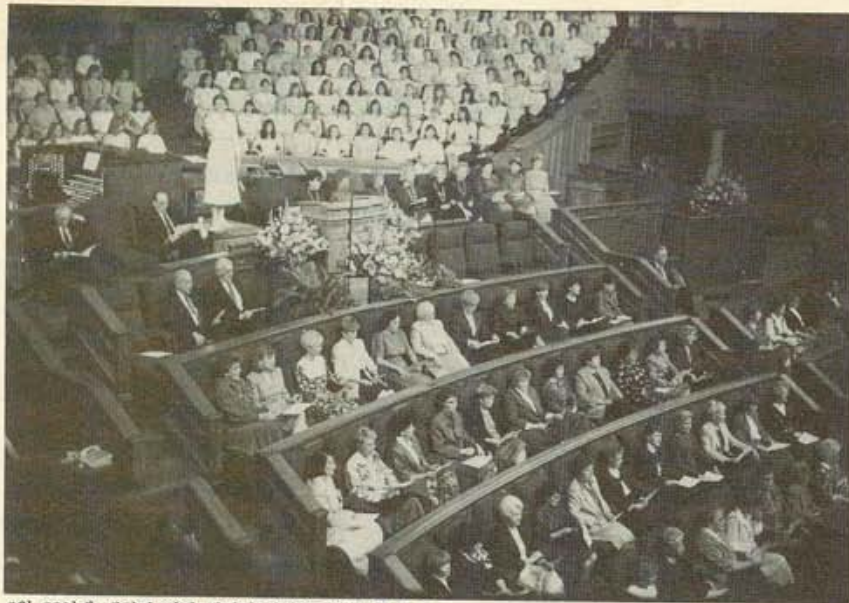
1832년 2월 16일, 요셉 스미스와 시드니 리그돈은 놀라운 시현을 보았는데, 여기에서 주님은 다음과 같이 훌륭하고도 또한 도전할 수 있는 목표를 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나 주는 나를 두려워하는 자에게 자비로우며 은혜를 베푸나니 끝까지 의와 진리로 나를 섬기는 자를 존귀하게 하기를 기뻐하노라.

“저희 상은 클 것이요, 저희 영광은 영원하리로다.”(교리와 성약 76 : 5~6)

저는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그분의 아들은 물론 딸도 함께 언급하셨다고 확신합니다. 각자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무한할 것이며, 남자와 여자에게 똑같이 주어질 영광이 끝이 없을 것입니다.

같은 계시에서, 요셉 스미스와 시드니 리그돈은 다음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9월 28일에 개최된 여성 대회에 참석한 자매들의 모습

세상의 구세주에 관하여 감동적인 간증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드리는 어린 양에 대한 간증은 이러하니, 곧 저는 살아계시다 합이나라!

“이는 우리가 하나님 우편에 있는 저를 보았고, 또 저는 아버지의 독생자라 간증하는 음성을 들었고...

“또 저로 말미암아, 저를 통하여, 저로 인하여 세상이 창조되어 지금 존재하며 거기 사는 주민은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 딸이라는 간증을 들었음이라.”(교리와 성약 76 : 22~24)

이 놀라운 선포에서 아들과 딸이 모두 언급되었음을 주의하십시오.

물론 그 뒤에 나오는 절에 ‘Man’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것은 사실이지만, 저는 그 용어가 남자와 여자를 모두 포함하는 “인간”이라는 뜻으로 쓰여졌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어진 계시에는 예수님에 대한 간증을 얻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방법대로 침례를 받고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 대한 언급과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면전에서 영원토록 살리라”(교리와 성약 76 : 62)는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저들의 몸은 해의 영광에 속하며 저들의 영광은 태양의 광채와 같으니, 곧 하나님의 영광이요, 모든 것 중에 가장 높은 것이니 하늘의 해가 그 영광의

상징으로 기록되어 있느니라.”(교리와 성약 76 : 70)

그러한 영광에 참여할 사람들 중에 여성도 포함되었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실제로, 해의 왕국에서 가장 높은 영광을 받으려면, 남자는 여자 없이 들어갈 수 없고 여자도 남자 없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영광의 가장 높은 등급에 속할 자격을 갖추는 데 있어서 남편과 아내는 서로 분리될 수 없습니다. 아내가 그 영광에 합당하게 생활하면 남편이 받는 영광과 같은 영원한 해의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결코 의심하지 마십시오, 버지니아, 자매님의 오빠나 남동생 뿐만 아니라 자매님도 받을 수 있는 그 영광에 합당하게 생활하기만 하십시오.

어쩔 수 없이 결혼하지 못한 사람들 중에 해의 왕국에서 가장 높은 영광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인지에 관해 질문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와 거룩하신 구속주의 계획하에서 합당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받지 못하게 될 축복은 없다고 확신합니다.

76편과 137편에서 찾아볼 수 있는 훌륭한 설명 이외에 우리는 해의 왕국과 그곳에 거하게 될 사람에 대하여 아는 바가 거의 없습니다. 그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에 대하여 적어도 몇 가지 규칙은 분명하게 주어졌지만, 그 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것 만큼 하나님의 딸들 역시 그곳에 확실히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교회의 모든 자매님들은 이 영광스러운 목표를 갖고 있어야 하며, 또한 여러분이 영예롭고 정직하고 유덕하게 되며 사랑과 봉사의 정신을 갖고 생활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요인이 되어야 합니다.

경전에서 Man(사람), 또는 Men(사람들)이라는 단어와 함께 Woman(여자), 또는 Women(여자들)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안해 하지 마십시오. 이 용어는 일반적으로 남 녀 양쪽 성을 지칭한다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이 용어는 수 세기 동안 경전은 물론 다른 문헌에서도 사용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미 합중국 설립의 기초가 되는 독립 선언문을 보더라도 “우리는 모든 사람들(men)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명백히 지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독립 선언문을 작성한 사람들이 ‘Men’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사실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매님은 한 순간이라도 이 선언문에서 여자를 포함시키지 않으려고 했다는 의심을 한 적이 있으십니까?

“모든 남자, 여자, 그리고 어린이들”이라고 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간단히 일반적인 의미로 ‘Men’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자매님의 다음 질문은 왜 이브가 아담으로부터 창조되었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은 모든 것에 현명한 창조주께서 그렇게 행하셨다는 말씀 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에 대해 매우 흥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경전에 나타난 사건의 순서를 보면, 하나님은 먼저 지구를 창조하셨는데, “땅은 형체가 없이 공허”했습니다. 그리고 빛과 어두움을 나누고 땅과 육지를 나누셨습니다. 그런 후에 온갖 종류의 식물을 창조하시어 나무와 풀, 꽃과 관목을 두어 아름다움을

더하셨습니다. 그런 후에 바다와 육지에
동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보시고, 보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셨으며, 그 다음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예로운 창조 사업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그분의
일을 쉬기 전에 마지막 걸작품으로
이브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브가 아담 다음 가는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브는 아담의
동반자의 관계로서 그의 옆자리를
차지하였으며, 그들은 에덴 동산에 함께
있었고, 함께 쫓겨 났으며, 그들이 쫓겨난
세상에서 함께 일했습니다.

또한 버지니아 자매님은 아담이 이브를
다스려야 한다는 성구를 언급하시면서, 왜
그래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저도
모릅니다. 유감스럽게도 수세기에 걸쳐서
일부 남자들이 이것을 여성을 학대하고
여성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 사용해왔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은 행위로
말미암아 그들이 자신의 품위를
떨어뜨렸을 뿐만 아니라 아들을
사랑하시는 만큼 딸도 똑같이 사랑하시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상하게
하셨다고 확신합니다.

언젠가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님과
한 자리에 앉아 창세기에 언급된 그
구절에 대하여 토론한 적이 있습니다.
맥케이 대관장님은 포악한 남편들에 대해
이야기할 때 분노의 눈빛을 보이시면서
그러한 사람들은 주님 앞에 심판 받으러
나와 섰을 때에 자신이 행한 사악한
행위를 날같이 고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맥케이 대관장님은
집안에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다스릴
때는 누구든지 오직 의로움으로써만
다스려야 한다는 것이 바로 복음의
정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이 이브를 다스려야 한다는 문장에
대한 저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부양하고, 보호하며, 강화시키며
감싸도록 다스리는 책임이 있습니다.
여자를 하찮게 보거나 학대하거나 또는

공포에 떨게 하거나 불의하게 다스리는
자는 그분의 아들과 딸 모두의 영원하신
아버지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매님은 남자가 여자보다 더
중요하다고 질문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중에 남자나 여자나 어느 한쪽 없이
이곳에 있을 분이 계시냐고 묻고
싶습니다. 경전에는 하나님이 그분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명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창조되었으며 서로 상호 의존적이고
인류의 존속을 위해 똑같이 필요합니다.
인류 역사의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는 그
자체가 남자와 여자 모두가 필요하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매님은 편지에서 "저는 간증을
가지고 있으며 인생에는 신성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자매님은 신성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매님의 오후나 남동생들과
마찬가지로 자매님과 자매님의 언니와
여동생에게도 신성의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의 불멸성과 영생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에 따라 여기에
왔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필멸의 지상
생활은 우리가 합당하게 생활하면 받을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특권인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되는
다음에 올 세상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자매님은 거의 모든 경전이 남자에게만
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것은 특별한 의미에서 신권 의무와
책임과 관련되어 사용되었고 또 어떤
것은 제가 지적한 바와 같이 일반
총칭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통해 그의 아내 엠마와 교회의 모든
여성들에게 주어진 위대하고도 놀라운
계시를 상기시켜 드립니다. 주님은 이
계시를 마치시면서 "이는 모든 자에게
주는 나의 음성입니다."라고
하셨습니다.(교리와 성약 25 : 16)

이 계시의 첫번째 귀절에서 주님은

"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나의
왕국에서 모두 아들이요,
딸이니라."(교리와 성약 25 : 1)라고
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위대하고 진실되며 성스러운
약속의 말씀입니까? 이렇게 시작된 이
계시의 말씀은 엠마 스미스와 주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실천하는 모든
여성에게 많은 충고와 칭찬과 지시 및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자매님이 이러한
문제들을 걱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보다는 자매님이 의롭게 살며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간구하며 또한 그 뜻에
따라 행하고 봉사하고 간증으로 다른
사람을 강화하며 우리 모두의 아버지께
의롭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자매님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확신하십시오. 또한 우리 모두가
자매님을 사랑한다는 것도 확신하십시오.
자매님이 의롭게 생활할 때 하나님의
가장 선별된 축복들이 자매님에게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로 자매님이 가까이 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를 항상 자매님의 친구로
삼으십시오.

이제 기도에 대해 말씀드리면서 다른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저는 여러 해에
걸쳐 지역 대표들이 연차 대회에
참석하러 올 때면 항상 말씀을 했으므로
지난 4월에도 지역 대표들에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 모임은 지역 대표들이
교회 전체에 전해 줄 자료를 얻게 되는
훈련 모임입니다. 이 모임에서 이루어진
사항에는 비밀이나 숨길 일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어떤 사람이 제 말씀의
사본을 하나 밖에 없는 가르침인양
여기면서, 저의 말씀이 세상으로부터
숨기워지도록 비밀스럽고 은밀하게
전달되어야 될 것처럼 안전하게
보관했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터무니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교회의 극소수
자매들이 행하는 문제에 관한 저의
말씀의 일부를 다시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몇몇 사람들이

그들이 행하고 있는 길로 다른 사람을 이끌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늘에 계신 어머니에게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에 대하여 말씀드리며, 제가 전에 드린 말씀을 인용하겠습니다.

“이것은 개인 기도로서 시작되었고, 이제 일부 교회 모임에서 드리는 기도에 까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역시 계심을 진리 영원한 이성 말하네”(찬송가, 1985, 292장)라고 쓰신 분은 엘리자 알 스노우였습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께서는 스노우 자매님이 쓰신 가사에 아무런 수정도 하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므로 하늘에는 어머니가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머니께 기도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논리와 이성으로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면 하나님 어머니도 계시다는 것이 확실하며, 그 교리를 충분히 납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지시를 보면, 교회 내에서 누구라도 하늘에 계신 어머니에게 기도하는 것은 합당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세워 주시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마태복음 6:9)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니파이인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에도 ‘그러므로 너희는 이같이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니파이삼서 13:9)라고 기도하도록 가르치셨습니다.

“주님은 니파이인들과 함께 계시는 동안 기도하는 것에 대해 예와 교훈으로 가르치셨다고 문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도 친히 땅에 무릎을 꿇으시고, 보라 아버지께 간구하시었으니 이제 그 간구하신 대로 날날이 기록하지는 못하나, 그의 간구를 들은 자들이 그 들은 바를 증거하였고,’(니파이삼서 17:15)

“그리고 다 말씀하시기를 ‘너희 가족과 더불어 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구하여 너희의 처와 자녀들이 복받게 하라.’(니파이삼서 18:21)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경우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저들 가운데서 좀 떨어진 곳으로 나아가시어 친히 땅에 엎드리어 이르시기를,

“아버지시여, 내가 택한 자들에게 성신을 주심을 감사하나이다. 내가 저들을 세상에서 택하였음은 나를 믿는 저들의 신앙으로 인함이니이다.

‘아버지시여, 간구하옵기는 저들의 말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도 성신을 내려 주옵소서.’(니파이삼서 19:19~21)

“그리고 저는 경전의 다른 예를 들면서 말씀을 계속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연구해 본 결과, 저는 표준 경전 어느 곳에서도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외에 다른 누구에게 기도하셨거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외에 어느 누구에게도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내용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저는 요셉 스미스 대관장님으로부터 벤슨 대관장에 이르기까지 교회의 역대 대관장 중에 혹시 하늘에 계신 어머니께 기도를 드리는 분이 계신가가 알아 보았지만 헛된 일이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어머니께 기도하거나 계속해서 하려는 사람들은 뜻은 좋지만 잘못된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어머니에게 기도드리지 않는다는 사실로 그분을 격하시키거나 모독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제가 드리는 인용의 끝입니다. 그 말씀에 더하여서, 저는 우리 중에 누구라도 우리에게 전혀 알려지지 않은 하늘에 계신 어머니의 영예를 더하거나 뺄 수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전세계적으로 수 백만에 이르는 충실한 말일성도 자매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여러분의 힘은 위대하며, 여러분의 헌신과 재능은 놀랍고, 여러분의 신앙과 주님과 그분의 사업과 그분의 아들들과 딸들에 대한 여러분의 사랑은 경이적입니다. 복음대로 계속

생활하십시오. 여러분이 이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선한 업적은 여러분이 말로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무거운 짐을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덕성과 진리 안에서 신앙과 충실함으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은 영원하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원한 계획에 매우 중요한 분들입니다.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하루 하루는 영원의 일부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무척 힘든 짐을 진 사람들이 많다는 것도 저는 압니다. 교회 안의 여러분의 친구, 형제, 자매가 그 짐을 도와 함께 지도록 허락하십시오. 전능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힘과 여건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십시오. 이 사업은 기적을 이루는 사업입니다. 여러분도 저도 이 사실을 압니다. 물론 여러분에게 실망하지 말고 신앙으로 전진해 나아가라고 말로만 하기란 쉬운 일이지만, 그래도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하루 하루 해야 할 일을 충분히 마칠 수 있는 힘을 얻고 여러분의 보살핌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갖도록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저와 마찬가지로 이 사업이 진실되고,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살아계시며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아버지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구세주이시며,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업이 이 경륜의 시대에 회복되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제가 드릴 수 있고 또 드리는 것과 같은 그러한 간증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의 사랑과 축복을 여러분에게 남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저는 여기에서 아버지가 일 아담스가 요한 아담스와 동일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선언문의 서명자 56명 모두가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 이어온 세대들은 ‘Men’이라는 말을 일반적 총칭의 의미에서 *사람들*로 해석해 왔습니다. 그 문제에 대한 질문이 없도록 다른 많은 예를 드릴 수 있습니다. *

어린이에 관한 총관리 역원의 말씀

1991년 10월 5~6일에 개최된 제161차 반연차 대회 보고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2보좌

어린이들은 천성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능력을 믿는 변치 않는 신앙을 부여받은 것 같으며 그들의 순진한 기도가 응답되기를 바랍니다.

어린 아이들의 웃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기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린 아이들의 신앙으로 우리의 영혼이 위로 받으며 어린 아이들의 사랑으로 우리가 선행을 하도록 영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식은 여호와와의 주신 기업"(시편 127:3)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의 특별한 친구들인 이 아름다운 영혼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겸손하게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보이드 케이 패커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회원

자녀들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우리들은 기도로 하나님께 말씀드릴 적에 경건한 용어를 사용한다는 것을 부드럽게 알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데이비드 비 헤이트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회원

저의 아버지께서는 제가 겨우 아홉 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성장하는 동안, "아버지께서는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실까?" 또는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실망시키지 않을 수 있을까?" 하고 종종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저를 가르치셨으며 저를 믿으셨습니다. 저는 더 이상 어린 소년이 아닌 어른이 되었으며, 따라서 어른답게 행동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한 사람들은 여러분을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믿으며, 여러분의 부모님들과 형제 자매들도 여러분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최상의 것을 기대하십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믿어야 합니다.

제임즈 이 파우스트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회원

솔직히 말씀드리려 저는 어렸을 때, 일요일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아무런 활동도 하지 못하게

하셨으며, 탈 것도 이용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동차를 탈 수도 없었으며 심지어는 자동차에 시동을 걸 수도 없었고, 말이나 소 등 탈 것이라고는 양조차도 탈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안식일이었으며 계명에 따라 동물들 또한 안식을 취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걸어서 교회에 갔으며 가기를 원하는 곳은 어디에나 걸어서 갔습니다. 저는 영적으로 율법에서 요구하는 그대로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회원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남녀 노소를 불문하고 죄란 결코 행복한 것이 아니며 죄는 비참함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젊은이 여러분, 걸은 번지르르 하지만 아무 의미없는 세상적인 것에서 행복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릇된 것에서 영속적인 행복을 찾을 수 없습니다.

맥스 디 피네가 장로
칠십인 정원회 회장단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를 알고, 또한 그를 따르겠다는 소망을 가졌다고 해서 모든 것이 늘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결정이나 시련에 직면할 때 제 가장 사랑하는 친구가 자문하던 다음의 질문을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주님은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시나?", "나는 이 일을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

호르헤 에이 로하스 장로
칠십인 제이 정원회 회원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며, 여러분과 여러분의 형제들을 다 아시고, 우리 모두의 이름까지도 알고 계신단다. 너무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에 대한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



교회 교과 과정에 관련된 대회 말씀

아래의 도표는 교회 회원, 부모 및 교사가 복음을 공부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준비된 것이다. 이 도표는 1992년도 청소년 및 성인 교과 과정과 관련된 1991년도 10월 반연차 대회 말씀을 소개해 주는 것이다.

1992년도 열기제맥 신권 개인 학습 지도서	
공과	연사
1	고든 비 힝클리(신권 모임)
2	마빈 제이 에쉬튼
3	그레이엄 더블류 독시
6	엘 러셀 블라드
8	데이비드 비 헤이트, 러셀 엠 셀슨
9	달린 에이치 우스, 조셉 비 워스런
11	엘 톰 페리, 데니스 비 뉴엔슈안더, 조지 아이 캐닌
13	고든 비 힝클리(토요일 오전 모임), 호르헤 에이 로하스
15	리차드 지 스코트
16	닐 에이 맥스웰
17	보이드 케이 패커
18	찰스 디디에이
19	하워드 더블류 헌터
20	고든 비 힝클리(일요일 오전 모임), 렉스 디 파네가
21	토마스 에스 몬슨(신권 모임), 홀리오 이 다빌라
22	토마스 에스 몬슨(일요일 오전 모임), 토마스 에스 몬슨(일요일 오후 모임), 에이치 발란 앤더슨
25	로버트 엘 백맨, 크리 엘 코포드
26	제임즈 이 파우스트
27	조셉 시 유른 테드 이 브루어른

1992년도 상호부조회 개인 학습 지도서	
영적인 생활 공과 연사	
2	찰스 디디에이
3	하워드 더블류 헌터, 조셉 비 워스런
7	조셉 비 워스런, 리차드 지 스코트, 로버트 엘 백맨
8	닐 에이 맥스웰, 달린 에이치 우스
10	보이드 케이 패커, 그레이엄 더블류 독시
11	프랜시스 엠 기번즈
14	고든 비 힝클리(일요일 오전 모임), 리차드 지 스코트
15	고든 비 힝클리(일요일 오전 모임)

가정 및 가족 교육 공과 연사	
1	고든 비 힝클리(신권 모임), 토마스 에스 몬슨(일요일 오전 모임), 에이치 발란 앤더슨

2	고든 비 힝클리(신권 모임), 조지 아이 캐닌
5	보이드 케이 패커
6	고든 비 힝클리(신권 모임)
7	토마스 에스 몬슨(일요일 오전 모임)
9	엘 톰 페리
10	하워드 더블류 헌터

자선 봉사 / 사회 관계 공과 연사

1	홀리오 이 다빌라, 데니스 비 뉴엔슈안더
3	러셀 엠 셀슨, 렉스 디 파네가, 가드너 에이치 러셀
5	마빈 제이 에쉬튼, 렉스 디 파네가, 에이들린 에이치 클라이드

가정 관리 공과 연사

5	엘 톰 페리
9	데이비드 비 헤이트, 엘 톰 페리

1992년도 방문 교육 공과 연사

1	1월 에이들린 에이치 클라이드
9	9월 토마스 에스 몬슨(일요일 오전 모임)
10	10월 마빈 제이 에쉬튼
12	12월 에이들린 에이치 클라이드

방문 교육 메시지

성도의 첫 연차 대회 특집호(1월호와 7월호)에는 지정된 방문 교육 메시지가 실리지 않는다. 방문을 받는 자매들의 필요 사항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생각해 본 다음 방문 교사들은 대관장단의 일원의 연차 대회 말씀을 선택하여 그 달의 메시지로 사용한다.

1992년도 복음 교리반-물문경 공과 연사

2	토마스 에스 몬슨(일요일 오전 모임), 엘 러셀 블라드
3	그레이엄 더블류 독시
4	보이드 케이 패커, 엘 톰 페리
5	크리 엘 코포드, 달린 에이치 우스
6	고든 비 힝클리(토요일 오전 모임), 마빈 제이 에쉬튼

7	테드 이 브루어른
9	테드 이 브루어른
10	고든 비 힝클리(신권 모임), 에이치 발란 앤더슨
12	프랜시스 엠 기번즈, 닐 에이 맥스웰
13	렉스 디 파네가
14	토마스 에스 몬슨(일요일 오후 모임)
15	제임즈 이 파우스트
16	달린 에이치 우스
17	호르헤 에이 로하스
18	데니스 비 뉴엔슈안더
20	로버트 엘 백맨, 찰스 디디에이
21	닐 에이 맥스웰
22	조지 아이 캐닌
23	홀리오 이 다빌라, 데니스 비 뉴엔슈안더
24	조셉 시 유른
25	찰스 디디에이, 리차드 지 스코트
27	조셉 비 워스런, 닐 에이 맥스웰
28	크리 엘 코포드, 달린 에이치 우스
30	데이비드 비 헤이트
31	홀리오 이 다빌라, 조셉 시 유른
32	에이치 발란 앤더슨
35	보이드 케이 패커, 제임즈 이 파우스트
36	토마스 에스 몬슨(신권 모임), 로버트 엘 백맨
37	렉스 디 파네가
43	호르헤 에이 로하스
44	조지 아이 캐닌

1992년도 초등학교 정의반 제1과정 공과 연사

1	조셉 비 워스런
10	리차드 지 스코트
13	찰스 디디에이
21	보이드 케이 패커
28	렉스 디 파네가
29	러셀 엠 셀슨
32	마빈 제이 에쉬튼
37	제임즈 이 파우스트
39	렉스 디 파네가, 에이들린 에이치 클라이드
41	로버트 엘 백맨

정의반 제2과정 공과 연사

4	엘 러셀 블라드
8	닐 에이 맥스웰
18	리차드 지 스코트
19	찰스 디디에이, 그레이엄 더블류 독시
21	로버트 엘 백맨
27	에이치 발란 앤더슨
28	리차드 지 스코트
34	달린 에이치 우스, 조셉 비 워스런
36	고든 비 힝클리(일요일 오전 모임), 렉스 디 파네가

용기반 제1과정 공과 연사

7	에이치 발란 앤더슨
8	로버트 엘 백맨
10	그레이엄 더블류 독시
14	조셉 시 유른, 가드너 에이치 러셀
15	하워드 더블류 헌터
16	조셉 비 워스런
21	호르헤 에이 로하스
24	조지 아이 캐닌
26	제임즈 이 파우스트
33	고든 비 힝클리(일요일 오전 모임), 마빈 제이 에쉬튼
40	닐 에이 맥스웰
43	리차드 지 스코트



용기반 제2과정

공과	연사
4	로버트 엘 백맨
9	앨 러셀 벨라드
12	앨 러셀 벨라드

불꽃반 제1과정

공과	연사
2	로버트 엘 백맨
9	데이비드 비 헤이트
10	리차드 지 스코트
16	호르헤 에이 로하스
17	렉스 디 피네가
19	가드너 에이치 러셀, 데니스 비 뉴엔슈안더
24	조셉 비 위스런, 조지 아이 캐닌
31	제임즈 이 파우스트
32	찰스 디디에이
33	러셀 엠 뱀슨
43	그레이엄 더블류 독시

커피리반 제1과정

11	리차드 지 스코트, 프랜시스 엠 기번즈
18	러셀 엠 뱀슨, 조셉 시 뮈른
22	고든 비 힐클리(일요일 오전 모임)
23	조셉 비 위스런, 조지 아이 캐닌
27	렉스 디 피네가, 에일린 에이치 클라이트
31	제임즈 이 파우스트

주일학교 제12반

공과	연사
5	렉스 디 피네가
8	호르헤 에이 로하스
14	데이비드 비 헤이트
16	널 에이 맥스웰
23	데이비드 비 헤이트
27	로버트 엘 백맨
41	크리 엘 코포드

주일학교 제13반

공과	연사
10	렉스 디 피네가, 로버트 엘 백맨
11	찰스 디디에이, 리차드 지 스코트, 프랜시스 엠 기번즈
12	리차드 지 스코트, 프랜시스 엠 기번즈
14	호르헤 에이 로하스
18	찰스 디디에이
19	리차드 지 스코트
20	러셀 엠 뱀슨, 홀리오 이 다빌라, 데니스 비 뉴엔슈안더, 가드너 에이치 러셀
21	데이비드 비 헤이트
22	데이비드 비 헤이트, 달린 에이치 옥스, 에이치 빌란 앤더슨
24	러셀 엠 뱀슨, 홀리오 이 다빌라, 조셉 시 뮈른
26	데이비드 비 헤이트
27	널 에이 맥스웰, 달린 에이치 옥스
28	렉스 디 피네가

29	데이비드 비 헤이트, 에이치 빌란 앤더슨
	호르헤 에이 로하스
32	로버트 엘 백맨, 렉스 디 피네가
37	달린 에이치 옥스, 조셉 비 위스런
38	데이비드 비 헤이트
40	크리 엘 코포드

주일학교 제14반

공과	연사
1	데이비드 비 헤이트, 로버트 엘 백맨,
32	찰스 디디에이
43	그레이엄 더블류 독시
45	로버트 엘 백맨
46	엘 톰 페리

커피리반 제2과정 / 불꽃반 제2과정 / 주일학교 제11반

공과	연사
5	크리 엘 코포드
9	앨 러셀 벨라드
14	리차드 지 스코트, 프랜시스 엠 기번즈
17	달린 에이치 옥스, 조셉 비 위스런
19	널 에이 맥스웰
20	고든 비 힐클리(일요일 오전 모임), 에일린 에이치 클라이트
21	러셀 엠 뱀슨, 조셉 시 뮈른
24	보이드 케이 패커
26	널 에이 맥스웰
40	그레이엄 더블류 독시
42	조지 아이 캐닌

4	렉스 디 파네가, 조지 아이 캐넌
5	고든 비 힐클리(일요일 오전 모임)
6	그레이엄 더블류 독시
7	앨 러셀 벨라드
8	앤 리셀 벨라드, 찰스 디디에이
12	보이드 케이 패커, 그레이엄 더블류 독시
14	고든 비 힐클리(일요일 오전 모임)
16	러셀 엠 넬슨, 홀리오 이 다빌라, 조셉 시 유른, 테니스 비 뉴먼슈안더
17	달린 에이치 옥스
19	토마스 에스 몬슨(신권 모임)
26	데이비드 비 헤이트
27	에일리 에이치 클라이드
33	앨 러셀 벨라드
34	토마스 에스 몬슨(신권 모임)
38	리차드 지 스코트, 프랜시스 엠 기번즈
39	닐 에이 맥스웰
40	고든 비 힐클리(일요일 오전 모임)
41	고든 비 힐클리(일요일 오전 모임)
41	토마스 에스 몬슨(일요일 오후 모임)

주일학교 제15반

공과	연사
1	하워드 더블류 헌터, 조셉 비 위스린
6	로버트 엠 백맨
8	데이비드 비 헤이트
12	크리 엘 코포드
16	마빈 제이 에쉬튼
17	데이비드 비 헤이트, 달린 에이치 옥스
18	고든 비 힐클리(일요일 오전 모임), 로버트 엠 백맨, 렉스 디 파네가
19	테드 이 브루어른
21	리차드 지 스코트, 프랜시스 엠 기번즈
22	조셉 비 위스린
24	하워드 더블류 헌터
27	앨 러셀 벨라드
28	호르헤 에이 로하스
29	조셉 비 위스린
31	닐 에이 맥스웰
32	호르헤 에이 로하스
35	토마스 에스 몬슨(일요일 오전 모임)
37	제임스 이 파우스트
40	토마스 에스 몬슨(신권 모임), 가드너 에이치 러셀
42	고든 비 힐클리(일요일 오전 모임)
43	조지 아이 캐넌, 크리 엘 코포드

주일학교 제16반

공과	연사
2	데이비드 비 헤이트
7	크리 엘 코포드
8	리차드 지 스코트, 프랜시스 엠 기번즈
10	보이드 케이 패커, 그레이엄 더블류 독시
13	하워드 더블류 헌터, 조지 아이 캐넌
15	찰스 디디에이, 조셉 시 유른
16	로버트 엠 백맨, 렉스 디 파네가
17	닐 에이 맥스웰
18	호르헤 에이 로하스
19	테드 이 브루어른
20	그레이엄 더블류 독시
21	데이비드 비 헤이트
23	고든 비 힐클리(신권 모임), 토마스 에스 몬슨(신권 모임)
24	고든 비 힐클리(신권 모임)
26	데이비드 비 헤이트
27	제임스 이 파우스트
29	앨 톰 페리
30	마빈 제이 에쉬튼
32	에일리 에이치 클라이드
34	토마스 에스 몬슨(신권 모임)
35	고든 비 힐클리(일요일 오전 모임)
39	토마스 에스 몬슨(일요일 오전 모임)

주일학교 제17반	공과	연사
2	조지 아이 캐넌	
3	데이비드 비 헤이트	
7	리차드 지 스코트, 프랜시스 엠 기번즈	
8	닐 에이 맥스웰	
9	보이드 케이 패커, 그레이엄 더블류 독시	
10	렉스 디 파네가, 찰스 디디에이	
11	고든 비 힐클리(일요일 오전 모임)	
12	보이드 케이 패커, 그레이엄 더블류 독시	
14	앨 톰 페리	
15	마빈 제이 에쉬튼, 데이비드 비 헤이트, 크리 엘 코포드	
16	고든 비 힐클리(신권 모임)	
21	에일리 에이치 클라이드	
29	고든 비 힐클리(신권 모임)	
31	고든 비 힐클리(신권 모임)	
32	토마스 에스 몬슨(일요일 오전 모임), 앨 러셀 벨라드, 에이치 빌란 앤더슨	
33	마빈 제이 에쉬튼, 데이비드 비 헤이트	
35	데이비드 비 헤이트	
38	고든 비 힐클리(신권 모임)	
41	토마스 에스 몬슨(신권 모임)	
43	달린 에이치 옥스	

1992년도 초등학교

말말반 제1과정

공과	연사
1	하워드 더블류 헌터
2	리차드 지 스코트, 찰스 디디에이
3	조셉 비 위스린
4	그레이엄 더블류 독시, 보이드 케이 패커
6	조셉 비 위스린
9	에일리 에이치 클라이드
11	토마스 에스 몬슨(일요일 오전 모임)
17	고든 비 힐클리(일요일 오전 모임)
18	조셉 시 유른, 홀리오 이 다빌라
19	가드너 에이치 러셀
21	마빈 제이 에쉬튼
22	앨 톰 페리
23	보이드 케이 패커, 제임스 이 파우스트, 그레이엄 더블류 독시
24	고든 비 힐클리(일요일 오전 모임)
25	닐 에이 맥스웰, 조지 아이 캐넌
26	조셉 비 위스린, 에일리 에이치 클라이드
27	고든 비 힐클리(일요일 오전 모임), 러셀 엠 넬슨
29	조셉 비 위스린
34	조셉 비 위스린
36	앨 톰 페리
37	테드 이 브루어른, 조지 아이 캐넌
39	토마스 에스 몬슨(일요일 오전 모임)
41	조셉 비 위스린
42	앨 톰 페리
43	앨 톰 페리
45	리차드 지 스코트

장미반 제1과정

공과	연사
1	테드 이 브루어른
2	고든 비 힐클리(일요일 오전 모임), 로버트 엠 백맨
3	에일리 에이치 클라이드
4	보이드 케이 패커, 그레이엄 더블류 독시
5	달린 에이치 옥스
7	하워드 더블류 헌터, 러셀 엠 넬슨
8	에이치 빌란 앤더슨
10	고든 비 힐클리(일요일 오전 모임), 앨 톰 페리
12	리차드 지 스코트
14	고든 비 힐클리(신권 모임)
17	에일리 에이치 클라이드

18	고든 비 힐클리(일요일 오전 모임), 조셉 비 위스린
19	닐 에이 맥스웰
21	보이드 케이 패커, 프랜시스 엠 기번즈
22	마빈 제이 에쉬튼, 제임스 이 파우스트
23	보이드 케이 패커, 찰스 디디에이
24	앨 톰 페리, 조지 아이 캐넌
25	달린 에이치 옥스
26	앨 러셀 벨라드, 조지 아이 캐넌
27	조셉 비 위스린, 가드너 에이치 러셀
29	달린 에이치 옥스, 조셉 비 위스린
31	달린 에이치 옥스
32	달린 에이치 옥스, 그레이엄 더블류 독시
33	조셉 비 위스린
34	조셉 비 위스린
35	달린 에이치 옥스
36	리차드 지 스코트
37	고든 비 힐클리(일요일 오전 모임)
38	달린 에이치 옥스, 앨 러셀 벨라드
40	마빈 제이 에쉬튼, 앨 톰 페리
41	토마스 에스 몬슨(일요일 오전 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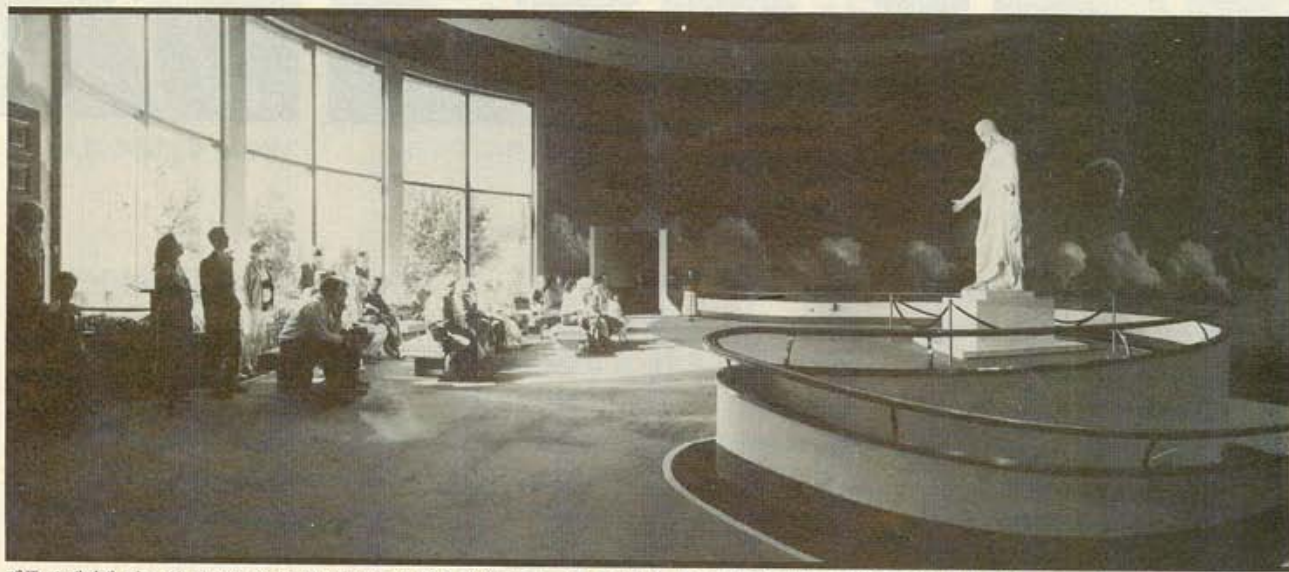
월계반 제1과정

공과	연사
1	하워드 더블류 헌터
2	리차드 지 스코트, 로버트 엠 백맨
3	러셀 엠 넬슨, 조지 아이 캐넌
6	토마스 에스 몬슨(일요일 오전 모임), 에이치 빌란 앤더슨
7	달린 에이치 옥스
9	앨 러셀 벨라드
13	리차드 지 스코트
14	에이치 빌란 앤더슨
19	고든 비 힐클리(일요일 오전 모임)
20	가드너 에이치 러셀, 조셉 시 유른
21	러셀 엠 넬슨, 테드 이 브루어른
22	고든 비 힐클리(일요일 오전 모임), 달린 에이치 옥스
23	고든 비 힐클리(일요일 오전 모임), 리차드 지 스코트
25	제임스 이 파우스트, 달린 에이치 옥스
26	닐 에이 맥스웰, 달린 에이치 옥스
28	고든 비 힐클리(일요일 오전 모임), 에일리 에이치 클라이드
29	찰스 디디에이
31	고든 비 힐클리(일요일 오전 모임), 에일리 에이치 클라이드
32	에일리 에이치 클라이드
33	토마스 에스 몬슨(일요일 오전 모임)
34	조지 아이 캐넌
38	조셉 비 위스린
41	토마스 에스 몬슨(일요일 오전 모임), 에일리 에이치 클라이드
42	리차드 지 스코트, 조지 아이 캐넌
46	앨 톰 페리

복지 사업

주제	연사
사랑	에일리 에이치 클라이드
자녀학대	토마스 에스 몬슨(일요일 오전 모임)
복지 원리	앨 톰 페리, 조셉 비 위스린
대로 생활	
함	
근경한 처한 고든 비 힐클리(일요일 오전 모임)	
사람들을	
구조함	
가장의 책임	고든 비 힐클리(신권 모임)

복지에 관한 특별한 주제와 관련된 대회 말씀은 신권회와 상호부조회 지도자들이 복지 원리와 정 책을 가르치고 실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템플 스퀘어에 있는 북 방문자 센터에서 관광객들과 대회 참석자들이 교회 회원들의 생활에 미치고 있는 구세주의 중요성에 대해 말하고 있는 안내자의 설명을 경청하고 있음. 우주의 전경이 그리스도 상의 배경을 이루고 있음.

네 명의 칠십인이 해임됨



에이치 벌란 앤더슨 장로



프랜시스 엠 기번즈 장로



가드너 에이치 러셀 장로



조지 아이 캐넌 장로



로버트 케이 델린바흐 장로



스티븐 디 네이돌드 장로



하트만 렉터 이세 장로



쿨린튼 엘 커틀러 장로

네명의 칠십인 제이 정원회 회원들이 5년 반 동안의 충실한 봉사를 끝내고 10월 5일 해임되었으며, 본부 청남 회장단과 주일학교 회장단의 보좌들이 새로 지지받았다.

이러한 조치는 교회의 제161차 반연차 대회의 토요일 오후 모임에서 취해졌다.

칠십인 제이 정원회의 에이치 벌란 앤더슨 장로, 조지 아이 캐넌 장로, 프랜시스 엠 기번즈 장로, 가드너 에이치 러셀 장로가 해임되었다.

네 명의 형제들은 1986년 4월 6일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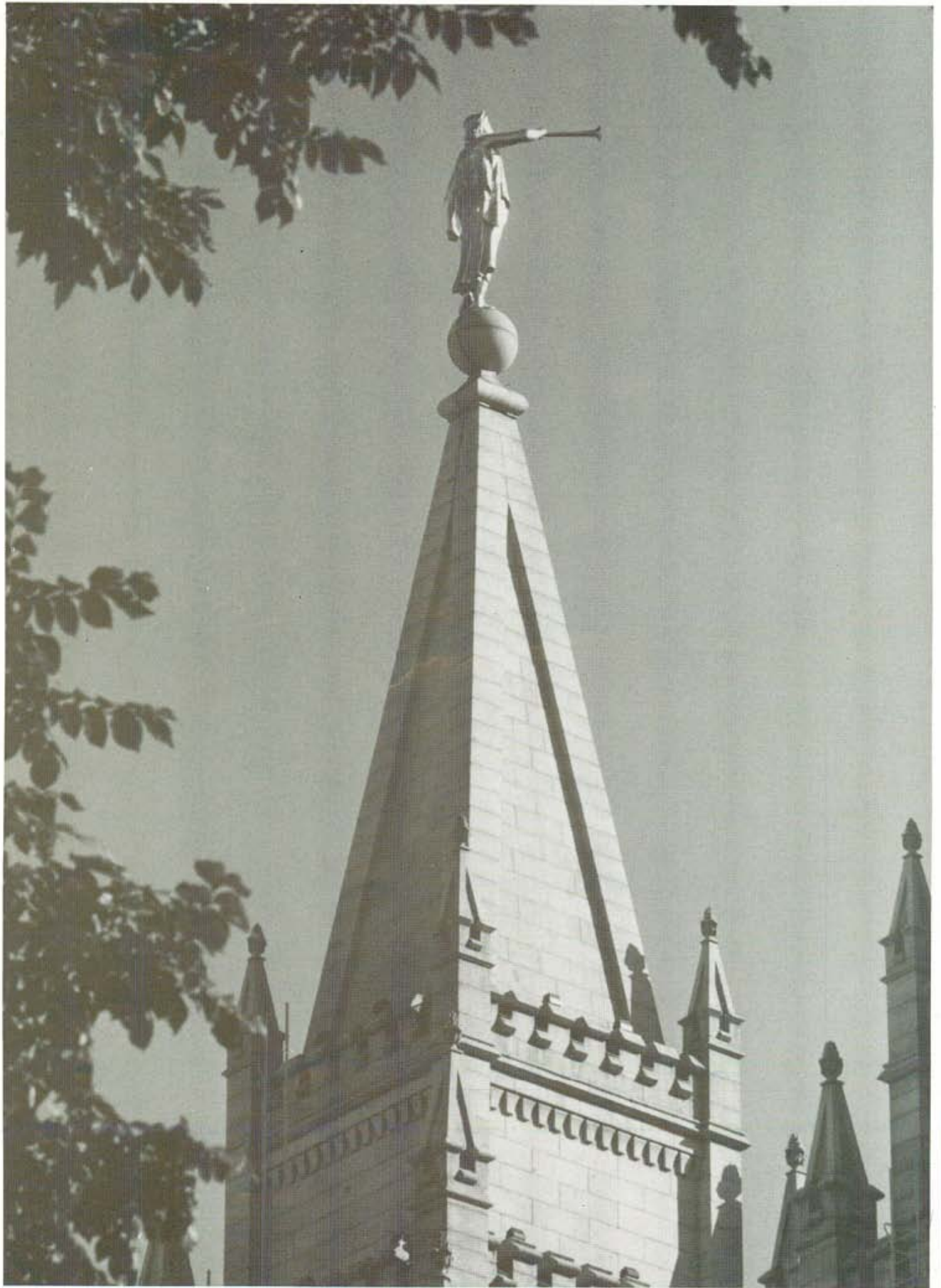
지지받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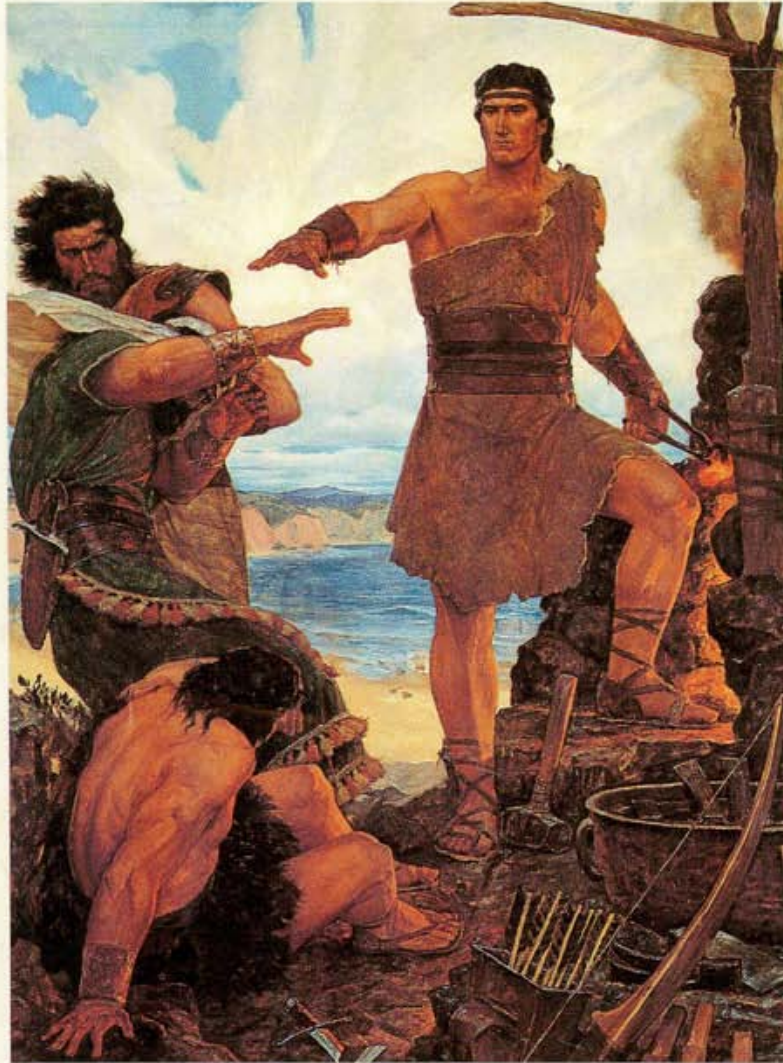
유타주 로간 출신의 에이치 벌란 앤더슨 장로는 브리감 영 대학교에서 학사 학위를, 그리고 하버드 대학교에서 법률학 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공인 회계사로서 브리감 영 대학교의 회계학 교수로 재직했다. 칠십인 정원회 회원으로서 앤더슨 장로는 본부 주일학교 회장단의 보좌와 유타 중부 지역 회장단의 보좌로서 봉사하였다.

솔트레이크시티 출신의 조지 아이 캐넌 장로는 브리감 영 대학교를 졸업하였으며

전에 생명 보험 회사의 부사장이었다. 칠십인 정원회 회원으로 부름받기 전에 캐넌 장로는 선교부장 및 지역 대표, 스테이크 부장, 그리고 축복사로 봉사하였다. 칠십인 정원회 회원으로 부름받은 뒤에 캐넌 장로는 필리핀, 마이크로네시아 지역과 북아메리카 남서 지역 회장으로 봉사하였다.

프랜시스 엠 기번즈 장로는 애리조나 주 세인트 존스에서 태어났다. 스탠포드 대학교를 졸업하였으며, 유타 대학교에서 법률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기번즈





리 하이와 그의 백성들이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여 새로운 삶을 살았듯이, 우리도 새해를 맞아하여 주님께서 맡일의 주님의 종들을 통해 주시는 계명에 따라 생활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종들의 권고는 1991년도 10월 반연차 대회에서 하신 말씀으로 이 잡지에 모두 실려 있습니다. 순종하는 마음과 신앙을 갖고서 우리는 니피아가 형제들에게 한 다음 말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내게 만사를 다 행하라고 이르신 것이라면 내가 능히 이를 수 있으리라"(니파이일서 17:50)